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1

- 증도면 편 -

2006. 9.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신 안 군

책을 내면서

이 책은 신안군의 연구지원을 받아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가 2006년 1월부터 2006년 9월에 걸쳐 수행한 『島嶼 文化遺蹟 地表調査 및 資源化 學術用役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의 최종 성과품 증도면 편이다.

지금까지 신안군 도서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1960년대에 민속학 관련 현지조사를 정리한 『한국민속종합보고서(전남 편)』(1969)가 있고, 1970년대에는 도서지역의 인문사회 관련 통계를 정리한 『도서지(島嶼誌)』(내무부, 1973) 등을 통해 부분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1987년에 비로소 신안군 전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성과는 『新安郡의 文化遺蹟』(목포대학 박물관·신안군)으로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신안군의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으나, 19세기 이전에 조성된 것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근현대의 문화자원이 누락되어 다소 제한적인 연구였다.

이번에 우리 연구소에서 실시한 본 작업은 신안군의 모든 읍면과 부속도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연구대상에 있어서도 연대 제한 없이 모두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문화유적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원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 하겠다. 이런 목적의식 아래 본 지표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지표조사의 성과를 그대로 미래산업, 즉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문화재’를 뛰어 넘어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문화에 주목한 까닭은 문화재는 자연의 공공재들과 함께 권역과 ‘자연-인간’의 총체성, 즉 문화에 바탕을 두고 보존·활용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자원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문화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문화에 토대를 둔 문화론적 지역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전방위적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고유의 삶과 문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되거나 소멸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개발의 논리에 밀려 문화자원 역시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다. 심지어 무엇이 의미 있는 문화자원인지도 모른 채 사라져 버리기도 하였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방관과 포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선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수집·보존하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이를 지역활성화와 연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자원의 보존을 쉽게 하는 길일 뿐 아니라, 문화산업의 원천자료를 제공하는 투자의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지표조사는 “문화자원을 보존하며 동시에 활용하고”, “활용하며 동시에 보존하는”, 이른바 <보존과 활용>의 상승효과를 올리는데 주목하였다. 이는 대립 개념인 ‘보존과 개발’을 상보개념으로 재정립해냄으로써 신차원의 개발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섬만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이 해양의 시대에 각광 받는 문화관광지가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풍부한 섬의 문화자원이 있다 해도 그저 흩어져 있다면 별 의미가 없다. 이번 작업은 그런 점에서 흩어져 있는 구슬들의 존재를 파악해서 이를 가장 아름답게 꿰어 그 상품가치를 최대화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작업은 섬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의 소재들을 찾아내고 이를 문화자원화 함으로써 문화 및 관광산업에 창조적 원료를 제공해 주는 일이었다.

지표조사는 먼저 자연 및 생태자원, 선사 및 역사문화자원, 민속생활문화자원, 사회문화자원, 문화관광자원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주요 자원을 선별하고 각 분야 나름의 특성을 반영한 활용방향을 제안하였다. 그 다음 이런 지표조사의 결과 및 제언을 수용하여 문화유적의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특히 자원의 현장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독특하면서 매력적인 자원화 기본구상을 작성함으로써 이번 지표조사의 성과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이번 작업은 주로 인문 분야에서 행하던 지표조사의 결과를 사회과학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상품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다.

이번 작업은 지도읍, 중도면, 임자면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섬들의 문화적 차이와 특징을 뚜렷이 비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독창적인 자원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이 작업이 신안군 전체의 문화관광 계획을 새로운 차원에서 일신하는 토대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신안군 측에 깊이 감사드리며, 연구책임을 맡은 김경옥 교수를 위시로 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이끌어낸 공동연구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 올린다.

2006년 9월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장 강 봉 룡

목 차

책을 내면서 ——— 3

연구개요 ——— 9

I. 자연자원 13

1. 지형·지질·경관문화자원 ——— 13

1) 지형·지질·경관문화자원 목록 ——— 13

2) 지형·지질·경관문화자원 현황 및 활용방안 ——— 13

2. 생태문화자원 ——— 27

1) 생태문화자원의 목록 ——— 27

2) 생태문화자원의 현황 ——— 27

3) 생태문화자원의 활용방안 ——— 34

II. 선사 및 역사문화자원 35

1. 선사문화자원 ——— 35

1) 선사문화자원 목록 ——— 35

2) 선사문화자원 현황 ——— 35

3) 선사문화자원 활용방안 ——— 35

2.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 ——— 36

1)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 목록 ——— 36

2)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 현황 ——— 36

3)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 활용방안 ——— 40

3. 유교문화와 금석문화자원 ——— 42

1) 유교문화와 금석문화자원 목록 ——— 42

2) 유교문화와 금석문화자원 현황 ——— 42

3) 유교문화와 금석문화자원 활용방안 ——— 46

III. 민속생활문화자원	53
1. 갯벌 어로 민속지 ———	53
1) 갯벌어로 도구 ———	53
2) 갯벌 인지와 어로공간 ———	56
3) 갯벌 어로 활동의 주체 ———	57
4) 갯벌 어족자원과 어로활동 ———	58
5) 갯벌 생태의 변화와 어로활동의 쇠퇴 ———	62
2. 설화와 민요 ———	63
1) 설화와 민요의 목록 ———	63
2) 설화와 민요에 대한 해설 ———	65
3) 설화와 민요의 활용방안 ———	119
3.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	122
1)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목록 ———	122
2)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현황 ———	124
3)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활용방안 ———	184
IV. 사회문화자원-갯벌과 염전-	196
1. 사회문화자원 목록 ———	196
2. 사회문화자원 현황 ———	196
3. 사회문화자원 활용방안 ———	204
V. 증도 문화관광 진흥방안-	206
1. 증도의 개요 ———	206
2. 관광자원 현황 ———	207
3. 관광자원화 방안 ———	212
□ 전체 문화자원 분포도 ———	223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점차 소멸되어 가는 신안군의 각종 유·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표조사를 수행하여 문화유적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 정리하여 디지털 자료화한다.

○ 도서 문화유적의 자원화

총체적으로 파악된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장·단기 전승·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문화자원화하여 장·단기 관광자원 및 상품화 계획을 수립한다.

2. 연구의 기본방향

-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문헌조사, 현지방문조사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파악한 자료를 D/B화한다.
- 기존의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자연자원을 초기에 면밀하게 문헌, 지표, 그리고 현장을 조사하여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전승·보전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의 집중화를 기한다.
- 수집된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보존 및 관광상품화를 통해 신안군의 문화관광사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21세기 바다의 시대, 해양의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다도해 문화관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연구 대상지역은 지도읍, 중도면, 임자면이다.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 유·무형문화재 관련 문헌 및 도서(읍면) 현장방문 지표조사

○ 유·무형문화재 구전기록 및 현장 영상기록(사진, 영상 디지털화) 보전 병행

○ 조사된 문화자원에 대한 장단기 전승·보존 계획 수립

- 조사가 완료된 읍면의 유산 중 학술적 가치나 전승 및 보전이 필요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국가, 도, 향토자료로 지정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자료를 확보한다.
- 자연 및 문화유산에 대한 유형별 분류 및 장단기 전승·보전 계획 수립한다.
- 관련 자료의 매뉴얼화 및 CD-ROM, 스크랩 제작을 시도한다.
- 유형문화, 구비전승, ㄱ, 당제, 고인돌, 독살, 해조류 번식지, 어구어법 등의 모든 자료를 원형대로 디지털 자료화한다.
- 문화관광지도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수집된 문화자원의 위치도를 지도에 표기한다.

○ 조사된 문화자원의 장·단기 관광상품화 계획 수립

- 도서(섬)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자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 군민 스스로가 문화적 정체성 및 문화적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테마별로 기획하여 상품화한다.
- 문화관광 상품 및 자원을 대외에 홍보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나 학술토론 등을 개최한다.

4. 연구의 의의

○ 문화유적의 현황만을 파악하는 기존의 지표조사와는 다른 자원화를 위한 지표조사

- 지표조사의 성과는 그대로 미래산업, 즉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자료로 활용한다.
- 섬의 문화자원에 대하여 콘텐츠 위주의 발전 전략을 세우고, 문화재를 뛰어 넘는 문화자원으로서의 문화에 주목한다.
- 섬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의 소재들을 찾아내고, 이를 문화자원화 함으로써 문화 및 관광산업에 창조적 원료를 제공한다.
-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자원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문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존과 조화를 이루고 문화에 토대를 둔 문화론적 지역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한다.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문화관광자원 개발

- 주로 인문학 분야에서 행해 왔던 지표조사의 결과를 사회과학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상품화하고 문화적 창조성을 지닌 자원화 기본구상을 제안한다.

○ 지표조사의 집중화 · 체계화 · 디지털화

- 기존 조사와 연구에서 누락되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화자원에 대한 철저하면서도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표조사의 본래적 의미에 충실히 수행한다.
- 자원의 현장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독특하면서 매력적인 자원화 기본구상을 작성함으로써 지표조사의 성과가 새롭게 탄생하도록 시도한다.
-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제적 응용 및 디지털 자료화로 구축한다.

5. 기대효과

- 신안군내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계승 · 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한다.
- 문화관광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문화콘텐츠라는 문화산업의 원천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신안군의 문화 역량 강화의 실질적 계기를 마련한다.
-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개념을 조화시킴으로써 <보존과 활용>이라는 대립적 개념을 상보개념으로 재정립시킴으로써 문화론적 지역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 21세기 신해양의 시대에 새롭게 펼쳐질 해양문화관광의 신세계를 맞을 토대를 제공한다.

6. 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 김경옥(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역사학전공)
- 공동연구원 문병채(전남대 지리학전공 겸임교수, GIS전공)
홍선기(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생태학전공)
이현중(목포대 역사문화학부 고고학전공 교수, 고고학전공)
최성환(신안문화원 사무국장, 목포대 대학원 박사과정, 역사학전공)
홍순일(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 연구교수, 구비문학전공)
나승만(목포대 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민속학전공)
이윤선(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민속콘텐츠전공)
김 준(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사회학전공)
김형서(대불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관광경영학전공)
- 연구보조원 이은정(목포대 대학원 박사과정, 역사학전공)
송기태(목포대 대학원 박사과정, 민속학전공)

최미영(목포대 대학원 석사과정, 기록관리학전공)
박정원(목포대 대학원 석사과정, 생물학전공)
이혜연(목포대 대학원 석사과정, 고고학 전공)
조원중(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사회교육전공)
정홍일(목포대 역사문화학부 4, 역사학 전공)
이수미(목포대 역사문화학부 4, 고고학전공)
송장선(목포대 역사문화학부 4, 고고학전공)
양나영(목포대 국어국문학과 4, 국문학 전공)
이혜숙(목포대 국어국문학과 3, 국문학 전공)
김해미(목포대 국어국문학과 3, 국문학 전공)
최유미(목포대 국어국문학과 3, 국문학 전공)
김찬희(목포대 국어국문학과 3, 국문학 전공)
조인경(목포대 역사문화학부 3, 문화인류학 전공)
최영민(대불대 관광경영학과 3, 관광경영학 전공)

I. 자연자원

1. 지형·지질·경관문화자원

1) 지형·지질·경관문화자원 목록

구 분	번호	자 원 명	주 소(위치)	규모 및 사양
지형과 지질	1	증도의 원지형	증도 전역	면적 26.36km ²
	2	증도의 간척지 모습	"	면적 9.21km ²
	3	증도의 자연특색	"	
	4	우전해수욕장		길이4km×폭100m
	5	증도의 풍수	증도 전역	
	6	기암괴석 ‘병풍바위’	병풍리 서북쪽 끝	
	7	다리경관 ‘연도교’	지도~사옥	660m
경관자원	8	태평염전과 소급집		
	9	갯벌생태전시관		
	10	증도 낚시터	안섬, 도덕도, 병풍도 등	
	11	엘도라도 리조트		

2) 지형·지질·경관문화자원 현황 및 활용방안

(1) “삶의 터전”의 시대별 원형

증도의 삶의 터전 즉 생활공간 변화는 크게 2가지 힘에 의해서 변화해왔다. 해수에 의한 모래퇴적 등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와 간척사업과 같은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의 변화가 그것인데, 특히 주민이 거주하면서부터 이루어진 변화는 간척활동에 의한 변화가 매우 컸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과거 간척기술(제방축조 형태 및 기술)을 알 수 있으며, 시기별 섬면적, 해안선모습, 해류와 조류 흐름, 해로, 어장형성 및 변화를 짚어볼 수 있으며, 시대별 거주지(마을형성) 위치와 포구(선착장) 위치 및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① 증도의 초기 “지형”

원래의 증도는 다른 서남해 섬과 마찬가지로 약 15,000년 전에는 전남 내륙과 연륙(連陸)되어 있었고, 그 후 해수면 상승과 함께 약 2,000년 전에야 비로소 현재와 같은 섬으로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도 역시 연구결과 6천년 전 얼마간은 해발 10m 정도까지 미쳤고, 석기시대 이후는 10m

<표> 간척이전의 증도의 규모

구분 \ 내용	총 면적(km ²)	전체둘레(km)
간척 이전	26,356,757	156,976

이 때 증도는 약 26.4km²로 현재(35.6km²)에 비해 약 9km²가 작은 섬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현재의 대략 3/4규모). 또한 당시 해안선은 매우 구불구불해 현재보다 훨씬 길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의 해안선 길이 156km로 현재의 122km에 비해 약 34km가 더 긴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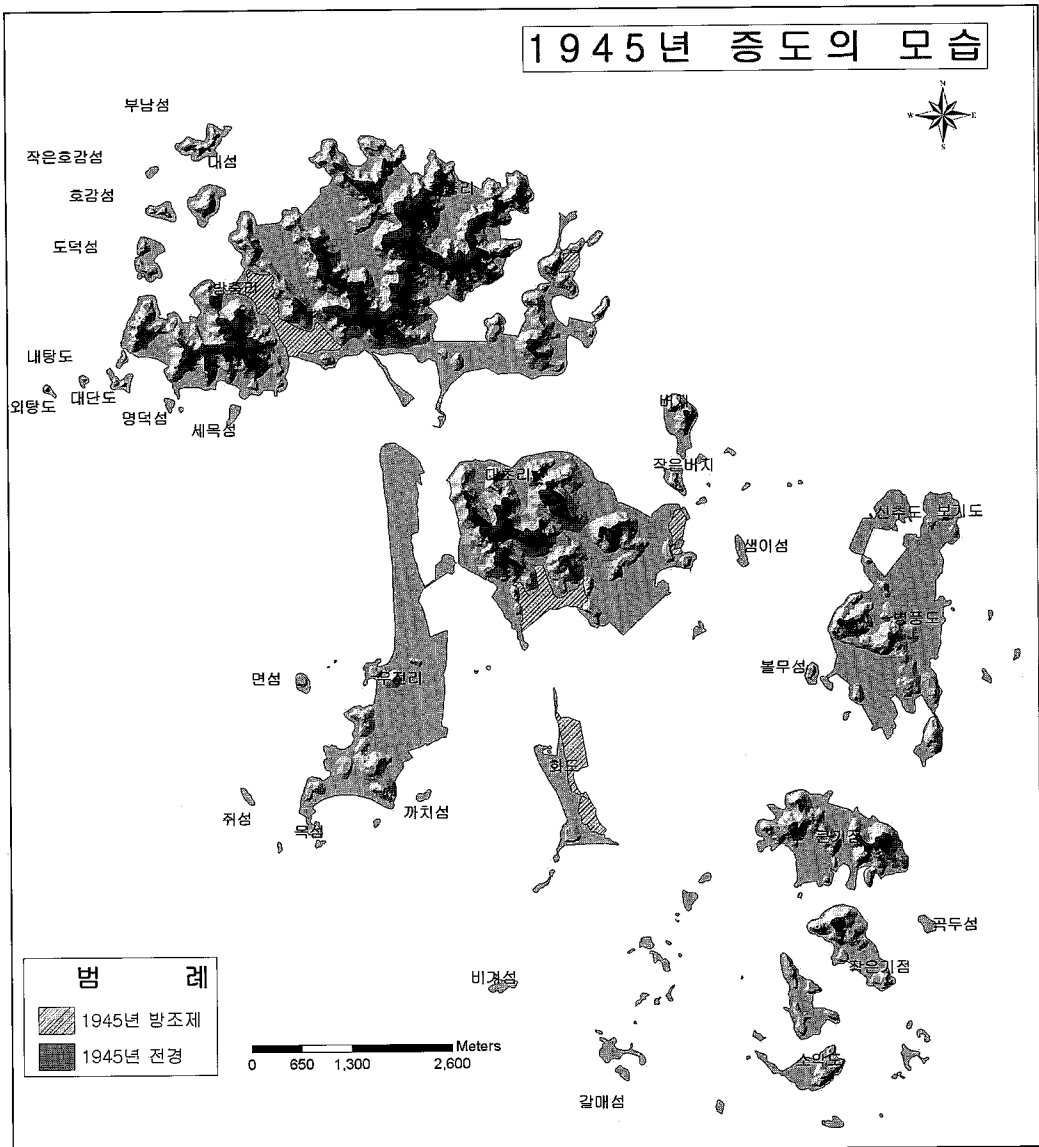
② 1945년 경의 증도 모습

증도의 초기 지형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조류와 파도에 의해 쌓여 퇴적된 모래언덕이 형성되어 감에 따라 이들 크고 작은 섬들이 서로 연결되어갔다. 또한 풍랑과 바람에 의한 모래퇴적 역시 주위의 크고 작은 섬들을 하나로 만들어 갔다. 이러한 퇴적작용은 북서쪽에서 활발했고, 상대적으로 퇴적이 적게 일어난 내륙 깊숙한 만(灣)이나 남서쪽 해안은 간척지화가 되어 갔다. 이러한 자연퇴적에 의한 영역 확대와 더불어 조선시대 이후 부터 시작된 간척활동은 가장 활발했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자연경관 모습을 크게 바꿔 놓았다. 실제로 1945년까지 이루어진 1.4km²의 면적이 확대되었다. 1945년도의 증도 면적은 대략 27.7km², 해안선 길이는 229km 정도 되었던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연퇴적과 간척활동은 크고 작은 여러 섬들을 상호 연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주가능한 낮은 구릉지 형성, 경작지 조성 가능 등을 가져오게 되어 주민들의 경제활동 공간을 확대 시켰다고 보겠다. 또한 자연퇴적은 선사시대 유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갖게 해 이러한 분야 연구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곳은 아마 천혜의 피난처와 경제적인 풍부함, 거주가능 공간 등의 기반을 갖춘 장동 일대에서 구석기 유물을 찾아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들이다.

<표> 1945년의 증도 규모

구분 \ 내용	총 면적(m ²)	총 해안선 길이(m)	간척면적(m ²) (1900~1945)
1945년	27,710,602	228,700	1,353,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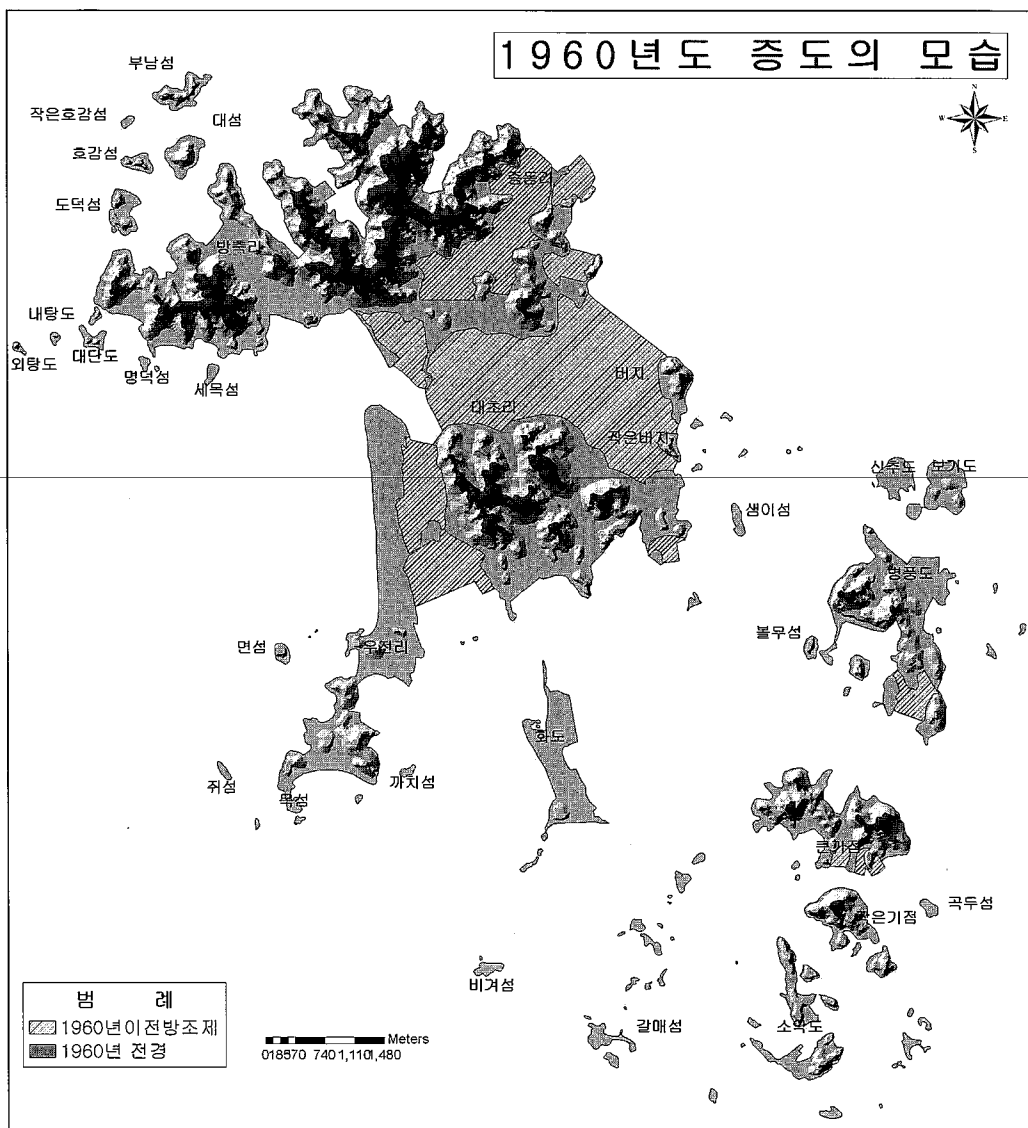


③ 1960년대와 현재의 증도 모습

일제시대부터 도입된 현대적 토목공법은 해방 후 더욱 진전된 기술로 보다 규모가 큰 간척사업을 가능하게 했고, 증도에서도 예외 없이 이러한 기술에 의해 대규모 간척사업이 진행되어 이 시기에 도 자연경관을 크게 변화시켰다. 또한 간척사업에 관한 법령·제도 등이 마련되는 등 체계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이때부터 증도 지역은 본격적인 간척사업이 진행되었다. 해방 직후 경제적 불황과 국가의 재정난 등으로 잠시 미진했으나, 한국전쟁 이후에는 유입된 외원에 힘입어 간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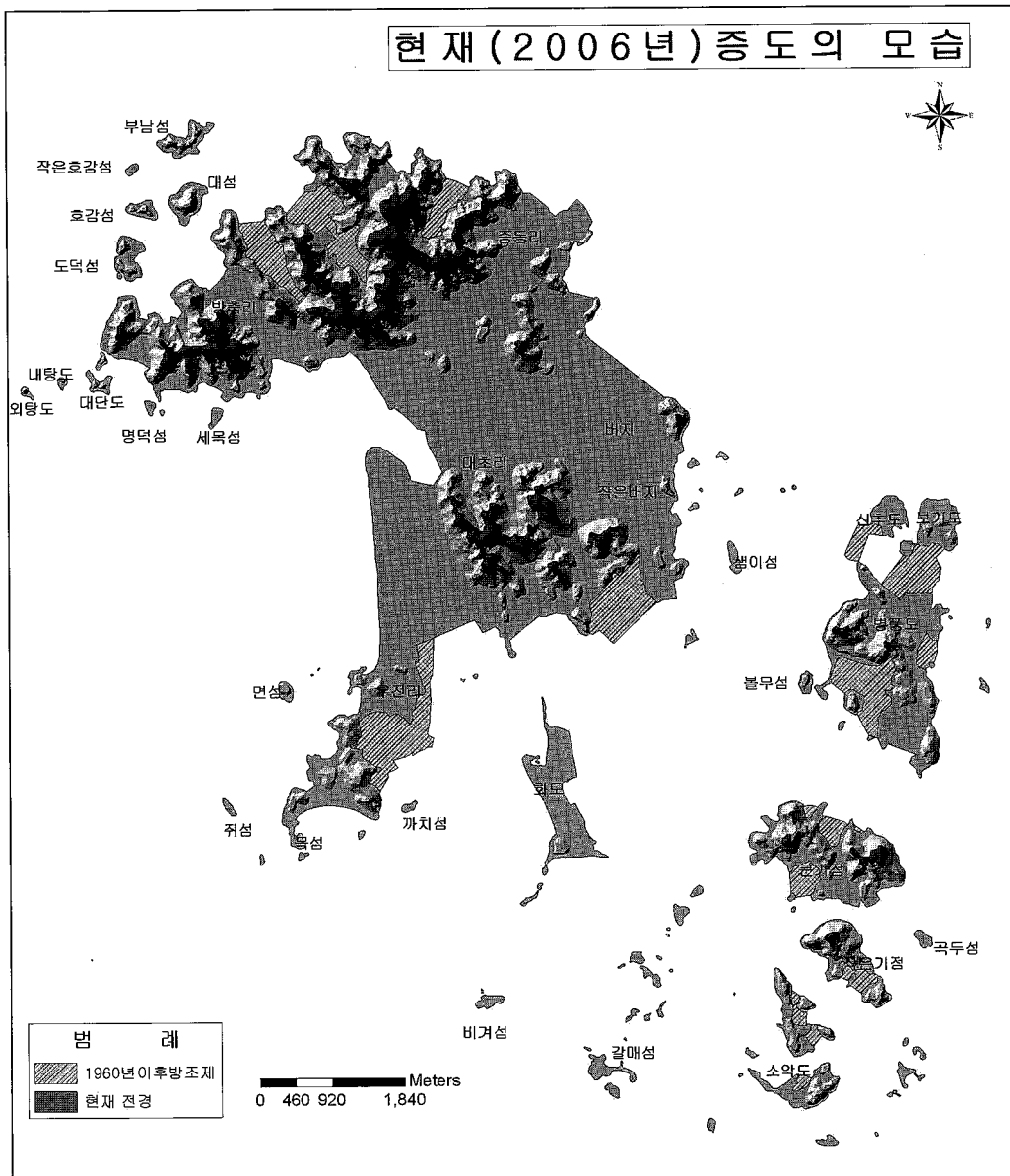
그 결과는 섬의 모습을 크게 바꾸었으며, 중도가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게 했다.

구분 \ 내용	총 면적(m ²)	총 해안선 길이(m)	간척면적(m ²) (1945~1960)
1960년	7,070,617	137,511	7,856,982



〈표〉 현재(2006)의 증도 규모

구분 \ 내용	총 면적(m ²)	총 해안선 길이(m)	간척면적(m ²) (1960~2006)
2006년	35,568,080	121,551	3,591,950



(2) 증도의 지형지세

목포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있다. 주위에는 지도·임자도·자은도를 비롯해 병풍도·화도·큰기점·작은기점·사옥도 등이 있다. 최고봉은 섬의 북쪽에 있는 200m의 산이며 그밖에 대부분의 지역은 100m 내외의 구릉지와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대초리와 우전리는 대초도라는 별개의 섬이었으나 1호방조제와 버지방조제, 그리고 태평염전(4.90km²)이 개발되면서 연결되었다. 해안은 곳곳에 소규모의 만과 갯이 있으며, 간석지가 발달해 있다. 최근 방조제 공사로 공유수면을 매립해 경지와 염전으로 변모되었다. 취락은 우전리·대초리·방축리·증동리의 해안과 구릉지에 분포한다. 총면적은 28.19km², 해안선 길이 46.5km, 인구 2,134, 736가구(1997)가 살고 있다.

(3) 모래가 고운 우전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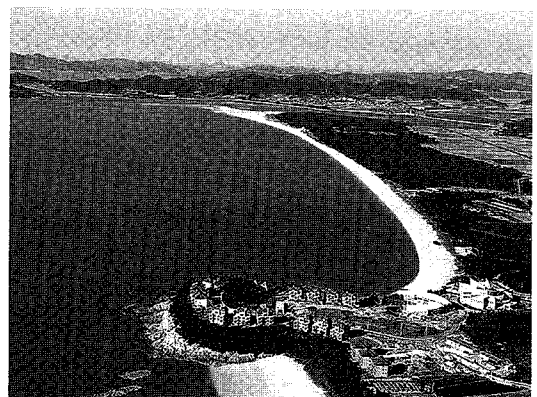
우전해수욕장(길이4km×폭100m)은 수평선이 일품이며 천혜의 백사장에서는 들물 때는 해수욕을, 썰물 때는 머드를 즐길 수 있으며, 백합 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관광 또한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좌측으로는 갯벌과 잘 어우러져 있고 주위에는 해송과 해당화가 곳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크고 작은 해송들의 그늘이 있고 입자가 고운 모래사장 등이 발달되어 있다. 바위가 절경이고 이어서 제 2와 3의 작은 해수욕장이 연결되어있고 주변에 작은 섬들이 어우러져있다. 이곳 갯바위에는 송어배가 정박하는 곳이며 송어축제는 매년 6월 20일 경 우전청년회 주관으로 잔디구장 인근에서 먹거리 축제가 개최되기도 한다.

또한 증도와 우전해수욕장을 잇는 짙뚱어 다리가 최근 완공되어 낚시등 각종 갯벌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뛰어난 잔디구장이 있어 각종 체육행사가 열린다. 그리고 남쪽 자은면 방향으로 아름다운 섬들을 구경하면서 갯바위 낚시를 즐길 수도 있는 곳이 많다.



증도면 관광 안내도



엘도라도 리조트와 우전해수욕장

해수욕장 주변에는 고사리, 순비기 등 각종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식물들. 백사장에는 유명한 백합 조개·맛조개(대맛)·동죽(불통지개)·참울등 각종 조개류가 많으며 최근에는 특히 소라가 많이 잡히고 있다.

해송군락지는 50여년전 해풍을 막으려고 이곳 주민들이 조성하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 지도를 빼어 닮아 방송을 통하여 여러 차례 보도 되었으며, 사진작가들이 사진 촬영 차 많이들 찾는 곳이다.

그리고 북쪽의 방축리 앞바다의 도덕도 해역에서는 600여 년간 바다에 잠겨있던 중국 송·원대의 유물이 수없이 발굴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적도 있다.

(4) ‘시루섬’의 재미있는 풍수

중도는 옛 부터 물이 귀한 곳이라 하여 시리섬(시루섬)이라 불려왔으며, 대초도는 후중도 앞에 마을이 있다하여 앞시리라 불렀고, 후중도는 전중도 뒤에 마을이 있다하여 뒷시리라 불려져 오다가, 대초도와 우전리 사이에 제방이 축조되어 하나의 섬으로 합해지면서 전중도라고 부르게 되었고, 다시 전중도와 후중도가 하나의 섬으로 합해지면서 중도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법정리는 크게 5개리로 구성되어 있다.

시루하면 바닥에 구멍이 여러개 뚫려있어 물을 부어도 물이 빠져나가 버리는 게 바로 시루이듯 덕정리의 유래에 앞시리(대초도)와 뒷시리(중동리)의 두개의 시루가 있어도 솔이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해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솔이 있어야 한다하여 마을 이름을 덕정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물이 빠져나가버리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뜻으로도 풀이가 되며, 한자어로는 솔 정자이다.

중도의 중(曾)자는 한자어로 일찍 중자인데, 물을 담은 밑바닥 부분과 구멍이 뚫린 깔개와 김이 오르는 모양의 글자로 이루어지며 시루를 본떠 만든 글자로서 시루중(甕)의 본디 글자라고들 한다.

중도는 크게 3개의 섬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하나의 섬으로 합해지면서 중도라고 불려 지게 되었는데, 일찍 중자는 더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어서 섬과 섬을 합하였다는 의미로도 풀이되며, 오래전에는 시루중자 라고 불렀다 한다.

그래서 중도는 물이 귀한 섬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시루와, 섬과 섬을 합하였다는 의미와, 도자는 한자어로 섬도자를 사용하여 지은 중도라는 지명으로 지금까지 부르게 된 것 같다.

(5) 병풍바위와 신선바위

병풍리 마을 서북쪽 끝에 있는 산의 해안절벽을 말한다. 이 곳은 바닷물과 북서 계절풍에 의해 깎이고 부서져 그 모습이 마치 병풍처럼 보인다 하여 병암이라 부르다가 이후(일제시대) 병풍이라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랜 옛날 병풍처럼 펼쳐진 병풍바위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하늘나라 신선이 이곳에 자주 내려와 바둑과 장기를 즐기며 놀게 되었는데, 그 후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되어 이곳에 오래 살게 되었으며 그 신선께서 섬 이름을 병풍도라 하사하였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지금도 그 신선들이 바둑과 장기를 즐기고 놀았던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신선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이 외에도 효자암, 오징어바위, 장미바위, 진등곶바위, 왕바위 등 기암괴석이 해안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고, 경관자원 자원으로 가산명동, 용소부연, 지당춘조, 수림숙조, 가산락조, 한산모종, 상암단운, 월포귀범 등의 팔경을 이루고 있어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섬이다.

(6) “다리(橋梁)” 경관

지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임자도와, 남쪽으로 사옥도, 증도, 그리고 자은도까지를 잇는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이 완공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어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이들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은 총 4개소, 총연장 7,610m, 사업비 5,55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중 1개소(지도-사옥)가 완공되었고 나머지 3개 사업은 공사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



증도 연도교 조감도

<표 2> 연륙·연도교 사업추진 현황

구분	사 업 명	연장(m)	사업비(억원)	비 고
1	지도~사옥	660	474	완공
2	지도~임자	1,850	1,945	설계완료
4	사옥~증도	900	650	공사중
5	증도~자은	4,200	2,483	-
총계	4개소	7,610	5,552	

설계안에 의하면, 각 요소별로 특색있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전망이 좋은 시작점에는 일종의 썸지공원 형태인 ‘다리공원’이 설계되어 있어 앞으로 핵심적 관광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7) ‘태평염전과 소금집’의 경관

증도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갯벌이 넓고 또한 진흙갯벌이 발달되어 일찍부터 천일제염업이 성행한 곳이다.

증도면에 도착하여 버지선착장을 빠져나오면 제일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우리나라 최대의 소금생산지인 광활한 태평염전이다.

이 염전은 국내 단일 최대규모의 염전지대(약 140만평)를 최초 1953년도에 척방산업(주)에서 1963년 대평염업(주)로 이어 1985년 태평염업사가 소유 관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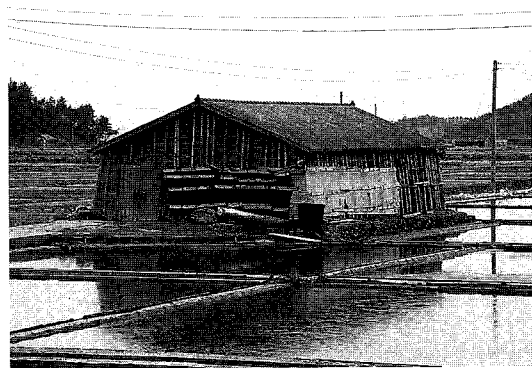
값싼 중국산 소금에 밀려 대부분의 염전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이곳 증도 태평염전은 게르마늄이 다량으로 함유된 청정해역의 갯벌 효염 덕분에 국산 천일염의 탁월한 명성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000여톤 이상의 질 좋은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어 증도인들의 소득에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염전은 소금생산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잘 갖추고 있으며, 질 좋은 태평소금이 중국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포장의 차별화를 비롯하여, 증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소금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시설 및 소금축제를 준비 중에 있다.

천일염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마대자루에 담아 1년 이상 묵히면 간수(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가 공기중에 수분과 반응하면서 자루 밑으로 빠져나가며 이 간수를 뺀 소금이 쓰지않고 맛이 좋아



태평염전



염전의 소금집

지며 건강에도 좋다. 천일염은 천일동안 바람과 햇볕에 말려야 진정한 소금이 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만큼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다.

(8) 체험이 가능한 ‘갯벌생태공원’과 ‘전시관’

중도면은 갯벌이 많은 지역으로서 갯벌은 자연을 정화시키고 수많은 생명을 키워주는 곳이며 비료를 주거나 씨를 뿌리지 않아도 언제나 넉넉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는 곳이 바로 갯벌이다.

중도 갯벌에는 인체에 유익한 게르마늄(소련위성 촬영)과 미네랄, 알긴산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피부 노화방지와 보습 효능이 뛰어나 미용에도 좋으며 갯벌을 이용하여 모 화장품회사에서 머드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이 갯벌에서는 김(해태) · 굴(석화) · 짭뽕어/말뚝망둥어 · 농게 · 칠게 · 가리맛(빨맛) · 빨낙지 · 망둥어(운저리) · 가무락(대룡) · 소라 · 각종 조계류 · 잡어 등을 비롯, 양식업(전복 · 대하 · 전어, 장어등)도 성하며, 건강에 좋은 함초 역시 염전지대 갯벌에서 자라고 있다. 주변 바다에서는 갯벌이 넓은 덕에 그 맛이 뛰어난 싱싱한 생선들..... 송어 · 송어 · 꽃게 · 간재미 · 오징어 · 민어 · 농어 등이 계절



중도갯벌생태전시관 전경



갯벌체험행사

별로 잘 잡히고 있어 많은 소득원이 되고 있다. 한 때 전라남도 5대 축제의 하나였던 게르마늄 갯벌축제를 신안군에서 추진해 오다가 교통문제로 잠정 중단하고 금년 8월에는 갯벌올림픽축제를 열었다.

그리고 이러한 천혜의 갯벌을 이용하여 중도에는 갯벌생태공원이 있어 도단위 신규 관광지로 지정하고 민자 220억, 국비 136억 계 356억을 들여 게르마늄 갯벌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중도갯벌생태전시관이 들어서 있어 세미나실, 영상실, 전시실, 갯벌체험학습실 등을 갖추고 있다.

민자유치로 조성된 엘도라도리조트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는 중도의 명물 짱뚱어다리가 있다. 이곳 밑에는 여러 바다생물이 살고 있는 천혜의 갯벌이 펼쳐져 있다. 엄마, 아빠와 손을 잡고 갯벌 체험하는 모습을 늘 볼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중도 갯벌은 최근 해양수산부 평가에서 국내 8대 갯벌 중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남도는 지난 1996년 '전남해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2000-2009년)'이다. 그리고 해양관광개발과 관련 주목을 받고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는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건설'(J프로젝트 포함)이다. 이는 섬과 해안선, 물(바다)을 잘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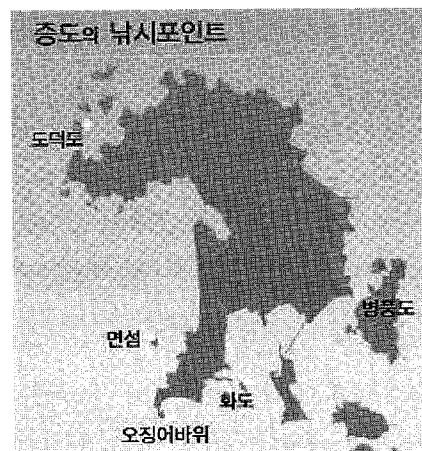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풀어줘야 할 제약도 많다. 해변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은데다 공유수면 활용 때는 어민들과 이해가 상충해 갈등이 빚어지기 일쑤다.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양식장' 등이 이용·개발에 따른 제약으로 작용한다.

(9) 중도 낚시터

중도는 섬 전역에 걸쳐 많은 포인트가 있고 어종이 다양하여 섬 어디서나 고급 어종이 잘 잡힌다. 그 중에서도 안섬, 도덕도와 병풍도는 특히 유명한데, 안섬 인근에는 최근에 엘도라도리조트가 들어서 더욱 각광받고 있다. 주요 어종으로는 농어와 돔이 잘 잡힌다.

(10) 국제적 수준의 '엘도라도 리조트'

한백R&C에서 국제적 수준의 '엘도라도리조트'를 건립하여 국내외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해양사우나(1층 : 테마탕, 머드찜질, 소금찜질), 야외노천탕(1층 : 바



중도 낚시포인트

다를 조망하여 머드테마탕, 해수탕, 온천을 즐기는), 전통불한증막, 남도 한식당, 전통해수찜, 편의시설(편의점, 노래방, PC방등), 낙조감상, 향기치료, 2층에 이탈리아 레스토랑, 해변데크, 해양레저 운영센터 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이후 관광발전에 많은 기대가 되고 있다.



엘도라도리조트

엘도라도란 말이 스페인어로 금가루를 칠한 사람이란 의미를 담고 있듯, 사방이 탁 트인 엘도라도 리조트는 모든 객실을 최상의 조망권을 자랑하는 오션뷰형태로 배치하여 서해안 다도해의 풍경을 자연 그대로 감상할 수 있다. 더욱이 낙조전망대는 황금빛 바다로 물들인 아름다운 낙조를 우리에게 선물하는 곳이다.

수영을 즐기다 맨발로 모래사장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야외수영장인 오션스파랜드가 있다. 그리고 갑판에 선베드와 내부에 침대와 탁자 등이 갖춰진 크루즈용 보트 등이 있어 해양레저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 리조트는 가족과 함께 섬과 바다를 온 몸으로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다.

부록 1

중도면의 간척활동현황(대장자료)

연번	시 도	관리구분	위치	지구명	면 적		방조제 연장	준공연도
					구역	몽리		
1	신안군	도관리	중도	광암5	146	136	935	1958
2	신안군	도관리	중도	구분포	30	20	335	1963
3	신안군	도관리	중도	대평	490	30	2,138	1957
4	신안군	도관리	중도	덕정	102	52	930	1964
5	신안군	도관리	중도	덕정앞	43	42	879	1920
6	신안군	도관리	중도	방축	60	40	326	1969
7	신안군	도관리	중도	보기	67	27	1,128	1968
8	신안군	도관리	중도	염산2	46	30	386	1971
9	신안군	도관리	중도	오산	56	56	260	1938
10	신안군	도관리	중도	우전	67	54	2,591	1963
11	신안군	도관리	중도	장고	44	40	386	1951
12	신안군	도관리	중도	장고압	121	110	986	1953
13	신안군	도관리	중도	중서	40	29	260	1956
14	신안군	도관리	중도	태도	30	22	810	1964
1	신안군	군관리	중도	광암나룻터	27	3	675	1953
2	신안군	군관리	중도	곡도	18	18	350	1951
3	신안군	군관리	중도	신추	5	5	420	1969
4	신안군	군관리	중도	소악1	4	1	373	1968
5	신안군	군관리	중도	작은기점	4	1	790	1968
6	신안군	군관리	중도	삼차	1	1	146	1968
7	신안군	군관리	중도	병풍2	9	0	90	1967
8	신안군	군관리	중도	신추앞	2	2	95	1965
9	신안군	군관리	중도	태도2	1	1	180	1967
10	신안군	군관리	중도	소악2	4	1	369	1961
11	신안군	군관리	중도	기점2	10	5	490	1961
12	신안군	군관리	중도	돌마지	9	5	366	1951
13	신안군	군관리	중도	원대초	11	10	404	1944
14	신안군	군관리	중도	노지남	20	14	873	1955
15	신안군	군관리	중도	화도2	24	4	2,559	1929
16	신안군	군관리	중도	화도1	15	5	694	1929
17	신안군	군관리	중도	병풍1	10	5	300	1961
18	신안군	군관리	중도	염산1	10	10	220	1938
19	신안군	군관리	중도	광암	11	7	200	1942
20	신안군	군관리	중도	기점1	27	6	785	1965
21	신안군	군관리	중도	집앞	21	11	964	1954

2. 생태문화자원

1) 생태문화자원의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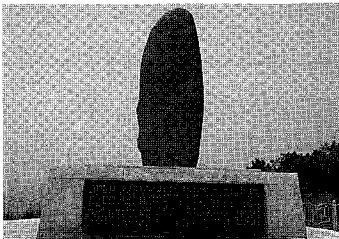
구 분		자 원 명	주 소(위치)	규모 및 사양
섬의 모습	위치와 지리	전남 신안군 북쪽 해상에 위치	E126°8 N35°8	면적 : 33.58km ² 인구 : 2,432명(2001)
	모양과 형태	옛날부터 섬 전체가 물이 없다 하여 시리섬이라 불렸으며, 전증도와 후증도가 연륙되면서 증도라 함.	목포에서 49.4km, 지도에서 해상3km 지점에 자리잡음	유인도 8개와 무인도 91개로 형성
지형과 기후	유명산	꼭대봉(돈대봉)	증동리	해발 134.4m
	기암괴석	나박바위	증동리	광암 어귀에 있는 납작한 바위
		호랑이 바위	증동리	산 중턱에 있는 바위
	유명섬	병풍도	증도면 병풍리	면적 2.5km
		화도	증도면 부속섬	증도 최남단에서 노두길 이용해서 접근
		기점도	병풍도의 부속섬	병풍도와 이어진 섬
		도덕도	증도면 방축리	면적 : 0.11km 송,원대의 보물이 도덕도 앞바다에서발견
	토양	황토층 게르마늄 토양	증도 전지역	간척이 많이 됨
	기후	서안 해양성 기후	증도 전지역	
지역산물	특산물	우리나라 최대 소금 생산지	태평염전 및 기타염전	우리나라 최대규모
보호수	노거수	증도 우전리 노거수	증도 우전리	당제나 풍어제를 지내지 않음
	방풍림	증도 우전리 솔밭	증도 우전리	곰솔군락
	당숲	병풍도 당숲	증도면 병풍리(병풍도)	마을회관앞 당숲 당제를 지내지 않음

2) 생태문화자원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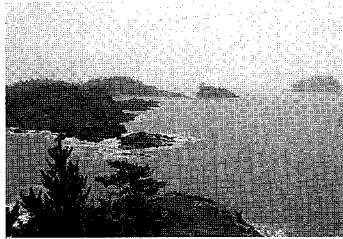
(1) 증도의 무인도

증도는 신안군청으로부터 49.4km 떨어져 있고, 동쪽으로는 지도읍 선도, 북쪽으로는 지도읍 사옥도, 남쪽은 암태면, 그리고 서쪽은 자은면과 이웃하고 있다. 증도는 모두 99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가 6개이며 무인도가 93개로 되어 있는 유구한 간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안군의 대표적인 섬이다. 섬의 면적은 유인도가 31.79km²이고, 무인도가 1.8km²이다. 해안선의 길이는 유인도의 경우가 75.19km이고 무인도의 경우가 26.72km이다. 서쪽바다에서 밀려온 바다의 힘에 의하여 길이 4km의 모래사장으로 형성된 우전해수욕장부터 빼어난 섬 지형의 경관으로는 도덕도, 호감섬, 대섬 등의 무인도가 있다. 특히 방축리 도덕도 앞 해상은 송·원대유물매장해역(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74호)은 600여년간 바닷 속에 매장되어 있었던 송·원 대의 도자기 등 23,024점의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중도에는 부속도서로 화도가 있다. 실제 이 섬은 노둑길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으며 자동차로 갈 수 있다. 해질 무렵 화도에서 바라보는 작은 무인도들은 찰랑이는 바닷물에 떠있는 바다의 북두칠성과 같이 아름답다.



방축리 신안해저유물발굴기념탑



방축리 앞에서 보는 무인도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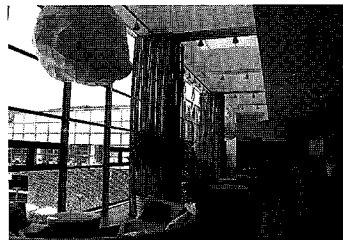
화도와 무인도

(2) 중도의 자랑 아름다운 해수욕장 “우전리 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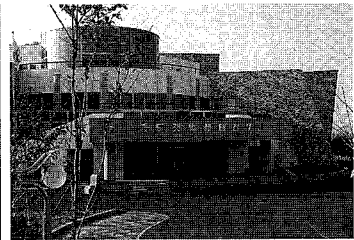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대의 소금 생산지라는 광활한 태평염전 사이를 지나 한참 가면 남동쪽 바닷가의 우전리에 위치한 우전해수욕장이 있다. 백사장 길이 4km, 폭 100m인 우전해수욕장은 90여개의 무인도들이 점점이 떠있는 수평선이 매우 아름다우며, 맑은 물과 주변의 울창한 소나무숲 때문에 시원스러운 여름날의 피서를 마음껏 맛볼 수 있다. 현재 이곳에는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한 엘도라도리조트가 있으며, 갯벌생태전시관 개관 등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쓰고 있다.



우전해수욕장과 엘도라도리조트



엘도라도리조트 내부시설



갯벌생태전시관의 전경

(3) 병풍도 풍바위 식생과 뱃나시 초원

신안군 사옥도 지신개 선착장에서 출발하여 약 25분남짓 철부선을 타고 가다보면 높은 산이 없는 아담하고 고요한 때론 비범한 병풍도가 보인다. 병풍도 보구 선착장에서 내려 길을 따라 올라서면 탄성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보리밭길이 보이며 나지막한 산(해발 50m)을 오르면 초원(일명 뱃나시 초원)이 펼쳐진다. 면적 2.5km², 인구 511명(2001년 현재)이다. 해안선길이 9.5km이다. 목포에서 북서쪽으로 50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다. 북쪽 해안에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다 하여 병풍도라 한다. 마을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섬 북단에 일명 ‘풍바위’ (병풍바위: 해안해식 절벽)라고 있는데, 중국의 채석강이 떠오를 정도로 아름답고 거대하다. 실제로 변산의 채석강은 밀려드는 관광객들의 발길에 의하여 많이 그 순수한 자연미가 훼손되었으나 풍바위의 경우, 다양한 식생과 식물상을 비롯하여 주변의 자연경관이 매우 수려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 절벽에 사는 특이 식물상도 많은데 곰솔을 비롯하여 섬향나무, 사스레피나무, 보리장나무, 해국, 고사리 등이 아름답게 장관을 이룬다. 병풍도 병풍바위 부근은 사람들이 찾기 쉽지 않아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비교적 훼손이 되어있지 않아 자연생태관광으로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병풍도에는 약 500여명이 사는데 마을 어르신께 아무개 이름을 대면서 어디사냐고 여쭙보면 그 집안에 수저 갯수까지 알 정도로 서로 가깝고 사이좋게 지낸다고 한다.



병풍도 풍바위의 식물상



병풍도 뱃나시 초원

(4) 마을숲과 보호수

가) 중도 우전리 노거수

중도에는 최근 당산제나 풍어제가 사라지고 있고, 따라서 당산과 당 숲을 찾아보기 힘들다. 유일하

계 몇 그루의 노거수를 찾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우전리 노거수(팽나무)는 수령 500여년 정도 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마을 어른들의 쉼터이자 우전리의 랜드마크이다. 보통 육상에서 마을의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이 보이나 남부지방에서 자생하는 팽나무는 느티나무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우전리 노거수 팽나무

나) 중도 우전리 방풍림 솔밭

우전리 해수욕장 일대에는 비교적 큰(흉고직경 30cm정도) 곰솔(흑송)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해안사구에 생성되는 소나무로서 곰솔이 대표적이며, 이는 해풍과 같은 염분성분으로부터 비교적 강하게 버티며 성장할 수 있는 곰솔 특유의 생리적 특성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포구나 항구에는 일부러 바람을 막는 방풍림으로 곰솔을 많이 심었다. 이곳 우전리 해수욕장의 소나무도 방풍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전리 방풍림 솔밭

다) 병풍도 노거수 팽나무

병풍도에는 자연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유일한 고목으로 불과 수년전까지 있었던 당숲이 유일하였으나 마을 청년들에 의하여 소실되었고, 현재 유일한 당목이라 보전이 필요하다(흉고직경 55.5cm, 높이 25m). 현재 당숲의 자리에는 교회가 있다.



병풍도 노거수 팽나무

(5) 해안식물자원

가) 사구식물

우전해수욕장의 곰솔 주변 사구 식물인 순비기나무, 갯그렁, 갯메꽃, 통보리사초 등은 해안 사구식생과 더불어 생태적으로 관리를 하여 곰솔림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전리 해안사구는 소를 방목



우전리 사구식물의 분포



방축리 해안절벽의 식물

하는 경우도 있다.

나) 절벽식생

방축리 신안해저유물발굴기념탑이 있는 절벽아래는 해국, 해당화를 비롯하여 땅채송화, 갯까치수영, 돈나무 등 20여 가지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어 서남해안의 특이 해안절벽식생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중도의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 및 해안 식물상 관찰지역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6) 염생식물

바닷가와 내륙에서는 염분이 있는 호숫가와 암염(岩鹽)이 있는 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을 말하며, 통통마디·갯길경이 및 거머리말·해조류 등이 이에 속한다. 줄기와 잎이 육질인 것이 많다. 생육하고 있는 지대의 수분 정도에 따라서 건염생식물(乾鹽生植物)과 습염생식물로 구분하지만, 모두 세



장동어다리 부근의 염생식물



태평염전 주변의 염생식물군락(습지 보전지역)

포 안에 많은 소금기가 들어 있어 삼투압값이 높기 때문에 토양 용액의 침투가 높을 때도 물을 빨아 들일 수 있는 특색이 있다. 그러나 갯메꽃과 통보리사초 등은 바닷가에서 자라지만 이러한 특성이 없으므로 염생식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갯벌습지의 염생식물은 갯벌의 염도와 토양의 물리적 특성에 의하여 분포하는데 중도의 염생식물상은 주로 염전주변에서 칠면초, 나문재와 통통마디(함초)가 서식하고 있다. 쟁둥어 다리 부근에는 중도에서 염생식물이 유일하게 큰 군집을 이루며 분포한다. 그 종류는 해홍나물, 칠면초, 갯질경 등으로 쟁둥어다리의 자연학습기능에서 염생식물의 교육이 필요하다.

(7) 갯벌

가) 증동리 갯벌

증동리 갯벌은 전반적으로 아주 극세사이다. 아주 양질의 mud 로 되어 있으며 갯벌 간석지에 무척 추 동물에서부터 이동성 조류까지 계절별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중도 mud를 이용한 해수온천 개발, 머드팩 화장품으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의 갯벌은 게르마늄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신안머드화장품의 특징은 게르마늄, 미네랄, 알긴산이 타 지역 머드보다 많이 함유되고 입자가 미세하며, 청정해역에서 채취한 갯벌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피부활성 성분들에 의해 보습효과와 탄력증대, 모공 관리 등의 효과를 배가시켜 준다. 증동리에는 갯벌을 이용한 백합양식도 하고 있다.



증동리의 갯벌



증동리의 백합 수확

나) 장뚱어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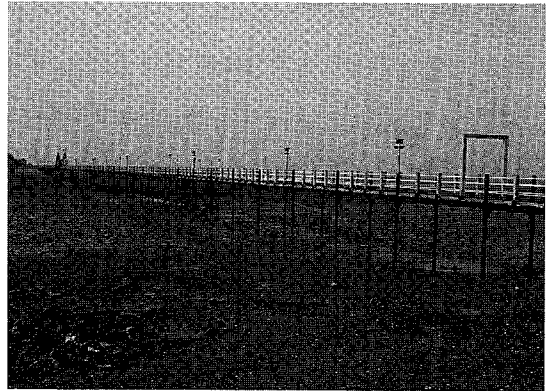
증동 장뚱어다리는 증도2리와 우전리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7월에는 장뚱어가 다리 밑에

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생태관광지로 활용하면 좋다. 주변 갯벌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백합양식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리를 건너면서 갯벌염생식물 군락도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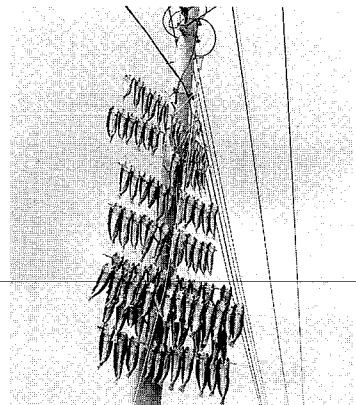
(8) 수산물

증도는 임자나 지도에 비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비율이 높다. 갯벌과 사질 토양으로 되

어 있는 해저부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어류와 패류가 서식하고 있다. 증도는 계절별로 다양한 어류가 생산되는데 1-2월에는 송어, 3-4월에는 농어, 간재미, 5-6월에는 병어, 송어, 7-8월에는 민어, 장뚱어, 9-10월에는 꽃게, 11-12월에는 대하가 출하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증도를 대표할 만한 어종은 민어이다. 민어는 6월 말경부터 서남해안의 해류를 타고 북상하면서 갯벌이 부드러운 증도와 임자도에 산란을 한다. 7-8월이 되면서 이들의 수확은 정점에 도달하는데 지도읍에 있는 송도어류집합장은 이때 전국에서 민어를 찾는 사람들로 붐비게 된다. 그 밖에 병어와 송어도 유명한데 특히 보리가 익을 무렵 잡힌다는 보리송어와 보리새우는 그 때 증도를 찾은 여행객들에게는 섬의 볼거리와 맛을 제공한다. 겨울철에는 보리송어의 알로 어란을 만드는데 증도민의 소득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장뚱어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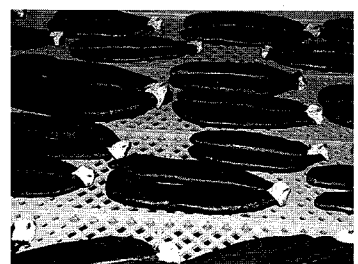
보리송어 말리기



민어회



보리송어 회와 보리새우찜



송어 어란

(9) 증도의 기암괴석

해식절벽의 특징으로 증도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기암괴석이 있다. 그 중에서도 증도중학교에서 바라보는 맞은편 산 중턱에는 마치 동물이 누워있는 듯 큰 돌들이 배치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개와 같고, 사자와 같은데 이 곳 주민들은 “호랑이 바위”라고 칭하고 있다. 증도에 사는 주민들도 위치를 잘 모르지만 이 곳에서는 꽤 유명한 기암괴석이다.



호랑이바위

3) 생태자원의 활용방안

증도의 자연생물자원은 생태계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갯벌, 사구, 습지, 산림 등의 자연생태계를 비롯하여 해수욕장, 유적 등 많은 문화자원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증도의 해양생태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엘도라도 리조트를 비롯하여 갯벌생태전시관이 조성되어 많은 외지사람들이 증도를 찾고 있다. 매스컴을 통하여 증도가 많이 알려지면서 멀리 서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엘로라도 리조트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볼거리에 관한 정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자연자원, 그리고 문화자원을 네트워크로 한 종합적인 증도관광개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생태보전적인 차원에서 증도에는 주요한 생태계가 있다. 사육도와 증도가 다리로 연결되는 2010년 이전까지 갯벌생물을 비롯하여 염생식물, 사구식생, 해안 소나무숲, 절벽의 식물상 등 증도를 대표할 중요한 자연자원에 대한 훼손을 막을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개발의식이 증도 주민들 모두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II. 선사 및 역사문화자원

1. 선사문화자원

1) 선사문화자원 목록

번호	유 적 명	위 치	사진번호	비 고
1	증동리지석묘	새마을 사업으로 밭으로 경작 소멸	-	
2	갈마도패총	지도읍 우전리 남쪽 500m 지점	2·3	
3	우전리지석묘	우전리 갈마도에 위치	4	

2) 선사문화자원 현황

(1) 증동리 지석묘

증도면 증동리에 있는 지석묘로 새마을 사업 때 밭으로 경작되어 소멸되었다.

(2) 갈마도패총(사진 2, 3)

우전리에서 남쪽으로 500m지점에 간척사업으로 인해 섬과 이어져 있는데 이 섬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서태는 철거사태로 이곳 역시 현재 밭 경작과 무성하게 자라나는 풀들에 의해 유적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우전리지석묘(사진 4)

우전리 갈마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갈마도 섬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3) 선사문화자원 활용방안

현재 증도면에서 확인되고 있는 유적은 모두 3개 지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중 증동리 지석묘는 파괴되어 현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 이미 신안군의 많은 섬에서 일어나고 있듯이 유적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처럼 이러한 유적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자원화 방안을 갖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선착장에서부터 소개되고 있는 갈마도 패총 역시 점차 훼손되어가는 상황이어서 이 유적들이 더 훼손되기

전에 보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분적이지만 이 유적들에 대한 시굴 혹은 발굴을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발굴결과에 따라 중도면에 처음 들어온 주민에 대한 문화내용과 함께 위치하고 있는 지석묘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

1)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 목록

번호	유적명	소재지	비고
1	송원대 유물매장 해역	중도면 방축리 해역(반경2km)	국가사적 제274호
2	신안해저유물발굴기념비	중도면 방축리	
3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	중도면 중동에서 우전리로 가는 방죽	
4	태평염전	중도면 대초리 1648	
5	壬申防厄石	중도면 방축리 검산마을 초입	
6	항월포	중도면 방축리 검산마을	

2)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 현황

(1) 송 · 원대 유물매장 해역(사진 5)

· 소 재 지 : 중도면 방축리 해역(반경2km)

· 유적현황 : 중도면 방축리 도덕도 앞바다, 방축리에서 서북방향으로 2,750m지점. 서쪽으로는 황해가 펼쳐져있고 북쪽으로는 임자도가 있는 곳으로, 어민들의 연안어장이지만 간만의 차와 한류의 이동이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14세기 경 송원대 해저유물이 다량으로 발견되어, 1981년 6월 16일 방축리 해역 반경 2km지역 국가사적 제274호로 지정되었다.

신안해저유물은 1975년 5월, 신안군 중도 · 임자도로부터 약 4km 떨어진 지점에서 어부에 의해 발견되었다. 발굴은 1976년 10월 신안군 중도면 방축리 앞 바다에서 문화재관리국의 신안해저발굴조사단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1984년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굴 작업이 실시되었으며, 해군(海軍) 지원단의 적극적인 협조아래에 이루어졌다. 발굴현장의 수심은 평균 20m정도, 약 4m의 수심 변화, 유속은 평균 2.5노트이며, 조수가 가장 높이 올라갈 때는 3.5노트, 가장 낮을 때는 1.5노트이다. 조사 결과 선체 길이는 28.4m, 너비는 6.6m, 갑판(甲板) 이상은 해층에 의해 완전히 침식되어 있었다. 인양된 선체편은 720여 편으로, 선체 원형 복원이 이루어졌다. 발굴된 유물은 총 22,007점으로, 7개

의 격벽(隔壁)으로 구획된 짐칸 속에서 인양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침몰 당시의 해상운송 규모를 말해주며, 중국·고려·일본 등 3국의 경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준다. 유물은 주로 송·원대에 사용하였던 물건이 주를 이루며, 고려자기를 비롯해 고려 유물과 나막신·칼코 등 일본 유물도 20여점이 발견되었다.

신안해저유물은 중국 원나라 때인 14세기 전반기의 유물로 학술적 가치가 크다. 특히 대량으로 출토된 도자기는 세계 수준 고고학사상 유례없는 것으로써 편년과 생산지 등을 밝힐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 침몰선은 용골(龍骨)을 갖춘 침저형(尖底型)으로 격벽(隔壁)이 설치되어 있어 당시의 조선술을 알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신안선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무역선(貿易船)으로 추정된다. 인양 유물 중 청동추에 주자(鑄字)된 「경원로(慶元路)」(현 중국 절강성 영파향)는 당시의 출항지를 밝히는 근거가 된다. 침몰 연대는 도자기의 양식, 동전, 목패(木牌) 등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원의 지대(至大) 연간(1308~1312)의 동전인 지대통보(至大通寶)와 8차 발굴 당시 인양된 목패에 새겨진 「지치3년(至治三年, 1323년) ○월 ○일」의 명문은 침몰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로 평가된다. 신안 해저발굴은 원나라의 사회·경제상, 조선술(造船術), 국제교역사, 공예미술 등의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중고고학(水中考古學)의 첫 장을 열게 한 해양발굴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현재 인양된 주요 유물은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고, 일부가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

(2) 신안해저유물발굴기념비(사진 6)

· 소 재 지 : 증도 방축리

· 유적현황 : 송원대유물 매장 해역인 증도 방축리 도덕도 앞바다를 조망하기 좋은 위치에 세워져 있다. 1986년 신안해저유물이 발굴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했다. 비문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곳에서 서북방 2,750m지점(동경 126도 5분 6초, 북위 35도 1분 15초) 바다 밑에서 중국 원나라 시대의 많은 유물이 발굴, 인양되었다. 이 해저발굴은 1976년 1월 어부가 그물에 걸려나온 도자기를 신고함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은 발굴단을 조직하여 해군의 심해잠수사가 유물을 인양하였다. 발굴기간은 1976년부터 1984년까지 9개년 간 계속되었다. 인양된 유물은 도자기 20,661점, 금속제품 729점, 석제품 43점, 동전류 28톤 18kg, 자단목 1,017개, 기타 574점과 침몰한 선체였다. 이 발굴은 세계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하여 한국, 홍콩, 일본에서 국제학술대회

가 개최되었다. 그 성과는 중국도자사의 편년을 재정리하게 하고, 한국·중국·일본의 교역사 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고대무역선의 실체를 알게 되어 이는 동양문화사연구에 길이 빛날 업적으로 남았다. 수백 년 해저에 잠든 문화사의 보고를 알려준 어부의 가특한 마음과 파도와 해풍에 시달리면서 발굴에 참여한 조사요원들과 23m가 넘는 캄캄한 심해의 급한 해류 속에서 고난을 무릅쓰고 우물 인양에 참여한 해군심해잠수사들의 그 정성과 노고를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 세계 해저발굴사에 빛나는 신안 해저의 그 자리를 길이 잊지 않기 위하여 빗돌에 새겨 그날의 일을 오래도록 전하게 한다.”

보물선 발굴 해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조망지역에 발굴기념비가 세워져 있어, 증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요 방문지가 된다. 주변에 소규모의 기념관을 건립하여 발굴 당시의 사진이나 각종 설명자료 등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건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3)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사진 7)

• 소 재 지 :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해안도로

• 유적현황 : 우전해수욕장에서 증도면사무소로 향하는 길에 “짱둥어다리”가 있고, 이 다리를 지나 약 50m 정도 직진하면, 도로 오른쪽에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지가 조성되어 있다. 순교지에는 가운데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라 새겨진 비석과 문준경 전도사의 묘소가 위치한다. 또 묘역 바로 옆에는 문전도사의 생애를 기록한 비석이 서 있다.

문준경은 1891년 무안군 암태면 수곡리에서 태어나 무안군 지도면 대초리에 사는 정근택과 혼인하였다. 1927년에 목포시 북교동으로 이사하여 북교동 성결교회에 출석하였고, 1931년에 서울성서학원(現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이후 임자 진리교회를 설립하고, 이어서 증동리 교회, 대초리 교회 등을 연이어 건립하였다. 또 방축리에 기도처를 설치하였으며, 1943년부터 1945년에 증동리 교회당이 일제에 의해 강매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교회를 되찾았다. 그 후 1950년에 공산당의 끈봉과 총탄에 맞아 60세에 순교하였다. 전쟁이 끝나자, 교인들이 비석을 세웠다. 이후 문준경 전도사 기념사업회가 조직되었고, 2001년에 순교비를 증수하는 한편, 증동리 교회 뒷산에 안장되었던 전도사의 묘지를 2005년에 순교지로 이전하였다. 문준경 전도사 기념사업회는 증동리에 있고, 사업회 사무실 입구에 <文俊卿紀念碑>가 있다.

증도는 섬 지역 가운데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기독교가 유입되었고, 신도들의 수가 매우 많은 곳이다. 섬 지역 기독교 전파의 역사와 순교의 현장을 보여주는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 성결교회 측에서

문준경 전도사를 기념하는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와 연계시켜 관광객 방문코스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우전리로 드나드는 도로 중간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4) 태평염전(사진 8)

• 소 재 지 : 증도면 대초리 1648

• 유적현황 : 증도 버지선착장에서 증도면 소재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140만평 규모로 단일염전으로서는 국내 최대 염전이다. 우리나라 천일염의 6%인 연간 1만6000톤을 생산하는 태평염전이 증도에 만들어진 때는 반세기 전인 1953년이다. 한국전쟁 피난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물이 빠지면 징검다리로 건너다니던 전증도와 후증도 사이의 갯벌에 독을 쌓아 염전을 만들었다고 한다. 태평염전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3km의 비포장도로 풍경은 관광객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60여채의 소금창고가 일렬로 늘어서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염전은 최근 들어 근대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태평염전은 역사성과 규모 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문화자원이다. 문화체험 관광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염전에서 소금을 제작하는 과정으로 체험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증도 갯벌과 생태체험과 관련해서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5) 임신방액석(壬申防厄石)(사진 9)

• 소 재 지 :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검산마을

• 유적현황 : 오산마을에서 진남들을 지나면 검산마을이 나온다. 검산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옛 마을길로 접어들면 오른쪽에 방액석이 서 있다. 이 방액석은 마을 주민들의 재앙을 막기 위해 세워졌다. 그러나 임신년이 어느 해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구전에 의하면, 검산마을 너머에 “큰검산”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검산마을 주민들은 큰검산에서 정착하고 있었는데, 丙子年에 돌림병이 들어와 주민들이 생명을 잃게 되자, 망자들의 뼈를 백사장에 묻었다고 한다. 이후 마을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되자, 현재의 검산마을로 집단 이주하였다고 한다. 또 다른 구전자료는 검산마을은 원래 검산 ‘만들’이라고 불렸는데, 도적 떼로 인해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한 스님이 마을 이름을 ‘검산’으로 개칭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뜻에서 마을 입구에 방액석을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방액석의 규모는 높이 101cm, 너비 51cm, 두께 19cm이다.

‘방액석’은 입석과 같은 것으로, 글씨가 새겨졌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다. 방축리의 보물선 기념

비, 독살 등의 인근 자원들과 연계되어 탐방 코스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6) 항월포

• 소 재 지 : 증도 방축리 검산마을 해안

• 유적현황 : 검산마을 뒤쪽, 해저유물기념비가 있는 곳에서 위쪽 비포장도로로 넘어가는 해안가에 형성되었던 곳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일제시기부터 포구가 있어서 증도의 원래 포구였던 장소라고 한다. 민어, 부서 등을 취급하는 어선들이 자주 출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사치들이 모여들고 파시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외에 증도에는 검산포 검산마을 앞쪽에는 고깃배와 여객선이 다니던 포구(검산포, 검산항)가 있었고, 증동리 광암 서북쪽에는 구분포(九分浦: 지형이 굽어있는 형세라 구분포라 함)가 있었다.

3)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 활용방안

(1) 보물선 해역 체험박물관(이동전시관) 건립

증도 방축리 앞바다는 세계를 놀라하게 한 보물선이 발견된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발굴 유물과 발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현지에서 접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이에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는 방축리 현장 부근에 보물선 해역 발굴 당시의 상황과 각종 보도자료, 사진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작은 박물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

당장에 보물선 해역 부근에 전시관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건립되어 있는 갯벌 생태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06년 제1회 섬·갯벌올림픽축제 기간 중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도움을 받아 이동전시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갯벌생태관 안에 특별전시공간을 마련하여 방문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가. 스토리 텔링 주제

보물선 해역 발굴 당시의 상황, 주민들과의 관계 등에 얹힌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전시 주제를 개발한다. 현장성을 강조하고, 지역민에게 끼친 영향에 대한 내용을 중시한다.

나. 발굴 당시 각종 자료 전시

발굴 당시 제보자, 인양 모습, 유물의 사진, 에피소드를 토대로한 교육홍보물을 작성하여 체험공간

을 조성. 보도 영상 자료, 관련 방송제작물(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다. 인양 유물 전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발굴, 인양된 유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추진. 원본 외에 모조품, 복원된 선박의 축소품 등을 전시하는 방안.

라. 보물선 해역 순회보트 운영

실제 보물선이 발견된 도덕도 앞바다를 해상 관람 할 수 있도록 미니 보트를 이용 관광객들이 현장을 방문해 볼 수 있도록 활용한다. 순회 보트는 관광객들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의 거친 물살로 인해 이러한 방법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리적인 특성을 잘 아는 지역민들과 논의 하에 마련하여야 한다. 당장에 상설화 보다는 관광성수기, 지역축제 등의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마. 해설사 배치 및 교육관 설치

관광객들에게 보물선 해역 발굴 당시 상황, 역사적 의미, 유물의 특성들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관광해설사를 육성하여 배치하고, 이를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한다.

(2) 방축리 검산마을을 어촌 체험마을로 조성

중도면 방축리는 해저유물이 발견된 해역에 인접한 마을로 해양문화적 요소가 가장 풍부하게 남아 있는 곳이다. 보물선 해역과 관련된 검생이 마을을 비롯하여, 고깃배와 여객선이 다녔다는 검산항, 파시가 형성되었다는 항월포가 주변에 있다. 또한 검산마을 입구에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방액비’가 세워져 있고, 해저유물기념비가 있는 해안가에는 대규모의 독살이 보존되어 있어 민속문화의 면모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마을 이름이 ‘만들’에서 해적의 잦은 출몰을 방지하기 위해 ‘검산(劍山)’이라고 변경했다는 설화가 있을 정도로 이 마을의 지리적 위치는 해양사적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검산마을이 ‘보물섬’으로 알려지면서 이곳 어촌 사람들의 이야기가 <검생이의 달>이라는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다. 촬영장체가 해저유물발굴 장소인 방축리 검산마을에서 이루어졌다. 마을 주민들은 검산만을 ‘검생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다양한 해양문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검산마을 보물선 해역과 관련된 어촌체험마을로 조성한다면, 관광객들의 방문동기를 높이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유교문화와 금석문화자원

1) 유교문화와 금석문화자원 목록

도서	번호	구분	유적명	소재지	년대	비 고
중도	1	열녀각	坡平尹氏烈行碑閣	중동리 곡도마을	1972년	신규
	2	송덕비	鄭奇溶頌德碑	중동리 중동	연대미상	"
	3	기념비	文俊卿紀念碑	중동리 중동	1997년	"
	4	유적비	徐珍基遺蹟碑	중동리 중동	1933년	"
	5	유적비	鄭泰熙遺蹟碑	중동리 중동	연대미상	"
	6	재 각	利川徐氏齋閣	중동리 중동	1947년	"
	7	공적비	金垂仁功績碑	중동리 중동	1986년	"
	8	齋 閣	追慕齋	방축리 장성동	연대미상	"
	9	齋 閣	務安朴氏齋閣	방축리 방축마을	1980년대	"
	10	공적비	南相峻功蹟碑	우전리 우전마을	1970년	"
	11	齋 閣	德鼎齋	대초리 덕정마을	1949년	"
병풍도	12	공적비	鄭奇溶功績碑	병풍리 병풍마을	1971년	"

2) 유교문화와 금석문화자원 현황

(1) 坡平尹氏烈行碑閣(사진 10)

• 소 재 지 : 신안군 중도면 중동리 곡도마을

• 유적현황 : 진변나루터에서 중동리로 향하다보면 제일 먼저 곡도마을이 위치한다. 이 비석은 곡도마을 초입에 있다. 파평윤씨는 尹彩重의 딸로 태어났다. 17세에 金海金氏 金熙珉과 혼인하였다. 혼인 이후 윤씨부인은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봉양하였다. 이를 지켜본 마을 사람들이 윤씨를 ‘賢婦人’이라 칭하였다. 또 부인의 나이 23세에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윤씨는 남편의 3년 상을 모셨다. 이러한 부인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1972년에 비석을 세웠다. 비문은 국한문혼용체이며, 18행 36자가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洪大杓이撰写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27cm, 너비 35cm, 두께 19cm이다.

(2) 鄭奇溶頌德碑(사진 11)

· 소 재 지 :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증동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증동마을의 초입에 위치한다. 이 비석은 증도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던 정기용 선생의 송덕비이다. 공은 1930년에 증동리에서 출생하였다. 공은 도서지역 아동들의 교육에 힘썼으며, 실제 교직생활도 증도와 병풍도에서 주로 행하였다. 교편에 있는 동안 우수한 제자들을 많이 배출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썼다. 공이 증도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당시 문교부 지정 연구학교, 교육개발원 지정 진로교육 시범학교, 전라남도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등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제자들이 선생의 송덕비를 건립하였다. 비석의 뒷면에 국한문혼용체로 작성된 비문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측면에는 선생의 학력, 경력, 賞勳 등이 기술되어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80cm, 너비 60cm, 두께 31cm이다. 관련 자료로 병풍도 초등학교 앞에 <鄭奇溶 功績碑>가 있다.

(3) 文俊卿紀念碑(사진 12)

· 소 재 지 :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증동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증동마을 초입에서 오른쪽으로 열린 도로를 따라 약 50m 정도 진입하면 <고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 사업회 본부>가 있고, 본부 바로 앞에 비석이 위치한다. 문준경은 1891년 암태면 수곡리에서 태어났다. 1927년에 목포 대한성결 북교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35세에 서울성서학원을 졸업하였고, 이후 신안지역을 순회하며 전도생활을 했다. 1933년에는 임자도 진리교회, 증동리·대초리·우전리 교회 등을 설립하였다. 그러다가 1950년 5월 신도들을 보호하려다가 북한 인민군에 의해 증동리 앞 백사장에서 순교하였다. 1997년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에서 문전도사의 비석을 건립하였다. <고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 사업회>에서는 문준경 전도사가 순교한 곳에 묘역과 비석을 조성하였다. 현재 짙둥어다리 부근에 순교지가 조성되어 있다. 증동리에 있는 문준경기념비의 규모는 높이 170cm, 너비 60cm, 두께 30cm이다.

(4) 徐珍基遺蹟碑(사진 13)

· 소 재 지 :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증동

· 유적현황 : 증동마을 초입에서 오른쪽으로 열린 도로를 따라 약 50m 정도 진입하면 <고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 사업회 본부>가 있다. 이 사업회 사무실 오른쪽에 산록으로 연결되는 좁은 골목길이 열려 있다. 이 길을 따라 약 30m 정도 올라가면 이천서씨 문중의 재각이 나온다. 이 재각의 바로 앞에

유적비가 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徐珍基이다. 공의 字는 文玉이고, 본관은 利川이다. 선생은 종족간의 화목을 중요시 하였다. 또 경술국치에 두문불출하여 울분을 토로하였고, 백성들을 진휼하는데 노력하였다. 이에 향리의 선비들이 1933년에 공을 추모하는 壇을 세우고, 유적비를 건립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60cm, 너비 61cm, 두께 22cm 이다. 비문은 22행 40자이며, 李炳觀이 撰하고, 李長信이 書했다.

(5) 鄭泰熙遺蹟碑(사진 14)

• 소 재 지 :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증동

• 유적현황 : 증동마을 <문준경 기념비> 앞을 지나 산록으로 접어들면 골목길 오른쪽에 이천서씨의 문중재각이 있다. 유적비는 야산 초입에 위치한다. 공은 고려 平章事 鄭均의 후예이고, 공의 조부는 鄭權澤이다. 공은 1881년에 태어나 1937년에 세상을 떠났다. 공의 호는 蓮社이고, 공의 배우자는 전주최씨이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77cm, 너비 59cm, 두께 27cm이다. 비문은 19행 40자이다.

(6) 利川徐氏齋閣(사진 15)

• 소 재 지 :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증동

• 유적현황 : 증동마을 초입에서 오른쪽으로 열린 도로를 따라 약 50m 정도 진입하면 <고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 사업회 본부>가 있다. 이 사업회 사무실 오른쪽에 뒤편 산록으로 연결되는 좁은 골목길이 열려 있다. 이 길을 따라 약 30m 정도 올라가면 이천서씨 문중재각이 위치한다. 이 재각 바로 앞에 <徐珍基遺蹟碑>가 있다. 이 재각은 1947년에 건립되었다. 재실의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1.5칸, 팔작지붕이다.

(7) 金垂仁功績碑(사진 16)

• 소 재 지 :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증동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증도초등학교 앞에 위치한다. 이 비석은 증도초등학교 초대교장을 역임한 김수인 선생의 공적비이다. 선생은 1940년 증도초등학교에 부임하여 학교정비를 하는 한편 교실을 신축하는데 공헌하였다. 이에 증도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1986년에 선생의 공적비를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는 <初代 校長 故 金垂仁 功績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뒷면에 공적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비석 측면에 증도초등학교 1대~17대에 이르는 교장 명단이 새겨져 있고, 증도초등학교 설립당시

토지를 회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0cm, 너비 44cm, 두께 20cm이다. 비문은 20행 32자이며, 국한문혼용체로 새겨져 있다.

(8) 追慕齋(사진 17)

• 소 재 지 :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장성동

• 유적현황 : 증도면사무소 앞을 지나 방축리 방면으로 향하다 보면 도로 오른쪽에 추모재가 있다. 이 재각은 원주이씨의 문중재실이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追慕齋>라 새겨진 편액이 건물 정면에 걸려 있다. 추모재실 앞에 걸린 주련에 “尊其瞻視” “正其衣冠”이라 새겨져 있다. 원주이씨 문중의 후손들은 매년 10월 초에 추원재에서 문중시제를 모신다.

(9) 務安朴氏齋閣(사진 18)

• 소 재 지 :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방축마을

• 유적현황 : 이 재각은 방축마을 왼쪽 끝자락에 위치한다. 이 재각은 무안박씨의 문중재각이다. 재실의 건립 시기는 1980년대 말엽으로 추정된다. 매년 음력 10월 14일 검산마을에 사는 후손들이 먼저 문중 제사를 모시고, 10월 15일에 방축마을 후손들이 제사를 지낸다. 재실 내부에는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데, 하단에 16위, 상단에 8위가 봉안되어 있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2칸, 측면 1칸, 팔작지붕이다.

(10) 南相峻功蹟碑(사진 19)

• 소 재 지 :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우전마을

• 유적현황 : 우전해수욕장과 갯벌생태전시관을 지나면, 우전마을이 입지한다. 이 비석은 우전마을의 끝자락에 있다. 비석 왼쪽에 우전마을 지킴이 神인 당산나무가 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남상준이다. 선생은 己卯年에 태어났다. 장성하여서 인동장씨와 혼인하였다. 선생은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서당을 운영하였다. 庚戌國恥에는 두문불출하며 오로지 후진을 양성하는데 힘썼다. 선생은 1911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문인들이 해동단(海東壇)을 만들어 스승을 추모하였다. 또 1970년에는 문하생들이 선생의 공적비를 건립하였다. 문하생들은 매년 10월 10일에 문인 모임을 개최한다. 비석의 앞면에는 <極齋 南相峻 功蹟碑>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李景弘이 撰·書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75cm, 너비 54.5cm, 두께 23cm이다. 주변에 붉은 담장이 둘러져 있다.

(11) 德鼎齋(사진 20)

· 소 재 지 : 신안군 증도면 대촌리 덕정마을

· 유적현황 : 이 재각은 순흥안씨의 문중재각으로, 1949년에 건립되었다. 재각이 세워진 덕정마을은 옛날에 조씨와 안씨가 많이 거주하였다고 한다. 순흥안씨문중은 매년 음력 10월 14일에 증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후손들, 그리고 전주와 장성에서 거주하는 후손들이 함께 선조의 제사를 모신다. 재실의 내부에 ①「德鼎齋上樑文」(1953년, 崔秉心 撰), ②「德鼎齋記」(1953년, 崔秉心 記) 등의 현판이 걸려 있다. 재실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 팔작지붕이며, 외삼문이 있다. 재실 주변에 벽돌담장이 둘러져 있다.

(12) 鄭奇溶功績碑(사진 21)

· 소 재 지 :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 병풍마을

· 유적현황 : 증도에서 배를 타고 약 20분 정도 항해하면 병풍도가 나온다. 병풍도는 섬의 서북쪽의 절벽이 바닷물에 씻겨 병풍처럼 보인다고 하여 ‘병암’이라 부르다가, ‘병풍’으로 개칭하였다. 선착장에서 약 10분 정도 직진하면 증도초등학교 병풍도분교장이 나온다. 이 비석은 초등학교 정문 초입에 위치한다. 이 비석은 병풍도분교의 교장을 역임한 정기용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선생은 1977년에 부임하여 교실을 신·개축하는데 공헌하였다. 또 학습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운동장을 보수하고, 교문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학교 시설을 정비하였다. 그 결과 1979년에 신안군 내에서 최상위 학교시설을 구축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선착장 축조에 공헌하였다. 이에 병풍리 주민들이 1971년에 선생의 공적비를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 <校長 德山 鄭奇溶 功績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뒷면에는 선생의 이력사항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측면에는 <덕산 정기용 교장 선생님 송덕시>가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8cm, 너비 44cm, 두께 15cm 이다. 관련 자료로는 증도초등학교 앞에 <鄭奇溶 頌德碑>가 있다.

3) 유교문화와 금석문화자원 활용방안

(1) ‘갯벌생태전시관’과 연계하여 우전리 마을사와 주민들의 구술사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

1980년대 방문하였던 증도는 ‘섬 중의 섬’이라 할 만큼 오지에 입지한 곳이었다.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공간은 “버지”에 늘어서 있는 검은 빛깔의 소금창고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 증도의 이미지는 모래사장에 설치해 놓은 ‘머드하우스’ ‘머드 화장품’ 등으로 인해 이색적인 섬문화를 연출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의 증도는 고급 휴양지가 들어서면서 또 한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휴양시설은 외지인들에게 섬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욕지 사람들을 섬으로 불러들이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런데 휴양지가 들어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욕지 사람들과 섬주민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다. 다시 말해서 욕지 사람들이 섬주민들에게 공간만 대여하였을 뿐, 동일한 공간에 욕지민과 도서민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격리되어 있었다. 다만 휴양시설 앞에 ‘갯벌생태전시관’이 개설되어 있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듯 보였다. 해당 휴양시설과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는 우전리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우전마을의 경우, 섬마을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즉 역사문화자원으로 서당 훈도의 공적비, 방위에 맞춰 서 있는 당산나무, 누대로 마을 제사(당산제)를 지낸 경험 많은 주민들, 마을 사람들의 생활문화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의 역사와 문화, 휴식처, 갯벌생태전시관, 소나무 숲과 해수욕장 등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문화로 통합 운영된다면, 욕지와 섬, 바다가 교류하는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전리 마을 정비, 외지인에게 증도의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주민 공동조직체 등이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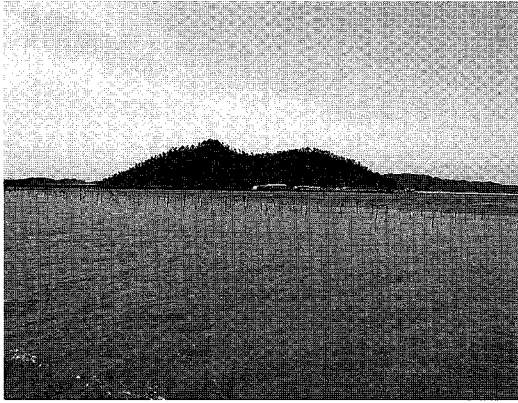
(2) 1950년대 섬마을 전도사의 순교비를 성지 순례 공간으로 활용하자.

중동리 바닷가 갯벌위에 ‘짚뚱어다리’가 놓여 있다. 이 곳에서 약 50m 떨어진 바닷가에 20세기 섬마을 전도사의 순교지와 순교비석이 조성되어 있다. 또 중동리 마을 뒤편에는 순교자를 기념하기 위한 사립회 사무실이 개설되어 있고, 이 사무소 앞에는 서남해 도서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하였던 문준경 전도사의 이력이 적힌 기념비가 있다. 순교지에서 있는 비문의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문준경은 1891년 무안군 암태면 수곡리에서 태어나 무안군 지도면 대초리에 사는 정근택과 혼인하였다. 1927년 목포시 북교동으로 이사하여 북교동 성결교회에 출석하였고, 1931년에 서울성서학원(現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이후 임자도 진리교회 설립을 시작으로 중도 중동리 교회와 대초리 교회, 방축리에 기도처를 설치하였다. 1943년부터 1945년에 중동리 교회당이 일제에 의해 강매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교회를 되찾았다. 그러다가 1950년 한국전쟁기에 공산당원의 곤봉과 총탄에 맞아 60세에 세상을 떠났다. 섬마을 전도사의 순교를 기리기 위해 비석이 건립되고, 기념 사립회가 조직되었다.

최근 역사학계를 비롯하여 사회학·인류학 등 인문학 분야에서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구술사 혹은 일상사 연구가 재조명되고 있다. 도서지역의 경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에 기독교 전래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도서지역의 전통문화가 소멸되거나 변화되기도 하였다. 또 기독교의 전파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도서지역 기독교의 전파과정, 전도사의 활동, 순교지, 지역 주민들의 구술사를 활용하여 “테마가 있는 문화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특히 제주도지역은 최근 갯벌 올림픽 축제가 개최되었고, 실제 갯벌과 모래사장이 지역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근대문화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기독교 관련 성경학교 혹은 청소년 수련회 등을 개최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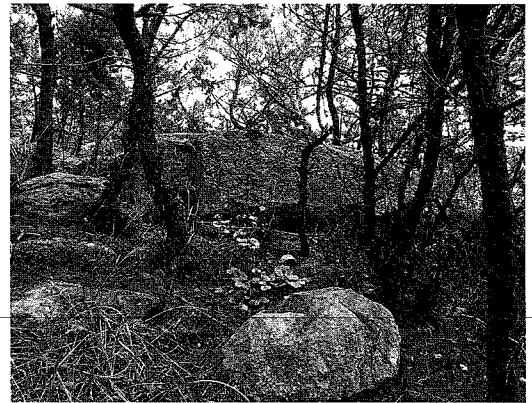
<사진 1> 증도면의 전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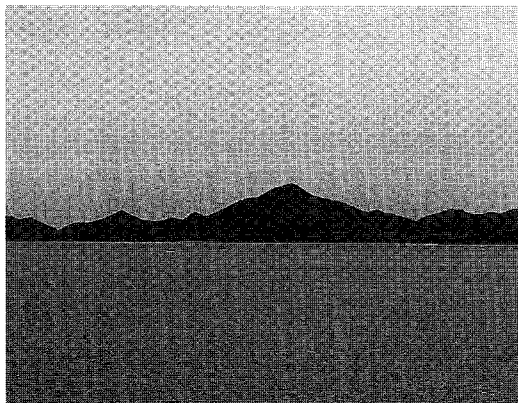
<사진 2> 갈마도 전경



<사진 3> 증도 우전리 갈마도 패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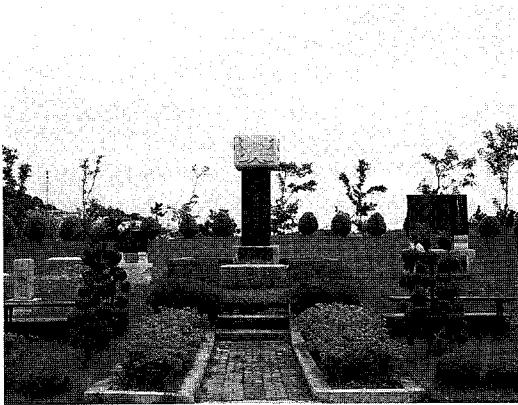
<사진 4> 증도 우전리 지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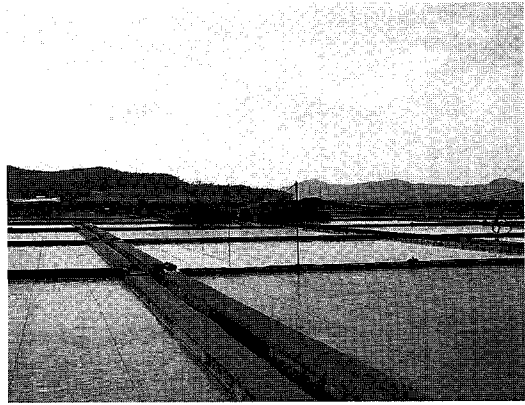
<사진 5> 송원대 유물매장 해역



<사진 6> 신안해저유물발굴기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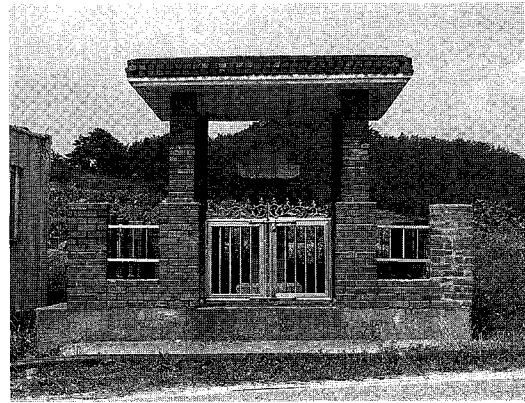
<사진 7>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



<사진 8> 태평염전



<사진 9> 임신방액석



<사진 10> 坡平尹氏烈行碑閣



<사진 11> 鄭奇溶頌德碑



<사진 12> 文俊卿紀念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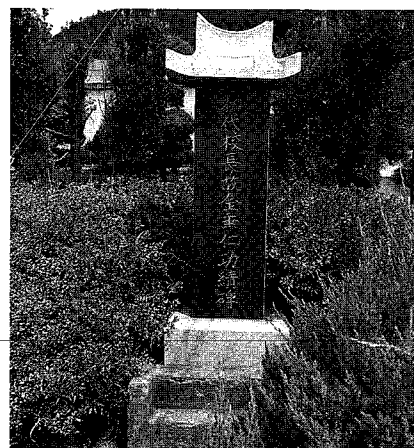
〈사진 13〉 徐珍基遺蹟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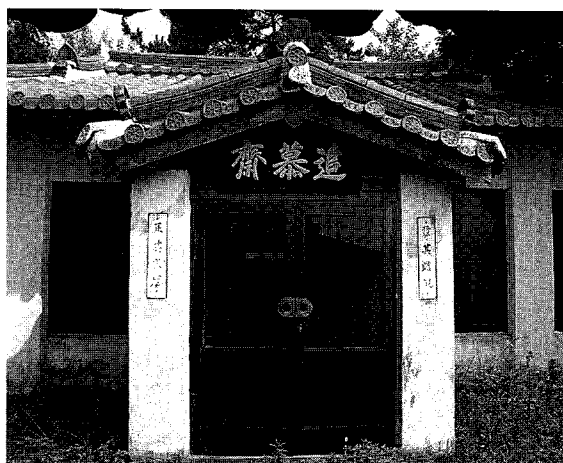
〈사진 14〉 鄭泰熙遺蹟碑



〈사진 15〉 利川徐氏齋閣



〈사진 16〉 金垂仁功績碑



〈사진 17〉 追慕齋



〈사진 18〉 務安朴氏齋閣



〈사진 19〉 南相峻功蹟碑



〈사진 20〉 德鼎齋



〈사진 21〉 鄭奇溶功蹟碑

III. 민속생활문화자원

1. 갯벌 어로 민속지

번 호	제 목	제 보 자	제 보 지 역	제 보 일 시	비 고
1	갯벌 어로 도구	조성갑(남, 73세) 박국순(남, 1941생)	우전리	2006. 4. 22 2006. 5. 10	현지조사
2	갯벌 인지와 어로공간	"	"	"	"
3	갯벌 어로활동의 주체	"	"	"	"
4	갯벌 어족자원과 어로활동	"	"	"	"

조사지역 : 전남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및 방축리 일대

조사일시 : 2006년 4월 22일, 5월 10일

제 보 자 : 증도면 우전리 박국순(남, 1941생)

증도면 우전리 조성갑(남, 7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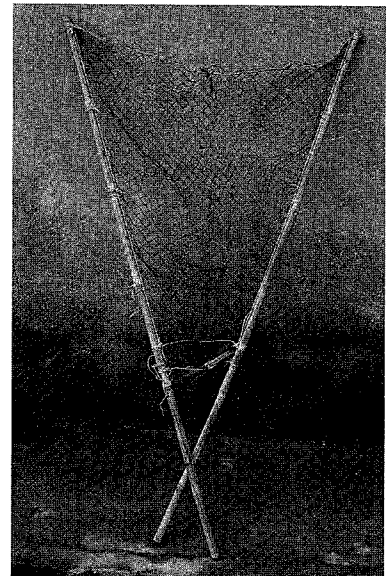
1) 갯벌어로 도구

갯벌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우전리 박국순(남, 1941생) 어르신의 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실측 조사했다. 조사된 도구는 바웃굼개, 대합굼개, 석애, 호미, 쪽반이, 양반이, 가래, 삽, 나방소쿠리, 망태, 흥서리, 조락 등이다. 이 중에서 현재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는 바웃굼개, 대합굼개, 쪽반이, 망태, 흥서리, 조락 등이다.

(1) 쪽반이

- 기능 및 사용방법 : 쪽반이는 물 속에서 어획물을 뜯 때 사용한다. 갑오징어나 꽃게, 뽕떡게 등을 잡을 때 어획물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밑에서 받친다.

- 형태 : 'V'자에 가까운 'X'자 모양으로 만든다. 밑부분



쪽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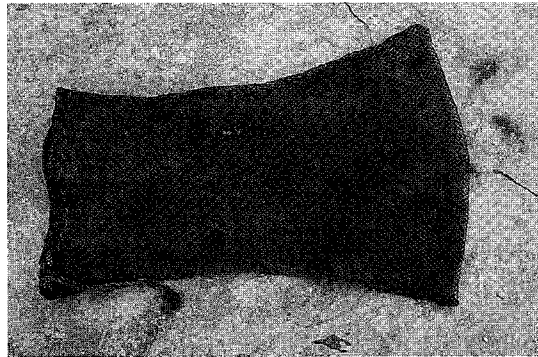
이 손잡이다. 두 개의 대나무에 그물을 엮어서 만든다. 손잡이 가까운 부분에 나무를 대고 어획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든다. 제보자가 직접 제작하였다.

- 대나무의 길이(세로) : 170cm
- 펼쳤을 때의 그물 폭(가로) : 95cm

(2) 홍서리

- 기능 및 사용방법 : 홍서리는 어획물을 담아 이동하는데 사용한다.

- 형태 :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 반으로 접은 다음 입구를 제외한 양 측면을 꿰맨다. 입구에는 줄을 끼워넣어 오므리고 펼 수 있도록 만든다. 제보자가 직접 제작하였다.



홍서리

- 입구에서 바닥까지의 길이(세로) : 53cm
- 입구의 폭(가로) : 27cm

(3) 대합굵개

- 기능 및 사용방법 : 대합을 채취하기 위해 갯벌 바닥을 긁을 때 사용한다. 손으로는 나무막대를 잡고, 줄은 허리에 둘러서 뒤로 걸어가면서 갯벌 바닥을 긁는다.

- 형태 : 사진 상에는 뒷부분의 손잡이에 해당하는 나무막대가 없지만, 실제로는 1m 이상의 나무막대가 연결되어 있다. 사진에 보이는 대합굵개는 손잡이에 해당하는 나무막대가 부러져서 없는 상태다. 제보자가 직접 제작하였다.



대합굵개

- 쇠로된 날에서부터 손잡이까지의 길이 : 36cm + 1m 정도
- 쇠로된 날의 길이 : 24.5cm

(4) 조락

<사진4> 조락

- 기능 및 사용방법 : 어획물을 담아 이동하는 도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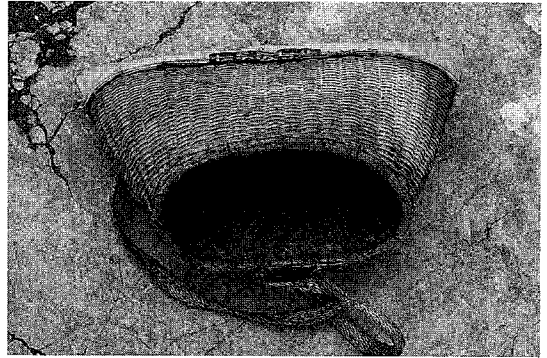
- 형태 : 대나무로 엮어서 만든 것으로 입구는 타원형이고, 바닥은 일자형이다. 등에 짊어질 수 있도록 2개의 어깨끈이 있다. 조락과 망태, 홍서리는 어획물을 담는 도구로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조락의 경우 양쪽 어깨에 짊어질 수 있도록 두 개의 어깨끈을 달아서 망태나 홍서리에 비해 이동할 때 편리하다. 제보자가 직접 제작하였다.

- 높이 : 36cm

- 밑부분 길이 : 67cm

- 입구 폭(가로) : 35,5cm

- 입구 폭(세로) : 21cm



조락

(5) 망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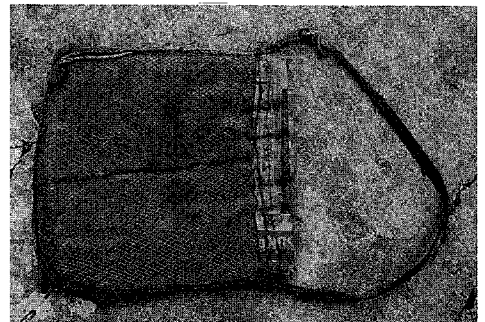
- 기능 및 사용방법 : 어획물을 담아 이동하는 도구이다.

- 형태 :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잘라 입구를 제외한 3면을 꿰매고, 안쪽에 두꺼운 비닐을 덧댄다. 입구 양 옆으로는 한 줄의 어깨끈을 단다. 제보자가 직접 제작하였다.

- 입구에서 밑부분까지의 길이(세로) : 45cm

- 밑부분의 길이(가로) : 43cm

- 어깨끈 길이 : 81cm



망태

(6) 조새

- 기능 및 사용방법 : 바위에 붙어있는 굴을 딸 때 사용한다. 윗부분은 바위에서 굴을 딸 때 찍어내는 용도이고, 아랫부분은 굴의 속살을 파내는 용도다.

- 형태 : 나무토막에 쇠붙이를 단 것으로 윗부분은 돌 틈을 찍을 수 있도록 두껍고 날카로우면서 길게 만들어졌고, 아랫부분은 가늘면서 끝부분이 살짝 구부러져 있다. 예전에는 우전리에 성냥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으나 현재는 철물점에서 구입한다.



조새

- 위에서 아래까지의 전체 높이(세로) : 31cm
- 윗부분 쇠붙이의 높이(세로) : 9cm
- 윗부분 쇠붙이의 폭(가로) : 5.5cm
- 아랫부분 쇠붙이의 길이(세로) : 6.5cm

2) 갯벌 인지와 어로공간

갯벌은 퇴적물의 조성에 따라 모래갯벌(sand flat)과 펄갯벌(mud flat)로 구분되고, 두가지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혼성갯벌이라고 한다. 또한 위치에 따라 해변 갯벌과 하구역 갯벌로 구분할 수 있다. 퇴적물 조성을 해안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해수유동이 심한 노출된 해안에서는 모래 갯벌이, 보호된 해안에서는 펄갯벌이 우세하다. 이렇게 형성된 갯벌들의 물리·퇴적학적 환경 차이는 생물상이나 생물 생산뿐만 아니라 물질 순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생태적 구분법은 갯벌의 성질에 따른 학술적 구분법이다. 그러나 어로활동을 하는 어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갯벌을 구분해왔다. 그 구분 기준은 갯벌의 성질뿐만 아니라 생산물과 지형 등이 고려된 것으로 갯벌어업이 활성화된 곳일수록 더욱 체계화되어 나타난다. 압해도 대천리 광림마을의 경우 해안선과의 거리, 갯벌의 성질, 어획물의 종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크게 4가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¹⁾

1)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소,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1』(압해면 편), 2003, 148쪽 참조.

증도의 경우 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대부분의 생업이 농업과 염전에 치중되어 있고, 어로활동을 하는 마을이 우전리와 방축리 뿐이다. 이 중에서 우전리의 갯벌 인지와 관련해 조사한 부분을 기술하도록 한다.

① 더개

더개는 조간대 중간부분으로 빨과 패류의 껍질이 뒤섞여있는 공간이다. 발이 빠지지 않는 빨로서 반지락이 많이 난다.

② 모래밭

모래밭은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을 지칭한다. 모래밭에서는 대합이나 맛이 많이 난다.

③ 갯벌

갯벌은 조간대 전체를 지칭하기도 하고, 조간대 하단부를 지칭하기도 한다. 조간대 하단부의 갯벌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빨이 있는 곳이다. 이 곳에서는 키조개나 소라, 나방, 꽃게, 낙지 등이 난다.

④ 취

취는 썰물에도 드러나지 않는 조하대 부분의 모래밭을 지칭한다. 바다 깊은 곳에도 취가 있으나 우전리의 경우 갑오징어가 많이 낚던 오징어마위 근처에 취가 있었다. 취에는 바타풀들이 많이 자라고, 어류들이 산란을 하는 장소다.

3) 갯벌 어로활동의 주체

우전리에서의 갯벌 어로활동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갯벌에서 어로작업을 할 때 여자들은 주로 반지락과 나방, 석화를 잡고, 남자들은 대합, 꽃게, 빨떡게, 낙지, 쨍뚱이 등을 잡는다. 비교적 여자들이 갯벌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 않는 편이었다.

마을에서 여자들이 할 일을 남자들이 하거나, 남자들이 할 일을 여자들이 하게되면 “예끼, 저래야 쓰졌냐.”, “어따 저사람, 너무 철모르는 짓거리 헐다.” 등의 말을 하는 등 흥을 봤다고 한다. 어른들이 “여자들이 길쌈이나 하고, 집에서 일이나 하제, 무슨 밖에 나가서 일을 하냐.”라고 해서 그런지 대합을 남자들이 잡으러 갔다고 한다. 그만큼 남자와 여자의 일이 구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근거에 의해 남자와 여자의 할 일이 구분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작업형태와

도구의 사용을 통해 짐작할 따름이다.

여자들이 잡은 어획물은 반지락과 나방, 석화 등이다. 반지락은 호미로 캐고, 나방은 석애로 캐고, 석화는 조새로 판다. 석애는 위 도구에서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호미나 조새처럼 작고, 끝부분이 구부러진 것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에는 바웃굼개가 있는데, 이는 바웃이라고 불리는 해초를 따기 위한 것으로 식칼의 끝을 구부려 바위를 굼을 수 있도록 만든 도구가 있다. 여기서 공통점을 찾으면 크기가 작고, 작업을 할 때 앉거나 허리를 굽혀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자들이 잡은 어획물은 대합, 꽃게, 빨떡게, 낙지, 쟁뚱이, 낙지 등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삽과 가래, 그물, 쪽반이 등이다. 이러한 도구들은 비교적 힘을 요구하고, 허리를 굽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크기가 크거나 길다는 특징이 있다.

농촌에서 밭일과 논일을 대표하는 것으로 호미와 삽을 들 수 있고, 밭일을 여성의 일, 논일을 남성의 일이라고 한다면, 갯벌에서의 일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갯벌에서 엎드리거나 쭈구린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작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주로 여자들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힘을 쓰거나 비교적 큰 도구를 사용하고 복잡한 설치를 요하는 작업은 남자들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4) 갯벌 어족자원과 어로활동

갯벌에서는 반지락, 대합(백합), 개집(키조개), 나방, 소라, 빨떡게, 꽃게, 낙지, 쟁뚱이, 운저리 등이 난다.

어종	어로시기	어로공간	어구	어로활동주체	어로활동현황
반지락	봄, 가을	더개	호미	여자	5년 전 중단
대합	사철	모래밭	대합굼개	남자	5년 전 중단
석화	겨울	바위	조새	여자	현행
개집(키조개)	사철	갯벌	삽, 호미		5년 전 중단
소라		갯벌	맨손		현행
나방	늦봄, 여름	갯벌	석애, 나방소쿠리	여자	5년 전 중단
꽃게		갯벌과 얕은 바다 사이	쪽반이, 양반이, 줄, 미끼	남자	35년 전 중단
빨떡게		바위 옆	쪽반이, 양반이, 줄, 미끼	남자	현행
낙지	사철	갯벌, 바다	가래, 삽/ 통어리(통발)	남자	현행
쟁뚱이			낙시	남자	25년 전 중단
갑오징어		취	쪽반이	남자	

① 반지락

반지락은 썰이 빠지지 않고 켜개미가 있는 더개에 서식한다. 주로 봄철과 가을철에 많이 잡는데, 이 시기에 여물기 때문이다. 봄과 가을이 아닌 경우에도 잡을 수는 있지만, 여물지 않기 때문에 잡지 않는다. 물때는 갯벌이 많이 드러나는 사리 때에 잡는다. 반지락은 갯벌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겉표면만 살짝 물일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호미로 파서 잡는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깊이에 들어가 있어서 호미로 긁어서 주어담는다. 반지락을 잡는 사람은 주로 여자들이다.

② 대합

대합은 백합이라고도 한다. 우전리에서는 대합과 백합의 구별이 없이 대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합의 서식지는 물이 빠진 조간대 중간지점이다. 이곳에서도 특히 모래밭에서 서식한다. 사시사철 대합을 잡을 수 있으나, 농사일로 바쁜 철에는 잡지 않는다. 모래밭을 1cm 정도 파면 대합을 잡을 수 있고, 대합굴개(대합굴갱이)로 잡는다. 대합잡이는 주로 남자들이 한다.

③ 석화

굴을 이 지역에서는 석화라고 한다. 석화는 바위에 붙어 서식하고, 이를 조새를 이용해 따낸다. 자연 상태에서 채취할 때에는 주로 겨울에 따는데, 양식을 하는 사람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채취한다. 양식을 하지 않는 굴은 바위에서 따지만, 양식을 하게되면 바위에서 채취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에 상관없이 수확한다고 한다.

④ 개접(키조개)

키조개를 이 지역에서는 개접이라고 한다. 개접은 조간대 하단의 갯벌에 서식하고, 사철 잡을 수 있다. 조간대 하단에 서식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빠질수록 많이 잡을 수 있다. 개접의 모양은 각정(殼頂)이 매우 좁고 아래로 점점 넓어진 삼각형이다. 뾰족한 각정 부분이 땅 속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삽이나 호미로 파서 잡는다. 일단 삽이나 호미로 중간정도까지 판 다음 손으로 잡아당겨 잡는다.

⑤ 소라

소라는 조간대 하단 갯벌에 서식한다. 키조개나 나방과 더불어 물이 많이 빠질수록 많이 잡을 수 있다. 어로방법은 물이 많이 빠지는 사리 때 갯벌로 나가 손으로 줍는다. 예전의 경우 갯벌에서 잡을 수

있었는데, 해태양식을 한 이후로는 해태 지주목에 주로 붙어있다. 기타 조개류의 경우 해태양식을 하면서 대부분 사라져버렸는데, 소라는 지금도 한 번 나가면 망태로 하나씩 잡을 수 있다.

⑥ 나방

나방은 작은 고동류의 생물로 조그맣고 둥글둥글하게 생겼다. 늦은 봄에서 여름까지 조간대 하단의 갯벌에서 잡는다. 주로 마을의 부인들이 채취하고, 채취도구는 석이다. 물이 빠지면 부인들이 석애와 나방소쿠리를 들고가서 잡고, 그것을 머리에 이고 돌아온다. 나방은 국을 끓여 먹는다. 국을 끓이면 국물 색깔이 푸르스름하고, 짠 맛이 가미되어 감칠맛이 난다. 소라와 달리 날 것으로는 먹지 못한다.

⑦ 꽃게

중도에서의 꽃게잡이는 주낙과 비슷한 방식이었다. 꽃게잡이 방법에 대한 명칭은 없으나 줄과 미끼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주낙과 흡사하다. 꽃게를 잡기 위한 도구는 줄, 쪽반이 또는 양반이, 미갑(미끼) 등이다. 먼저 10발 정도 길이의 줄과 밴대(송어)를 준비한다. 밴대이는 어린 송어다. 줄 중간 중간을 매듭으로 묶고, 매듭 사이로 4~5토막낸 밴대이를 집어넣는다. 미끼를 줄에 묶는 식이다. 보통 10발 길이의 줄에 20개의 매듭과 20개의 미끼를 단다. 줄에 미끼를 다 끼우면 마장(말목)에 줄 한쪽 끝을 묶는다. 마장은 수심 1m 20cm 정도의 깊이에 박는다. 줄의 한 쪽 끝을 마장에 묶고 한 쪽 끝을 갯벌에 늘어뜨린다. 이렇게 하면 꽃게잡이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

꽃게잡이는 썰물 때 한다. 꽃게잡이를 위한 줄은 한 사람당 보통 2~3개 정도를 설치한다. 늘어뜨린 줄 주위에서 쪽반이나 양반이를 가지고 꽃게가 미끼를 물었는지 확인한다. 물 속에 있는 줄을 잡아보면 꽃게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꽃게가 미끼를 물었을 때는 줄을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든다. 손으로 전해오는 느낌을 따라가서 양반이나 쪽반으로 꽃게를 주워 담는다. 꽃게가 미끼를 계속 물고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 속의 줄을 확인해야 한다.

줄과 미끼만을 이용한 꽃게잡이는 1970년대까지 행해졌다. 이 시절의 꽃게잡이에 대해 우전리 박국순씨는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때는 먹는 재미보다도 잡는 재미가 좋았어요.”라고 회상한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꽃게가 없어지면서 이러한 어로방법도 자취를 감췄다.

⑧ 뽕떡게

빨떡게는 꽃게와 비슷한 방법으로 잡는다. 줄과 미끼를 이용해 잡는 방식은 같지만, 게를 잡는 공간이 다르다. 꽃게가 갯벌과 얕은 바다 사이에서 잡는 것에 비해, 빨떡게는 주로 바위 옆에서 잡는다. 꽃게잡이와 공간이 다를뿐 마장을 박고, 줄에 밴댕이 미끼를 끼워넣는 것까지 어로방법은 동일하다.

⑨ 쨍뚱이

쨍뚱이잡이는 낚시로 한다. 미끼를 끼우지 않고 낚시를 던졌다 채는 것을 반복하여 잡는 방법이다. 증도에서는 <쨍뚱이다리>를 만들어 관광효과를 기대할 정도로 쨍뚱이를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 쨍뚱이잡이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현재 증도에서 쨍뚱이잡이를 하는 한 명 남아있다.

⑩ 갑오징어

갑오징어는 바다풀이 서식하는 곳에서 많이 잡힌다. 물과 장포, 툇 등의 바다풀이 많은 곳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이 곳에서 주로 잡는다. 우전리 입구쪽에 오징어바위라는 바위가 있었고, 이 바위 주위에 바다풀이 많아 갑오징어가 몰렸다고 한다. 오징어바위라는 이름도 오징어가 많이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그러나 현재는 리조트를 짓는 과정에서 없어져 바위가 있었던 위치만을 확인할 수 있다.

오징어가 몰려드는 곳은 바다풀이 많이 자라고, 물이 빠졌을 때 수심 1m 이하 정도 된다. 산란을 할 때쯤에는 포도알처럼 검은 알이 바다풀 주변에 수없이 붙어있었다. 이것을 보고 솔잎이 붙은 솔가지를 바다풀이 나는 곳에 던져놓고 오징어를 유인하여 잡기도 했다.

갑오징어잡이는 주로 사리밭 저녁에 한다. 갑오징어가 불빛을 좋아하고, 사리때 물이 쓰면 어른 허리춤 정도의 깊이에서 산란하기 때문에 2인 1조를 이루어 한 명은 후레시를 들고, 한 명은 쪽반이를 받쳐서 잡는다. 주로 바다풀이 있는 곳이나 솔가지를 던져놓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데, 쪽반이를 한 번 뜰 때마다 1~2마리의 갑오징어가 잡혔다.

갑오징어가 많이 몰려 오징어바위가 있었을 정도로 많이 잡을 수 있었으나 20여년 전부터 바다풀이 점점 사라지고, 이와 더불어 갑오징어도 사라졌다고 한다.

⑪ 낙지

낙지는 갯벌에서 사철 잡을 수 있으나 여름철에는 산란을 하기 때문에 잘 잡지 않는다. 산란을 하게 되면 태어난 새끼들이 어미를 뜯어먹으면서 크기 때문에 소득이 별로 없다. 또, 낙지는 가을철에 잡은

것이 맛있고, 이때의 낙지를 ‘가을낙지’라고 하여 많이 잡는다. 보통 가을에 낙지를 잡으면 다른 시기에 비해 크기가 작다.

낙지잡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 하나는 갯벌에서 가래로 잡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통어리(통발)로 잡는 것이다. 갯벌에서 잡는 방법은 낙지구멍을 확인하고 가래로 파서 잡는 식이다.

갯벌을 파서 낙지를 잡을 때에는 주로 가래로 잡았으나 근래에는 삽의 양 날 부분을 잘라내서 쓰기도 하고, 삽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의 삽은 예전에 비해 면적이 좁아 갯벌을 잘 팔 수 있기 때문에 변형을 주지않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통어리로 잡는 방법은 통어리에 미갑을 넣어놓고 들어오게 해서 잡는다.

5) 갯벌생태의 변화와 어로활동의 쇠퇴

중도의 갯벌생태는 근래에 들어 급격히 변화되었다. 첫째는 바다 속을 비롯한 해변의 모래가 줄어들었고, 둘째는 갯벌에서 자생하던 패류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셋째는 전체적인 어류의 양이 줄어들었다.

첫째, 약 20여년 전부터 모래가 줄어들음으로 인해 해변의 모래뿐만 아니라 바다 속의 취와 바다풀들이 사라지고 있다. 우전리 해수욕장의 소나무들은 태풍 ‘루사’를 견뎌내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했고, 뿌리를 드러낸 것도 있다. 또, 바다풀이 자랄 수 있는 ‘취’가 사라짐으로 인해 바다풀이 없어졌고, 어류들의 산란장이 파괴됐다. 이는 바다의 모래를 채취하는 것²⁾ 때문이다. 이로인해 해양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고, 어민들의 어로활동도 위축되었다.

둘째, 중도의 갯벌에서 나던 대합, 반지락, 나방 등의 조개류 등이 5년여 전부터 사라졌다. 따라서 현재는 이러한 조개류가 나지도 않고 잡지도 않는다. 이는 해태양식과 관련이 깊다. 중도에서 해태양식을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이다. 그동안은 해태양식을 하면서 바다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5년여 전부터 양식 김의 병을 막기 위해 바다에 염산을 뿌리고 있다. 해태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염산을 뿌리면서부터 갯벌의 조개류들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해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재 해태양식이 시들해지고 있지만, 갯벌이 본래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다.

셋째, 중도에서의 어살어업은 1960년대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독살의 현재 방축리에 한 곳이

2) 모래채취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신안군에서는 현재 모래채취를 불허하고 있다. <동아일보>, 2003년 11월 26일자.

남아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우전리의 경우 예전에는 7곳의 독살이 있었지만 지금은 1960년대 초반에 모두 그만 두었다. 독살 외에도 버커리나 목그물 등의 어살어업이 많았으나 지금은 겨우 2가구가 삼마이를 하고 있다. 이는 어로방법이 발전함에 따라 자연스레 쇠락한 면도 있지만, 포획과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2. 설화와 민요

1) 설화와 민요의 목록

이 목록은 증도면 현지조사(1) 2005년 민요 현지조사(홍순일 외)와, 증도면 현지조사(2) 2006년 설화·민요 현지조사(홍순일 외)에 의한다.

(1) 설화의 목록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	2005.07.20.	증도면 방축리 염산마을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정장례(여, 69)	도깨비 이야기	현지조사
2	2005.07.20.	증도면 증동 2구 증서마을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문순자(여, 69)	바다에 그물을 쳐 놓고 고기를 잡으러 가면 도깨비가 나와 뽕 뽕 하고 온다는 이야기	현지조사
3	2005.07.20.	증도면 증동리 2구 증서마을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문순자(여, 69)	귀신이 영감을 저녁내 내 끌고 다닌 이야기	현지조사
4	2005.07.20.	증도면 증동리 2구 증서마을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문순자(여, 69)	효부상을 탄 안순임	현지조사
5	2005.07.20.	증도면 증동리 2구 증서마을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문순자(여, 69)	장수 이야기	현지조사
6	2005.07.20.	증도면 증동리 2구 증서마을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문순자(여, 69)	귀신 이야기	현지조사
7	2005.07.21.	증도면 방축리 점산만들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김정석(남, 53)	만들의 지명 이야기	현지조사
8	2005.07.21.	증도면 방축리 점산만들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김정석(남, 53)	동네사람이 남씨 후손을 죽인 이야기	현지조사
9	2005.07.21.	증도면 방축리 점산만들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김정석(남, 53)	바다를 막은 후 일어 난 이야기	현지조사
10	2006.04.17.	증도면 우전리	홍순일, 김현주	조성갑(남, 73)	장자터 이야기	현지조사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 고
11	2006.04.17.	증도면 우전리	홍순일, 김현주	조성갑(남, 73)	증도 이야기	현지조사
12	2006.04.17.	증도면 우전리	홍순일, 김현주	조성갑(남, 73)	우전(羽田) 이야기	현지조사
13	2006.04.17.	증도면 우전리	홍순일, 김현주	조성갑(남, 73)	나쁜 백가 장자터 이야기	현지조사
14	2006.04.18	증도면 방축리	홍순일, 김현주, 이혜숙	박성남(남, 69)	도깨비 이야기	현지조사

(2) 민요의 목록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 고
1	2005.07.20.	증도면 방축리 염산마을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정장례(여, 69)	산다이	현지조사
2	2005.07.20.	증도면 증동리 2구 증서마을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문순자(여, 69)	산다이, 소리들	현지조사
3	2005.07.21.	증도면 대초리 4구 장고마을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조복남(남, 73)	산다이, <한풀이(성화 타령)>, <등당기타령>, <노랫가락>, <진도아리 랑>, <상여소리>, <쭈대 머리>, <갈까보다>, <사 칠가>, <나무하러 가서 하는 소리>, <강강술래>	제1차 현지조사
4	2005.07.21.	증도면 우전리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고순례(여, 78)	산다이, <나무하러 가 서 하는 소리>, <강강 술래>	현지조사
5	2006.04.17.	증도면 증동리 2구	홍순일, 김현주	임맹단(여, 69) 외	국악찬송	현지조사
6	2006.04.17.	증도면 우전리	홍순일, 김현주	조성갑(남, 73)	소리, <상여소리>	현지조사
7	2006.04.18	증도면 방축리	홍순일, 김현주, 이혜숙	박성남(남, 69)	산다이, <한풀이>, <물속 에 잠긴 얼굴>, 밤다래	현지조사
8	2006.04.18	증도면 대초리	홍순일, 김현주, 이혜숙	조복남(남, 74) 이영신(남, 75) 박유덕(여, 71)	산다이, <어랑어랑 어 허야>, <노랫가락>, < 갈까보다>, <등당애타 령>, <진도아리랑>	제2차 현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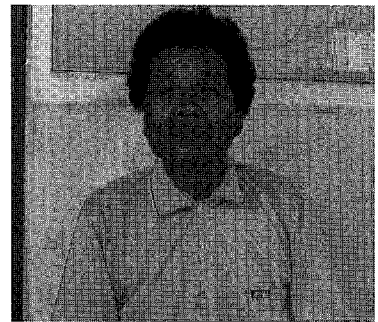
2) 설화와 민요에 대한 해설

(1) 설화에 대한 해설

○ 증도 설화1

번 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 고
1	2005.07.20	증도읍 방축리 염산마을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정장례(여, 69)	도깨비 이야기	현지조사

딸이 중3이었을 때의 일이다. 딸이 증동리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집에 오는 도중이었다. 이때 어른이 없어지는 사건을 겪었다.



〈사진 1〉 정장례(여, 69) (05.07.20촬영)

○ 증도 설화2

옛날에 도깨비가 바다에 그물을 쳐 놓고 고기를 잡으러 가든 도깨비가 나와 갓고야 ‘뽕, 뽕, 뽕’ 하고 오른 웃드란다 사람

번 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 고
2	2005.07.20	증도면 증동리 2구 증서마을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문순자(여, 69)	바다에 그물을 쳐 놓고 고기를 잡으 러 가면 도깨비가 나와 뽕 뽕 뽕 하 고 온다는 이야기	현지조사

이. 도깨비 소리는 뽕, 뽕 한다고 하든만. 뽕판이라고. 보른 없어. 보른 없당께. 도깨비가 별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있제.

○ 증도 설화3

번 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 고
3	2005.07.20	증도면 증동리 2구 증서마을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문순자(여, 69)	귀신이 영감을 저 녁내내 끌고 다닌 이야기	현지조사

그라고 사람 잡아다가 어디다 눅혀놓고. 우리 영감이 그랬다. 없응께 저 태평염전(?) 염전에 땡겼

어. 그란디 저녁때가 돼도 안 오요. 그래서 내가 물어 봤어. 어
째 우리 윤양이 아배(?)는 안 온다요. 그랑께는 진작 보냈다고
하드라고 우리집을. 그란디 저녁 내 끌고 땡긴디 연 방죽으로
테리고 가드라고 하든만. 연 방죽. 꽃밭으로. 그란디 인자 시간
이 된께 가라고 그라든만. 가라하더라고 돌아 왔드랑께. 귀신
이 저녁 내 끌고 땡겼어.



〈사진 2〉 문순자(여, 69) (05.07.20촬영)

(여자귀신이요, 남자 귀신이요?) 그것은 모르제.

(술 드셨어요, 그 때?) 술도 안 먹고 염전 간조(?)하러 갔는디 해는 저문께 형님 먼저 가라고 했다고
해. 하도 안 온께. 으째서 그렇게 안 오요, 한께. 으따 이 사람아, 저녁 때 해 있을 때 내가 여그를 왔는
디. 자기를 인도를 하드라고 해.

그란디 그렇게 데꼬 땡김서 연방죽으로 데꼬 땡기드라하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만나서 죽나요?) 거 심장이 약하고 자기가 거식허믄 죽어. 그랬어. 옛날에는
구신이 겁났어. 술등 못 갔어. 귀신 때문에. 이 아래 술등.

(거기에 특히 귀신이 많이 나는 이유는?) 총각귀신 그런 사람들이 겁나. 그 동네가.

(그런 사람이 거기에 묘를 써서 그런가요?) 거그는 잘 못 갔어. 구신들이 무사라고.

(도깨비가 좋아하는 음식은?) 메밀가루. 메밀가루는 한 번 주믄은 못 와

(왜 못 와요?) 메밀이 무삽거든. 메밀을 볶은 당께. 우리집에서 죽었다 하믄 여그서부터 한정 없이
저 묘까장.

(그것은 처녀 총각이 죽었을 때 그렇고 도깨비는?) 도깨비도 그래. 그래서 갯밭에 갈 때는 메밀떡을
해 갖고 가. 갯밭에 갈 때는. 메밀 개떡을 그러믄 도깨비가 범을 못 해.

(도깨비가 좋아하는 음식은?) 돼지고기는 못 갖고 가제. 밤에 가다 돼지고기 갖고 가믄 잡어 가믄
디야. 도깨비가. 돼지고기는 도깨비하고 상극이여. 돼지고기 소고기는 저녁에는 갖고 다니믄 안 돼. 도
시에서도.

○ 중도 설화4

번 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 고
4	2005.07.20	중도면 중동리 2구 중서마을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문순자(여, 69)	효부상을 탄 안순임	현지조사

(이 마을에 효자, 효부 이야기가 있는지) 20살에 혼자 살았어. 그래갖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 영감은 폐병으로 옛날에는 그것이 관절인디 폐병이라고 일본 보내갖고 죽어블고, 할아버지, 할매는 모시고 살았어. 그래서 이작까지 모시고 살고 있어. 이 동네에 있어.

(이름이?) 안 순임. 효부상도 타고 그랬어.

○ 증도 설화5

번 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 고
5	2005.07.20	증도면 중동리 2구 증서마을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문순자(여, 69)	장수이야기	현지조사

(이 동네에 장수에 얽힌 전설 있나요?) 그삼네 할아버지가 장수 했어. 백 살 그작 다 묵고 죽었어. 근디 시방도 아흔 다섯 살 묵은 사람도 있어. 시방도.

(아니, 그런 사람 말고 힘이 엄청 세서 바위를 옮기거나...) 옛날에 있어. 도구통도 이고 덩기고. 김가 아닌가? 장사라고 불렀어. 전에 우리 친정 오빠도 도구통은 지듬만.

(어쩐다고 도구통을 지고 다닌대요?) 기력 씬계. 우리 오빠는 문길성이. 바우도 옮기고 이따만한 도구통도 지게에다가 지고 다니고 그랬어.

○ 증도 설화6

번 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 고
6	2005.07.20	증도면 중동리 2구 증서마을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문순자(여, 69)	귀신이야기	현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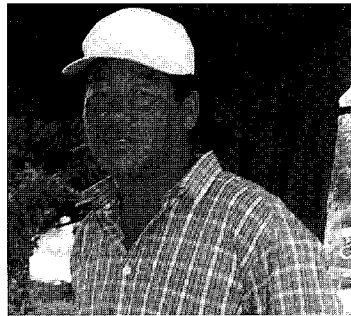
(초분에 얽힌 이야기는?) 초분을 쓰른 구신도 안 나고. 뽕을 쓰른 구신이 나.

(왜 그러는지) 초분이 집 갈어 갖고 구신이 없다고 하요. 그란께 뽕 옆에서는 안자도 초분 옆에서는 잔다고 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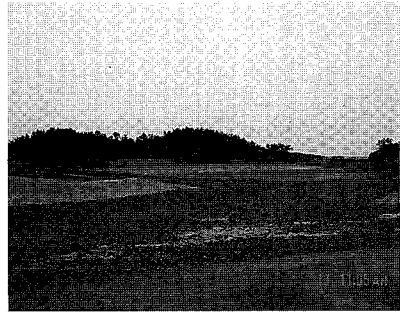
○ 증도 설화7

번 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 고
7	2005.07.21	증도면 방축리 검산만들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김정석(남, 53)	만들의 지면 이야기	현지조사

여기는 ‘만들’ 이라고 있는데 왜 ‘만들’ 이라고 하나면 이곳에 들어오신 분이 돌아가셔서 그 분의 묘를 도마형국으로 묘를 썼어요. 묘를 서고 손을 씻으로 왔는데 이곳에 고기가 가득했다고 해서 ‘만들’ 이라고 했어요. 고기가 많이 들어서 만들이라고 해요. 고기 잡는 양이 농사 짓는 양만큼 이상 나와요.



〈사진 3〉 김정석(남, 53)(05.07.21촬영)



방축리 검산만들의 앞바다(05.07.20촬영)

○ 증도 설화8

번 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 고
8	2005.07.21	증도면 방축리 검산만들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김정석(남, 53)	동네사람이 남씨 후손을 죽인 이야기	현지조사

일제시대 전의 사실이다. 남씨와 주씨장군이 묘를 쓴다. 그 뒤에 남장군이 태어났는데 눈이 크고 무섭다. 그 아들도 그렇게 생겼다. 이조 말에 일어난 일이다. 딸도 그렇게 생겼다. 동네에서 그 후손을 다 죽였다. 그 이후에 주장군이 또 나왔는데 죽였다.

○ 증도 설화9

번 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 고
9	2005.07.21	증도면 방축리 검산만들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김정석(남, 53)	바다를 막은 후 일 어난 이야기	현지조사

바다를 막고 나니까 거북이가 헤엄치지 못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죽는다.

○ 증도 설화10

번 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 고
10	2006.04.17	증도면 우전리	홍순일, 김현주	조성갑(남, 73)	장자터 이야기	현지조사

저그 옥에 가든 행사장 자리가 있는디 거가 장자터라고 그
래. 여그 인류의 역사는 천년은 훨씬 넘었어. 왜 그러냐면 유
물이 있어. 거가 깨진 유물이 전부 빗살무늬여. 여가 도기굴이
있어. 백씨서립이라는 것이 흘러 나와 있고 그런데 내가 여그
서도 국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그서 내가 발굴한 고려자
기를 발견해서 송·원대 문화재 발견할 때 광주서 그때 당시
내가 한 40년 전에 40만원을 주라고 그래. 가꼬 목포를 가니깐
한 40미터 밑에서 파 냈어. 골동품상에 가니깐 10만원 받는다
고 그래. 것이 귀족 것이면 100만원이 훨씬 넘지만 이건 서민들 것이요. 그리고 깨진 금이 있다 이거
여. 몇 년이나 보냐고 그러니깐 천이백 년은 넘는 것 같은데 깨졌고 서민들이 쓰던 것이고 난초가 투
명하게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 그러니까 가꼬와 브렸어. 지금 어디있냐 그라몬 처남이 와서 주
라고 하길래 줬어.



〈사진 5〉 조성갑(남, 73)(06.04.17촬영)

그런 역사로 보나 고려 공민왕 때 석씨가 육당 최남선이 쓴 책에 보든 석씨가 지도 암태로 유배되었
다는 소리가 있어. 그래서 암태 가서 옛 석자. 신라 2대가 탈해왕인가 그 손이제. 석씨가. 그 사람들이
암태 본도에 없고 당사리란데 있드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언제 들어왔소” 그러니까 우리
고려 때 들어왔어 그래. 그럼 공민왕 때 유배손 아니요. 그랬어. 석철남이라는 사람이랑 알아볼라고 이
야기를 했어. 인류의 기원을 석기시대, 농경시대, 산업화시대, 요즘은 첨단,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다,
석기시대 후 농경 시대에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추정이 가요.

여기서 백씨가 살았는디 그 전설이 안 좋게 나와. ‘백씨서립’ 손도 여기에 살아 한 호가. ‘백가 장자
터’ 그러는디 ‘도독놈 백가 장자터’다 그래. 그 뜻이 멋이냐면 거기서 사는디 그 전에는 원이 없었거
든. 옛날에는 배들이 목선들이 지내다가 걸려버리든은 다 떨어 가지고 못난 놈 노예로 잡아서 써 버리
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 내가 쓰기에는 선량한 부자인 것은 아닌 것 같더라 그랬어. 선생님 오셨으
니깐 내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저그 가든 해당입니다.

○ 중도 설화11

변 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 고
11	2006.04.17	중도면 우전리	홍순일, 김현주	조성갑(남, 73)	중도 이야기	현지조사

증도는 앞시리, 뒷시리 그랬어. 시리 증자. 떡시리 안 있소. 병풍도 있고 화도 있고 매화도 있고 말하
자른 이 이치가 잔치하고 꽃 피고 병풍 치고 매화 있고 그러게 인자 풍수설로 그러게 됐는데 여가 인
자 오행목이 있을 때 1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저 산림을 찾았어요. 저 산이 완전 황무지여가꼬 풀 뿌
리 한나 없던 데여.

그리고 요기 들어오른 자그만히 산 잘랐습디까. 지금 요새 바람 불른은 산에 모래가 날려서 산을
다 덮고 우전리가 묻히는 것 같어. 그런디 그것이 어째서 100년 전에 그러고 됐느냐 하든 일본 사
람들이 ??회사에서 사 가지고 미영도로 뜬다리 놓고 그 사람들이 사월포에서 모래 가져오고 임자도
에서 모래 가져다가 우리는 중간이니까 미영섬을 ‘뜬다 논다’라는 그런 설이 있었고 그러다가 지금
말로 대동아전쟁 불으면서 못해버리고 말았는디 그러다가 주인이 없어지니까 나무를 때고 6·25
지나고 해방 지나고 한 뒤에는 완전히 53년 7월 2일자로 휴전이 되었잖아요. 그런디 54년도에 이기
봉이한테서 전증도를 올리고 양도천 목사가 노래를 불러 지어서 그때 서울서 방송했네요. 그것을
봐야 되고

56년도부터 6년간에 거쳐서 사방사업을 했어요. 그때 양도천 목사가 지은 노래 많이 불렀어요. 2m
씩 전부 서북풍 받아서 나락을 뺏거든 꼬트머리를 반틈씩 묻어가꼬 나락으로 전부 정산해가지고 그
안으로 술 넷 포씩 심고 비료했는디 어떻게 한게 사방이 됩디다. 실은 여그서부터 해 갔는디 6년 후
에 심은 썬 우에 행?? 술이 요래. 근디 거그는 주인이 목포가 있음께 안 쳐다 보고 여그는 7~8년 된 소
나무 여그저그서 때븐게 그래서 전부 사망해서 그렇게

지금 해당화가 오행목이 있을 때 장관이었다고 한다 해당화가 그 통에 없어지고 쪼간썩 있는 것은
뭐 약 한다고 빼고 도초에 가든 자연산 있어요. 오다가 보든 체육공원은 3년 되었으까, 4년 되었으까.
완도 사람이 여그 면장으로 왔는디 그걸 건의했어. 오행목이 108년 전에 쓴 글이 그 때 말로 해당화가
물썬 향기를 풍기드라, 물이 쓰든 4~5장 되는 바우가 있는데 40~50명이 앉아서 술 먹는 자리가 있
고 명사십리가 검은 술 밭이 십리를 이어있고 그 가운데 해당화 촛불 핀 것 모양으로 장관이 좋드라.
이런 글귀가 있드랑께.

○ 증도 설화12

번 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 고
12	2006.04.17	증도면 우전리	홍순일, 김현주	조성갑(남, 73)	우전(羽田) 이야기	현지조사

우전(羽田)은 깃발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되어 살거나 부자되어 나간다.

○ 증도 설화13

번 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 고
13	2006.04.17	증도면 우전리	홍순일, 김현주	조성갑(남, 73)	나쁜 백가 장자터 이야기	현지조사

전해오는 이야기가 나쁜 백가 장자터다. 전해오는 이야기는 뭇이나른 옛날에는 바다가 거치니까 증동리로 안 댕기고 요리 댕졌는데 거가 지대가 높아. 만약 아무데나 걸리면 다 뜯어 가불고 뱃놈들이 신창으른 노예 삼고 그랬단해. 그렇게 부자가 될거다. 근디 그 일대가 지금 오다 보문은 체육공원 있는 아래 모도 우리 어릴 때는 모래 밭두렁이 많했어. 거그서 축구도 차고 했는데 지금 대목 대목 황토가 다 묻혔어. 요 쪽이 거의 다 황토여 속에는. 그리고 요쪽에는 흘러 내려서 3m 되는 모래가 있어. 해변 쪽으로는 모래 땅이 많아. 그렇게 그 문제는 거그서 생긴 것이여 밭이 많했고 지금도 밭이 많하고 그런디 그러고 인자 들어온 유래로 봐서는 백씨 산디로 경주 최씨가 들어오고 경주 정씨가 들어오고 양성 이씨가 들어오고, 전주 이씨 이 사람들은 불과 300년 전후에나 들어온 것 같어. 그래서 300백년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모양이여.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살고.

○ 증도 설화14

번 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 고
14	2006.04.18	증도면 방축리	홍순일, 김현주, 이혜숙	박성남(남, ?)	도깨비 이야기	현지조사

[어르신이 젊으셨을 때 어렸을 때 어르신들한테 들으셨던 옛날 이야기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쉽게 말해서 누가 도깨비랑 씨름을 했단든지 귀신을 봤단든지 그런 이야기들도 좋구요] 그런 것. 옛날에 우털 어렸을 때는 도깨비 불이라고 막 크기도 되었다 작게도 되었다 하는 도깨비 불은 실제로 본 적이 있어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어기 우정 해수욕장에 앞애가 거시기 해서 그런데

[백사장 쪽 말씀하시는 거요] 백사장이라기보다 이상하게 그 사람이 꼭 나타나면 다섯이 되었다가 일곱이 되었다가 저것이 무엇이나고 물웅게 듯이 바람에 날려서 그런 것이다 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이해했어.

[실제로 돛을 맨 것을 보셨다고 그러하는데 그 색깔은 어떠셨어요?] 재부분 빨강햇이니 검정색
[빨강색 그런 색깔 말고 이 마을에는 특징이 있는 바위 같은 것, 이름이 있는 바위 같은 거 없을까
요? 다른 마을은 부흥바위다 뭐가 해서 있던데] 산이 아니라 그런 데가 없어

[이쪽에 보이는 배도 지금 ??가 보이는데 이것도 밭 함쳐 가지고 이 정도이죠? 지금 현재 방쪽에는
호수가 몇이나 된답니까?] 한 20이나 한 오륙은 될꺼여. 아는 사람도 많고.

(2) 민요에 대한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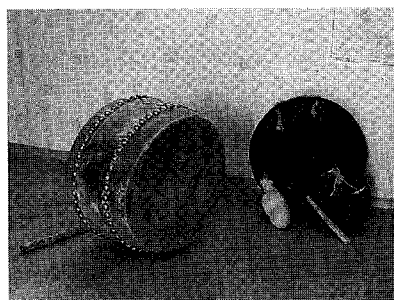
○ 중도 민요1

번 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 고
1	2006.07.20.	중도면 방축리 염산마을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정장례(여, 69)	산다이, 자장가	현지조사

정장례(여, 69)는 산다이, 자장가, 도깨비 이야기 외에 공연, 예능, 세시풍속, 문화체험, 공동체조직 등에 대하여 제보해 주었다. 가족은 남편 최완석(남, 69)과 아들3딸3인데, 농사를 짓는 남편은 지금도 놀자고 하면 좋다고 한다. 자녀를 키울 때 큰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지만, 어린 아기는 방에 놓고 문 잠그고 들에 나가 일한다. 현재 염산성결교회에 다니는데, 염산마을 30가구 중 20가구가 교인이다. 장은 지도장(6-8일)이고, 중동리 마트도 이용한다.

노래공동체의 명칭은 산다이이지만 주로 “오늘 저녁 놀자”고, 농악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건 곳 치자”고 한다. 시기는 낮부터 하는 데도 있고, 저녁 먹고 와서 밤 12시까지 하기도 한다. 하루 저녁에 놀며, 또 며칠 있다가 논다. 가정집에서 하는데 주로 어른이 없는 집에서 한다. 생긴 대로 준비하는 데 술(소주, 맥주), 돼지고기 등이다.

산다이판은 20여 명의 남녀인데 특별한 이가 아닌 부인, 남자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웃 마을에 고개를 넘지 않고, 돌아가지만, 젊을 때는 여럿이 30분 정도 고개를 넘어가서 산다이를 한다. 그러면 이웃 마을에서도 이쪽으로 놀러 온다. 염산마을에서는 한군데에서 한패만 한다. 마을에 북, 팽쇠, 징, 장고, 소고 등이 있는데 북 등을 이용한다. 달라진 모습이지만 녹음기를 틀어 놓고 하기도 한다.



〈사진 6〉 방축리 염산마을 악기(05.07.20촬영)

노래하다가 흥이 나면 춤도 춘다. 진도아리랑, 육자백이,

홍타령, 유행가 등을 한다. 시집오기 전에는 강강술래를 하지만, 여기서는 안한다. 판소리도 안한다. 5년 전에 소리를 메기던 이판례(여, 71)가 목포로 나갔다. 한편 이렇게 하면 흥이 나니까 좋았다. 곧 놀이화되지는 않지만 어른이 낮에 마당에서 윷놀이 등을 하고, 술을 나누어 마셨다. 봄에 이장과 함께 소풍을 가기도 한다. 현재 누가 소리를 못하게 한 것은 아니고, 더 좋은 찬송가로 하니까, 소리를 안해도 서운하지 않다.

<표 1> 증도민요 노래공동체의 민속문화정보

번호	항목	조사내용	특징
1	명칭	#“오늘 저녁 놀자.”, 또는 산다이	
2	시기	#낮부터, 또는 저녁먹고 밤 12시까지	
3	준비과정	#생긴 대로, 술(소주, 맥주), 돼지고기	
4	#향유계층과 구성	#20여 명의 부인, 남자들이 함	#젊을 때 고개를 넘나들
5	연행양상	#한군데에서 한패만, 복 등 악기로 #흥이 나면 춤도 춤 #진도아리랑, 유행가, 육자백이, 홍타령	#시집오기 전에 강강술래를 함 #판소리를 안함
6	기능	#흥이 나니까 좋음	
7	놀이의 변화과정		
8	연행장소(산)	#봄에 이장과 함께 소풍감	
9	#신앙	#더 좋은 찬송가로 하니까, 안 서운함	#누가 못하게 한 것은 아님

○ 증도 민요2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	2006.07.20.	증도면 증동리 2구 증서마을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문순자(여, 69)	산다이, 소리들	현지조사

문순자(여, 69)는 산다이와 여러 소리를 제보해 주었다. 신세타령, 청춘가, 화투타령, 상사소리(모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등이다. 문순자는 20세에 혼인하고, 44세에 혼자 되었다. 친정은 팔금이고, 6남매를 두었다. 문순자는 스스로 강패를 자처한다, 어디에 안끼면 재미가 없다. 현재 육신이 떨리고 아픈 데가 있다, 하체에 피가 잘 안도는데 그렇게 된 지 6년 된다. 겪은 가장 큰 일은 2년 전에 42세인 아들이 암으로 죽은 일이다. 아내, 딸 한 명, 아들 한 명이 있다, 아들 친구를 보면 죽은 아들이 생각난다.



<사진 7> 문순자(여, 70) 외(06.04.17촬영)

#산다이(1)

(팔금에서도 산다이하고...시집와서도...시집와서 계속 여기서 사셨어요? 중동2구에서?)

예.

(그쪽에서도 산다이 하셨고 여기에서도 여전히 산다이 하셨고요?)

여기서도 맥이(?) 그때 각시땀게 애기 업고 땡김서 장구도 없응께 깡통치고 깡통. 석유깡통. 옛날에 있었어. 석유깡통. 석유깡통에 철사하나 놔두고 막대기 들고 땡김서 뚜들고 놀았제. 옛날에 장구 있었다, 없었어.

(어떻게 놀았어요?)

이렇게 ‘아리아리랑’ 하고 놀았제. 그라믄 딱딱 맞아 들어가. 뚜들어도. 그렇게 재치가 있어야제. 멍청한 사람은 아무리 갈차줘도 못허고. ‘세월아 가지마라’ 하고 놀았제. 나 아니면 놀지를 못했어. 이 큰 동네가 나 안끼면 놀지를 못했어.

(신세타령 같은 것도 하셨나요?)

허허 환장하졌네. 그거 안했겠소.

‘세월아~ 멈춰라~ 억울하지를 마라~ 아까운 이내 청춘이 다 늙어간다’ 하다 고단하고 없이 살고 배는 고프고 산에 나무하다 송꾸(?) 찌먹고 솔나무 찌서 벗겨먹고 인자 낫자리 갖고 바우둑 뚜들서. 일하면서 신세타령 하는 것이여. 이놈의 세상이 어쩍힐라고 아까운 이내 청춘을 썩히냐고. 산장동(?) 찌 바우둑에 앉아서 메아리(?)매칠로 낫자리 뚜들고 돌맹이 뚜들고 놀았제. 나무는 헐라고 생각도 안허고. 그리고 살았어라.

(청춘가 같은 것도 부르시고 그러셨나요?) 청춘가는 말도 못허게 잘하제. ‘청청 하늘에는 잔별도 많고 못 잇을 이내 가슴에는 수심도 많네’ 이것이 청춘가여.

(청춘가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머니가 제일 잘 부르는 청춘가는?) 안 해.

(그럼 며느리가 밭일 하면서 시어머니 욕하는 노래가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불러요?)

‘시어머니 잡년아~ 간사질을 말어라~ 아까운 이내 청춘이 다 늙어 간다’ 시엄씨가 간사질을 헛게 신랑이 각시를 치는 것이여. 니 각시가 잘못된게 이렇게 이렇게 했단다 한게. 남편은 그것도 말이라고 듣고, 지오매 말 듣고 그 도작(?)을 허는 것이여. ‘우리야~ 삼동세야~ 의논만 맞으믄 시아버지 저까 짓눔 생불알을 못갈라’ 별노래가 다 있어야. 이렇게 삼 동세(동서)가 의논만 맞으믄 시아버지가 고약한게 불알을 못까졌냐 그말이여.

(재미있네요. 며느리가 몰래 불러야겠네요.)

삼동서가 모태든 그 노래만 하제. 밭으로 가도 그 노래, 산으로 가도 그 노래. 시엄씨가 고약한께. 옛날에 씨엄씨가 고약 안 했나.

(어머니 혹시 화토타령 모르세요? 화토 치면서 부르는)

이른 송~학 쪽쪽뽀아 이월 매주이(?) 맺어 놓고~
삼월사월아 전라면(?) 마음~ 사월 흑살가 오사로세~
오월 난초 나는 나비가 유월 목단에 들어서고~
칠월 홍살이 그늘안늘 팔월 공산의 달도나 밝아~
구월 국직 굳었던 마음이 시월 단풍에 다 떨어진다~
오동추야~ 저 달은 밝아 정단님 멀(?)감고 놀다갈게~.'

나는 화토를 안친께 잘 몰라. 내가 글을 안다든 다 안디 글을 모른께 잘 몰라. 암것도 없는 집에 와서 빨뚱에서 일해서 이 집을 짓고 아들 공부 께켰제. 시집 오기 전에 산다이 하고 여기 중동2구에서 산다이 할 때... 시집 안 와서는 뭘 노래 부른지 아요?

저그 가는 저 아배야~ 나를 싣고 가그라~
물종고 산종은 데다 나를 데려다 주라~'

배가 못지내갔어. 바닷가로. 팔금서 살몬 나무하러 가몬 배가 지내땡겨. 중선배가. 그라몬 막 수건 돌리고 손치고 노래를 불렀제. 날 데려가라고 중선배야. 그러고 살았어라. 나 여간 재미졌어.

(이쪽 산다이는 틀려요?)

똑같어. 섬이라 노래가 똑같어. 찌그 경상도 쪽이나 충청도 쪽이나, 저 각시 충청도에서 왔거든. 그런데는 말이 틀리제. 이런데는 섬이라 똑같어.

(산다이를 언제 하는지, 산다이는 명절 때 많이 하죠?)

명절 때 많이 하제. 명절 때 많이 하고, 들판에 나가서 모내기 할 때 많이 하고. 상사소리 하고. 모내기 할 때. 못소리 들어 봤소? 여그 못소리는 또 틀리드라고. '어이 기야 여~ 여로~ 상~사~ 디~요~'

여기가 그래. ‘여여기~도 심고~저저기도~심세~’ 못소리도 틀리고 이렇게 모찌는 소리도 틀려.

(명절 때 산다이를 많이 하죠?)

명절 때 많이 하제. 명절 때는 산다이를 밤낮 없이 하제. 낮에 허고 와서 점심 먹고 와서 씨압시 밥차려 주고 와갔고 또 쪼깐 있다가 해지른 저녁밥 먹고 와서 깡통 두들기고 노래 부르고 맨 그랬어.

(그럼 명절 때 며칠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하루만 하는 거예요?)

아니, 더 해. 설 때는 날이 궂으면 한 5일도 더 해라. 날이 궂으면 보름 한껏 놀고, 설에는. 그라고 대보름에는 한 이틀 궂치고 걸긱 치고 한 이틀 놀고 그러제 오래 안 해. 그란디 인자는 교회를 댕긴게 산다이를 할라고도 안 해.

(어머니도 교회 다니세요?)

교회 나 취미 없어라. 하도 나오라고 그래서 여그 장로 교회라고 한 이틀 댕겼는디 못 걸어강게 못 가졌습디다. 지그가 차로 실러 온다고 그래도 마음이 쩌 콩발애가 있어. 아들한테가. 그랑게 암져도 내 정신에 안 들어와. 그랑게 교회에 갈 필요가 없드라고. 안 가. 교회를 안 가요. 설 그때 며칠 가보고 안 가봤소. 며느리도 교회 안 댕기고 아들도 반대허고. 안댕겼어. 우리식구 다. 딱 큰딸 하나만 성당 댕기고. 둘째 딸은 절에 댕겨 절에.

(명절 아닌 때도 산다이를 하죠?)

명절이 아닌 때도 술 먹고 기분 날 때는 회관에 모여서 허제. 그라든 좋다고 허제.

(그러면 집에서 할 때도 있어요?)

집에서 하제. 예전에는 집에서 하제. 우리 신랑은 내가 그란줄 안케 그란디 또 판사람들은 지그 각시가 노래 부르고 그라든 집 도망 갈까봐 쫓아 댕겼어요. 깡통도 뺏어다가 뚱뚱에다 빠치고 방죽에다 빠쳐블고 그랬어. 지그 각시 도망 갈까봐. 춤췄다고. 노래 불렀다고 도망 가졌소? 옛날에는 잠잘 시간이 없었어. 하룻 내 노래 해. 청춘가 하다 상사소리 하다가. 모찌는 소리는 틀려. 모심을 때는 ‘어야디야 여 여로~ 상사디요 이배미를 심그고 장구배미로 가~세 어기야 여 여로~ 상사디요’ 맨 그 노래였어. 그랑게 한룻 내 일해도 빠친 줄을 모르제. 나는 모 심글라 노래 부를라 힘들제. 그랑게 안 할라고 하제 나는. 그라든 쪼깐 더 해라 쪼깐 더 해라 그라제. 처음에는 모를 찌갓고 갈 때에는 노래를 니리고 거장 돼야 갈때에는 바쁘게 손놀임 할라고 재쳐야 돼야. ‘어야디야 여 여로 상사디요 언제나 다 심기고 인따러나 갈건가 어야디야 여여로 상사디요’ 항상 그 소리 갓고 안해. 모질 때 따로 하제. 모심길 때 따로 하제. 또 모가 급하게 심겨서 그 논을 심겨 나가야 될텐디 느린게 재친 것이여. 그 논맬 때는 “아~라~ 아~라~뭘(?)들랴 이배미 다~매~고~ 장구 배미로 가~세”. 두 벌 매기나

초벌 매기나 똑같어.

(논에서 하는 소리가 이것 말고 또 없어요?)

없어.

(일하러 갈 때, 돌아 올 때 풍장소리는 없어요?)

없어. 그것은 부잣집에서나 한디 여그는 없어.

(산다이는 아무데서나 하는 건 아니죠?)

장소에 맞춰서 하제. 기분에 맞춰서 하는 것이여. 노래라고 하는 것은. 술먹으른 술집서 하는 것이고 재미가 있으른 모태른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 노래 부르고 있으른 좋다 하겠소? 일은 안하고. 나 같은 사람은 일 안하고 노래해도 저 어매는 저런 어매다하고 알려준디 딴 사람들이 허면은 저년들 미쳤다고 하제.

(할머니 경험으로는 집에서 많이 했고, 오늘 산다이 하자고 하면 오늘 연락 해요?)

그라제. 저녁에 싹 모태 회관에. 차차차가 들어가제. 차차차. 그것이 산다이제. 산다이 하기 전에 그것이 시작이여.

(할머니가 연락을 해요? 오늘 차차차 하자)

아니, 동네 마을 회관이 있어. 싹 모태. 모태른 기분이 좋으른 전축 틀어놓고 산다이를 하는 것이고 기분 안 좋고 안 맞으른 화토 치다 가는 것이고 그래.

(산다이 할 때 모이면 몇 명 정도 되나요?)

여그 2구는 사람이 많은게 60명인가? 여그가. 여그 증서 2구가 제일 많아. 그랑게 모태른 한 30명. 여그는 놀음이 좋아. 잘 놀아 전축만 틀어 놓으른 미쳐븐디. 그럼 할머니가 시집오기 전에도 모이자고 하면 그 정도 되나요? 그 때만해도 열여덟 명 더 모태제. 막 시집와서는. 박이 터지게 모태제. 그때만해도.

(산다이 하기위해 노래 연습도 해요?)

안 해. 대강 농사지을 때 하는 노랜디.

(그럼 단골 노래꾼도 있었겠어요. 할머니처럼)

없었어. 나밖에.

산다이(2)-갑계

(할머니는 다른 마을에 가서 한 적도 있었어요?)

있었제.

(그럼 여기는 증서2구인데 다른 마을 어디를 가셨어요?)

오산, 당추, 우전, 대초, 장고리, 등생이, 염산까지 다 갔제. 갑계한께 다 갔제. 가든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오도 안 했제. 나이 같은 갑원들.

(갑계 지금도 해요?)

지금은 안 해. 나가 이렇게 뒹벌어서.

(할머니만 안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두 안하시는 거예요)

안해. 깨져블었어. 내가 안 한께.

(그럼 갑계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인자 시집와서 몇 년 살다가 자기 갑장끼리 갑계를 해보자 해서 한 것이여. 운들 시집와서 저 우전리 사람들이 거 가신게(?)라고 게 있어. 바닷게. 거그를 깔비러(?)놓는다고 핑계치고 나를 만나러 왔든만. 갑을 허자고.

(그 때가 언제였어요?)

그 때는 내가 20살에 시집와서 69인께 그 때는 34이나 그때부터 시작했졌소. 그라고 우리 영감 죽어블고 조금 땡기다 말어블었어.

(갑계에 가서도 산다이 할 때처럼 재미있게 노셨겠어요)

그라제라. 그랄라고 모태제. 우리 갑계원은 어디 있나몬 염산, 당추, 오산, 증서, 중부, 장고리, 우전리, 덕경리, 돌맞이(?) 그렇게까지 했어.

(산다이 할 때 누구는 안돼하고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

(나이는 염두에 두나요? 꼬마는?)

엄마들밖에 안 가. 꼬마들이 뒹한디 오졌소.

(산다이하면 좋으세요?)

좋제. 신나몬 신장로에 나가서 춤추고 와. 막 치매자락 잡고 막 추고.

(한 집에서 놀고 또 다른 집으로 가서 놀기도 해요?)

없어. 양쪽에서 놀면 기분도 안 좋고... 양쪽에서 놀몬 저쪽에는 교회를 신실이 땡기고 우리 2구는 그 때만해도 교회를 안 땡겼어. 그래서 2구 사람들은 노래다하면 똑소리 나블제. 어디를 가도. 그랑께

봄마다 관광 땡기제. 시방도.

(교회를 다닐 때는 산다이를 할 기회가 없죠? 하지 말라고 해요?)

교회를 따를라고, 교회 찬송을 따를라고, 신앙을 그리 모델라고 논 것을 싫어해. 그런게 교회를 땡기
른 이것을 안 할라고 해. 노래를 안 할라고 해. 춤춘 것도 안 할라고 하고. 목사님이 못하게 하까만은
목사님 안에(?) 교회에 들어갈까 그런가 배반하듯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응, 자기 맘으로.

(산다이 할 때 장단은?)

지금은 장구치제.

(그럼 시집오기 전에 깡통 샀어요?)

아니, 시집와서 깡통 샀제. 지금은 부녀회에서 돈을 싹 걷어서 장구를 샀제.

(그럼 그 때 연세가 어느 정도 됐었나요?) 33살 때나 놀았겠소.

(사람들이 모이면 놀이도 하나요?)

수건돌리기, 봉사 살이, 씨름.

(여자들도 하나요?)

여자들도 해서 자빠져서 복장빠가 나갔제. 수건돌리기는 별로 노래를 했어. 봉사 살이도 별로 노래
하고. 씨름. 상씨름. 여자들은 뺨쓰만 입고 붙잡고. 지면 노래를 부르고. 술내기도 하고.

(산다이는 대체로 여자들이 많이 했죠?)

여자가 많으른 남자들이 와. 취미 있는 사람들은. 남자가 쟁겨야 재미가 납디여. 술도 여자까지만 마
시른 맛도 없어. 남자가 쟁겨야 맛이 있제.

(남자가 오면 남사스럽게 하는 거 안 하고?)

안 해. 똑같이 술 먹고 놀아. 손뽕탁 뚜들고 노래 부르고 그래. 흔들고. 차차차하고. 바닷가에 가서도
하고. 왜 조개가 안 나오냐고.

‘이 놈의 조개야 으디를 갔냐~

밤낮없이 헤매도 잡히지가 않는다~’

심심하른 그 노래여. 우리 오매가 육자배를 잘 불렀어. 그란디 일찍 죽어 불었어.

‘고나~ 해~ 사람이~ 살면~몇 백 년이나 사드란 말인가~

죽거든(?)~ 남녀노소가 되드란 말인가 아 고나~해~’

‘세월아~멈춰라 (-)하지를 말어라~

못 돼먹은 이내 청춘이 그냥내야꾼다(?)’

노래는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여.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이고 죽졌네 아라리가 났네~

너는 너는 누구며 나는 나는 누구란 말인가~

나는 간자 나는 화초 화초로 구나~’

‘노래야~ 복죽아~잘넘어를 가다오~ 오다가 가다가 중치가 메이네~

오라고 오란 데는 야야 밤에 가고~동네 앞 술집이는 대낮에나 갈라네~

바람을 풀숲 구름은 가고~내아 청춘 흘러서~내 세월은 다 가네~’

‘인쁜(?)하늘 큰아이 밤에~ 산천초목도 잠들었드나~

저기 가는 저 기차야 우리님을 실었드~맺은 마조나(?) 싼고나 가거라 아 고나해~’

‘날 데려가그 날 데려가그 산 좋고 물 좋은 데로 날 데려가거라

산 좋고 물 좋은 데는 아니 데려 가고요~ 물 좋고 산 나쁜데 날 데려 가느~나~’

○ 중도 민요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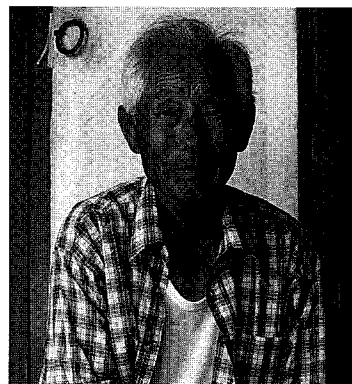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	2005.07.21.	중도면 대초리 4구 장고마을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조복남(남, 73)	산다이, <한풀이 (성화타령)>, <동 당기타령>, <노랫 가락>, <진도아리 랑>, <상여소리>, <쭈대머리>, <갈 까보다>, <사철가 >, <나무하러 가서 하는 소리>, <강강 술래>	현지조사

#제보자의 삶

조복남(남, 73)은 산다이, 민요, 판소리 등을 제보해 주었다. 한풀이(성화타령), 둥당기타령, 노랫가락, 진도아리랑, 상여소리, 쭉대머리, 갈까보다, 사철가, 나무하러 가서 하는 소리, 강강술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조복남은 대초리 4구 1307번지 장구마을에 산다. 22살 때 결혼하고, 8년 지난 다음에 우전리에서 장구리로 이사왔다. 우전리에서 살다가 이리 와서 농악을 칠 때는 설장구를 쳤다. 온 지가 43년이 된다. 68살 때부터 장고 교회에 다녔다. 교회 다니면서 소리를 안 했는데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은 인력으로 안하고 기계로 하니까 소리를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조복남은 20대 때 우전리 당질인 고 조성대 사랑방에서 임봉춘 공연을 할 때 본 적이 있다. 임봉춘은 임방울 하고 같은 계열인데 나이 먹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공연했다. 조성대가 시골에서 여유있게 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사랑채에 많이 잡아 놓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가족은 아내, 4남1녀이다.



〈사진 8〉 조복남(남, 73)(05.07.21촬영)

#소리(1)

[장고리에 소리나 옛 노래 하시는 분 계세요?] 노래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인자 민요 같은 것을 짚금하기는 했어도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은 몰라요. <한풀이>, <둥당기타령> 같은 것 불렀지.

[한풀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풀이>를 <성화타령>이라고도 하지요.

<한풀이(성화타령)>

물속에 잠긴 달은 잡을 듯하여도 못 잡고

품 안에 든 임 마음 알 듯하여도 내 못 아네

아이고 데고 허허 성화가 났네

민지를 말어라 민지를 말어라 임자 있는 남의 사랑

믿고 믿고 믿었다가는 공연한 낭패를 보리라

아이고 데고 허허 성화가 났네

<등당기타령>

등다애당 등당애당 당기 등당애 등당기당
딸아 딸아 막내딸아 너만 곱게 잘만커라
오동나무 민자농에 갇은 정성 걸어주
바닥 같은 갇다주고 골골마다 논 사주마
등당애당 등당애당 당기 등당애 등당기당
어매 어매 일어나소 해가 동창에 비쳤네
어와등실 담 녕쿨은 담장 너머로 손 주는데
우리 어매 어디가고 내손 줄질 모르는가
등당애당 등당애당 당기 등당애 등당개당
오매 오매 성님보소. 베잘짜면 뭐한단가
앞에 절구 갇다놓고 뒤 안에 머슴 갇다놓고
나한조각 주는 것이 내심 비려 못 먹졌데.
등당애당 등당애당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산중 산중 깊은 산중 삼베 짜는 저 처녀야
앉아 짜나 서서 짜나 니 베 짜는 것 구경 왔다
뭘 맨지 한 섬 섬에가 바람에 팔랑 팔랑
등당애당 등당애당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진도아리랑>도 할 수 있고 <노랫가락>도 할 수 있고.

[<노랫가락> 한 구절 해 주세요.]

<노랫가락>

나비야 청산가자 벗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면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을 하면은 앞에서라도 자고 가자
말은 가자고 개꿈을 치는데 임은 꽃 붙들고 아니 노네

석양은 재를 넘고 나의 갈 길은 천리원정

<진도 아리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흠흠 아라리가 났네
이산 저산 도라지꽃은 바람에 펄펄 날리고
이내 ?????가 어깨너머로 날렸네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흠흠 아라리가 났네
놀다가세 놀다나가세
저 달이 터지도록 놀다나 가세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흠흠 아라리가 났네
문중 대죄는 웬 고개나
부부야 부부 부부가 눈물이로구나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흠흠 아라리가 났네

[이 소리는 언제 배우셨어요?] 한 12살 넘었을 때. 누나들이 명절 때면 큰 애기들이 모여 놀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둥당기타령> 같은 것을. 누나들이.

[언제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나요?] 명절 때요. 명절 아닐 때는 모여 놀 때 부르기도 하지요.

[이때 강강술래도 부르고 노나요?] 강강술래도 하고 그러지.

[다른 것은 또 무엇을 했나요?] 널뛰기도 하고 그랬었지요.

#산다이

[혹시 산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술 먹은 것 아닌갑소. 나는 원래 술을 못 마시니 그런 것에는 안 끼어요.

[담배도 안하세요?] 담배는 늦게야 피웠다가 끊었지요. 남자가 술도 안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하면 그렇게.

[산다이의 뜻이 뭔가요?] 뜻은 나도 모르겠소. 많이 들어는 봤지만. 술 먹고 노는 것 아니요.

[장고리에서는 산다이는 안 한가요?] 지금은 거의 교회 다니고 술 먹은 사람이 없으니까 안하지라. 산다이판에는 술이 있으니까 술 먹고 노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 뜻은 몰라요.

[남자들이 산다이하는 것 보셨어요?] 남자들이 산다이 하고 그래요. 여기 부락에서. 우전리에서도 봤어요.

[남자들이 산다이하면 남자들만 모이나요?] 네.

[우전리에서 장고리로 오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전리가 농토가 적어요. 그래서 여기가 토지를 사서 분가했지요.

[이쪽 장고리가 농사지을 땅이 많나요?] 네.

[할아버지가 구입 한 땅의 면적은 얼마정도 되나요?] 그때는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 간척지를 사가지고 개간을 했지요. 논도 사서 높은 데는 밭 만들고 깊은데는 논 만들고.

[몇 평정도 구입하셨나요?] 그때 당시 1200평 정도.

[그때 구입한 땅을 그대로 지금까지 농사지으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농토를 많이 샀다가 또 자식들 때문에 많이 팔았지요. 현재는 논 3600평, 밭이 1200평정도 되지요.

[총 4800평이면 일이 많지요?] 그렇지요.

[할아버지 내외분만이 그 농사 다 짓나요?] 그렇지요. 이양기 가지고 짓지요. 근 5년 밖에 안 되었소. 트랙터가지고 농사 진것이. 그 이전은 다 작영으로, 경운기로 했지요.

[5년 전에는 작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스스로 농사지었다는 거지. 기계없이. 트랙터 그런 것 없이. 주민들이 경운기로 로타리치고 그랬지.

[남자분들이 산다이하면 어떻게 노나요?] 술 먹으면 산다이 하자고 상 두드리고 그랬지요. [우전리와 장구리의 산다이 모습이 비슷한가요?] 같지요.

[결혼은 언제하셨어요?] 22살 때.

[결혼하고 8년 지난 다음에 우전리에서 장구리로 오신 거네요?] 네.

[우전리에서도 장고리에서도 산다이는 계속 되었지요?] 그랬지만 지금은 안 해요. 한 11년 전까지 그런 모습이 있었지요. 10년 전까지.

[산다이를 하다 안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모태서 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풍습이 없어진 거지요. 또 교회가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자제 되었지요.

[교회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노래하고 노는 것을 싫어하나요?] 나는 한 적이 없어요. 술을 안마시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보기만 했지.

[산다이를 할 때 사용하는 악기가 있나요?] 악기가 없어. 손뼉을 치던지. 상을 두드리던지 그랬지.

[술 마신 자리 말고 아저씨 집으로 놀러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네.

[산다이를 하루, 이틀 계속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우전리에서도 그런 적은 없었나요?] 잠깐이지. 하루 이틀 계속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산다이 하는 장소가 주로 음식점이었나요?] 술집에서 하면 주인이 싫어하니깐 끼리끼리 모여서 술 사다놓고 개인집에서 노는 경우도 있고.

[개인 집에서 놀 때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술, 안주. 안주는 그냥 있는 대로. 안주 보면 술 먹고 싶고, 술 먹으면 안주 먹고 싶어 그러니까. 안주 값이 생기면 육고기든 마련하고 그랬지.

[사람이 없어 다른 마을 사람들을 불러들이거나 혹은 다른 마을로 산다이를 하러 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사람들이 중동리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전화받고.

[장고리에서 중동리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걸어서 20-30분정도. 자전거 타고 가면 10-15분 정도.

[혼자 다른 마을로 가나요?] 아무개랑 같이 오라고 하면 데리고 가기도 하지요. 우리 처조카가 많이 땡기고 그랬어요. 중동리 가서 자고 올 때도 있고 그래요.

[처조카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57살.

[10년 전이면 47살 그러니까 40살 넘었을 때 처조카분이 잘 노셨다는 말이지요?] 네.

[처조카분이 흥이 많은 분이신가 봐요?] 흥은 별로 없어요. 그냥 술친구를 좋아함께.(웃음) [이렇게 다른 마을로 산다이 다녀오면 조카분은 좋아해요?] 본인은 좋아함께 그렇게 땡겨도 가정에서는 싫어하지요.

[산다이를 할 때 오는 사람 오지 말아야 할 사람 이런 기준이 있나요?]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노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없지.

[장고리에 노래를 취미로 삼는 모임이 옛날부터 있었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우전리에 사실 때는 노래패가 계모임처럼 있었나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 노래패 모임은 없지만 산다이 하자 그러면 모이는 거지요?] 네. 술 마시다가 산다이하고 그렇

지요.

[보통 산다이를 하면 나이가 비슷하거나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일 텐데 모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친구, 술친구. 나이 차이보다 술친구지요. 술 먹고 노면 그냥 노래가 나오고 그랬지요.

[산다이를 한 사람들끼리는 친밀하니까 일하는데 있어서도 서로 품앗이를 하기도 했나요?] 아니요. 그것하고 틀려요. 노는 것은 노는 것이고. 나는 술 안 먹어도 다 좋아해요.

[산다이 할 때는 무슨 노래를 주로 부르나요?] 아까 했던 <노랫가락> 같은 것들이지요. [노랫가락 말고는 또 뭐가 있나요?] 주로 유행가를 했지요.

[혹 유행가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울고 넘는 박달재>, 뭐 그렇지요. <가거라 삼팔선아> 그런 것 많이 불렀지요.

[아까 하셨던 것처럼 좋은 소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잘 안 부르시나 봐요?] 몰라서 안하지요.

[소리하실 때 장단을 치시면서 하시던데 산다이할 때 악기를 넣나요?] 그냥 두드리고 말지요.

[처음 모이면 누가 첫소리를 하나요?] 그냥 내키는 대로 하지요.

[소리를 하다가 춤도 추나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춤, 노래 말고 노래도 하나요?] 아니요.

#소리(2)

<상여소리>

황천이 죽어 황천일세

어느 어느 어화리 넘자 어화리

죽장 망해 황토자루 망산을 부르나니

어느 어느 어화리 넘자 어화리

꿈을 꾸고 꿈을 꾸면은 임이 와서

어느 어느 어화리 넘자 어화리

황천이 뭐라든지 오늘 죽어 황천일세

어느 어느 어화리 넘자 어화리

죽장 망해 황토자루 저 이 강산을 부르나니

어느 어느 어화리 넘자 어화리

땃날이면 꿈을 꾸고 꿈을 꾸면은 입이 와서
어느 어느 어화리 녀자 어화리

[관소리 하실 수 있어요?]

<쑥대머리>

쑥대머리 귀신형국
저 낙원방 잠자리에 진강낭군 니 뿐이라
보고 싶고 보고 싶고 한양낭군 보고 싶어
오히려 정경루를 일장 설을 내가 못 받으니
부모 공양 글공부를 겨를이 없어서 이러는가
여인 시름 ??? 나를 잊고 이러는가 기구하구나
절 같이 번뜩이로 비끼고 낙왕망해 맡겼으니 오정을 내가 어히 보며
전전같이 잠 못 이루니 이는 호접몽을 볼 수가 있나

<갈까보다>

갈까보다 갈까보다 입을 따라서 갈까보다
천리라도 따라가고 만리라도 나는 따라가리
바람도 수양 넘고 구름도 어여 넘는
수진이 날진이 해동창 보라매
다시 넘는 동해령 고개라고 입을 따라서 갈까보다
바늘을 집는 여성은 어느 누가 막혔어도 이런 일도 하려니와
우리 님이 가신 곳을 무슨 물이 막혔가니 이다지도 못 오르고
차라리 내가 죽어 삼월동풍 이영자 되어
운개진창 한 끝에 집을 짓고 논에다가
밤중이면 입을 만나 만단정애를 하고지고
어쩔거나 어쩔거나 임 없는 세상을 어찌를 할거나

아무도 모르겠어 이러는가

[갈까보다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학당에서 배웠어.

[<호남가>, <사철가>도 좀 하실 수 있어요?]

<사철가>

이산저산 꽃이 필 때는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 왔건만 태산 같은 나도

어제 청춘이려니 오늘 백발이로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가 갈 줄 아는 봄을 반긴들 무엇하며

봄아 왔다가 갈려거든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녹음방초 지저귐다

여름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팔로단풍이 요란해도 계절기준은 바뀌지 않고

만고의 단풍은 어떠한고

가을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낭모한 저 찬 바람에 백설이 펄펄 휘날리며

월백 절백 천지개벽하지

모두가 백발이로구나.

#텔레비전으로 판소리 익히기

[텔레비전으로 보고 몸에 익히실려면 관심이 있으셔야 했을 텐데요?] 소질은 있었지.

[<쑥대머리>, <사철가>를 텔레비전에서 배우셨나요?] 네.

[또 알고 계신 노래 있으시나요?] 이전에는 알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텔레비전에서 열쑥구 학당을 보신 것은 언제쯤인가요?] 재작년이니까 나이 많이 먹어서 했지.

#민요와 판소리의 차이

[민요하고 판소리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박자가 틀리지. 또 듣기에 차이가 있지 않소. 굴곡이 있고.
[텔레비전 말고 라디오로 소리를 배운 적은 없나요?] 방송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스승이 없으니
까 얼씨구 학당이 처음이지. 기회가 안 닿아서 못 배웠지.

<표 3> 증도민요 노래공동체의 민속문화정보

번호	항목	조사내용	특징
1	명칭	#신양산다이한다고 함	
2	시기	명절 때, 아날 때도	
3	준비과정	술이 있음	
4	#향유계층과 구성	남자들이 산다이하자고 함, 여자들도 함 3명 이상임	
5	연행양상	상을 두드림, 집에서 노는 경우도 있음 한풀이(성화타령), 등당에타령, 진도아리랑, 노랫가락 대중가요(올고넘는, 비내리는, 애수의 소야곡, 가거 라삼팔선아)	
6	기능	먹고 마시고 즐기니까 좋음, 노는 것 따로임	별로 노래부르고 술냄
7	놀이의 변화과정	옛장수 마음임(소리→춤→놀이×)	
8	연행장소(산)	증동리까지 나감(2-30분 소요)	
9	#신앙	기계화되니까, 교회다니니까(5년) 못함	우전리에서 태어나 30살 때 음 (43년됨)

○ 증도 민요4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4	2005.07.21.	증도면 우전리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고순례(여, 78)	산다이, <나무하 러 가서 하는 소 리>, <강강술래>	현지조사

고순례(여, 78)는 산다이, <나무하러 가서 하는 소리>를 제보했다. 고순례는 장흥에서 20살에 시집
왔다. 고순례는 산다이에 관해 제보하고, 또한 김병례(여, 74), 조희심(여, 74), 고순례(여, 78), 박정
금(여, 83), 이말단(여, 75)등과 함께 당모시기를 제보했다.

#산다이

산다이 하는 장소는 밖으로 나와 강강술래하고 뛰고 그랬지.
[고순애 할머니 고향은 어디세요?] 자원 대울. 17살 시집
왔어.

[시집오기 전에도 고향에서 산다이 했지요?] 네. 자치기
하고, 비석치기 하고 그랬지. 시집와서는 안 했지. 야구치기
하고 그랬지.



〈사진 9〉 고순례(여, 78) 외 (06.07.21촬영)

[그때도 모여서 노래 부르고 그랬지요?] 네.

[이쪽으로 시집와서도 산다이를 했나요?] 네. 강강술래도 하,고 설하고 보름하고 추석 때 강강술래
하고 산다이하고 놀았지. 대보름 저녁에 저녁 밥 먹고 했지.

[자원 대울과 이곳과의 산다이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모르겠어요. 여기와서 노는 것이 더 재미있
지라. 신랑따라서 살고 그렇게 더 재미있지라. 노래를 얼마나 했든지.

[명절 때 하는 산다이 말고 또 언제 산다이를 했나요?] 옛날에 논맬 때, 밭일하고 그럴 때 노래하고
동무끼리 모태서 일하면서 그랬지만 지금은 없어요.

[갑계가 있나요?] 지금은 안 해. 늙어서. 다 죽어버려서. 전에는 했지요.

[몇 살 때 계모임을 했나요?]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안다요. 안하지는 언제인지 모르겠소. 사람이
죽고 뭐하고 그래서.

[갑계할때도 산다이처럼 춤추고 노래 부르고 했나요?]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랬지요.

[갑계 말고 명절 때, 논매면서 말고 노래 부르는 것은 있나요?] 산에 나무하러 가서, 동무들과 함께
가서.

〈나무하러 가서 하는 소리〉

나무하자 나무하자 우리가 나무를 많이 해서 가자

뭐 이런 소리 했지.

[산다이를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아무 집에 가서 하지. 술 한 잔하고 놀지. 놀다가 놀 때가 있으
면 가서 놀아요. 어른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른들이 피해준다요.

[산다이하면 몇 명 정도 모이나요?] 전에는 많이 모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많았지요. 10

명도 더 되요. 20명 정도. 30명은 안되요. 그때그때 마다 다른데 10명은 넘고 전에는 다 그렇게 모태서 놀았어요.

[산다이 할 때 술 마시지요?] 옛날에는 다 술 먹고 놀았지요.

[산다이 하면 저녁 몇 시까지 놀았나요?] 젊어서는 새벽까지 놀았어요. 술도 먹고 노는 집에서 먹을 것을 내 놓고 그랬지요. 떡도 있고, 감도 먹고, 나물도 먹고, 술도 먹고, 나물은 콩 나물, 녹두나물. 시금치는 있으라면 있고 없으라면 없고.

[강강술래 좀 해주세요.]

<강강술래>

강강수월래

이집이가 뉘집이나

강강수월래

주인내 마당에 거닐어 보면 권 머슴이 내려다 본다.

강강수월래.

새야 새야 놀아라 절래절래 놀아라 남생아 놀아라

강강수월래

[다른 마을로 산다이를 가기도 했나요?] 학교 보낼 때는 학교 가서 놀로 그러고 당겼지요.

[사당골에서 전해 내려오는 노래가 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노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여기는 섬이 작다보니까 금방 없어져버린 것 같아요. 민요인지 뭔지 몰라도 여기가 옛날에 노래가 정말 많았어요. 에서 일하면서 하는 소리도 있고, 일도 안하고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내기할 때 일하는 사람 옆에서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다이라고 아세요?] 옛날에는 많이 했지요. 지금은 안 해요. 옛날에는 맨 날 그것이었지요.

[직접 산다이 해 보셨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모이면 했어요.

<표 4> 증도민요 노래공동체의 민속문화정보

번호	항목	조사내용	특징
1	명칭	산다이는 논다는 뜻임	
2	시기	설날, 보름, 추석 저녁밥 먹고, 닭 울 때까지	진작부터 안함
3	준비과정	술, 떡, 나물, 밤, 콩나물, 녹두, 시금치	
4	#향유계층과 구성	아무나 놀자고 함, 여자들만, 남자들도 끼워줌	
5	연행양상	장구치면서 노래하고 춤춤 진도아리랑, 강강술래(많이, 남자들도), 육자백이	
6	기능	즐겁고 재미있음	
7	놀이의 변화과정	강강술래를 하다가 재미있으면 으샤 으샤함	
8	연행장소(산)	나무하기 전에 늪	
9	#신앙	나이가 먹으니까 안됨	나무를 안 해도 같이 감

○ 증도 민요5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5	2006.04.17	증도면 증동리 2구	홍순일, 김현주	임맹단(여, 69)	국악찬송	현지조사

임맹단(여, 69)은 증도민요를 조사할 때 받는 소리를 했다. 그러다가 국악찬송을 제보해 주었다. 임맹단은 20살 때 혼인하여 4남매를 두었는데 친정은 대초2구이다. 임맹단은 권사로서 성도 200명과 함께 57주년 고 문준경 전도사 기념 행사를 준비한다.

[아 국악 찬송] 예, 국악 찬송이재. 아리랑도 있어.

아리랑 아리랑 예수님이 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아라리요 아라리 고개로 넘어간다
날 버리고 가신님은 십리로 못가서 발병난다.

[악기는 뭐해요] 악기는 피아노로 치면선

[장구 목 같은 건 안 쓰세요? 우리 국악 가락을 통해서] 그렇지요. 이제 부르면 흥이 나서 흥 취해서



<사진 10> 임맹단(여, 69)(06.0417촬영)

찬송 부르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날 버리고 가신 하나님은 십리로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가는 분이 가면을 들어도 ???가 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목포대학교에서 민요가(필자:민요를) 취재를(필자:취재하러) 왔는가 ??????

???웃으면서 가그라 (청취불능)
잊지 못할 너와 나의 사랑의 맘 누가 아라
너무나도 떠나버린 예순가?
마음이 서러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길이 따로구나

○ 증도 민요6

번 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 고
6	2006.04.17	증도면 우전리	홍순일, 김현주	조성갑(남, 73)	소리, <상여소리>	현지조사

조성갑(남, 73)은 이야기(지명), 노래(창가, 상여소리), 놀이 외에 마을, 해학극, 신앙에 관한 내용을 제보해 주었다. 조성갑은 도서의식, 즉 증도는 보고 배울 것이 적은 지역이므로, 자녀는 거지가 되어도 서울에서 살게 해야 한다고 한다.



〈사진 11〉 조성갑(남, 73) (06.0417촬영)

#소리

옛날에 풍경노래, 내가 20세 때 뭘 노래를 심히 불렀냐면
“아양재 다양재 동부꽃 동글개 나무야 초롱초롱 나라.” 그 소리를 지금도 써 놓고 몇 번 불려봐도 앞

뒤가 안 맞아. “나무 나무 뽕뽕 가지 잡고 춤 춘다. 덜덜이 뭘 총각 똥 해라.” 그랬는디 이름도 잊어볼고 그러고 내가 일제 때도 내가 여그서 풍경을 했어.

질꼬대기라고 “해당화 해야 밤 가운데~.” 머슴이 소 타고 다니고 그랬어. 굿치고 풍경이라고 그러제.

모내는 소리는 “어기야라 먼들이야 저건네 갈미봉에 물안개 돈다.” 이것은 모찌는 노래. 그러고 모심는 노래는 많이 있고 자진모리도 있고 늦은 소리도 있고 근디 그런 것이 있고.

보리타작도 돌려치는 것이 아니고 20명, 30명이 양쪽에서 쳐 주른 볼 만해. 그것을 ‘냉개친다’ 고 그래. 그런 노래도 많이 불렀고 부인들은 등당에 타령이나 진도 아리랑을 많이 했는데 다 묻혀 버렸고

#상여소리

[상여소리 하시던 거 좀 해 주십시오.] 상여가 처음에 방에서 들고 지고 나올 때 “관음보살 관음보살” 하고 나오는데 상여 떠며 놓고 앞에 공포라고 있어. 선소리 매기는 사람이 있어. 그 소리를 지대로 허자고 하면 “관음~ 보살” 그렇게 매기른 상주들도 상여 나주고 맞아. 그 사람이 여러 가지를 소리를 주제. 인자 황천에 간다던지 주다가 “태거” 하든 생여를 들고 “태교”하든 생여를 놔. 그런디 인자 그러고 허다가 나감시로는 “어허허어허 어화리념자 어허허” 거그서 그때 행동을 어떻게 하나든 서서 이 쪽 저 쪽으로 굴러. 그때부터 생여가 행진을 하고, 공포가 소리 할 때는 행진을 해. 소리 받을 때는 “어허 어허허 어화리념자” 이것이 한문으로 말하자면 ‘遠路 遠路’ 여. ‘멀고 먼 길을 어이 가꺼나’ 이 소리디 그렇게 허든 가다가 하직한다고 생여를 밀고 앉았다가 ‘관음’에서 앉았다가 ‘보살’하든 일어나고 세 번 절을 하제.

[동네를 향해서요?] 지금도 소리 주라고 하든 별 충은 없어도 소리꾼은 있어.

[지금 중도에도 있어요?] 내 후배인디 남성기라고 인자 과히 소리는 잘 못 허는디 그 사람이 쇠도 들도 다 해. 그런디 박종갑씨라고 그 사람이 갑자생인데 그 양반이 있을 땐에는 가끔 노인당에서 술 고나하든 생여소리도 하고 그러디다. 그러고 단가 같은 거 조금씩 하고.

[그럼 이 분은 돌아가셨어요?] 이 분은 여그 없당개. 을축생 82살 짜리가 있는디 작년까지 평소에 생여소리를 안 주던 사람인디 그 사람은 시조 소리도 조금 하고. 정축생 나이가 70인 남성기라는 그 사람은 충은 안 좋아도 옛날 소리를 매겨. 잘 하지는 못하는디 아까도 말했지만은 거시기 전문가는 못 돼. 근디 할 건 다 해. 6월말 경에나 한 번 오른은 당에 올라가는 것은 못 봐도 마당놀이 하는 것은 할라고 해. 지원은 못 받아도 형식은 할라고 해.

[정축생 이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성기라고. 정축생인데 70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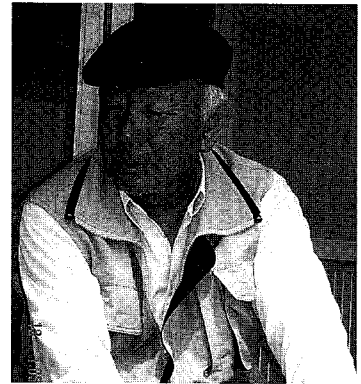
○ 중도 민요7

번 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 고
7	2006.04.18	중도면 방축리	홍순일, 김현주, 이혜숙	박성남(남, 69)	산다이, 한풀이, 물속에 잠긴 얼굴, 밤다래	현지조사

박성남(남, 69)은 방축리 노인회장으로, 산다이와 <한풀이>, <물속에 잠긴 얼굴>, 밤다래를 제보했다.

#산다이

[상사소리도 있고 혹시 이 마을에 산다이 하셨어요 옛날에? 그니깐 저녁때 아주머니들 모여서서 돌아가면서 소리도 하시고 노시는 거요.] 어쩔 때는 그럴 때도 있지.



<사진 12> 박성남(남, 69)(06.04.18촬영)

[그때가 할아버지 몇 살 때쯤으로 기억나세요??] 아이 간간이 지금도 하지 산다이라고 지금도 함께

[근데 그 산다이 형식은 옛날부터 하던 식이죠?] 그렇지 이제 상 뚜들고 박수치고 이제 합창하다 독창하다가 그렇게 하지

[산다이는 할머니도 하시나요?] 할머니들은 보통 힘들어 나이 사십 젊은 아주머니들이 한 사십대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노래 한자락 합시다 그러구 이자 그런 전문인들이 노래 한 자락씩하지 우리 부인같은 할머니들은 할질도 몰라 하도 않고 또 교회 땡겨볼면 찬송은 할수있겠지만

[할아버지 지금 교회 다니세요?] 아니

[할머니는요?] 권사요

[저기 할머니 지금 들으세요? 할머니 염산에서 오셨죠? 근데 제가 작년 7월에 염산에 가서 노인 분들을 뵈었거든요. 그 분들은 산다이 했었거든요?] 산다이 기본 가락도 없어 하다가 기분 좋으면 좋다고 노는디

[그러면 산다이는 무슨 뜻이요?] 그냥 노래부르고 춤추는 것이 산다이지 뭐

[그러면 이 마을에서는 옛날부터 그렇고 지금도 산다이 하시는 거구요?] 산다이 가끔씩 해요

[그러면 총각 시정에 하셨어요?] 이자 그때는 산다이가 뭇인 줄을 몰랐지. 그런디 이제 오십대 되면서 산다이 한 번 하자 모여서 술 한 잔 하자 할 때가 그런 시절이 좋았도

[그럼 언제 하자고 그래요? 명절 때 주로 하죠?] 딱 명절이라고 박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일하다가 그렇게 천제지변으로 비가 온다거나 해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적에 이제 자 우리 쉬면서 안주도 만 들고 술도 좀 사 들고 오고 우리 한잔 먹자 이자 그러다 보면 취해놓고 보면 꽤씩 한 게 그러고 보면 그게 산다이여.

[그러면 산다이를 초상 때도 하나요?] 초상 때도 하고

[일을 할려고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좋아지니깐 여유가 생겼어. 총상 때도 하구요? 그럼 초상 때는 언제해요? 도중에 하나요? 문산 중에 하면 안되잖아요?] 밤에

[밤에? 끝나구요?] 아니

[아, 밤에, 그러면 첫째날이든 둘째날이든] 언제든지 밤에는 모여서. 지금은 박 모여서 고스톱을 쳐 불대?

[아 그러면은 초상집에서 산다이를 해요?] 그렇지

[그건 실례가 아닌가요?] 그런데 상여를 위로한다고 해서 한 번씩 허는 때도 있고 지금은 그런 것도 안태요.

[그러면은 대게는 삼일 상을 치를 때 전날 이 대게는 모여서 씻김굿을 한다든지 해요? 여기서도요?] 지금은 안해요.

[옛날에는 했었죠?] 많이 했어지.

[그 안하는 것은 언제정도 기억이 되세요? 안하게 시작된데] 오래 됐죠.

[박대통령 그러니깐 70년대 80년대 이때는요?] 70년대 이전에는 많이 했지. 아마 70년대 이후로는 안했어. 거의 안했어.

[할아버지 아까 초상집에서 산다이를 하는 것은 그러니깐 분위기는 노래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 상주들을 비롯해서 위로를 하겠다 하는 마음에서 문상은 오고 그럼 바로 옆에서 둘러 앉아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산다이 보다는 그래도

#상여소리

-?씨는 사람들이 12이 모여요. 공포라고 소리꾼이 있어. 그러면 소리에 맞춰서 할라고 상주들이 모여가지고 이자 앞에서 소리를 주면 소리에 맞는 그런 것을 많이 했어

[진도는 에에에헤헤야] 여기서는 어어어어어어 어러어영차 어야 이렇게 해요

[받는 소리가?] 어 받는 소리가

[그러면 이 상여소리를 상여소리라고 그러지요?] 예

[상여소리를 잘 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 마을에?] 이 마을에는 없어. 그런데 그 두서도 없고 가닥도 없는데 부서에 최복만씨라고 안 만나 뵈죠?

[뵈어요. 그분이 또 상여소리 하세요?] 예 그분이 이 앞에서 상여소리를 잘해요. 그런데 가닥이 없어

[최근까지 하셨어요?] 지금이라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여 그 사람이

#풍선배 노 젓는 소리

[혹시 그분이 뱃소리하시는 거 들어 보셨어요? 전에 그 배도 타시고 그랬잖아요.] 뱃소리? 그런 뱃소리도 아니고 옛날에는 풍선이 있었는데 목선. 풍선. 그 노를 저어서 타고 다녔단 말이여. 바람이 없을 때는 노를 저으면서 힘이 드니깐 어야디아 요렇게 이제하는 소리제 뭐 특별한 소리도 없어

[저는 배우는 입장이라 그 소리가 어떻게 하나 궁금해요. 이렇게 어야이렇게요 어야디아 이렇게만 하나요?] 그렇죠.

[무슨 가락이 있지 않나요?] 인자 그것도 그런 소리도 최복만이라는 그런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타어. 예를 들어서 나를 만나고 그분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저기로 갈라면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저어야 되는 되는데, 둘이 젓는단 말이여. 대부분 혼자 젓는 것이 아니라 한가밀면 하나가 뒤에서 옆에서 잡아 땡기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아그자그 이렇게 하면서 이 윗사람이 어기야 디랴 하면 아랫사람은 저기 밀면서 해야 어야디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 그런데 그거는 아무렇게나 떠어다 부르는 소리고 이제 소리가 있는 것은 아니여. 힘이 드니깐 허는 거여. 그냥 아무 소리라도.

#산다이

[아까 산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어디에서 해요? 집에서 하겠죠?] 집에서 하지 아무 집이라도

집에서 그냥 해요

[그럼 집에서만 해야 하나요?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그런 건 없어

[그럼 안에서?] 안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술취함께 술이 하는 거요

[산다이하는데 준비하는 거 있어요? 미리연락을 한다던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만나서 산다이 하고 놀자 이렇게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못여요? 동네사람들 아무래도 자주, 친한 친구여야겠죠?] 그러지

[혹시 산다이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 저희들처럼 이렇게 처음 마을에 왔지만 놀다보니깐 맞아요 노래 한 곡하라고 그러기도 하나요?] 그럴 수도 있죠.

[예전에 그렇게 놀으셨어요?] 그러기도 한다, 이렇게 밖에서 놀면 가는 사람 불러서 오라고도 한데 그렇게 안에서 노니깐

[밖을 못보죠] 그렇지

[집에 온김에 하는 거구요? 몇 명에서 모여서 하나요? 정해져 있는건 아니겠죠?] 그러죠

[그런데 둘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에이 그런 건 없어요 못해도 5,6명은 되어야지

[5,6명이 모이는데 남자여자 구분없죠?] 구분없어

[그리고 꼭 결혼한 사람들 끼리만 모여라 그런 것도 있나요?] 아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기지금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도 와서 앉을 수 있어요? 어른들이 노시는데?] 앉을 수는 있지만은 인자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쑥스러워하고 어른들이 무자비하게 술 취해 가끄는데 젊은 사람들이 잘 오들 앉고 불라고도 앉지

[근데 집에서 놀면 어떤 집은 어른이 계시지만 이해하시는데 어떤 집에서는 노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건 경계하지 아주머니가 상한 집은 안가?

[상한집이요?] 아니 싸나운 집.

[아 싸나운집. 그러니깐 이해해 주시는 집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대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집은 안가나요?] 아 그런디 어느 정도 너무 지나치지만 않으면 대부분 이해해 주는데 원래 고약스런 아주머니가 있는 집이 있어

[그럼 그런 분들을 고약하게 생각했었는데 노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오시라고 해서 같이 노시는 경우는 없구요?] 없어.

[그런 경우는 없으시구요?] 예 같이 못놀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며칠씩 해요? 딱하루만 하나요? 한번?] 그러지 그걸 어떻게 날마다 놀겠어.

[그러니깐 내일 만나서 놀자 이러진 않고 한 판 한 차례예요?] 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초리가 되었건 중동리가 되었건 그냥 나이 먹은 사람들 논다고 하면 막 튀어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산다이를 위해서 하는 노래가 있나요?] 그냥 하는 대로 하지 곡도 안 맞고 노래도 아니고

[노래는 또 마시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마시고 취해서 한다니깐 제정신으로 산다이 하면 그건 놀자고 하는 것이 아니여. 막 술이 취해서 그러제. 그렇게 개판이제.

[그럼 술이 있으면 음식도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요? 미리 준비하나요? 그 집에서?] 술은 좋은 안주 갖추어서 먹어야 하는데 침에는 뭇이라도 김치, 이런 거 채워논 고기 생선이라도 있으면 그놈에 넣어가꼬 술 마시고 취하면 고기도 소용없고 김치 뭇도 좋고 그런 걸로 훌쩍 먹고 놀고 그러지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다가 먹기도 하고 그집에서 내오기도 하나요?] 그르죠 그르죠

[그 대신에 우리 오늘 산다이 하니깐 어디서 뭇 좀 가꼬와라 그런 얘기는 없구요 이런 경우는 남자들만 아니라 여자들도 참여하는 거지요? 남자들만 하시나요?] 주로 남자들만 하지 여자 참여해서는 안놀아 그런데 여기로 갔다가 술도 잘 마시고 놀기도 좋아하는 아주머니가 오시면 그 아주머니를 찾아 와서 국보데기 부인들은 술은 안마시니깐 국보데기 같이 노는 것은 있어.

[그러면은 이 마을에 사시는데 다른 마을에 갔다 아니면 다른 마을에 사시는데 이 마을에 왔을때 다른 마을사람인데] 광주나 목포에 살다가 모처럼 2년 만에 3년 만에 오면 그 친구를 만나러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내 누나가 저기 목포서 살다가 우리집에 왔다 했을 때는 동생을 만나러와 그래서 이제 오빠덜 동생덜 내가 술 한 잔 할란다 오늘 놀자 이렇게 해서 놀다 보면 노래도 한자락씩 하자 그렇게 된 경우가 허다해

[그러면 거꾸로요 할아버지가 다른 마을에 놀러갔을 때 산다이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많지 [문을 열어놓고 오라고 하고 즐겁게 해요?]

그러지

[그러는데 이 마을이 당충인데 그러면 어디 가서서 노셨어요? 옆의 마을? 어디?] 어디든지 뭐 친구 하나만 있으면 가서 놀아요?

[그러면요 여기 중도 말고 저아래 우전리 거기도 가신 경험 경험으로는 어디어디 가셨어요?] 안가 본 데 없어.

[그러면 중도인 경우에 여기 방축이지요? 그러면 방축리에서 조금 내려가면 중동리, 중동리에서 조금 더 내려간 경험있으셨어요?] 아이고 많이 있지

[그 아래 가면 대초리도 있는데 거기서도요?] 대초리가서는 안놀아 봤어.

[대게 우전리는 해보셨구요?] 우전리에서는 한두 번 놀아 봤고.

[혹시 저쪽에 섬 하나 더 있는데 작은 섬 증도에 병풍두 드나드실 기회가 있으셨어요?] 거기도 한두 번

[거기 누구 계세요?] 친구.

[거기서두 산다이 해요?] 거기서는 안해 봤어.

[일년에 한두 번씩 꼭 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구가 왔으면 부척 뜻 깊은 일일텐데 찾아 왔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산다이하자는 얘기를 안하세요?] 아이고 그런 거는 업고

[그냥 얘기 나누시다가 오시고 술 한 잔 하시네요 그럼 거기 산다이가 없었더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그나저나 산다이라는 것이 어느 마을이라고 없다고 할 수 없지 있다고 봐야지. 자주가 없어가지고 그저 친구왔다고 노래 부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 어느 마을이라고 할 것 없이 산다이가 없는 마을은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회구해서 그러제. 늘 하는거 아니고 어찌다가 친구도 만나고 술도 거나하게 취하고 좋으면 노래도 한자락씩하고 그거이 산다이지.

[그 혹시 이런 경우요. 같은 또래끼리 산다이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속에도 팀을 둘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다 한 마을로 하지,

[늘 만나던 사람들끼리? 따로 이쪽 패가 있고] 그런 것은 없어.

[그런 경우는 못보셨구요 그 남녀가 함께하는 산다이는 아까는 남자들끼리 한다 그러셨는데 그런 경우는 있으셨어요? 여자 오라고 해서 같이 왜냐면은 노래하고 그럴 때 저는 여자가 있으면 더 좋던데 재미있잖아요. 서로 의식하면서 좋은 모습 보일라고 그러던지. 남자만 있는 것보다 남자만 하는 것도 좋지만 여자가 있으면 또 분위기가 색달라지잖아요] 여행같은 거 가서는 이자 남녀가 혼용해 가지고 놀 수도 있는데 마을에서는

[마을에서는 그러지 않는다구요? 안하구요. 결혼하시기 전에는 산다이 같은 거 안해 보셨어요? 어울려가지고 친구들이랑] 또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농촌이 굉장히 가난했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혁면 후로 뭐냐 농촌을 부흥하게 만들었어. 그러기 전에는 그냥 곤란해가지고 맨 죽이나 어떻게 먹고 또 일제 해방 일제 때는 우리 열아홉 살 먹었을 때에는 아주 죽도 못먹고 굶주리고 살았고, 그래도 이제 우리 터나 오면서 먹어가면서는 약간은 죽면하고는 살았는데, 그렇게 충분히 먹고 취하고 세상이 즐겁다는 것을 못 살아 봤어.

[할아버지 그러면 산다이 할 때 흥이 돋우면 그렇잖아요. 목소리 할 때 흥겹게 하는 것도 있는데 손장단이 들어가기도 하고, 악기를 쓰기도 하고, 그 당시에 뭐그렇게 악기가 있었어요?] 악기는 없어

[그러며 손으로 치면서 한다든지] 그렇지 저분으로 사용 친다든지

[젓가락으로 상을 친다거나] 그렇지

[장구 아니면 북 그런 걸 사용한 적은 마을에 대게 있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는 잘하는 사람이 가지고 노는 것이지 못 하는 사람은 치면 모래하고도 안 맞고 그런 게 치워져리고 상 뚜들고 손벽치고

[산다이 할 때는 누가 처음 소리를 해요? 사회 보는 사람이?]

아이고 사회자도 없고 그냥 기분 좋게 노래 한 자락씩 하자. 그러면 그러자 하면 아무라도 내는 거여.

[순서 없이? 그냥] 순서 없이 기분 나면 내가 받고 내 노래 끝나면 뒤에 사람이 받고 해서 그렇게 놀아

[노래 할 때 춤도 춰요?] 춤도 추지, 흥에 겨워서

[그 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 노래를 할 때도 있는데 놀이는 수건돌리기, 내기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고 노래하고 마시고] 그러지 미쳐가지고 논다니깐

[근데 그 산다이를 하면 어때요?] 산다이만 하면 세상이 다 내것이제

[그쵸? 소리를 하면 마음이 좀 후련해지기도 하고] 그래 그럴 때 긴소리를 콧소리를 내가 한자락씩 한다 이 말이지

[제가 온 이유가 이거인거 같아요 노래를 하나 하실 수 있다 사셔서] 그건 노래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업소 그래서 그러는데 홍타령이라고 이제 그 대학 국악과 교수가 잘 알텐데

[저희는 국악과가 아니구요 연구소 섬 바다 문화를 연구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데 그 전에 옛날에 나도 이자 섬가에 사니깐 이놈의 큰 제당을 주리를 찌가지고 막다가 참 다 막아가지고 절강암 남은 데를 자꾸 터져 버리고 터져버려서 ??? 도저히 할 길이 없어서 아버지 생전에 토지를 팔아가지고 아버지 몰래 아버지가 지도에서 쫓아서 그분이 작은 엄마 되시는 분이 돈을 잘 벌었어. 내가 갖다가 다 없애 버리고 결국은 아버지하고 못 살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내가 큰아들로써 그래서 할 수 없이 배를 했는데 그때에는 부서라는 고기가 얼마나 많이 나부렸는지 그랬어. 배만 있으면 본전찾기가 쉬웠어. 근데 나는 그 배 가지도 더 망했어. 사업이 안될라고 그랬었나? 그때가 아마 30대 조금 넘었나? 그래가고 친구들한테도 배신당하고 참 갈길이 없어서 그 배가 있으면 소리를 하나씩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 소리를 짧은 귀라고 귀에다 담아가고 뽕따라고 한다는 것이 망해버리고 원망스럽고 그런 게 한풀이라고 해서 술만 먹으면 이러고 수구려 앉아서 나 혼자 했던 기억이

[그 <홍타령>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그 곡도 아니고 뭣도 아니여

히야 상경에

[잠시만요 처음부터 해 주세요 저희가 찍을게요.] 아니여 뭐해?

히야 상경에 내 슬피 우는 저 두견아
어딘에 나를 정을 두고 구곡간장 애를 태우니
두견아 울어라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주야장 진 밤을 같이 울어서 날새우자

이자 이런 소리를 뿜도 아닌 소리를 술에 의해서 한 것이여 이건 소리가 아니여
[이건 어지서 배우셨어요?] 배운게 아니라 듣고 이제 자작도 없이 그냥 한 거여
[좋은 데요] 내가 술 먹고 하면 뭐 판소리 한다고 해서 증동리 친구가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여.
[그러면 판소리가 아니예요?] 판소리가 아니여
[그러면 곡제목은 없는 거구요 생각나서 그냥 읊조리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하자만 가사라고
말하자면 홍타령에 가까운데 그런데 그때 우리덜은 <한풀이>라고 했어. 한이 많다고 해서 한풀이라
고 해서 했고, 가사나 이런 것을 보면 곡을 보면 홍타령이여.

[하신 김에 노래 잘하시는데 한 곡만 더]

에이고

[듣기 좋은 데요? 한 곡만 더 부탁드릴게여 어르신 뵈는데 한두 곡은 하셔야죠.]

노래가 노래가 아니여

[소리]

아니 소리도 아니고 뿜이 낮에 해야 한다는 게 안맞으니깐 못해

[그러면 혹 다른 거 하시는 거 있으세요?]

에고 복잡해 마음이 차분해야 하는 거지

[제가 차분하게 하고 있어야지]

물 속에 잠긴 얼굴 자분 어려도 나는 못잡고

마음 속엔 사랑 있어 듯해도 나는 나는 못 잊겠네
아이고 아이고 어흐 어아 청아가 났네

이런 게 노래구

[이렇게 해서 계속이어서 하시는 거죠?]

그러제

[그러면 이 산다이할 때 이런 것도 하셨다는 거죠? 남들은 어떤 곡해요?]

아이 곡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곡해요?] 못해.

[그러면 옛날 유행가] 그러제 그런 게 고기가 많은 안 많은 진실한 것은 안에 그렇게 나더러 소리하
라고 그래

#산에서 하는 산다이

[좋은 데요? 저기 혹시 산에서도 산다이 해요?] 산에서 인자 소풍같은 거 가면 모르지

[소풍가서도 둘러 앉아서 하구요?] 그런 건 없구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고 정보도 없는데

<표 5> 증도민요 노래공동체의 민속문화정보

번호	항목	조사내용	특징
1	명칭	산다이	
2	시기	하루	
3	준비과정	짜나운 집은 안감, 마시는 것, 고기, 김치	
4	#향유계층과 구성	친한 친구, 지나가는 사람, 입향민	마을에서는 남녀 구분함
5	연행양상	#다른 마을(우전리 병풍도)에 놀러감 #장구 · 북으로, 5-6 #한풀이, 물속에 잠긴 얼굴	
6	기능	마음이 좀 후련해지기도 함	
7	놀이의 변화과정	노래만함	
8	연행장소(산)	소풍	
9	#신앙		

#밤다래

[다래라고 아시죠? 밤다래. 밤다래는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답을 이제 초상집 그런데 가면 아까침에 말했지만 사도동 제군으로 간단 말하여 그러면 하루 저녁에 아무리 서너번씩 상여소릴 해 하고 상주를 위로시킨다고 술먹고 노래도 부르다가 놀고 날새는 것을 보고 밤다래라고 그래

[그러면은 산다이와는 약간 의미가 다르네요?] 산다이는 다래하고 별개예요 산다이는 기분 좋을 때 벼룩 해버리고 다래는 그 밤을 지새우는 것이 다래여

[그러면 밤다래는 상집에서만 하는 것을 말하나요 아니면 날 새는 것을 말하나요?] 그런데 주로 쓰는 용어는 초상날 와서 날을 세우는 것을 보고 다래라고 그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을사람이 어디 가서 놀음을 하러 갔다 그런데 초저녁부터 해서 날이 새서 오면 저거 달다래하고 왔다네 이렇게 밤을 지새우는 것을 보고 밤다래라고 그래

[젊은 사람들을 올라이트라고 하는데] 모르는데 우리말로는 날새는 것을 밤다래하고 왔다하고

[그러면 밤다래 할 때 뭐하고 시간을 보내시는가요?] 이제 매냥 술먹고 놀다가 노래 부르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날새고 하면 그것이 대래여

○ 중도 민요8

번 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 고
8	2006.04.18	중도면 대초리	홍순일, 김현주, 이혜숙	조복남(남, 74) 이영신(남, 75) 박유덕(여, 71)	산다이, <어랑어랑 어허야>, <노랫가락>, <갈까보다>, <둥당애타령>, <진도아리랑>	현지조사

#제2차 구연 상황

조복남(남, 74)은 2006년 7월 21일 제1차 조사한 바 있다. 제2차 조사에서는 산다이, <어랑어랑 어허야>, <노랫가락>, <갈까보다>, <둥당애타령>, <진도아리랑>을 제보해 주었다. 제1차 조사에는 녹음만 했지만, 제2차 조사인 이번에는 두 가지, 하나는 받는 소리꾼과 함께 채록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캠코더로 영상화하는 동시에 녹음기로 녹음했



<사진 13> 조복남(남, 74)과 이영신(남, 75) (06.04.18촬영)

다는 점이다. 받는 소리꾼은 채록했던 집의 주인이자 이웃사람인 이영신(남, 75)과 그 부인 박유덕(여, 71)이다. 조북남의 부인 이외순(여, 71)은 같이 있지 않았다.

#산다이

[저기 할머니까 여쭙보고 싶었던 게 산다이 들어보셨죠?] 산다이가 뭐시라?

[산다이 그러니깐 서로 이렇게 아주머니들끼리 모여서 우리 산다이하면서 놀자] 아예 그런 것들 하지라

[지금도 하세요?] 셋 이만 모태서 노래부르고 놀기는 놀지라 명일 때는 근데 일반 때는 안모태니깐

[그 산다이는 무슨 뜻이에요?] 산다이는 재미있게 노래부르고 노는 거야 친구끼리 모여가꼬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이 산다이 아이라?

[맞아요.] 그러지라 서로 재미있게

#박유덕(여, 71), 이영신(남, 75)

[그러면 할머니는 어디서 시집 오셨어요?] 나 여기서 시집왔어라

[여기서 태어나셔서] 암만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여기 주인할아버지? 저기 증동리에서 태어나

[할머니는 여기서 태어나셔서 시집오시구 그러니깐 할아버지가 남편되시는 거죠? 여기 주인이신 거죠? 그럼 언제 시집가셨어요?] 나라? 나는 20살 때

[그럼 계속 여기서 지내셨죠? 할아버니는 증동리에서 이쪽으로 오신거구] 예. 결혼 해가꼬 나랑 같이

[아 그러면은 20살 때 증동리에서 결혼해 가지고 이쪽으로 오신 거네요? 할아버지 몇 살 때] 이쪽으로 온 것은 오래 되어가꼬 잊어부렸어.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나이 차이는 어떻게 되요?] 나이 차이는 내가 아래이야 [할아버지가 4살 위 시구요. 할머니 지금 연세가?] 71요

[그럼 할아버지 연세가 75?] 야 [아 할머니 성함은요?] 우째 나더러 갈쳐달라고 그라는가?

[할머니 때문에 멀리서 목포에서 왔어요 그러니깐] 나는 목포를 이웃집 드나들덕기 하난디 [그러셨어요?] 목포가 아들도 살고

[그렇게 인연인가 보죠. 그러니깐 제가 이렇게 왔나 부죠. 그러면 할머니 성함은요?] 박가여라

[박유자 덕자? 아, 할아버지 성함은요?] 오얏이자 영자 신자

[이 영자 신자 아, 제가 작년에 할아버지 때문에 왔었다가 또 할아버지 댁에 갔었어요. 제가 할머니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꼭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제가 올 줄 아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기 그러면요 산다이가 궁금해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쭙볼게요. 이 마을에서는 여기서 태어나셨으니깐 태어날 때부터 산다이 했죠? 아주 어려서는 못했죠. 좀 커서는 좀 했지.

[그럼 어른들은 그때 하셨구요? 참여는 안하셨지만 하셨죠?] 그러지라 아주 어려서는 못했어도 커서는 산다이 하고 놀고 그랬지.

[할아버지 만나기 전에 처녀 시절에도 하셨어요?] 그러지요

[시집가서도 당연히 했고?] 시집가서도 했죠. 명절 때는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시면서 산다이 참여 하셨어요?]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명절 때 아까 주로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은 명절 때는 어떤 명절 때 해요? 설 추석? 대명절?] 그런 때에도, 탄 때도 저기 회관에가 모이면은 놀면은 노래도 부르고 놀고 또 환갑잔치도 산다이하고 놀고, 형제간이도 놀고, 그러고 놀고 그랬어라

[명절 때 말고 다른 때도 한 적 있었어요? 그러니깐 계모임할 때 그다음에 초상났을 때] 그렇때도 하지라

[초상날 때는 그때는 조문을 해야 하는데 슬픈데 노래를 해요?] 늙은 사람 돌아가시면 다 놀고 그래

[밤지새면서 소리하면서 노시는 거죠? 그러면은 노래말고 다른 거 하시면서 밤다래 하시는 거 있으세요? 뭐 이렇게 연극하는 경우는 없구요] 이런 데는 그런 경우 없어라.

[그럼 산다이할 때는 주로 어디서 해요? 집에서 해요?] 집에서 거의가

[밖에서 하는 경우는 없구요?] 집에서 많이 하지라

[왜 집에서 하죠?] 사람이 모인게 집인 게. 모이는 게 집인게.

[그럼 산다이 할 때 집에서 하는데 뭐 준비하라고 하는 거 있어요? 준비해 와라 또는 부른 사람이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음식이라든지] 인자 그 집에서 음식하고 술은 인자 산다이 노래도 부르고 놀고 그러지라. 아니 그게 집에서 수고했다고 하면서 장만한 음식 쪼가드려 [그 부른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요?] 예

[산다이하러 오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은 아니구요?] 집안에서 하는 거여 뭐이

[그 모일 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동네사람들이 모여요?] 따로 없어 마을사람이고 외지에서 오

는 사람들 모이면은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러는 거지

[산다이할 때 바깥동네에서 불러들이는 일이 있으세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 모임엔 몇 명 정도 될까요?] 여기는 모임엔 기준이 없지 왔다갔다 하면서 하니깐 기준이 없어요. 한 50명 정도나 모이나? 하루저녁 도는거니께

[그러면 아무 집이나 갈 순 없잖아요 그럼 어느 집에 가요?] 초상집

[초상집에요?] 초상집보다도 잔칫집

[아까 얘기 하신 대로 명절 때 노시구요. 그럼 할머니 그 대게 시작하면 며칠 정도? 하루? 잠깐?] 한 삼일까지 놀 때가 있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5일도 놀 때도 있고

[3일 또는 5일 이렇게요? 그러면 집에서는 아무집이나 가서 놀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른들이 싫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깐 어른들 앉아 계신데 해

[앉아 계신데 하라고 해요?] 그러고 있으면 동방에서 여자들끼리 모임엔은 놔둬

[근데 이제 산다이를 할 때 미리 노래 연습을 하기도 해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요? 그런데 남자들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는 남자들끼리 하고 여자들은 여자들 끼고 하고 끼지를 앉아

[서로 섞어서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지 않아. 아직까지도 남녀 칠석 부동석이라 아직까지도

[대초리에서 그래요?] 여자들 노는데 절대로 남자가 들어가지도 안하고 남자들 노는데 여자들 들어오지도 안하고 여자들이 술을 못먹으니까 안허지라 그래도 옛날 말이지 ????? [저 그러면 섞어 놀진 않는데 그러면 술을 마시죠?] 안마시는 사람도 있고

[음식은 그 집에서 준비한다고 했죠? 왜요? 그러면요 다른 마을에서 이 마을 놀러 왔을 때 산다이 참여하라고 했는데 혹시 이 마을에서 다른 마을 갔는데 산다이 참여하라고 해서 가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취미있는 사람들은, 노래 부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가서 좋다고 춤추고 한자락 하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런데 가신 적 있으세요?] 나는 그렇게 간 적 없어

[중화 할아버지는 다른 마을에 친구 분이 있어서 가서어 산다이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있어 저 아저씨는 많이 있다 술을 안 먹는 사람이라 구경이나 하기 그래도 가자녀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아

[그러면 혹시 할머니는 안 하셨어도 대초리에 주변에 사는 분들 중에서 어디에서 놀다왔다 얘기는 들으신 적 있으세요? 어디 가서놀았다 해죠?] 들에 가서도 놀고 찌여기 놀러가서도 그래야

[지금 보먼은 대초리 병풍리 정충리] 그런데는 안가

[안가구역] 그런데는 아나 찌어기 백사장에 그런데나 가지

[우전리요?] 네

[해수욕장 거기 가서 놀구요?] 예

[거기 가서 산다이를 하는 거예요? 해수욕장에서?]

거기서 교회 예배도 드리고 야외 예배 하면 거기서 모태가꼬 예배도 드리고 그래라.

[그 산다이에 꼭 참여하면 안되다 하는 거] 그런 규정 같은건 없어요 아무나 가면 되요

[그 산다이하는 거 웃어른들이 싫어 하세요?] 절대 그런 거 싫어하지 않으셔. 구경도 하고 본인은 못놀라도 싫어하고 반대하지 않아.

[궁금한 게 그럼 마을에 산다이패가 혹시 있어요? 누굴 중심으로 패가 있고 또 누굴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때 그때 산다이 하고 싶으면 모여라?] 모이라는 것도 없이 만나면 한 잔씩 먹거나 그러면은 모임이 되고 그런 거지

[그러다보면은 모여서 소리하시는 분들이 다 같은 또래예요? 청년들이 끼고 그러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청년들은 이런데 끼지도 않아

[그럼 대게 장년 좀 나이드신 분들 이렇게요?] 끼리끼리 놀지. 끼리끼리

[그 경험으로는 산다이가 태어나서 계속 증동리에서 태어나셨지요. 그럼 증동리에서 태어 날 때부터 하셨어요?] 우리는 11살 먹어서 학교 다니다가 국민학교 때 이후 군에 가서 단체 생활이라는 것이 그걸로 해봐서 일제시기라 19살에 군에 가부렀으니깐 실정을 몰라. 그래가지고 8년을 군에서 보내고 집에 들어와 보니깐 세상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농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어른들도 모르고 그렇게 가부렀으니깐. 그러니깐 집안 실정을 잘 몰라. 옛날에 씀한지도 모르고 그런 기억도 하나 없고 그냥 주고 받는 말만 듣고 그런가 부다 집안 어른들 몇분 계셨지만 그때는 이미 돌아가신 후고, 계신 분들 이랑만 이야기 하고, 그때 실정도 잘 모르고 그냥 농촌생활하고 정말 여기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니, 뵈이 뵈인지

[그러면 산다이할 때 어떤 노래를 해요?] 산다이할 때 대중가요

[대중가요?? 할머니 어떤 노래를 대게 많이 해요?] 아리랑 타령도 하고 흥타령도 하고 아리랑타령도 하고 거시기 거시기 노래도 부르고 그뵈 노래 [등뵈에 타령? 강상술래도 해요? 진도 아리랑도 하고? 흥타령고 하고?] 하지

[또] 지금 사람들이 하는 노래는 우리는 몰라

[그래서 그런 노래를 지금 듣고 싶어요. 할아버지 좀 있다가 캠코더로 기기촬영을 할건데] 육자베
기를 할건데 가운데 잘하셔

[지금은 할머니께 기회를 드릴려고 할머니 곡을 듣고 싶어요. 동당애당] 동당애?

[예 아무거나요] 동당애 타령하재.

[할머니 곡을 담아야 하는데 그럼 조금 있다 해주세요] 어디다 담는다고

[여기 비디오 얼굴 나오게 지금은 목소리 담는 거고. 얼굴도 담아야 할머니 표정도 보면서 이따가
해주세요.] 동당애 타령을?

[예, 그러니깐 동당애타령 골고루 기회를 드릴게요. 판소리도 해주시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주세요.
산다이할 때 장단도 쳐요?] 그럼 손장단도 치고, 장구도 치고, 노래부르고.

[또 들어가는 악기 장구치고] 방바닥치고

[그럼 누가 노래 불러요?] 아무나

[대개 무슨 노래부터 해요? 옛날 노래부터 아니면 최신유행가?] 때때로

[그렇다면 소리하는 것도 순서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손들어서 기회
얻어서 하는 거죠?] 기회를 얻고 손맞으면 이어 받아서 하고. 이견 뭇할라고 그렇게 물어보는당가?

[재미있잖아요. 노래만 해요? 춤도 춰요?] 춤도 추지

[그러면 대개 노래를 하다보면 조금 한참 놀다가 놀이도 하잖아요 수건돌리기도 하고 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달리기도 하고 그러지.

[어떻게 달리гий요?] 단박질이 달리기 아니라? 함시통 달리기.

[노래하다가 단박질 하자, 그래서 그렇게 내기하고 그래요?] 젊어서 그라고 놀았어. 이제는 늙어서
못하고

[그럼 젊어서 시집가기 전에 처녀시절에] 처녀시절에 별걸 다하고 놀았어.

[그러면 이거 말고 뭐하고 놀으셨어요?] 지금은 못해라 늙어서

[그러니깐요 옛날에 산다이 말고 산다이 할 때도 여러 가지 하면서 놀으셨죠?] 지금은 못해 [그러
니깐 뭐하고 놀으셨어요?]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노래하면서 달리기 하면서 노셨구 또?] 강강수월래 했지

[밖에 나가서요?] 춤도 추고 놀았어. 젊어서는 별거 다하고, 지금은 늙어서 못해.

[그러니깐 별거 다했는데 그러면은 강강술래 달릭 노래 또] 다 잊어버려서 모른당께

[달리기 해서 일등한 사람은 상 받아요?] 상도 다 탔지

[어떤 거 받으셨어요?] 쓸 것 살림하는데 필요한 쓸 것

[그 선물을 살림살이 선물을 했구요? 그럼 그 돈은? 살림살이 그 살 것 돈은요?] 이자는 놀러갈 때 사람들이 보태가지고 걷어가지고 했지

[그럼 거기 산다이 하는 사람들끼리?] 그러지요

[돈 얼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응

[미리요? 오늘 산다이한다면 그전에 돈을 미리 걷어요? 그러면 산다이를 위해서 돈을 좀 걷어서 선물을 사 놓고 미리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 물건을 누가 사요? 회장이 있어요?] 응 다 있지. 책임자 있지.

[책임자 있어요?] 그런 거 할라든 책임자가 다 있어

[책임자를 뭐라고 불러요?] 회장이라고도 하고 책임자라고도 하고 그래.

[그러면은 책임자가 먼저 연락을 해요?] 이 사람 말 좀 답변 좀 해주소. 나 못허것네야.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그러면 산다이 할 때 선물도 준비하고 동네 책임자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산다이 모임이 있는 거예요? 꽤? 그러니깐 우리동네는 아주머니들끼리 모이는, 그래서 책임자가 있고, 그래서 산다이를 언제한다고 하면 물건선물도 미리 준비해서 만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른바 부녀회 그때도 있었어요?] 예

[시집오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때 처녀 때도 있었어요?] 처녀 때는 없었고,

[그러면 시집 가서서 여기서 지내실 때 있었어요?] 없었어.

[그럼 언제부터 있었어요?] 몰라

[동네책임자 그런데 인제 준비할 때 연락도 해서 해주고 선물도 사고 산다이 할 때 나눠주고 동네 책임자 말고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 또 있어요?] 있지요.

[누구예요? 그 사람은?] 동네 부녀회장도 있고 다 있어라.

[지금도 그렇게 해요?] 예

[그 산다이 하면 좋으세요?] 좋지라 재미있고 놀고 친구끼리 보태가꼬 논게 맛있는 것도 장만해서 먹고,

[아까 동네 책임자가 있고 내일 만나자고 연락하고 그러잖아여 그러면요 다른 동네에도 있잖아요. 그럼 연합해서 합쳐져서 놀 경우 있었어요?] 몇 번 있지라 저기 교회 야외예배 가면 싹 모여 예배도 들이고

[그러니깐 요즘에는 그런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안했지.

[연합해서 연합 부흥회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산다인들이 모여서 이 동네 저 동네 그렇게 했던 게 언제부터였어요? 처녀시절부터 그러셨어요?] 처녀 때는 안그랬다니깐 처녀 때는 놀기만 했지. 출랑대고 이 동네는 노래만. 술도 안먹고 판동네 가지도 않고

[지금 할머니도 교회 다니세요? 할아버지도 다니시구?] 다 다녀요 저쪽 할아버지는 당기고 이쪽 할아버지는 안당겨

[교회는 어떻게 해서 다니시게 되었어요?] 자식들이 땡김시롱 전도하고 땡겼지

[할머니는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몰라 아파 왜 그렇게 붙어본대

[그러니깐 자녀가 언제?] 우리 막둥이가 27살 먹었는디 중학교 다닐 땐가 아니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땡겨가꼬 그것이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서 하도 그래서 나갔어.

[27살이니깐 유치원 다닐 때면 20년 전이네요 벌써] 그 정도 되었을 거요

[그때부터요? 지금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집사

[아하 훌륭하죠] 뭘 집사가

[왜냐면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더 많이 일해야 하니깐 그 옛날에 처녀시절 시집가신 다음에 대초리에 산다이가 있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교회다니면서 산다이 하고 노는 게 차이점이 있어요?] 있지

[뭘데요?] 그전에는 교회 안 다닐 때는 막 노래부르고 그랬지만 지금은 별로 없어

[별로 없단 거는 찬송가를 많이 하죠?] 그러지

[그럼 별거를 다하는데 아까 하실려고 했던 동당에 타령도 하고, 진도 아리랑도

[근데 왜 이렇게 동네에서 하시다가 이렇게 바뀌셨어요? 교회 다니니깐? 그럼 우리 동네는 몇 가구쯤 되요? 할아버지께 여쭙봐야겠다.] 한 65가구

[65가구정도 되는데 여기 교회 이름이] 장고성결교회

[교인이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60명

[그러면 ???60가구면은 많이 믿으시네요. 거의 다 믿으신다고 봐야겠네요 그 산에서 산다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는 집에서 하는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태어난 곳이 어디세요?] 우전리 [우전리에서 언제 오셨어요?] 88년 [나이가?] 나 30살 [그럼 서른살 때 지금은 연세가] 78

[30살 때 이쪽으로 오시구요 어떤 이유가 있으셨어요?] 우리 형제가 많아가지고 각자 길로 갔지 우리 처가 동네라 토지를 사서 이사왔지

[할머니 성함이] 이외순 [그럼 할아버지하고 나이차이가] 3살 차이 할아버지가 더 높아요? 네

[서른 살 때 이쪽으로 오시니깐 그전에는 우전리에서 시집을 이쪽으로 오셨는데 오셨을 때 다른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없어요. 달라진 거.

[그럼 아까 말했던 산다이가 우전리에도 서른 살 때 오시기 전에 그 동네에도 있었어요? 아까 얘기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또 다른 것은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노래 곡목에서 생각나시는 거 우전리에 놀았던 거] 젊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 유행가 부렸지요.

[할아버지가 전에 들려 주셨던 노래를 ???] 그건 우전리에서도 그렇게 했었구요.

[여기 와서 노시구요] 똑같아. 근데

[혹시 병풍림 들어 보셨어요? 거긴 가신 적은 없으시구요. 놀러가는 거지, 혹 거기도 산다이해요?] 장구치고 농악을 해. 그냥 판소리 하면 단되나?

[근데 할아버지는 병풍림 어떤 계기로 가셨어요?] 모임을 돌아가면서 ??(칭취불능)

#캠코더 담기

[할아버지, 비디오에 담지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디오가, 할아버지도 지금 해 주실 수 있죠? 생각나는 곡이 있으면 먼저.

노개 다 잊어버렸지.

[안에서 하시면 안될까요 바람소리가 심해서] 방이 좁긴 좁다.

[실례하겠습니다] 이런 거 입고?

[팬츠입니다] 작년에는 문화원에서 녹음하러 왔을 때 목포대에서 다 찍어 갔었는데

[예 거기는 문화원이구요, 저희는 도서, 이렇게 인기가 좋은 면 여기저기서 막 다 찍어가요. 저희는 도서문화연구소, 이제 자연스럽게 장단 맞춰 주시면 되구요. 생각나시는 대로 다 해주시면 되요. 여기 보고해 주십시오.] 다해 부러야?

[천천히]

<어랑어랑 어어야>

어어야디아 함경북도 내 ???라네 지나 전라도 아니라네

어랑어랑 어어야 어야 디야 어랑어랑 어야

내사랑아 산수갑산 머루다레는 끊어져 끊어졌는데

나는 언제 입을 만나 끊어덩 끊어질 거나
어랑어랑어여야 어야디아 내사랑아

십원짜리가 없으면은 오월에 두장도 좋고
??도 없으면 ???달력도 좋다네
어랑어랑어여야 어야디아 내사랑아

친구??? 함흥차 떠나는 소리에
??? 밤에 밤보태 잔다네
어랑어랑어여야 어야디아 내사랑아
노랫가락으로 넘어 간다

날은 가자구 누굴진데 입은 ??들고 아니 웃네
석양은 재를 넘고 나의 갈길은 저리 온네
임아 나를 잊지 말고 지는 해를 붙잡으라
아이고 예고 허허어어 성화가 났네

물동에 잠긴달은 물뜬다 해도 못 잡고
한 품에 드는 마음 날 뜨라 하여도 내 못하네
아이고 예고 허허어어 성화가 났네

민지를 말어라 민지를 말어라 입자있는 남의 사랑
믿고 믿고 믿었다가는 공연한 낭패를 보리라
아이고 예고 허허어어 성화가 났네

너도 나잃고는 못살을 그령 나도 너를 잃고 못살그령
없는 금전은 한탄말고 깊이 큰 정을 변치를 말어라
아이고 예고 허허어어 성화가 났네

??절벽이 덩다고 하지만 꽃을 피어서 ??을 얻고
춘삼월이 좋다고 하여도 새는 가지 앓아 슬퍼 우네
아이고 에고 허허어어 성화가 났네

한 많은 이 세상 어디로 발길을 옮기여야 ??? 어느냐귀를 찾을까나 아고야 괴롭네
깃이랑 다 버리고 떠나자 금강산 ?? 찾아가서 석가여래나 모실라네
아이고 에고 허허어어 성화가 났네

이제 진짜로 <노랫가락>을 할라니

나비야 청단가자 벌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면은 꽃에 들어 드자고 가자
꽃에서 분해서 부거든 앞에서 라도 자고 가자
간밤에 꿈 좋더니 임에게서 편지 왔네
편지는 왔다만은 임은 언제 오시려나
동자야 먹갈아라 임에게루 답장하자
말은 가자고 이몸은 진대 아니로네
석양을 채를 넘고 나의 갈길은 천리인정
이 맘에 나를 잡지 말고 지는 해를 붙잡아라

<갈까보다>

갈까보다 갈까부다 임을 따라서 갈까부다
천리이라도 나는 가고 만리라도 따라가지
구름도 뛰어 넘고 바람도 다 피하는구나
떨지니 날지니 해동방 보라매 다 뛰어 넘을 거요
고개라도 임을 따라서 갈까부다
하늘에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년 일도 만나려와 우리님 가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간에 이다지도 못오는고
이제라도 내가 죽어

기억이 안나는데

이제라도 내가 죽어 임계신 처마끝에
집을 짓고 노니다가 밤중이면 입을 만나
만단정을 허고지고 아이고 어쩔거나
아이고 이를 어찌를얼거나 대성통곡을 울음을 운다

갑자기 생각이 안나 <등당애 타령> 한 번 해볼까?

등당애 당 등당애 당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어매 일어나소 세상봉창 내리쬘네

어와 등어 담장넘어로 손주온대
우리 어매 어디 가고 내 손주 울줄 모르는가
등당애 당 등당애 당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어매어매 성님보소 대잘 잠을 뵈할랑가
앞에 살구 다 따먹고 이안에 목숨 다따먹고
날 주가 주는 것이 ??시러 못먹것대
등당애 당 등당애 당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성애성애

사촌성애 시집가더니 어찌던가

애야 애야 내 동상아 시집살이 말도 마라
열두폭 두루치마 해 때 기피 걸어놓고 눈물짓기에 다려진다
등당애 당 등당애 당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산중산중 깊은 산중 삼베 짜는 노처녀야
언제 짜냐 뒷을 짜내 니 베 짜는 것을 구경왔다
물메 한삼 짜곳이 모내질 바람에 팔랑팔랑
등당애 당 등당애 당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깊은 산중 고드름은 봄 바람이 녹여내고
젊은 가슴 이내 병은 남방처가 풀려준다
등당애 당 등당애 당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개야개야 삽살개야 북이 쪽쪽 빠진개야
엽기에다 남은 밥을 너를 주고 싶어 너를주니
밤중밤중 야밤 중에 우리님이 오실 적에
짚지 말라 너를 준다
등당애 당 등당애 당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수건수건 삼포수건 백자 백치 반포수건
해물 ?? 따라 해가 늘어진면 임의 정도 늘어진다
등당애 당 등당애 당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달은 밝다 개화장에 흰 별 닮은 저나비아
해만 좋다 하지말고 가지가지 앓지 마라
저 가지에 왕거미는 너 잡을라 줄을 치지
그야 줄에 걸려 놀면 꿩을 길이 전혀 없네
등당애 당 등당애 당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동백나무 동백나무 저거 언덕에 동백나무
울 어매가 심었던가 울 아배 심었던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지색일세

등당애 당 등당애 당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요새세상 시집살이 속모르고 욱한데도
하루 아침에 흘린 눈물 치매 앞이 다 젖었네
속모르는 니 어매는 천천히 갔다고 꾸중하네
등당애 당 등당애 당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혹시 빠지신 거 없나 생각해보시구요. 수고하셨어요.] 보통 때 거짓하면 하루종일 부르는데 갑자기 부를려고 하니깐 생각이 안 떠올라 부러

[괜찮습니다. 이어서 하는 거니깐] 나이가 70인데 이 기억이면 괜찮은 거지

[소리 하실 때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니 건강하신 거 같아요. 저기 육자베기 흥글레 타령 이거 육자베기는 가락이 좀 늦잖아요 그거 안 하신 거 같은데요?] 육자베기는 제목 그대로 육박 거시기 사람이 살면은 몇백 년이나 살드란 말이나 죽어서 이것이 육자베기거든

[혹시 안하신거 생각나시면 또 추가로] 아니 이제 안한께 잊어부러 잊어부러 호남가, 쑥대머리 알 았었는데 잊어버렸고 난 어디서 배운 것도 없이 나오고 그런거지 ??? 윤진철 하고 강인국 하고 얼씨구 학당에서 했지

[거기서 배우신 게] 사철가 하고 쑥대머리두

[그때 배우신 거예요?] 아까 갈까부다고 그런거구

[근데 이쪽에 30살 때 이쪽 우전리에서 배운 거 혹시 있으시요?]

다 여러 군데에서 아시미 잊어 부렸어

[이사온 다음에 얼씨구 학당 보면서 배우셨구요? 누구한테 특별히 배우신 거 아니고] 함 누구한테 안 배웠어요. 시킨 사람도 없고

[즐거우셔서] 내가 그런데 소질이 있어서

[혹시 악기 다루시는 거 있으세요?] 풍물 농악 칠 때 내가 설장구 쳤었어

[지금도 설장구 치실 때 있으세요?] 지금도 기회는 있기는 있지 근데 팔을 못써

[왜 다치셨어요?] 아니 잡기만 하면 팔이 아파

[요즘에 소리를 하실 때 일주일에 어떤 시간 정해 놓고 하시는 건 아니고 따로 흥얼 흥얼 생각날 때 하시는 거구요] 교회다니면서

[국악 찬송가도 있지요?] 지금은 국악 찬송가도 있대요. 인천교회에서도 이번에 두 번이나 왔어요. 국악찬송가로 북치면서 잘 합시다

[공연 왔었어요?] 응 두 번이나 왔수다.

[이제 그 국악 공연 보면서 얼씨구 학당 보면서 배우고 싶은 맘이 생긴 것처럼 국악공연 하니깐 좀 어떠셨어요?] 아이 했으면 좋겠다 했지

[그렇죠 흥겹죠? 어깨 으쓱 해지고] 오늘 술을, 술을 본래부터 안 먹었어 농악에는 즐거움이 있어 농악 치면은 한바탕 칠 생각이 나지

[요즘에 농악은 언제 하세요? 정월에 설날에?] 여기는 잘 안치고 마을 자금이나 모금 하려고 할 때 농악을 치제

[그걸 뭐라고 하죠?] 다보한다고 하지

[다보한다] 집집마다 다치고 다녀

[그때 장구 치셨어요?] 야 내가 선자로 거시기 했어 (옛날에는 당제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었어) 당에도 많이 올라댕기고 그랬었지. 그것도 목포대학교에서 와서 찍어갔어.

[조성갑 할아버지 어제 밤에 뵈었어요. 뵈고 왔는데 당제 얘기 조금 하시더라고요.] 장구 칠 사람이 없으니깐 나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깨가 아파도 가서 쳐 줬어요.

[할아버지 혹 빠진 곡 있으면 좀 해주시고 마무리 할게요] 내가 <진도아리랑> 할 줄 알지라

[그런 것도 좋구요 기억나시는 거]

<진도아리랑>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에에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문경세제는 왜고개냐 구부야 구부구비에 눈물이로구나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에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이 산 저산 도라지 꽃은 바람에 펄펄 날리네

이내 눈물이 어깨 너머로 날렸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에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십오야 밝은 달은 구름 속에서 놀고
 명기 명창 ??? 장구바람에 논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엥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세월이 가는 것은 어디로 가고 사람이 늙기는 바람결 같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엥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저전 내 ?? 은혜를 보아라 걸논만 감고서 속눈은 떴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엥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논다 가라 놀다라 가라세 저 달이 떴다지도록 놀다나 가세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엥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간다고 울고서 온다고 울고 정거장 마당에 한강수가 꽤었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엥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놀기 좋기는 대장부 ?? 잠자리 좋기는 정든님 뿐이라.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엥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십오야 밝은 달은 구름이 살짝 가리고
 고향고향 내고향은 산천이 살짝 개렸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엥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3) 설화와 민요의 활용방안

시대상황면에서 신안군 중도의 구비전승자원은 도서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기획력에 따라 시가
 무가 융합된 이야기의 노래를 디지털방식에 의해 기록영상화하는 동시에 연행론적 공연방법에 의해
 ‘현장의 현재적 상황’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지역에서 세계로’의 문화전략상 연구논문의 학

술적 가치를 지니고, 문화상품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강의교재의 교육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축제항목의 연희적 가치를, 구성원 구심의 사회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의 개요는 이렇다. 조사의 주체(조사자, 관련기관)는 홍순일(김현주) · 도서문화연구소와 신안군이다. 조사기간은 2006년 1월-6월이다. 그리고 조사대상(조사지역, 제보자)은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및 부속도서인데 증도면은 증동1, 증북, 증동2, 곡도, 광암, 방축, 염산, 대초1,2,3,4, 우전, 병풍 1,2 등이다.

조사는 개발과 활용을 위한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용역-신안군 증도면 및 부속 도서 편》<민속 · 구비전승>의 목록, 해설, 활용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즉 서남해 도서지역의 구비전승자원 조사 및 자원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구비전승물 중 설화, 민요 등을 주제로 한 것이다. 조사 항목은 설화를 중심으로 설화 연행자의 생애, 설화사회, 이야기공동체 등과 민요를 중심으로 민요 소리꾼의 생애, 민요사회, 노래공동체 등이다.

조사는 문헌 · 현지조사방법에 따라 증도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증도면의 경우 2005-6년 민요 현지조사(홍순일 외)를 했다. 조사는 보고(개발, 활용)의 동기가 크게 작용했다. 이전 조사 및 자원화의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허경희 · 이준근, 「IV. 민속문화자원」,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12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1-압해면 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 신안군, 2003.12, 162-192쪽.

#이경엽, 「IV. 민속문화자원」,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13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2-비금면 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 신안군, 2003.12, 105-158쪽.

#이경엽, 「IV. 민속문화자원」,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14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3-흑산면 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 신안군, 2003.12, 102-172쪽.

#이경엽, 「III. 무형문화자원」,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15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3-도초면 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 신안군, 2005.10, 89-219쪽.

#이경엽, 「III. 무형문화자원」,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16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3-안좌 · 팔금면 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 신안군, 2005.10, 88-250쪽과 285-342쪽.

이러한 조사결과는 도서문화연구소 · 신안군청 · 도서민인 제보자에 의해 [해양 · 도서 · 연안]문화의 자체를 조사 및 자원화할 뿐만 아니라 도서민이 해양에서 연안을 오가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 조사함에 따라 [강 · 마을 · 산]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상황면에서 신안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지명에 관한 이야기, 당산나무 이야기, 정서를 표현하는 이야기, 당산제를 지내는 이야기, 교회공동체 이야기 등이다. 특히 중도사람들의 경우 가령, 도깨비 이야기는 갯벌과 섬과 바다와 융합되어 시공을 초월하는 묘미를 보여주고 있고, 기독교인 청년이 당산제를 지내는 이야기는 인간의 심층적 이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신안사람들이 구연하는 삶의 노래는 노래문화로서 산다이(상례 중 달애),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소리꾼, 새우잡이노래 속에서 인생의 진솔한 표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소리꾼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중도면 민속의 신앙의례면에서 찬송가를 중심으로 교회공동체를 조사하고 자원화한다. 중동2리 중서마을이 바로 그것이다. 놀이면에서 산다이를 중심으로 노래공동체를 조사하고 자원화할 수 있다. 문순자(여, 70) 중심의 중동2리 중서마을, 정장례(여, 70) 중심의 방축리 염산마을, 조복남(남, 73) 중심의 도초리 4구 장고마을, 고순례(여, 78) 중심의 우전리, 박성남(남, 69) 중심의 방축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갯벌문화와도 관련시킬 수 있겠다.

이 작업은 민속의 관점에서 자연중심의 적응성이, 생태로 나아가는 생명성이, 바다로 나아가려는 의식이, 개방을 추구하는 다양성이 내재되어 있게 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자연적 적응성, 생태적 생명성, 진취적 의식성, 개방적 다양성을 지닌 도서·해양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길과 통하는 것이다.

■ 부록 : 중도의 설화와 민요에 대한 사진목록과 표목록

(1) 사진목록

○ 중도설화 사진목록

- <사진1> 방축리 염산 정장례(여, 69) (05.07.20촬영)
- <사진2> 중동2리 중서 문순자(여, 69) (05.07.20촬영)
- <사진3> 방축리 검산만들 김정석(남, 53) (05.07.21촬영)
- <사진4> 방축리 검산만들의 앞바다(05.07.21촬영)
- <사진5> 우전리 조성갑(남, 73) (06.04.17촬영)

○ 중도민요 사진목록

- <사진6> 방축리 염산마을 악기(05.07.20촬영)
- <사진7> 중동2리 중서문순자(여, 70) 외(06.04.17촬영)

- <사진8> 대초4리 장고조복남(남, 73) (06.07.21촬영)
 <사진9> 우전리 고순례(여, 78) 외(06.07.21촬영)
 <사진10> 중동2리 증서 임맹단(여, 69) (06.04.17촬영)
 <사진11> 우전리 조성갑(남, 73) (06.04.17촬영)
 <사진12> 방축리 박성남(남, 69) (06.04.17촬영)
 <사진13> 대초4리 장고 조복남(남, 74)과 이영신(남, 75) (06.04.18촬영)

(2) 표목록

- <표 1> 노래공동체의 민속문화정보 정장례(여, 69)
 <표 2> 노래공동체의 민속문화정보 문순자(여, 69)
 <표 3> 노래공동체의 민속문화정보 조복남(남, 73)
 <표 4> 노래공동체의 민속문화정보 고순례(여, 78)
 <표 5> 노래공동체의 민속문화정보 박성남(남, 69)

3.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1)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목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목록	조사일자	참고문헌
민속신앙	당제	당제	중도면 대초 3구 장고 마을 산신제	1987.7.4	도서문화
			중도면 우전리 우전마을 당제 -조사일지 -우전리 당산의 유래와 역사 -우전리 마을 소사 -당제의 내력과 제당의 구성 -제관의 선정 -제비와 제물 -금기 -제의절차 -축문 -건구 -영험담 -뒗풀이와 결산	1987.7.4 2005.2.22 2005.7.20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목록	조사일자	참고문헌
	장승	장승	증도면 검산마을 방액비	1987.7.4	
세사풍속	월별	월별풍속	정월(설, 정초, 대보름)	2006.8.25	
			이월(2월1일, 월중)	"	
			삼월(삼진달, 한식청명)	"	
			사월(초파일 등)	"	
			오월,유월,칠월(단오,유두,칠석,백중)	"	
			팔월(추석, 월중)	"	
			구월(중구 등)	"	
			시월(떡달 등)	"	
			십일월(동짓날 등)	"	
			십이월	"	
통과의례	출산의례	출산	기자	2006.8.26	
			임신	"	
			출산	"	
			산후의례	"	
	혼례	혼례	약혼	"	
			혼례식	"	
			신행	"	
	상례	상례	임종	"	
			소다름(대렴, 소렴)	"	
			매장	"	
			흉제	"	
		초분 독장	증도면 방축리 김남돌 초분	"	
			증도면 방축리 서복심 초분	"	
			증도면 방축리 장성동 안승범 초분	"	
			초분관행	"	
	제례	제례	기제	"	
			묘제	"	
가신신앙	가신신앙	성주	성주	"	
		성주신앙	조상단지,불그릇,조상독,성주동우,성주단지	"	
		조왕신앙	조왕,조왕단지,조왕보세기,조왕보상,조왕할머니	"	
무속신앙	영화굿	성주굿	임자도 진리마을 성주굿	2006.8.26	
	씻김굿	넋건지기	넋건지기굿	"	
		씻김굿	진씻김, 모른씻김	"	
	푸닥거리	동정잡이	동정잡이	"	
	민간의료	민간의료	민간의료	"	
유형문화	의생활	개관	의생활에 대한 설명	"	
		평상복 외	남자,여자의 평상복, 작업복, 외출복	"	
		의례복	출산복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목록	조사일자	참고문헌
			유아복	"	
			혼례복	"	
			상복	"	
			수의	"	
	식생활	일상식	밥, 죽, 김치 등	"	
		저장식품	간장, 된장 등	"	
	의례식	제례음식	청주 등	"	
		명절음식	설, 추석 등	"	
		혼례음식	첫날밤 상 등	"	
		가양주	청주, 막걸리 등	"	
	향토음식	향토음식	가오리회, 밀개떡, 밀문지, 송편떡, 민어젓	"	
	주생활	안채	큰방	"	
			정재(부엌)	"	
			광	"	
			대청	"	
			모방(작은방)	"	
			정재방	"	
		부속채	사랑방	"	
			외양간	"	
			칙간	"	
			방앗간	"	
	기타	기타	모구부채	"	
			두데(거적)	"	
	가옥사례	가옥사례	중도면 증서마을 전성남 가옥	1987.7.4	신안군의 문화유적
			중도면 증서마을 정구반 가옥	"	
			중도면 증서마을 정찬용 가옥	"	
			중도면 증서마을 이용성 가옥	"	

2)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현황

(1) 당제

① 중도리 대초 3구 장고 마을 산신제

위 치 : 마을 뒷산 산록밑

조사일시 : 1987년 7월 4일 14시~16시 50분

제보자 : 김정용(남 69, 본관 광산), 조복남(남 65, 본관 한양), 김춘섭(남 52, 본관김해), 이상길(남

47, 마을이장)

장고마을은 면소재지인 증도리에서 버스를 타고 약 15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다. 마을 동쪽은 원대초(元大棗)에, 서쪽은 넓은 농경지와 서해바다에, 남으로는 넓은 염전이 자리하고 북으로는 사동마을과 접하고 있다. 1987년 조사 당시 총인구 430명(남 229, 여 201)에 89호가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전주이씨가 41호로 성씨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마을민의 주업은 농업으로 벼농사 외에 특히 마늘 재배를 많이 하여 해마다 6월에 농협으로 출하하고 있다.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 거행되는 이 마을의 동제는 ‘산신제’ 혹은 ‘당산제’라고 불리우며(이하 산신제로 표기) 제신은 ‘산신할머니’라 불리우는 여신이다. 만약에 제일인 정월 보름 전에 마을 주민 중 산고나 상을 당했을 경우, 이에 따르는 부정을 막기 위해 다시 택일한다. 제장은 노송이 우거진 마을 뒷산 언덕 밑에 위치해 있다. 높이 100cm, 가로 341cm, 세로 361cm의 돌담이 사면에 둘러쳐 있고 그 안에 돌로 쌓은 제단이 있다.

산신제 제관은 제를 주관하는 제주 1명과 집사 2명이다. 이들은 마을에서 한학으로 학식이 높고 덕망이 있는 연장자가 생기복덕을 보아 선정한다. 제관 선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생기복덕이 맞고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가정에 상이 없고 가족 중 임신한 사람이 없으며, 개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따위의 추하다고 여겨지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그날부터 외지로 출타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들이 그의 집에 출입해서도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산신할머니가 노해서 크게 화를 입힌다 한다.

이 마을 주민들은 제관이 근신을 하며 제일을 기다릴 때, 또 혹은 제를 지내면서 정성을 제대로 쏟지 않으면 산신할머니가 노한다는 내용의 다양한 경험 사례들을 갖고 있다. 우선 제보자 김정용씨는 제를 제대로 못 지낼 경우 산신할머니가 제주 꿈에 나타나 “너는 잘 한다고 한다만은 정성이 부족하고 음식이 깨끗치 못하다”고 불평을 하는데, 이때는 제관들이 목욕재계하고 제물을 다시 준비해서 지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산신 할머니가 영험을 보임으로써 제관들로 하여금 부족한 정성을 깨닫게 한 이야기도 있다.

몇 십년 전 어느 해에 주민 Y씨가 제주로 L씨와 H씨 두 사람이 보조역할을 하는 제관으로 선정되어 산신제를 지낸 적이 있다. 제일 전날 보조역을 맡은 두 사람이 돼지머리를 삶다가 L씨가 술을 한잔 마시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H씨가 “제를 지낼 사람이 술은 무슨 술을 마시느냐”며 만류를 했다. 그러자 L씨가 만류를 뿌리치며 “당제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말을 내 뱉었다. 이때 신통스럽게도 고

기를 삶은 술이 반으로 갈라져 버렸다. 이를 본 L씨와 H씨는 깜짝 놀라 목욕재계하고 산신 할머니께 잘못을 비니 술이 다시 원형대로 되었다.

이 외에도 부정한 음식인 개고기를 먹은 제관이 제를 지내고 음복을 하다가 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이야기 등 제보자들이 전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산신제의 권위를 더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일주일 전 3명의 제관들은 제장 근처에 있는 당샘을 깨끗이 청소한 후, 제주 집에 따로 방을 마련하여 제일까지 함께 기거한다. 이 집과 제터, 당샘에는 금줄이 쳐진다. 이곳이 신성한 곳임을 알리고 부정한 잡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산신제 후 제주에게는 마을앞 제방 밑에 동제답 300평을 1년간 경작케 하는 특권이 주어진다. 과거 생활이 궁핍했던 시절에는 주민들이 이 논을 경작하기 위하여 서로 제주가 되려고 했다. 그러나 요즘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제주를 하려는 사람이 드물어 산신제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보자들에 의하면 많은 주민들이, 제주가 되어 그 엄한 금기와 절제를 지키면서 겪어야 할 고생과, 논의 경작권이라는 경제적 혜택을 저울질하다가 ‘그 작은 규모의 논을 경작하는 약소한 혜택을 보려고 제주의 그 고생을 겪지는 않겠다’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제주 선정이 힘들어졌다 한다.

근래에는 산신제에 드는 비용을 호당 일정액을 거출하여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매년 5~6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제돈’이라는 명목으로 대략 호당 1000원씩 거출한다. 현금 대신에 쌀을 내는 가구도 있는데, 이 쌀은 제수로 사용된다. 2명의 주민이 집집마다 다니며 이 현금과 쌀을 걷는다. 모은 현금과 쌀을 갖고 신성한 제주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 역시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이 때 많은 금액을 마을에 회사하는 사람도 있어 실제 모여지는 금액은 해마다 일정치 않다.

제물은 돼지머리·술·과일·포·조기를 비롯한 해물 등의 제물을 장만한다. 과거에는 청주를 빚어 제주(祭酒)로 사용했으나 지금은 소주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제관들은 제물의 조리 등 제를 지내기 위한 온갖 준비를 제주 집에서 한다. 제물 장만 시 식수는 당샘물을 사용한다.

보름날 자정부터 제가 거행되며 <진설→분향→재배→독축→소지→음복>의 순서로 진행된다. 소지는 마을 전체, 제관, 이장, 마을 유지, 마을 주민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때 제주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장고리 ○○○ 금년에 무병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한다. 당에 진설되었던 음식은 제관들과 농악대들이 음복을 한다. 제물을 마을로 가지고 오면 마을에 쥐가 많아진다는 속신이 있어 절대로 마을로 가져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음복하는 것이다.

모든 제가 끝나면 헌식을 한다. 헌식의 절차에서는 돼지머리를 광목베로 싸서 석단 아래에 묻는다.

그 후 제관들은 진설된 음식을 조금씩 덜어 농악대와 함께 제장아래 밭 언덕과 동서남북 사방에 음식을 뿌린다. 이러한 행위는 제장 주의에 몰려든 잡신들에게도 음식물을 풀어먹이기 위함이라 한다. 헌식이 끝나면 제장에서 산신제가 끝났음을 알리는 화톳불을 피운다. 이 때 미리 올라와 있던 농악대는 악기를 치며 상쇠를 필두로 제장에 일렬로 서서 제장을 향해 인사굿을 친다. 그 후 제장 주의를 세바퀴 돈 다음 마을로 내려와 각자 해산한다.

제가 끝난 날 아침 마을에서는 전년도 마을사업의 총결산과 새로운 이장선출을 위한 총회를 열고 그 후 농악대는 제주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가정을 들며 샘굿·마루굿·정지굿 등의 마당밧기를 한다. 농악대가 마당밧기를 할 때 각 가정에서는 바가지에 쌀을 담고 그 위에 정화수 그릇과 촛불을 놓아, 마루에 깔아놓은 짚 위에 올려 놓는다. 가정의 수호신인 성주신에게 안택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음식과 술이 농악꾼에게 제공되고 마을은 하루종일 축제의 분위기가 이어진다.

② 증도면 우전리 우전마을 당제

• 위치 : 상당(할아버지 당산)은 마을 뒷산 서쪽에, 하당(할머니당산)은 마을앞 남쪽 50m지점 팽나무와 쥐엄나무

3차에 걸친 조사 자료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게재한다.

<1차 조사>

- 조사일시 : 1987년 7월 4일 8시 30분~12시 20분
- 제보자 : 조사철(남 78, 본관 한양)m 박일택(남 71, 본관 밀양), 조금용(남 50, 본관 한양), 조성욱(남 55, 본관 한양), 박금식(남 48, 본관 밀양, 연2회 제관경험)

<2차 조사>

- 조사지 : 전남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 조사일자 : 2005년 2월 22일 ~ 23일 (음력 1월 14일~15일)
- 제보자 : 조성갑(남, 72세) · 박강배(남, 44세) · 박일택(남, 72세) · 남성기(남, 69세) · 박정금(여, 83세) · 황인석(남, 40세, 우전교회 목사)

조사자: 고경남, 이경희

<3차 조사>

- 일시: 2005년 7월 20일
- 장소: 증도 우전리
- 제보자: 조성갑(남, 72), 조성육(남, 72), 김정기(남, 1938생)
- 조사자: 이경엽, 송기태

가. 조사일지

우전리 당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자들이 무안해제 반도를 지나 지도읍 사옥도 선착장에 도착하였다. 증도를 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배를 타는데 하루에 6차례씩 왕래한다고 하였다. 조사자들이 탄 배는 12시 정각에 출발하여 15분 후에 증도 선착장에 도착하였다.

증도 면소재지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1시 30분경에 우전리 노인당에 도착하니 주민 20여명이 모여 있었다. 주민들 중 젊은 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팽과리, 소고 등의 건구기를 들고 연습을 하고 있었으며, 나이가 든 주민들은 ‘뽕’이라는 화투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 놀이는 노인회장인 조성갑(남, 72세)씨가 경기도 수원 노인당에서 배워 와서 주민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고 하였는데, 외부 손님이 왔는데 화투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민망하였는지 조사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2,000원만 있으면 이 놀이를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노인당에서 이렇게 주민들과 인사를 튼 후에 노인회장을 따라 마을의 서북쪽에 위치한 당산에 올라가서 상당과 당집을 보고 마을 가운데에 있는 당샘을 거쳐 수령 500여년 된 팽나무가 있는 아랫당을 살펴보았다.

금년에는 마을 이장인 박강배씨(남, 44세)가 제관을 맡기로 하였는데, 이장이 곧 교회에서 장로로 취임을 하기 때문에 이장의 부친인 박인택씨(남, 72세)가 제관을 대신 맡았다. 모든 주민들이 당제 조사에 협조하여 주었지만 특히 조성갑 노인회장님이 제보자로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 우전리 당산의 유래와 역사(제보자 조성갑의 주장)

고려 때부터 우전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문헌으로는 1840년대에 영광군 사옥면으로 남아있고, 그 후 지도군이 생겼다. 지도군은 1897년에 생겼다가 1914년에 없어졌다. 고종 때는 지도 향교가 생겼다.

1986년 신안군 마을 유배지라는 책이 있다. 여기에서 “우전리에 대해 당제도 안모신다. 한양조씨가 도입했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제보자는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제보자 본인이 한양조씨인데 당제를 모신지가 300년전부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백씨, 화동정씨, 양성이씨, 수능안씨 등이 살고 있을 때 제보자의 10대조 할아버지가 입도하여 구당에서 살았다고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성씨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성씨가 조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보자의 조부와 관련된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한다. 제보자의 조부와 관련된 전설에 의하면 조부가 무안군 청계에 살던 수능 안씨를 만나 이 마을 정착을 권유받았다. “여기다 정착을 해봐라, 니가 정착하면 통일한다”는 권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당에서 살다가 우전리로 옮겨 당을 모시게 되었다. 제보자의 조부는 조남학이라는 사람인데, 본래 황해도 사람이다. 14대가 황해도 삼행공이라는 사람인데, 임란 때 의병을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한다. 우전리에 처음 들어온 조남학은 돈암공의 증손이다. 제보자는 조남학의 10세손이다. 10대조가 우전에 처음 들어왔다는 뜻인데, 이보다 먼저 정착한 것이 수능 안씨라는 사람이다. 이보다 먼저 수원 백씨, 하동 정씨, 양성 이씨가 살았다는데 기록에는 없다. 기록만으로 보자면 한양 조씨가 당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 우전리의 마을 소사

마을 이름인 羽田이라는 지명은 기러기 때가 이곳에서 한 겨울을 지내고 가기 때문에 ‘깃발(깃발)’이라고 불렀던 것이 후에 우전으로 개칭되었다. 이 마을은 1500년대 경에 한양 조씨인 조도흥이 지도 태천에서 최초로 입도하였다고 전해오고 있다. 이후 1618년(광해군 10)에 김해 김씨가, 1638년(인조 16)에 밀양 박씨가 역시 지도에서 이주해와 마을이 형성되었다. 조사일 현재 마을 호구 70세대 중에서 밀양 박씨가 28세대, 한양 조씨가 7세대 살고 있다.

1999년에 발간된 신안군지에 따르면 1980년도에 615명이던 인구가 1997년에는 265명으로 줄어 들었다. 그리고 조사 현재인 2005년에는 195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60대 이상이 97명인데 그중에 여성이 65명이고, 남성이 32명이다.

마을에는 노인회와 청년회가 있는데 45세까지 청년회에 소속된다. 주민들은 반농반어를 하고 있지만 주 소득원은 김양식이다. 마을에는 해태공장이 3개 있고 20여 세대가 이 공장에서 부업을 하고 있다.

우전리의 남동쪽 바닷가에 있는 우전리 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가 4km이고 폭이 100m인 훌륭한 자연환경을 갖춘 해수욕장이다. 특히 우전리 해수욕장에는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개펄이 60만평 정도 펼쳐져있어서 매년 여름에 게르마늄 축제가 열리고 있다. 신안군에서는 이런 자연환경

을 이용하여 우전리에 2만5천평 규모의 갯벌 휴양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갯벌 휴양타운의 공사를 맡은 (주)한백R&C는 220억원을 들여 펜션단지 21동 120가구와 1천200여 평의 웰빙 클리닉센터·근린생활시설·수영장·테마공원·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최초의 수익형 리조트이다.

마을에는 1948년에 설립된 대한기독교 장로회 우전교회가 있고 노인층 중 몇 사람을 제외하고 주민들 대부분이 이 교회의 교인이다.

면소재지인 증동리에서 버스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우전마을은 동쪽을 화동, 서쪽을 서해바다, 북쪽으로 대추리 장고마을과 접해있다. 조사 당시인 1987년도 현재 총110호에 501명(남 259, 여 242)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양조씨와 밀양박씨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 마을에는 모래사장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목포대학 수련장이 자리잡고 있다. 마을의 농경지는 갯벌을 경지로 바꾼 것으로 여기서 주로 땅콩이 생산된다. 특히 땅콩은 고소득 작물로 성가가 높다. 바다에서는 김양식이 활발하여 주민들의 주된 소득원이 된다.

라. 당제의 내력과 제당의 구성

우전리 주민들은 매년 음력 정월 열 나흘날 당제를 지내는데 마을에 부정한 일이 있으면 다시 날을 받아 제를 지냈다. 옛날에는 상당과 하당 두 곳에서 당제를 지냈는데 근래에는 상당에서만 제를 지낸다. 상당은 할아버지당이라고 하며, 하당은 할머니당이라고 하여 모시는 신을 나타내고 있다.

상당은 당산의 중턱에 위치해있다. 당산은 마을 서북쪽에 위치한 앞으막한 산이다. 당할아버지의 신체인 상당은 돌을 쌓아 올린 돌무더기로서 ‘독’이라고 부르는데, 독 중간부분에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며, 당제를 지낸 후 이 곳에 소머리뼈를 넣어둔다. 소머리뼈 위에는 백지를 덮고 그 위에 납작한 돌을 이용하여 뚜껑을 닫아둔다. 독 앞에는 제물을 차리는 시멘트로 만들어진 제단이 있다. 독 위쪽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지난여름 바람에 넘어져서 뿌리가 뽑힌 자욱이 드러나 보이고 소나무는 넘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나무가 크기 때문에 쉽사리 치우기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당에서 자라던 나무를 함부로 처리하기가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상당을 중심으로 돌담이 둥그렇게 둘러져있다. 상당에서 아래쪽으로 약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는 당집은 스테이지붕의 회색 콘크리트집이다. 예전에는 제관들이 당집에서 근신하며 당제를 준비하였는데 지금은 당집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채 낡은 콘크리트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 마을 가운데에 있는 당샘도 판자로 덮여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샘에 금

줄을 치고 황토를 뿌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 하당은 마을 앞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500여년 된 팽나무가 그 신체이다. 예전에는 상당에서 제를 지내고 난 후 음식을 하당에 가져가서 다시 진설을 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요즘은 하당에서는 제를 지내지 않고 대보름날 건구만 친다.

우전리에서는 400여년간 당제를 지내오고 있으며 일제시대에도 당제를 빠뜨리지 않고 매년 지냈던 역사가 깊은 마을이다. 제주대학 고광민교수가 같은 대학 박물관에서 입수하여 노인회장에게 전달한 『日本常民生活資料叢書』³⁾에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적혀져있다. 이 책은 1936년에 일본인 조사자가 우전리에 와서 인터뷰한 것인데, 당제 지내는 모습과 제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당제를 지낸 후에 주민들이 모여서 여흥을 즐기는 모습까지 묘사되어 있다.

『日本常民生活資料叢書』에 쓰인 일제 강점기 때 당제는 주민들이 정자목 아래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팽과리를 치면서 가무를 즐겼고 여자들도 이때는 밖에 나와 구경을 하였다고 한다. 당제를 지낼 때는 오곡풍등, 동네태평을 빌고 충해·한해·풍해·鼠害·牛疾이 없기를 빌었다. 제관은 당제를 지내는 서재에서 열흘간 지내면서 근신을 한 것은 물론이고, 당제를 지낸 후에도 삼년 동안 상가에 가지를 앉았으며, 일년 간 애 낳는 집에 가지 않고, 개고기를 먹지 않으며 정성스럽게 생활을 했다. 서재와 제관의 집, 당샘에는 금줄을 쳤다. 남신과 여신을 모시며 소의 머리를 쓰고, 당제를 지낸 음식은 모든 것을 분별해서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지도에서 온 무녀가 당제를 모시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기록은 우전리 당제의 내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우전마을 주민들은 매년 음력 정월 열 나흘날 밤 자정 무렵부터 ‘상당제→하당제’의 순으로 당제를 거행하는데 상당제의 당신은 ‘당할아버지’, 하당제의 당신은 ‘당할머니’이다. 단 제일에 대한 부정관념이 매우 강하여, 마을 주민 중 누군가가 산기가 있거나 어느 집에 초상이 있으면 다시 날을 받아 제를 지낸다.

상당제가 거행되는 상당은 마을 뒷산 서북쪽의 산등성이에 있다. 원형석축의 제당으로, 석축 내부에 작은 고송 한그루가 있고 그 나무 밑에 해마다 소의 뼈를 묻어둔 돌무더기와 제찬을 차리는 시멘트 제단이 있다. 이 돌무더기가 당할아버지의 신체이며 해마다 상당제가 끝나면 제주가 제물로 쓰인 소의 뼈를 이곳에 묻는다. 하당은 마을 앞 남쪽 50m 지점의 밭 가운데 있는데 수령 500여년된 팽나무와 죽은 쥐엄나무가 그 신체이다. 한편 상당에서 남쪽으로 약 20m 떨어진 곳에는 스테이지붕을 덮고 벽돌로 벽을 쌓은 당집이 있다. 이 집은 제주가 제물을 조리하면서 제기간 동안 근신하는 집이다. 당샘은 마을 뒷편

3) 日本常民文化研究所, 『日本常民生活資料叢書』, 三一書房(東京), 1973.

에 서해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당샘은 물맛이 좋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것으로 그 성가가 높다. 지금은 이 당샘을 급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물탱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당샘의 형체를 알 수 없다.

마. 제관의 선정

제관은 옛날처럼 생기복덕을 보아서 선출하지 않고 마을 당제답을 경작하는 이장이 맡는다. 제관을 서로 기피하여 선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800여 평의 당제답⁴⁾ 경작권을 이장에게 주고 있다. 예전에는 동네일을 하는 이장에게 봄가을에 보리와 나락을 걷어주고 잡비를 주었다.

우전리의 당제답은 토질이 좋은 옥답이어서 1978년 까지도 서로 제주를 맡으려고 경쟁을 하였기 때문에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들을 골라 그 중에서 투표를 하여 제관을 결정하였다. 설날 그믐날 마을 회의에서 제관을 선정하였는데, 당제답의 경작권 때문에 후보자들 간에 다소간 경쟁을 할 때도 있었다. 제관이 되려는 후보자가 이장에게 뇌물을 주거나 마을 어른들에게 술을 내기도 하였으며, 제관이 결정되면 경쟁을 하였던 상대방 사람이 제관 역할을 잘 하는지 감시를 하고 다니기도 했다. 또한 제관의 선정은 마을의 주요 성씨인 조씨와 박씨 간의 위세 경쟁의 방편이 되기도 했다. 당제의 제관이 되는 것은, 경제적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친족 집단의 위세를 높이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관을 이장이 맡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장인 박강배씨가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을 예정이어서 이장의 부친인 박인택(남, 72세)씨가 대신 제관을 맡았다. 축관은 당제의 집례를 주관하며 한문으로 된 축문을 읽어야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노인회장이 맡는다. 그리고 부제관이라고도 하고, 심부름꾼이라고도 하는 역할은 박명희(남, 41세)씨가 맡았다.

바. 祭費와 祭物

마을에서 祭費를 마련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제물을 간소하게 준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상당에 넣어둘 소머리뼈는 노인당 경비에서 사주어야 하는데 작년에 넣어둔 것이 부패하거나 없어지지 않고 있으니 금년에는 새 뼈를 갈아 넣어줄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여 장만을 하지 않았다.

4) 농지 정리 전에는 1,000여 평이었는데 농지 정리 후에 200여 평이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제관과 부제관이 지도 장에서 소머리·승어·과일 등의 제물을 사왔으며, 산채와 콩나물은 마을에서 채취한 것을 사용하였다. 제관은 정월 열나흘날에 당샘의 물을 이용하여 제물을 장만한다. 제물을 조리할 때는 일체 양념을 사용하지 않았다.

십 사오년 전까지는 제관이 농사지은 소출로 음식을 장만했었는데 94년부터는 이장이 했다. 제 지낼 때는 소고기만을 쓰는데, 예전에는 머리고기를 쓰기 위해 소를 한 마리 잡았다. 소를 잡을 때는 도살한 자리에서 생고기 두 근을 떼어서 제를 지냈다. 머리고기는 제 지내는데 쓰고 나머지는 개인이 사갔었다. 요즘에는 소고기를 사다가 제를 지낸다. 시장도 예전에는 목포로 다녔는데, 요즘은 지도로 다니고 있다. 소머리를 삶아서 제를 지내고 살을 벗겨서 머리 뼈다귀를 독에다 넣는다. 매년 갈아넣는데 머리를 못사는 해에는 그대로 둔다. 과일은 제 모실 때 쓰는 것과 같다. 초, 일, 이, 시, 탕 등도 제사하고 같은데 제육은 일체 쓰지 않는다.

사. 금기

근래의 우전리 당제에서는 금기사항이 대부분 사라져서 이를 거의 염두에 두지 않고 당제를 지낸다. 그래서 당산이나 제관의 집에 금줄을 치지 않았으며, 마을 어느 곳에서도 황토가 뿌려진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예전에는 당집으로 사용하였던 한양재와 두 제관들 집 주위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렸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전에는 당제를 지내기 열흘 전부터 제관이 당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당샘에 가서 금줄을 친 후 당집으로 사용하던 한양재에서 혼자 지내면서 젊잖게 앉아 근신하였다. 제관은 문밖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심부름꾼이 당샘에서 물을 길러 와서 밥을 짓고 제물을 장만했다. 일단 당집에 들어간 후에는 좀체 마을에 내려가지 않았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밤을 이용하여 다녔다. 이럴 때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고개를 숙인 채 길에서 타인을 만나도 대화를 하지 않았다. 얼음물로 목욕을 하더라도 춥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대변보는 횡수를 줄이기 위하여 밥과 간장만을 먹으며 음식의 양을 줄였다. 그러나 열흘 동안 이처럼 근신하며 지내는 일이 지루했기 때문에 제수용 쌀을 상 위에 펼쳐놓고 머리카락이 있는지, 온전치 못한 쌀이 있는지 쌀 한톨 한톨을 살펴보는 일을 반복하면서 지루함을 달래기도 했다.

또한 예전에는 “당살 맞아 죽는다,”고하여 당산에 있는 것은 풀 한포기라도 뽑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산이나 언덕은 먼 곳에서도 꿩이 다니는 것이 보일 정도였으나 당산에는 억새풀이 수북하였다.

예전에는 당산이 있는 방향으로 오줌도 누지 않았을 정도로 신성하게 여겼으나 금년에는 당제가 끝난 후에 상당 앞에 피워두었던 화톳불을 끄기 위하여 오줌을 누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관이 상당을 청소하러 갔을 때에야 상당에 덮어두었던 돌뚜껑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할 정도로 당에 대한 금기 인식이 약화되어 있었다.

아. 제의 절차

제주는 제일 전인 음력 초월흘날 이른 아침부터 진설에 쓰일 제물과 제기 등을 당집으로 옮기기 시작한다. 다음 제장과 당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당샘에 가서 금줄을 친후부터 5일 동안 당집에서 혼자 지낸다. 이때 그는 목욕재계 등 온갖 정성을 드려야 하는데, 특히 목욕을 할 때는 춥다고 하여 입 밖으로 어떤 목소리도 내선 안 된다. 춥다고 입 밖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에게 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5일 동안 간장과 밥 한 그릇 정도만 먹는다. 찬이 없는 것은 소식으로써 정성을 표시하기 위함이며, 식사의 양이 적은 것은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대변이 잦아지기 때문이다. 대변을 볼 때마다 목욕을 해야 하는데 그 고통과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식사를 적게 하는 것이다. 제주는 일단 당집에 들어간 후에는 좀체로 마을에 내려가지 않는다. 타인이나 마을의 잡다한 사건에 의해 부정이 오염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부득이한 경우 마을에 내려갈 때는 길에서 만난 타인과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출산이나 상에 관련되는 등의 부정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부정이 오염되면 당신으로부터 크게 노여움을 산다고 한다. 혹 제주의 부인이 심부름을 하게 될 경우도 있다. 이때 부인은 제장 근처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다만 당집에 처진 금줄 앞에서 큰 기침으로 제주를 부른다. 제주는 당집에 기거하면서 제수용 쌀을 상 위에 펼쳐놓고 온전치 못한 쌀을 일일이 골라내어 정갈히 다듬는다. 이 과정을 통해 제주는 정성스러움을 더해가고 아울러 여러 가지 금기로 인해 고통스럽고 지루한 하루를 무난히 보낼 수 있다.

정월 열나흘날 제주는 당샘의 물을 사용해 장만한다. 제찬은 소머리, 송어, 도랏(도라지), 콩나물, 흰미리(백설기), 과일 등이다. 담백한 음식이 더 정성스럽다 하여 조리할 때는 일체 양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들 제물 중 산채나 콩나물은 마을에서 채취한 것이고 송어, 소머리, 과일 등은 지도읍의 장에서 구입해 온 것이다.

제는 상당에서부터 시작된다. 상당제는 <진설→초향→제배→초헌→아헌→중헌→유식→사신→소지>의 순서로 진행된다. 소지는 1년 동안 마을과 주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것으로서 제관을 위한 소지

부터 시작해 이장, 주민의 차례로 진행된다. 일반 주민의 소지는 원하는 자에 한해서 올려진다. 만약 소지를 바라는 사람이 환자일 경우에는 “○○면 ○○리 ○○마을 아무개가 아프니 제를 모시고 나서는 썰은 물각단처럼 낱게 해주십시오”라고 기원한다.

상당에서 제가 끝나면 음식을 골고루 떼어 당 주위에 소나무 밑에 던져 잡신을 먹인다. 이를 회식(헌식, 퇴식)이라 하는데 이때 제주는 ‘던져준 음식을 먹고 마을에 절대 타나나지 말라’고 외친다. 그리고 나서 제물로 쓰인 소머리를 창호지에 싸서 할아버지의 신체인 돌무더기에 묻는다.

상당제를 마치고 나서 제주는 제의 종료를 알리는 화톳불을 피운다. 이를 신호로 마을에 대기해 있던 농악대가 당산으로 올라가서 함께 음복을 하고 제주를 맞아 마을로 내려온다. 마을로 돌아온 제주는 다시 마을 앞의 아랫당산에서 하당제를 지낸다. 하당제는 당할머니에게 메 한그릇과 나물 한가지만 진설하고 제주가 재배하는 간단한 절차이다.

이튿날 아침, 농악대는 제주집부터 시작해서 마을 사람들의 집을 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하고, 한편 제주집에서는 마을 노인들을 초청하여 제에 쓰이고 남은 음식과 막걸리를 대접한다. 이 자리에서 마을의 상당제, 하당제에 대한 제반 문제들을 논의한다. 단, 제에 쓰이고 남은 떡은 ‘약떡’이라 하여 각 가정에 공평하게 분배한다.

또 조사한 사례를 시간대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노인당 마당에서 주민 들 중 몇 사람이 건구꾼을 모으기 위하여 밤 9시 30분경에 굿을 쳤다. 밤 11시가 되자 집례를 맡은 사람들이 목욕제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으니 세수라도 해야겠다며 노인당 마당에 있는 수돗가에서 세수를 하였다. 축관을 맡은 노인회장은 후루매기(두루마기)를 입어야하는데, 교회의 권사인 부인에게 눈치가 보여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고 하였다. 원래는 당제를 지낼 때 갓을 썼으며, 그것을 노인당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2년 전에 분실되어서 지금은 두건을 쓰고 도복을 입는다.

우전리에서도 새 날의 첫 시간인 子時에 제사를 지내야한다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당제의 설행을 맡은 사람들은 밤 11시 경에 노인당에서 당산으로 출발한다. 당산에 올라 제물을 진설하면 11시 30분경이 되기 때문에 이때 제를 지낸다.

23시 17분 :

집례를 맡은 세 사람을 포함하여 여덟사람이 이장집에서 준비한 제물을 들고 노인당을 떠나 당산으로 향하였다.

23시 25분 :

상당에 도착하여 관솔불을 피우고 집례자들은 노인당에서 가져온 도복을 옷 위에 걸쳐 입었다.

23시 27분 :

제물을 진설하였다. 밥 두 그릇 외에 국·떡시루·생선·고사리나물·콩나물을 진설하였으며, 과일인 배·사과·밤·대추·꽃감을 진설하였다. 그밖에 소주와 식혜를 진설하였고, 촛불을 두 군데 피웠다.

23시 32분 :

당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제사는 유교식 절차를 따라서 강신·초헌·독축·아헌·종헌·첨작·사신·소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당제를 지내는 동안에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몇 차례 꺼졌지만, 측관인 노인회장은 당제를 지내는 동안에는 아무리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촛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고 몇 차례 강조를 하였다. 제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긴 도포의 소매자락에 의하여 촛불이 꺼졌는데, 노인회장이 얼른 불을 붙이면서 당제를 지낼 때는 촛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고 다시 힘주어 말하는 모습에서 전통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당제인식을 읽을 수 있었다.

소지는 3번을 올렸다. 처음에는 “우리 면장님을 할아버지께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 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소지를 올립니다.”라고 기원을 하였으며, 두 번째는 이장을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 사람들의 화합과 건강, 오곡백과가 풍성하기를 기원하였다. 예전에는 주민 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소지를 올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백지를 사다 주었으며, 측관은 소지를 올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원을 해주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였는데 금년의 당제에서도 개별주민을 위한 소지는 하지 않았다.

23시 49분 :

철상을 하였다. 마을 사람들에게 당제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마을을 향해서 징을 쳤다. 음복을 하고 도복을 벗었다.

23시 57분 :

음복을 하고 남은 제물을 모아 다시 보자기에 싸서 당산을 내려와 노인당으로 향하였다.

노인당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4사람과 함께 당제를 지낸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새벽 1시 30분까지 건구를 치며 놀았다. 보름날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지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기 위하여 함께 모여 놀아야 한다고 하였다. 새벽 2시 경에 주민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또 한 조사 사례를 보면, 보통 때는 신성한 당에서 술을 찌면 안 되지만 14일 날 저녁에는 소나무를 찢 수가 있었다. 그 명목은 사내기 밥 준다는 것이지만 사내기 밥 몇 개 던지고 나머지는 집에서 불을 지피는데 사용한다. 또 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보름날 저녁에 아주까리 나무를 묶어 거기에 머리카락을 찢러 넣어서 집 한 바퀴를 돌고 “진대 끊자, 진대 끊자”하면서 돌다가 불을 질렀었다.

자. 축문

維

檀紀四千三百三十八年歲次乙酉正月甲子朔十五日戊寅祭主敢昭告于惟吾堂山厚土靈神廣布河海之澤村有瑞氣家有和慶人無疾病野無鼠雀穀無惡雨順風調百穀成家家登豐人人同樂實神休謹以酒菓欽格 尙饗

차. 건구

보름날 아침 일찍 지신밟기를 해야 하는데 정오가 다 되어서야 주민들이 노인당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전에는 물때에 맞추어서 김 채취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날이 새면 새벽에 당에 올라가서 굿을 쳤으며, 마을 주민들 모두가 제관 집에 모여 아침을 먹었다고 한다.

젊은 부인 2사람이 떡과 과일, 술을 준비해 와서 노인당 마당에 상을 차려주었다.

음식을 먹은 후 노인당 마당에서 건구를 치며 돌다가 12시 30분에 노인당을 떠나 상당, 당샘, 하당, 마을 앞길을 거쳐 이장집까지 마당밟기를 하였다.(영기, 팽과리 4, 징 2, 장구 2, 소구 7) 이장집에서는 상에 음식과 돈을 준비하여 대접하였다. 건구패들이 마을을 돌면서 마당밟기를 하는 동안에 밖으로 나와서 구경하거나 참여하는 주민들을 볼 수 없었다.

이장집에서 마당밟기를 하고 있을 때 심방을 다녀오던 우전교회 황인석 목사가 노인회장인 조성갑씨에게 “우리 집에도 들리시오.”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교회에서 마당밟기를 하는 것이 망설여졌던지 “들렀다가 바로 가서부시오. 내가 봉투 드리께.”라고 덧붙였다. 건구패들은 이장집 바로 옆에 있는 교회로 향하여 마당에서 건구를 쳤고 황목사는 드링크를 들고 나와 건구꾼들에게 나누어주고 돈이 든 봉투를 주었다. 그러자 영기를 든 젊은 주민이 황목사에게 “올해는 교회가 겁나 부흥하것소야.”하였다.

우전교회 마당에서 마당뽕기를 한 후에 갯벌 휴양타운내의 리조트 공사장에서 건구를 쳤다. 다음날인 정월 열엿새 날에는 젊은 사람들로만 조직하여 해태공장과 철부선 선착장에서 마당뽕기를 한다고 하였다.

카. 영험담

남성기씨는 우전리 당이 아주 현명하고, 엄격한 당이라고 말한다. 그는 29살부터 3년 동안 부제관을 하였는데, 자식들이 대학 교육도 못 받았지만 IMF때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있으며, 손주들도 다 잘되어서 복을 받았다고 한다. 엄격한 우전리 당신은 제관이 목욕을 잘 안하거나 화장실 갔다 온 후 손도 안 씻고 대충 모시면 바로 집안에 피해를 주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안질이 걸려서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조성갑 노인회장은 특히 조씨하고 박씨가 안질에 잘 걸렸기 때문에 두 성씨는 당제를 자주 모시지 못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마을에 쥐들이 많아서 곡식 손실이 많았는데, 유난히 쥐들이 많이 끓는 해에는 제관이 음식을 다 내놓지 않고 감추어두었다가 자기 식구들끼리만 먹어서 鼠侵이 심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관들은 마을에 이런 피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음식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내놓았다.

또 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마을에서는 토박이인 박인태씨가 생기복덕을 보아 제주가 될 후보 몇 명을 추천하며, 선달 그믐날 마을 회의에서 그 중 1명을 선정하고 있다. 마을에 동답이 1,000평 정도 있어서 그 해의 제주에게 동답의 경작권이 돌아가는데 이렇듯 경제적 혜택이 있는 것인만큼 제주 선정 시에는 후보자들 간에 다소간 경쟁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가 되려는 후보자가 이장에게 뇌물을 주거나 마을 어른들에게 술을 낼 정도로 경쟁이 심했다 한다. 또한 제주의 선정은 마을의 주요 성씨인 조씨와 박씨 간의 위세 경쟁의 방편이 되기도 했다. 그 경쟁의 정도가 현재는 상당히 약화된 편이라 한다. 당제의 제관이 되는 것은,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자기가 속한 친족 집단의 위세를 높일 뿐 아니라 당사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운세를 떠나가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씨의 진술은 그가 가진 제와 당신에 관한 속신적 관념을 잘 보여주어, 이 마을 당제의 이해에 참고가 된다. 그의 체험담은 다음과 같다.

박씨는 제주로 뽑혔을 때 심장이 불편한 상태에서 당집에 올라가 꿈을 꾸었다. 그의 꿈에 백발 노인이 검은 형체의 사람들과 함께 나타나더니 아픈 곳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는 박씨와 하룻밤을 잤다. 깨어난 뒤 당제를 지내고 나서 신기하게도 박씨는 심장이 완쾌되었다. 또한 1987년에는 당제 전부터 다리가 아팠었는데 역시 꿈 속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 박씨의 사양에도 불구하고 박씨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이 꿈을 꾸고 당제를 지내고 나니 박씨의 다리는 완쾌되었다. 이렇듯 제주가 되어 큰 효험을 본 뒤부터 박씨는 당제 및 당할아버지·당할머니에 대한 신앙이 더욱 강해졌으며, 자기가 제주가 될 것을 원하고 있다.

1940년대 일제 강점기에는 마을에서 제일 먼저 전기발동기를 산 사람이 간 경화로 죽었었는데 얼 굴이 까맣게 타서 죽었다. 그것을 두고 사람들은 당살 맞아서 죽어서 까맣다고 했다. 그 사람은 아랫 당에다가 발동기를 놓고 보리치고 시끄럽게 기계 돌려서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타. 뒷풀이와 결산

지금은 건구치고 받은 돈을 노인당에서 관리하지만, 예전에는 건구위원회가 있어서 이를 관리하였다. 주민들은 자신의 집에서 마당뽕기를 하면 상에 짚을 깔아놓고 쌀 한 그릇과 물을 떠다 놓았으며, 이것을 걷어서 마을기금으로 사용하였다. 정월 20일에는 대동공사라고 하여 총결산 총회를 가졌다. 참종이로 엮어 만든 책에 기금의 사용내역을 정리하였는데 11년 전에 이 책이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노인당 장부로 대신하고 있다.

당산제에 드는 비용은 동답 1,000평에서 소출된 쌀 중 마을 자금으로 쌀 4가마를 뺀 나머지에서 충당한다. 나머지 자금은 1987년의 경우 약 10만원이 제비용을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의 당제는 한때 역대 아장들이 동답을 임의로 처분한 후 자금 부족 때문에 존폐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으며, 기독교 유입으로 교인들의 당제 폐지론이 대두되기도 했었다. 이러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어 아직은 건실하게 당제를 지내고 있다.

(2) 장승

①중도면 김산마을 방액비

김산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세워져 있다. “壬申 元月 村中 防厄石”이라는 글씨가 세워져 있다. 연대는 그리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지만, 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비석이다. 마을의 액을 막기 위해 세워 놓은 것으로 장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지조사된 지역별 현행 동제개요

읍면리	마을	제명	제당명	신격	역할	위치	형태	제일시(음력)	축문	제관수	제비용	제후행사	비고	
중도면	대	대	당제	산신당	당산할머니 (산신 할머니)	풍농 재앙방지	뒷산정상	추념비	1월15일 밤 자정~02시	무	3명(제관1, 측관1, 심부 름꾼1)	구:호당거출 현:자비 (제관)	음복, 회의, 농악놀이	
	대	등선	당제	당	당할머니	풍농, 무사고	뒷산중턱	원형석축단	1월15일 새벽 01시	무	3명(제관1, 심부름꾼1)	동답	음복, 회의, 농악놀이	
	대	장고	당제 (산신제)	산제당	산신할머니	풍농, 질병 방지	뒷산 산록 밑	사각석축단	1월15일 밤	유	3명(제관1, 심부름꾼2)	호당거출	음복, 농악놀이	
	중도	곡도	당제	당	당할머니	평안, 풍농	뒷산 정상	송림	1월15일 밤 자정~01시	무	2명	호당거출	음복, 농악 놀이, 자금거출	
	우전	우전	당제	상당 하당	①당 할아 버지 ②당할머니	풍농, 풍어, 재앙 방지	①뒷산중턱 ②마을 앞 밭둑	①원형 석축단 ②당목 (팽나무)	1월14일 밤 자정~02시	무	1명(제부)	동답	음복, 회의, 농악놀이	

(3) 세시풍속

본 항목의 서술은 도서문화 제 5집에 나와 있는 지도군의 세시풍속과 생활문화자료를 근거로 중도를 현지조사하면서, 일일이 가부를 체크하는 조사 형태를 취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편제상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서술 내용이 반복되는 사례가 많다. 지도와 임자도 등 대동소이한 부분들은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지조사 없이 기왕의 자료를 인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럴 경우에는 인용자료에 대한 근거를 서술의 말미에 밝혀두었으므로 혼돈의 염려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세시풍속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생활관습을 말한다. 이처럼 생활관습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세시풍속이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어도 안 된다. 즉 세시풍속은 오랜 역사와 넓은 지역에서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성을 띤 문화현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풍습이 때로는 지역적 환경이나 생활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마련이다. 예컨대 평야지대와 산간지대, 해안지대와 내륙지대 등이 서로 다름도 바로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에 다른 결과라고 하겠다. 중도지역의 세시풍속은 월별(음력기준)로 정리한다.

조사일시: 2006년 8월 25일

장소: 중도면 대초 1구 마을회관

제보자

1. 이중배(76, 남, 증도면 대초리 1구)
2. 조성재(68, 남, 증도면 대초리 1구)
3. 이상천(45, 남, 증도면 대초리 1구)
4. 이문섭(58, 서울시 개봉구, 증도면 대초리 출신)
5. 박인순(78, 남, 증도면 대초리 1구)

① 증도면 대초 1구의 세시풍속 사례

<정월>

설은 년중 가장 큰 명절로 여긴다. 설날 그믐날 밤 10시 무렵이 되면 미리 장만한 음식을 차려놓고 자정이 되면 차례를 지낸다. 차례를 지내는 의미는 조상들에 대한 자손의 도리로, 이는 온갖 음식을 마련하여 대접하오니 부디 흠향하시고 온가정에 평안과 자손에게 만복을 주십시오 기원한다.

차례는 상을 차리고 가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장자 순으로 재배를 한다. 차례상의 음식은 설날 아침 온가족과 사촌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식사를 한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아침 일찍 선영의 묘소에 성묘를 다녀온다. 차례가 끝나면, 이웃의 어른 그리고 친척들게 세배를 다닌다. 세배는 초사흘까지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정월보름까지 세배 다닌 것에 비하면 많이 간소화 되었다.

정월보름에는 맨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더위팔기’라 하여 상대방의 이름을 부른다. 이때 아무 영문을 모르고 대답을 하게 되면 “내독”이라고 하여 더위를 파는 풍습이 있다. 이것은 내독, 내떡, 냇떡 등으로 발음되는데 내더위라는 뜻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먼저 알고 “느그 한압씨 철부텝”라고 응수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당하는 셈이 된다. 또 이날은 윷놀이를 하여 일년 운세를 점치기도 한다.

초저녁이 되면 들판 여기저기에서 불깡통을 돌리며 ‘불싸움’을 시작한다. 대개 인접한 마을과 싸움을 하며, 8~9세에서부터 16~17세 가량의 남자아이들이 가장 많이 한다. 싸움은 마을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서 시작하며, 서로가 점차 사이를 좁혀가면서 상대방의 불을 먼저 끄거나 아니면 상대방 쪽으로 불이 많이 타들어가면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서로 이기려고 때로는 격렬한 타격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악의가 없는 싸움이라서 곧 해소되고 다음날 만나도 서로 아무런 감정이 없게 된다고 한다.

한편, 보름날 저녁에는 잠을 자지 않는다.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는 말이 전해오기 때문이다. 열엿세 열이레가 되면 동편에서 떠오르는 둥근달을 보고 달점을 친다. 보름달이 마을 앞산 위로 높이 뜨느냐 낮게 뜨느냐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작과 흉작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밖에 보름 풍습 가운데는 ‘메기밥’과 ‘건구’가 있다. 메기밥은 지금은 보기 드문 옛풍습이 되었으나, 열이레나 열여드레가 되면 보름 음식은 거의 없어지고 궁금할 때 하는 풍습이다. 같은 연령의 부녀자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걷는다. 이렇게 걷힌 밥은 김치와 함께 볶아서 나눠 먹는데 이를 메기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는 정월 한가한때에 부녀자들이 궁금함을 달래기 위해 했던 풍습이다.

검구치기는 농악을 말하는 것으로 금고, 군고 등의 발음이 이 지역 특유의 발음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보한다’고도 말한다. 이 풍습은 검구(농악)를 치면서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집안 액막이를 해 준 다음, 음식을 대접받거나 쌀이나 돈을 기부받아 마을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월 보름에는 다양한 풍습과 놀이를 갖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고 이제는 거의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가. 설

차례 : 그믐날 저녁 자시쯤에 조상상(선영상)과 성주상 2개를 차린다. 차례상에는 집에서 기제사를 모시는 조상의 수만큼 메를 올린다. 아침에는 떡국을 쭈어 먹는다. 차례상에는 과일, 전, 고기 등을 올리며 비늘 없는 생선은 올리지 않는다. 떡은 설 3일 전에 떡대에 쳐서 만들고, 콩나물과 숙주나물은 일주일 전에 시루에 길러 준비한다.

세배 : 아침 일찍 집안 어른들께 세배를 하고 떡국을 먹는다.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나눠주기도 한다. 학생들에게는 “올해는 공부 잘 해라” 등의 덕담도 해준다. 산소에 성묘를 다녀와서 마을 어른들을 찾아 인사를 드린다. 마을 어른들은 세배 온 사람들에게 술상을 대접한다. 작은집에서는 큰집으로 음식상을 차려와 어른들을 뵈는다. 그 해 시집온 새 색시는 마을 어른들께 인사를 드린다. 그러나 마을 여자들은 보통 정초에 돌아다니지 않는다.

성묘 : 아침을 먹고 나면 가족들끼리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성묘를 한다.

설빔 입히기 : 설에는 새로 옷을 해입히는데, 보통 당목이나 베에 솜을 넣어 해입힌다. 저고리 끝에 물감을 들인 것을 ‘깐치돔방이’라 한다.

놀이 : 설에는 강강술래와 윷놀이, 널뛰기 등을 하고 논다

나. 정초

토정비결 보기 : 토정비결은 정초에 책을 놓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본다. 그러나 지금

은 토정비결 보는 집이 거의 없어졌다.

정초 12지일 : 용날에는 비가 많이 온다하여 물을 긴지 않는다. 때문에 전날 물을 길어다 놔야 한다.
뱀날 뱀을 쫓기 위해 뱀첩을 써 붙이기는 했지만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한다.

다. 대보름

차례(14일) : 열나흘날 밤에 상을 차리는데 이 때는 성주상만 차린다. 저녁에 쌀, 수수, 콩, 동부 등을 넣고 오곡밥을 짓는다. 마당에도 상을 차리는데, 이를 ‘걸판’이라 한다. 걸판상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귀신, 예를 들면 어려서 죽은 아이들이나 제사를 받지 못하는 떠돌이 귀신을 위해 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차려놓은 걸판은 보름날 아이들이나 총각들이 걷어다 먹는다. 이 음식들은 한 곳을 정해놓고 가져다 데워서 며칠씩 먹는다.

밤새기(14일) : 열나흘날 밤에는 잠을 자면 눈썹이 길어진다고 하여 잠을 자지 않는다.

더위막이(15일) : 보름날에는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실을 나이 수만큼 감아 목에 걸어준다.

길쌈먹기(15일) : 보름날 아침에 김(해우)밥을 해 먹기도 하지만 따로 차려 놓지는 않는다

까치밥 주기(15일) : 밥을 떼어서 집 주위나 텃밭에 뿌렸는데, 이를 ‘까치밥 주기’라고 하며 ‘텃밭 주기’라고도 한다.

더위팔기(15일) : 아침 일찍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 대답을 하면 “니 더우, 내 더우”하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노래기 쫓기(15일) : 보름날 저녁에 술가지를 꺾어 지붕에 던지는데, 이 때는 “사내기 밥 주자”라고 하면서 던진다. 이렇게 하면 집안에 노래기가 없어진다고 한다.

땃불(쟁부닥불) 피우기(15일) : 마당을 쓸어 모아 놓고 생대나무를 넣어 불을 피웠는데, 이를 ‘쟁부닥불’이라 한다. 이렇게 대를 넣는 까닭은 생대가 불 속에서 터지면서 내는 폭음이 크게 나면 풍년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불은 나이와 상관없이 뛰어 넘는데, “발바닥에 줌먹지 마라”라고 하면서 뛰어 넘는다.

액연 날리기(15일) : 불싸움은 없었고 다만 논두렁만 태우고 다닌다. 후에 불깡통이 나와 불깡통 돌리기를 한다.

쥐불놀이(15일) : 불싸움은 없었고 다만 논두렁만 태우고 다닌다. 후에 불깡통이 나와 불깡통 돌리기를 한다.

<2월>

가. 2월 1일

2월 초하루를 ‘하래달’ 또는 ‘하릿날’이라 부른다. 이날은 농사의 병충해를 없앤다는 뜻에서 콩이나 보리 등을 볶아 먹으며, 굼벵이 없어지라 해서 굼벵이를 볶아 먹기도 한다. 또 영동할머니가 ‘바람영등’, ‘물영등’을 내린다는 말이 있다. 이는 바람이 부는 정도에 따라 그해 농사운을 점쳤는데 바람이 아주 많이 불거나 아주 적게 부는 것을 좋게 여긴다. 바람의 강약은 장닭의 꼬리가 나부끼는 정도를 보고 측정하였다고 한다. “물영등 내린다”는 것은 이날 비가 오는 것을 말하며 농사에 좋은 징조로 여긴다.

콩 볶기 : 2월 초하루를 ‘하릿날’이라고 부른다. 이 날은 콩과 잡곡을 볶아 먹는데, 부엌에서 콩을 볶으면서 “굼벵이 볶자, 떡볼가지(벌레)볶자”라고 하면서 볶는다. 이렇게 하면 그 해 논밭에 벌레가 없어진다고 한다.

나. 월중

개구리알 먹기 : 경칩이 되면 개구리알(용알)을 주워 먹는다.

<3월>

3월중에는 초사흘인 ‘삼짓날’이 있다. 이날은 이제까지 한가한 철을 보내고 농사일이 시작되는 날로 여긴다. 그래서 이날 머슴들은 썩은 새끼로 목을 댄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날 머슴이 있는 집에서는 머슴에게 특별히 음식을 해주거나 하루 종일 쉬도록 배려한다고 한다.

가. 삼짓날

당산나무 잎으로 점치기 : 지도읍에 있는 당산나무의 오른쪽 잎이 먼저 피는가 왼쪽 잎이 먼저 피는가에 따라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나. 한식, 청명

산일 하기 : 한식 때에는 개사토나 이장 등 산일을 한다.

<4월>

4월에는 초파일이 있다. 이날은 대부분 농가에서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쉰다. 그렇다고 달리하는 풍습도 없다. 다만 하루를 쉬면서 보내고 절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날만은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절에 다녀온다고 한다. 곡우 때 바닷물이 많이 들면 농사에 좋고 적게 들면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풍습도 있다.

<5월> <6월> <7월>

5월에는 단오, 6월에는 유두, 7월에는 칠석과 백중의 풍습이 있다.

그러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단오에 아낙네들은 널뛰기를 하였고, 유두에는 밀개떡(밀문지)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칠석에는 밤이 오면 북두칠성을 보고 자식의 운세를 점쳤다는 풍습이 전해온다. 즉, 북두칠성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별에 해당하는 자식이 그해 운도 좋고 출세를 한다는 것이다.

가. 단오

상추이슬로 세수하기 : 아침 일찍 이슬이 맺혀 있는 상추잎을 뜯어다 이슬로 얼굴을 문지른다. 이렇게 하면 그 해 얼굴에 버짐이 피지 않는다고 한다.

약초말리기 : 풀잎이 약초가 된다고 하여 달여 마시기도 하고, 뜯어다 음지에 말리기도 한다. 익모초나 선모초 등을 베어다 말리기도 한다.

나. 유두

전부치기 : 유두 때에는 전을 붙여 먹는다. 이 때 콩을 넣어 해먹기도 한다.

농신제 : 아침에 밥을 해 가지고 가서 밭에 묻기도 한다.

물맞이 : 이 때쯤 마을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하여 물 맞으러 다니기도 한다.

다. 5~6월중

복달임 : 복날에는 개를 잡아 복달임을 한다.

라. 칠석

전 부치기 : 이 날 전을 부쳐 먹는다.

마. 백중

마을잔치 : 머슴을 부리는 집에서 막걸리와 음식을 내놓으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것을 마시며 논다.

바. 7 월중

머슴 위하기 : 마지막 논매기가 끝나는 날, 머슴을 소에 태우고 풍물을 울리면서 주인집에 들어가면 주인은 닭죽을 쑤어 마을 사람들을 대접한다. 마을 사람들은 밤늦도록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며 논다.

<8월>

음력 8월 15일은 설과 함께 연중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다. 이때가 되면 온갖 음식을 장만하고, 자녀들에게는 새옷을 마련해주고 있다. 그리고 객지에 나가 있는 가족·친지들이 고향을 찾고 조상의 묘소에 성묘를 한다. 묘소는 추석 일주일 전이나 두주일 전쯤에 미리 별초를 해둔다. 한편, 머슴을 둔 가정에서는 추석 2~3일 전에 새옷과 여비를 주어 집으로 보낸다.

예전에는 추석때 강강수월래와 농악놀이를 하며 다음날까지 온마음이 쉬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농가의 일손 부족으로 추석 당일만 쉼뿐 다음날부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가. 추석

차례 : 추석 전날 밤에 차례상을 차려 놓는다. 상은 설날 차리는 상과 마찬가지로 상2개를 차리고 기제사를 모시는 조상의 수만큼 메를 차린다. 추석때는 송편을 빚는다. 송편은 햅쌀을 이용해 빚는데, 철이 맞지 않을 경우 나락을 훑어다가 시루에 찌서 말린 다음 절구에 뿔아 쌀을 만든다. 이를 '새쌀'이라 부르고 이것을 이용해 송편을 빚는다.

성묘 : 추석에는 외지에서 온 친척들만 성묘를 갈 뿐 마을 사람들은 성묘를 가지 않는다.

마당밭이 : 추석 때 마을의 돈이 필요한 경우 마당밭이를 한다. 이 때 절굿판에 포수, 양반, 각시 등의 탈을 쓴 사람들이 함께 한다. 굿을 치게 되면 마을에 있는 샘에 가서 샘굿을 친 다음 집집마다 들어가 굿을 친다. 집에서는 추석 때 장만한 음식들을 상에 차려 놓고, 살을 한 그릇 떠다가 상에 놔둔다. 그러면 절굿패는 마당굿을 먼저 치고 정지굿을 친다. 마당굿을 친 다음에는 집에서 대접한 음식을 먹는다. 정지굿을 치고 난 후 상에 올려놓은 쌀이나 돈을 챙겨서 나간다. 샘이 있는 집은 정지굿을 치고 집을 나가기 전에 샘굿을 쳐준다. 이렇게 마련된 돈으로는 나룻배를 만들어 읍과 연결되는 교통수단으로 사용한다.

나. 월중

조상단지 갈아주기 : 햅쌀이 나오면 집안에 모셔둔 조상단지에 쌀을 바꿔 놓는다. 기존에 있던 쌀로는 밥을 해먹는데, 이웃사람들과 나눠 먹기도 한다.

<9월>

9월 초아흐렛날을 ‘중구’라 부른다. 예전에는 햅쌀이 처음 나오면 이날 햅쌀밥을 지어 집안에 차려두곤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10월>

10월을 ‘떡달’이라 부른다. 이는 대부분 문중에서 선영의 묘소에 시제(시향)를 모시는 달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달에 일부 가정에서는 햅쌀로 밥을 지어 성주 앞에 차려두기도 한다.

시제 : 10월에는 시제를 모신다.

<11월>

11월을 동짓달이라 한다. 동지날은 동지죽을 쑤어 이웃과 나누어 먹고, “살땀이 한다”하여 문이나 벽 그리고 대문앞에 동지죽을 뿌린다. 동지죽을 뿌리는 이유는 과거에 피를 본 귀신이 집안에 들어오려다 빨간죽을 보고 이를 피로 오인하여 달아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두그릇에 동지죽을 떠놓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갈라지는 죽그릇을 보고, 그달은 가뭄이 들 것으로 농사일을 점치기도 한다.

동지팔죽 쑂기 : 동짓날에는 팔으로 팔죽을 쑤어 먹고, 또 술잎을 이용해 집 곳곳에 뿌린다.

<12월>

12월을 ‘선달’이라 한다. 이날은 마을 노인들에게 문안인사를 드리고 밀린 외상값을 갚기도 한다.

선달그믐 묵은세배 : 집안 어른들에게 묵은세배를 다닌다. 특히 장가갈 사람이 있는 경우는 상투를 올리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장가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인사드리고 다닌다. 이 때는 그믐 2~3일 전부터 인사를 드려도 상관없다.

<연중>

윤달 : 윤달을 공달이라 하는데, ‘손 없는 달’이라 하여 평소에 꺼리던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이나 부엌 고치는 일 등을 많이 한다.

<조사일> : 2003년 7월 16일

<제보자> : 김영준(남, 86세), 김용대(남, 67세), 양복임(여, 87세)

<수록> : 『도서문화 제5집』, 『전라남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세시풍속			놀이	사식
1월	설	차례, 세배, 성묘, 여지출입금기, 설빔 입히기, 떡 붙이기	웃놀이	떡국
	정초	토정비결보기, 액막이, 용날 물 긴지 앓기, 뱀날 뱀쫓기	웃놀이	
	입춘	입춘축 붙이기		
	대보름	14일 차례, 유지지 세우기, 불싸움, 논밭둑 태우기, 복조리 걸기, 밤새기		오곡밥, 나물
		15일 차례, 더위팔기, 김쌈 먹기, 찰밥 얻어먹기, 허새비 버리기, 샘물 훑치기, 뱀쫓기, 노래기 쫓기, 개미 쫓기, 무 먹기, 소밥주기, 마당밭이 뱃고사, 달점치기, 쥐불놀이, 빨개 먹기, 까치밥 주기, 댓불(젠부닥불) 피우기, 액연 날리기, 당산제, 더위막이	웃놀이, 강강술래, 줄다리기	찰밥, 나물, 무
	월중	액연 날리기		
2월	2월1일	콩 볶기, 영등, 머느리날, 썩은 새끼줄로 목매기		
	월중	개구리알 먹기, 도롱뇽알 먹기		
3월	삼짇날	당산나무 잎으로 점치기		
	한식,청명	산일 하기, 한식 추렴		
	월중	곡우물 마시기	화전놀이	
4월	초파일	절에 가기		
5월	단오	창포물에 머리감기, 풀썰하기, 상추이슬로 분바르기, 익모초즙 마시기, 약초말리기, 떡 해먹기	그네뛰기	짬뽕떡
6월	유두	차례, 논고사(용왕제, 농신제), 들에 일찍 나가지 앓기, 물맞이 전 부치기		전, 밀개떡
	월중	복달임		닭, 백숙, 개고기
7월	칠석	견우, 직녀 만나는 날, 전 부치기		전
	백중	차례, 머슴날, 마을잔치, 쉬는날		
	월중	벌초, 머슴 위하기		
8월	추석	차례, 성묘, 마당밭이(겉궁치기)	강강술래, 씨름떡국	송편
	월중	올벼집리, 조상단지 같이주기		
9월	중양절	염전고사, 국화주 담그기, 떡 해먹기		국화주
10월		시제, 산일 하기, 손 없는 달		
11월	동지	팔죽 쑤기, 날씨점치기		팔죽
12월	섣달그믐	설 준비, 목은세배, 빗 갇기, 수세, 불 밝히기, 집안청소하기		
연중	윤달	수의 짓기, 이장, 부엌 고치기		

(5) 통과 의례

통과의례(rites of passage)란, Van Gennep가 명명한 학술용어로 개인이 일생을 통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의례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출생·성인식·혼인·죽음에 따르는 의례를 말한다. 이를 관혼상제의 범주와 비교하면, 통과 의례의 출생의례는 사례에 없고, 대신 사례의 제례는 통과 의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주현외, 1979:59).

통과의례는 인생의 단계마다 원활한 변화를 이루게 하고, 지위가 변천을 승인하는 기능과, 위기의식의 해소라는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의례이다. 이를 Van Gennep는 분리·변전·통합의 세 의례로 구분하여 고찰하고(Arnold Van Gennep, 1966:10) 거기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통과적인 사고가 반영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중도지역의 통과 의례는 몇몇 세부사항을 제외하고 지도지역이나 임자도지역의 경우와 별다른 점이 없다. 이 지역에서 분리의례는 출산의례에서 금줄과 베갯지앙을 놓는 절차와 혼례의 초행, 상례의 장례의식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이전의 질서를 버리고 일반사회와 격리되는 의례이다. 이에 반하여 출산의례에서 세이레나 일곱이레에 지내는 제와 백일과 돌에서 유아사망의 어려운 시기를 넘긴 통합의례로서 긴장의 해소가 이루어진다. 통합의례는 혼례의 신행에서와 상례의 탈상제에서도 나타난다. 변전의례는 분리의례와 통합의례의 과도기에 추출되는 것으로 출생의례에서는 세이레나 일곱이레가 지나는 기간이, 혼례에서는 결혼식후 처가에 머무는 기간이, 상례에서는 치장후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난 다음 탈상제를 지낼 때까지의 기간이 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김준기 1986: 113).

다음에서는 이러한 통과사고를 느낄 수 있는 지도지역의 의례를 출산의례 혼례·상례·제례의 순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지도지역 사례와 임자도지역 사례와 대동소이하므로 동일한 내용 일지라도 간략하게 서술하도록 한다.

조사일시 : 2006년 8월 26일

장소 : 증도면 대초 1구 마을회관 앞 정자

제보자

1. 이중배(76, 남, 증도면 대초리 1구)
2. 조성재(68, 남, 증도면 대초리 1구)
3. 이상천(45, 남, 증도면 대초리 1구)

4. 이문섭(58, 서울시 개봉구)

5. 박인순(78, 남, 중도면 대초리 1구)

① 출산의례

가. 기자

기자행위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갖기 위해 기원하는 행위로 이는 지성기자와 축술기자로 구분된다. 이중 지성기자는 일정한 대상물에 공들이는 것이고, 축술기자는 이상한 행위나 음식으로 아이를 얻기 위한 공을 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자행위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자식(아들)이 없으면 큰댁의 경우는 동생의 큰아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작은댁에서는 큰댁의 작은아들을 데려다가 대를 잇는다. 그리고 딸이 많은 가정은 아들이 많은 가정과 바꿔 양아들을 얻어오기도 한다. 이때는 속곳에 아이를 넣어 본인이 낳았다는 시늉을 한다. .

나. 임신

일단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출산까지는 새 생명의 신성함 등으로 임신부는 여러 가지 금기나 믿음을 지켜야 한다.

① 임신 중 산모의 금기사항

- 산모는 초상난 집에 가지 않는다.
- 산모는 일체 짐승을 잡아서는 안된다.
- 산모는 못직을 얹는다. 이는 아이에게 못자국이 생기거나 꿇부리가 붓기 때문이다.
- 산모는 창구명을 막지 않는다. 아이의 눈이 막힌다.
- 산모는 삽질을 하지 않는다. 흙을 옮기면 좋지 않기 때문이다.
- 산모는 산달에 집밖에 나가지 않는다.
- 산모는 욕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되고, 담을 넘어 다녀서도 안된다. 아이가 모진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② 산모의 금기 음식물

산모는 초상집 음식이나 개고기·오리고기·상어기를 먹지 않는다. 오리고기를 먹으면 손이나 발가락이 붙는다고 하며 상어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눈이 나빠지고 눈가가 빨개진다고 믿는다.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네발 달린 짐승은 아이의 몸에 털이나 기름기가 많다 하여 금한다. 기타 산모는 남의 생일 음식을 먹지 않는다.

③ 태몽

태몽은 아기를 배기 전의 예시적인 꿈이다. 이는 산모나 시모가 아이를 가지려 할 때나 갖은 후에 꾸는 것으로 주로 밤에 꾸다.

꿈에 호랑이·염소·개·소·구렁이·용·돼지·시계·구름 등이 나타나면 태어날 애기가 남아로 예점한다. 그리고 여아는 늘렁감이나 빨강계 익은 감·무·호박·외(참외)·가지·비녀·뱀 등이 나타나거나 꿈이 시원치않고 새끼가 딸린 돼지를 꿈에 보았을 때이다.

④ 꿈에서의 징조

- 길몽 : 소를 사오는 꿈을 꾸거나 용이 보이거나 지붕에서 장닭이 울면 길몽이다. 꿈에 용이 보이면 머리가 큰 아들을 낳게 되고, 장닭이 울면 아이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여긴다.

- 흉몽 : 감을 따거나 좁은 꿈을 꾸거나 짐승을 죽이는 꿈은 흉몽이다. 특히 짐승을 죽이는 꿈을 꾸면 아이가 죽게 된다고 한다.

- 수명장수의 꿈 : 소의 꼬빠(고빠)가 길면 수명이 길고, 고빠가 짧으면 수명이 짧다.

- 수복다남의 꿈 ;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려있는 꿈과 같이 숫자가 많은 꿈을 꾸게 되면 자식을 많이 얻는다. 첫아이 때 이러한 꿈을 꾸어 낳은 아이가 딸이면 딸을 많이 낳고, 아들이면 아들을 많이 낳게 된다고 한다.

⑤ 태점

산모의 배가 편편하고 뒤에서 보았을 때 걷는 자세가 곱지 않거나 누운 자세가 편하면 남아로 점친다. 그리고 산모의 배가 볼록하고 뒷모습이 곱거나 누운 자세가 불편하고 아이가 항상 배의 한쪽에 치우쳐 있을 때 여아로 예점한다.

다. 출산

지도지역에서는 아이 낳는 것을 ‘산고들었다’, ‘연고 들었다’, ‘순산한다’고 말한다.

임산부는 만삭이 되어 해산일이 가까우면 가위와 실, 걸레, 짚등을 준비한다. 분만은 친정에서 낳는 일이 많으나 보통 시댁의 산모가 기거하는 방이나 큰방에서 한다. 방은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하고 바닥에는 짚을 깔아 아이를 무리없이 잘 낳도록 한다. 이 때 대개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이를 받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경험있는 사람을 불러 아이를 받도록 한다. 제보자 박득진씨의 경우는 친정에

서 아이를 낳으면 “지앙이 틀리다”고 하여 시댁에서 낳았다고 한다. 출산시 산모는 보드라운 흰 치마를 착용한다. 그렇지 않고 땀뻘뻘한 옷을 입으면 살갗을 자극하여 다리가 붓고 걸음걸이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해산시에는 반듯이 누운 자세로 아이를 낳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거나 이불을 등글게 말아 가슴에 받쳐 힘을 주어 낳기도 한다. 또 손을 뒤로 짚고 앉아서 낳기도 한다.

이 때 산실 윗목에는 ‘지앙상’을 차려 놓는다. 지앙은 ‘지앙할매’, ‘안지앙’, ‘재앙님네’ 등으로 불리며, 아이를 잉태해주고 낳게 해주는 내륙의 산신과 같은 아동보호신이다. 지앙상은 아이 낳기 전후나 난산시에 시어머니가 짚을 깔고 쌀·물·미역등을 차려 놓은 것이다. 여기에 놓인 쌀은 성주옆에 보관된 것이어서도 안되며 남이 손댄 것이어서도 안된다고 한다. 산후 일곱이레(21일)가 지나면 이 지앙상은 모두 치운다.

아이를 낳을 때 순산을 하면 다행이지만, 첫 아이일때는 특히 난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약방에서 약을 지어 먹거나 감염주술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잘 낳는 여자의 속치마를 빌려 입기도 한다. 또 시어머니가 윗목의 지앙에 “삼지앙님네 어찌든지 우리자식 헌치마에 애낳듯 잘 나게 해주쇼” 나 “지앙님네 순산하게 해주쇼, 헌치마에 애기 빠지듯이 쏙 나게 해주쇼”라고 순산을 기원하기도 한다.

가) 태처리

순산이거나 난산이건 간에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준비한 가위와 실로 태를 자른다. 태는 피를 훑어서 한뼘반 정도의 길이를 남기고 실로 묶은 다음 가위로 자르며 자른 태는 산모 다리에 묶어 주기도 한다. 혹 애가 나오기 전에 아이를 끌어내면 배꼽이 튀어 나온다 하여 귀한 집 아이의 땃줄은 이로 자르는데 한번에 잘라내야 한다. 자른 태는 단지에 담아 방우(방위)를 보아 정개(부엌)로부터 멀리 떨어진 깨끗한 곳에 묻거나 바다에 던져 버리기도 한다. 이때 방바닥에 깔았던 짚을 불태워 없앤다

특히 이 마을의 경우 다섯발자국 걸어간 자리에 태를 묻는 것이 풍속이었다고 한다.

나) 금줄과 베갯지앙

아이를 낳으면 곧 결막(대문)이나 산모방앞에 ‘금줄’을 친다. 금줄은 개고기를 먹었거나 상가를 방문한 사람을 부정으로 간주하여 출입을 금하기 위해 치는 일종의 분리장치인 것이다. 이는 집안 어른이나 산모의 남편이 원새끼로 꼬아 만들어 치는데, 여기에 남녀의 성을 표시한다. 남아인 경우는 원새끼에 고추·숯·참종이·남근을, 여아의 경우는 참종이·숯·흰형짚을 달아 놓는다. 특히 남아의 남

근은 성기형태를 원새끼로 두껍게 꼬아 만든 것으로 1~2개를 금줄에 매달아 둔 것이다. 이 금줄은 세이레 또는 일곱이레가 지나면 걷는다. 걷은 후에는 감아서 걸막에 그대로 감아두거나 깨끗한 곳에 태워 없앤다.

이러한 금줄외에 부정한 이의 출입을 막는 또 다른 분리장치로 ‘베깔지앙’ 또는 ‘지앙’으로 불리우는 것이 있다. 이는 토방기둥에 짚물을 묶어 세워두는 것으로 세이레 또는 일곱이레가 지날 때까지 두었다가 부삭(부승)에 넣어 깨끗하게 태워 없앤다.

다) 출산 후의 산모 음식

아이 낳고 산모가 처음 먹는 밥을 ‘첫국밥’ 이라 하난. 첫국밥은 시어머니가 지앙상에 놓은 미역이나 쌀을가지고 준비한다. 지앙상에 놓인 미역은 아들을 많이 낳는다 하여 미역귀가 많이 매달리고 새끼로 묶인 것을 구입한다. 구입한 후 원새끼로 묶어 두기도 한다. 미역국은 쌀뜨물에 주로 대하를 넣어 끓인 것으로 산모에게 맑은 피가 생기게 하기 위해 세이레 동안 먹도록 한다. 산모는 김치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속이 후하고 이빨을 버린다 하여 먹지 못하게 한다. 또 개고기 같은 추한 것도 먹지 않는다.

라. 산후의례

산후의례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3일째부터 시작된다. 이날 아침 산모와 아기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게 된다. 아기 목욕은 출산 후 바로 씻겨주기도 하나 대개가 삼진날 하고 있다. 매일 씻기는 것이 아이에게 좋으나 이레에 한번씩 씻기기도 한다.

아이가 입게 되는 옷은 보드라운 것으로 만들어 입히는데 보통 미영베를 이용한다. 옷은 깃을 달지 않고 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소매를 길게 만들며 옷고름을 달아주기도 한다. 그리고 기저귀는 예전의 경우 헌옷이나 미영베를 이용했으나 지금은 부드러운 가아제베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아기의 베게는 서숙, 수수, 메물(메밀)겹질을 넣어 만든다. 이러한 아기의 옷, 베게, 기저귀는 대부분 형제간에 선물로 사오거나 친정어머니가 마련해주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손톱, 발톱이 자라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이의 보드라운 살에 쇠(손톱깎기)가 닿으면 상할 우려가 있다하여 산모가 이빨로 잘라준다. 자른 손·발톱은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지 않고 종이에 싸서 변소에 버리거나 날짐승이 주어먹는 것을 막기 위해 깨끗한 곳에 버리고 있다.

가) 아기젓이 부족할 때

아이 젓은 산후 3일이 지난 후에 먹인다. 그러나 젓이 나지 않거나 부족하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산모는 젓이 나지 않거나 부족하면 약을 지어 먹어 보기도 하고 이레안에 마을 샘에 시리를 이고 가서 '지앙맛아 온다'고 하여 물을 길어다가 지앙상에 놓고 젓많이 태달라고 빈다. 이를 '젓 탄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산모는 돼지 발목을 고아먹어 보기도 하고 쌀밥에 국을 끓여 먹기도 하며 돼지 분통개(오줌보)에 날달걀 두 개를 깨서 먹어 보기도 한다. 또 돼지 발톱을 갈아먹기도 한다. 또한 젓이 나지 않거나 부족하면 아이에게 미역국을 먹이거나 '맘'이라 하여 생쌀을 절구통에 갈아 끓여서 먹인다고도 한다.

나) 삼진날과 이레

아이가 태어나 3일째 되는 날을 '삼진날'이라 하고 7일째 되는 날을 '첫이레'라고 한다. 이때는 산모방과 베갯지앙이 있는 곳에 '지앙'이나 '지앙님네'에게 지앙상을 차린다. 지앙상에는 짬을 깔고 밥, 미역국, 정화수를 떠놓고 애기에게 복주고 명 주라고 빈다. 세이레가 지나면 금줄과 베갯지앙을 모두 치우게 되며 산모와 가족의 금기가 모두 해제된다.

다) 백일과 돌

아기가 태어난 100일째 되는 날을 백일이라 하고 1년째 되는 날을 '뽕'이라 한다. 요즈음은 의학이 발달되어 유아사망률이 많지 않으나 예전에는 태어난지 백일과 1년이 못되어 사망하는 아이가 꽤 많았다. 그래서 백일과 돌은 온 집안의 경사로 거행되었던 것이다.

라) 기타

- 아기 이름은 대개 집안 어른이 작명하는데 좋지 않으면 돈을 주고 다시 짓는다.
- 재주있는 아이는 태어나면 짚위를 긴다고 한다.
- 아이가 체했을 때는 지추(지치?)를 다려 먹인다.
- 아기가 홍역에 걸리면 문을 열지 않고 따습게 해준다. 이때 빨간 금줄을 쳐두어 추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 아기가 이질에 걸리면 쑥뿌리를 다려 먹인다.

② 혼례

가. 약혼

혼인할 나이의 자녀를 가진 집에서는 혼처를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매인의 역할이 시작된다. 중매인은 여자나 남자측의 친한 친구나 친척들이 주로 되는데 이들은 ‘중마꾼’, ‘중마쟁이’라 불리운다. 중매가 들어오면 우선 양가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집안이나 궁합, 성씨, 행실, 재산등을 알아본다. 특히 남자측의 경우 여자가 길쌈을 잘하는가를 알아보기도 한다. 궁합은 동네의 한학자에게 의뢰하거나, 점쟁이에게 물어보기도 한다.

혼인이 결정나면 신랑측에서 약혼의 의미로 ‘사성단지’, ‘사신’을 보낸다. 이때 ‘신부옷걸림’이라 하여 신부 옷한벌과 이불감도 함께 보내는데 이를 신부는 시집을 때 다시 가지고 온다. 이를 신부집으로 가져다 주는 역할은 중마쟁이가 담당한다. 또 양가에서는 ‘혼서지’를 보내는데 이를 받은 신랑측은 택일을 하여 신부측에 보낸다. 택일은 신랑측에서 마을 동네어른으로 토정비결 등 한학에 조예있는 분에게 부탁한다. 혼서지를 받은 신부측은 대부분 그대로 따르나 혹, 날이 맞지 않을 경우 다시 택일하여 신랑측으로 보낸다. 또 신부측에서는 택일 이바지로 술을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약혼에 대해 크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며, 반지를 주고받는 정도로 약혼을 인식하기도 했다.

나. 혼례식

혼례식은 신부집에서 치르게 된다. 신랑은 식을 치르기 위해 신부집으로 가는데 이를 ‘초행’이라 한다. 초행길에는 신랑을 인도하고 신랑집을 대표하는 ‘상각손님’이 따르고 ‘우인대표’와 ‘중방쟁이’가 따른다. 상각은 신랑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등 친척이 주로 맡는다. 우인대표는 신랑의 친구들이 되며, 함을 짊어지고 따르는 사람이 ‘중방쟁이’이다. 특히 중방쟁이는 마을에서 아들 잘 낳고 팔자 좋고 유우머스러운 사람이 되는데 얼굴에는 검은 숯검정을 발름으로써 액매기(액막이)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함에는 신부 옷한벌, 족두리, 신랑의 사모관대, 오리와 머리카락을 잘라 맨 달크락(?)을 넣는다.

신랑일행이 신부의 마을에 도착하면 신부집에서는 신랑이 혼례를 치르기 전 머물수 있도록 ‘손예방(?)’으로 모신다. 손예방은 신부집을 거치지 않은 이웃에 마련한다. 신랑일행이 손예방에 안착하면 신부집에서는 술상을 마련하여 대접하며 신랑은 사모관대를 꺼내 갖추어 입고 식의 준비를 하게된다.

먼저 식이 있기 전 중방쟁이가 신부집으로 함을 지고 간다. 신부집 앞에서 “중방쟁이가 왔네” 하고 소리를 치면 사람들은 “자네! 어디서 왔는가?” 묻게 되고 다시 중방쟁이는 “나! 이만저만해서 술이나 한잔 얻어 먹자” 하면서 짊어진 함을 줄까 말까 한다. 이때 신부 어머니는 술상을 내온다. 중방쟁이는

이를 먹은 후 함을 신부측에 건네준 다음 신랑을 모시러 손예방으로 간다.

함은 아들 잘 낳고 부부가 오래도록 같이 사는 오복을 갖춘 사람이 건네 받는다. 함을 받은 부인은 함의 네모서리를 빗자루로 두드릭 세 번 깔고 앉은 후 신부어머니에게 건네준다.

함이 들어오면 신부집에서는 앞마당에 대례상을 준비한다. 지도지역에서는 이 대례상을 ‘동네상’, ‘예식상’, ‘큰상’으로 부르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보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한다. 상 위에는 떡, 과일, 술 등 장만한 음식과 보자기에 싼 암탉과 수탉, 동백나무를 꽃은 꽃병이 놓인다. 그리고 청홍실이나 삼색실을 동백나무에 걸치고 두 개의 술잔에 묶어 두는데 이는 인연을 맺어 잘 살라는 뜻과 자식의 명이 길기를 바라는 의미에서라고 한다. 한편 신랑과 신부의 인연이 좋으면 이 대례상에 놓인 닭이 울기도 한다.

혼례식은 신랑이 신부집에 입장함으로써 시작된다. 신랑이 식장에 들어오기 전 신부마을에 사는 젊은 청년들이 신랑을 놀리기 위해 가마를 타고 들어오는 신랑에게 길세를 내놓으라면서 장난을 건다. 신부집으로 들어오는 신랑은 신부의 오빠나 친척인 ‘대각’이 맞아들이고 신랑이 예를 하는데 도와 준다. 이때 식순은 예 부르는 사람이라 하여 ‘집사’가 한다. 혼례식은 이 집사가 부르는 홀기에 따라 진행된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신랑하마 - 신랑이 가마에서 내려온다

나) 신부입장

다) 신랑홍 - 신랑이 일어선다.

라) 신랑재배 - 신랑이 신부에게 큰절을 두 번한다

마) 신부사배 - 신부가 신랑에게 네 번 큰절을 한다. 예맞을 때 신부를 도와주는 이를 ‘대각’이라 하는데 팔자 좋은 젊은 여자가 맡는다

바) 신랑 흠

사) 신부 흠

아) 신랑 관세: 세숫물을 떠다 얼굴을 씻기는데 형식적으로 손 끝에 물으 묻혀서 얼굴에 뿌린 후 수건으로 닦는 시늉을 한다.

자) 신부관세

차) 신랑신부 합석

카) 신부입방

이렇게 하여 식이 끝나면 신부가 먼저 방으로 들어간 다음 신랑이 들어간다. 신랑은 신부가 읊을 처 주었을 때 들어갈 수 있으나 그냥 들어가기도 한다. 그후 신랑신부와 상각손님은 신부댁에서 크게 대접을 받는다. 상각은 대개 당일날 돌아가나, 하룻밤 묵어 가는 수도 있다. 식을 마친 신랑의 경우도 일진을 보아 당일치기로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나 보통은 신부집에서 3일간을 머물다가 간다.

밤이 으스스하면 신부어머니는 신방을 꾸며 놓는다. 신방의 윗목에는 술, 대추, 밤 등이 놓인 ‘첫날밤상’을 놓아두어 신랑, 신부가 서로 낮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신부는 첫날밤상에서 밤을 먼저 집어 먹어야 하는데 이는 자식번창하고 아들을 낳으라는 의미에서이다. 신랑신부가 신방에 들면 마을 사람들은 ‘신랑신부엿보기’를 한다. 이는 처음 대면하는 신랑 신부가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신랑 신부 중 누가 도망가지는 않는지 등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다. 신행

신부가 친정을 떠나 시가로 가는 것을 신행이라 한다. 신랑집으로 떠나는 날 아침, 신랑·신부는 장인과 장모에게 인사를 하고 친정을 떠난다. 이때 신부가 가마에 오르면 가마주위에 소금을 뿌리고 가마의 네모서리를 두드린후 가마 양쪽 귀퉁이에 참기름과 머리 기름을 매달아 준다. 가마속에는 폐백 드릴 음식을 넣어준다. 신행길에 신부를 따르는 사람으로는 신부의 큰아버지나 오빠 등이 동행한다. 신부가 신랑집에 도착하면 신랑측에서는 객귀를 쫓기 위해 단골네를 불러 징을 친다. 그리고 대문밖에는 상을 차려 놓는데 이를 ‘덕물림’이라 한다. 시가로 가마가 들어오면 신랑이 가마문을 열어준다. 가마에서 내린 신부는 신랑집에서 미리 마련한 쌀과 실을 감아둔 손가락을 누룩 위에 꽂아 그것을 안고 방안으로 들어간다. 또 시부와 신랑은 삼재가 끼었다하여 도착하자마자 부엌과 뒤결을 돌아서 방안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시가에 도착한 신부와 신랑은 먼저 선영에 피복(폐백)을 하고 시부모나 가까운 일가친척에게도 피복한다. 피복은 신부가 친정에서 마련해 온 이불, 옷, 떡, 술, 고기, 대추, 밤 등을 차리고 한다. 피복시에 신부와 신랑은 부모에게 큰 절을 올리게 되며 절을 받은 시부모는 신부의 치마에 잘살라는 의미로 대추를 던져준다. 피복이 끝나면 시부모나 일가친척들은 피복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이때 마을 사람들은 실꾸리를 신부에게 건네주기도 한다.

신부가 시가에 온지 3일이 지나면 음식을 간소하게 장만하여 친정에 가는데 이를 ‘재양질’이라 한다. 이는 일년 농사를 지어 이바지를 해서 가기도 한다. 신랑 혼자 갔다가 오는 경우도 있다. 신랑과 신부가 재양질을 오면 신부측 마을청년들이 신랑놀리는 풍습으로 ‘신랑 달아먹기’를 한다. 마을청년들

은 당목으로 신랑의 발목을 묶은 다음, 시령에 매달고 발바닥을 방망이로 두들기면서 신랑이 똑똑한
가의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말장난을 한다. 재앙질을 갔던 신부는 친정어머니가 마련해 준 이바지를
가지고 시댁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친정어머니가 함께 동행하기도 한다.

③ 상례

가. 임종

사람은 한 번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사람이 마지막 통과 하는 관문이 죽음이고, 이
에 따르는 의례가 상례이다.

사람이 죽는것을 ‘운명했다’, ‘초상나다’, ‘상사당했다’, ‘제상당했다’ 고 말하며 돌아가신 분은 고
인이라고 한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유언이라 한다. 이 유언은 대개 자손들간의 화목과 생전
의 거래관계, 재산상속문제 등으로 자손들은 이를 신중히 생각하고 충실히 따른다.

부모가 사망할 기미가 보이면 먼저 새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안방으로 모신다. 그리고 친지와 자손
들에게 통지하고 상복·철성판·관·시의 등을 준비한다. 통지를 받은 자손이나 친족들은 고인이 마
지막을 지켜보게 되는데 이때 사망 전에 곡을 하는 것은 금기로 되어있다. 고인의 사망이 확인되면 자
손들은 시신의 손발을 핀다. 두 손은 왼손이 오른손 위로 올라가게 놓고 시신의 가슴위에 얹어서 묶으
며, 두발은 함께 묶어 안방벽에 발바닥이 닿게 처리하므로써 시신을 정돈한다. 그리고 시신의 이물이
입이나 코를 통해 나올 것을 우려하여 솜으로 모두 막는다. 이때 손발을 피는데 사용되는 것은 당목,
가아제배, 참종이 등이다.

시신의 정돈이 끝나면 혼백을 부르는 ‘초혼’을 한다. 초혼은 고인이 생전에 입었던 동정을 떼낸 저
고리나 속옷을 지붕으로 던지는데 이때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 아무개 복복복”하고 세 번 외친다. 초
혼은 고인이 생전에 살던 집을 떠남을 알리는 것이다.

초혼을 한 수 사제밥을 대문밖에 차린다. 상에는 밥 3그릇·술·참종이로 만든 신·동전을 놓는다.
이 때 밥을 세그릇 놓는 것은 저승에서 고인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 온 세 명의 사자를 대접하는 것
이며 동전은 사자의 여비로 인식된다. 사제밥이 놓이면 상주는 “안녕히 가십시오”, “가시는 길 어찌든지
잘 모셔 주쇼”라고 기원하면서 곡을 한다. 사제밥은 누구나 진설할 수 있으나 체벽을 보지 않은 깨끗
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사제밥을 진설한 사람은 후에 사자상에 놓인 동전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주
여진다. 그 후 상주는 부상일 경우 왼팔 두루마기손을 모상이면 오른팔 두루마기손을 빼고 머리를 풀
며 머느리나 자손들도 머리를 푼다. 사자에게 사제밥을 먹인 후에는 초혼때 던진 지붕의 옷을 내려서

사신의 가슴에 덮어둔다.

시신은 손발을 피엇고 바르게 고정시킨 다음 안방 윗목의 칠성판 위에 놓는다. 칠성판은 ‘시판대’, ‘시성판’으로 불리우며 부엌문짝을 사용하거나 얇은 널빤지 또는 대나무를 쪼개 엮은 발을 사용한다. 이는 미리 준비해 두기도 하고 장례시 목포에서 직접 구입해오고 있다. 칠성판에는 다리·허리·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세군데에 짚등치(짚물)를 놓은 다음 시신을 안치하고 얇은 홀이불로 덮어둔다. 이때 시신의 베게는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것이나 짚등치를 참중이로 쓴 것을 베어준다. 그리고 시신의 턱이 아래로 처지는 것을 고정시키기 위해 창지(창호지)나 지푸락(짚)을 뭉쳐 턱에 받쳐준다. 또 새 옷을 맡아서 턱에 받쳐주어 고정시키기도 한다.

시신은 두향(頭向)이 북향으로 놓이게 되며 앞에는 병풍을 쳐서 가리운다. 병풍앞에는 ‘시사존(始死尊)’이라는 혼백을 만들어 놓고 주·과·포·향·양축이 놓인 작은 상을 놓아둔다. 상밑에는 고인이 생전에 신었던 신발을 깨끗이 닦아서 놓아둔다. 시신이 안치된 방은 ‘체벽방’으로 불리운다. 체벽방은 불을 지피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자손들이나 일가친척 외에는 함부로 출입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단칸방의 가정은 어쩔수 없이 체벽방에 불을 지필 수밖에 없게 된다. 초혼과 사자상·시신안치가 끝나면 일가친척과 마을민에게 부고를 띄운다. 부고는 호상이나 친족대표가 주관하며 이웃사람이나 마을청년들의 도움에 의해 전달된다. 조객이 방문하면 마루에 따로 마련한 ‘빈소’에 모셔 접대한다. 조객은 성복전에 상주를 만날 수가 없으며 성복제를 지내야만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

나. 소다름(소렴과 대렴)

염은 시체를 씻고 의복을 입힌 다음 묶어 관에 넣는 것으로 크게 습과 대렴, 소렴이 있다. 습은 시체를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입히는 것이며, 소렴은 시체를 임시로 묶는 것이고 대렴은 시체를 단단히 묶고 입관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자손이나 친척들 중 상을 치룬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맡아서 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타인이 맡아서 한다. 먼저 시신을 칠성판에 내려서 방에 깔아 놓은 가마니에 놓는다. 그리고 시신의 양쪽에 각각 1명씩이 앉아 습염을 하게 된다. 습은 향나무를 다린 ‘상물’을 사용하거나 향을 잘게 깎아 이를 냉수에 담구었다고 걸러서 하용하기도 한다. 한편 이 지역에서 습은 ‘씻김’으로 통용되며 씻김은 준비된 상물을 깨끗한 솜에 묻혀 형식적이거나 머리부터 차례로 닦아 준다. 이때 시신이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참중이를 이용해서 씻기는 부분부분을 가려가면서 씻겨 내려온다.

씻김이 끝나면 시의를 입히는 소렴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은 이를 ‘소다름’이라 한다. 먼저 시신을

명주로 감고 하의부터 상의의 순으로 시의를 입힌다. 이때 명주를 감는 것은 시신의 육탈시에 뼈가 흩어져 없어지지 않고 명주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명주는 가로로 석자, 세로로 일곱자 일곱치를 떼서 시신을 싼 다음 7매듭을 묶는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가 묶지 않고 있다. 시의는 남상의 경우 바지·저고리·허리끈·두루마기 순으로 입히는데 이때 부유한 가정은 도포까지 마련하여 입히기도 한다. 그리고 여상의 경우는 고쟁이(고의)·바지·속치마·겉치마·속적삼·저고리 순으로 입혀진다. 이러한 시의 여러벌은 상의와 하의를 각각 시침하여 한번에 모두 입을 수 있도록 누빈다. 시의로 이용되는 옷감은 당목이나 목면이 주로 사용되나 부유한 가정의 경우는 명주, 마포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주검입성’, ‘주검옷’이라고 하여 시의를 생전에 만들어 두거나 사망후에 상가의 대청이나 이웃집에서 준비했다고 한다.

시의를 입힌 후에 여상의 경우 머리는 곱게 빗어 버드나무를 비녀삼아 쪽을 짓고 얼굴에는 다른 세상으로 시집간다는 의미에서 연지나 끈지를 찍고 화장을 시킨다. 그리고 발톱은 깎고 버선을 끼우고 창호지로 접어 만든 신발을 신겨준다. 손은 손톱을 깎은 다음 창호지로 만든 장갑을 끼운다. 이때 자른 고인의 손톱과 발톱은 베로 만든 작은 주머니에 담아 손이나 발부근에 놓아 두며 머리를 빗길때 빠진 머리도 주머니에 담아 머리말에 놓아 둔다. 대개 시신의 얼굴은 면막수로 가려준다. 그러나 고인이 면막수 사용을 원치 않는 유언을 남겼을 경우에는 씌우지 않는다. 면막수는 가제베에 먹칠을 해서 말린 것이나 잘 씌지 않은 붉은색의 베를 사용하게 된다.

소다름이 끝이 나면 ‘반함’, ‘세미넣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한다. 반함은 상주가 버드나무를 깎아 만든 수저로 물에 불린 쌀을 시신의 입에 세 번 가랑 떠넣어 주는 것이다. 쌀이외에도 진주나 고인의 생전에 빠진 치아를 보관해 두었다가 입에 넣어주기도 한다. 반함을 하는 것은 “생전에 고생해서식복을 걸렀지만 저승에 가서는 밥이나 거르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입관을 한다.

입관을 하고 관을 당목으로 싸고 묶는 것을 대렴이라 한다. 관을 묶기 위해서 참종이와 짚을 섞은 16발의 원새네끼를 꼬아 사용한다. 관이나 상여는 예전의 경우 집안에 연로하신 분이 계시면 생전에 소나무 등을 미리 구해 목수로 하여금 관을 짜도록 하여 집안에 보관해 두었다. 이것을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성으로 인식하였다고 한다. 이중 상여는 마을공동으로 준비해 둔 것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목포나 해제 등지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관에는 칠을 칠하기도 하는데 이를 ‘법류’라 한다. 이는 벌레가 범하거나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대부분 들기름을 사용한다.

소다름과 입관이 끝나면 상주나 친족들은 굴관제복과 상복을 착용하기 위한 ‘성복제’를 지낸다. 성

복제전 상주들은 머리를 감아빚고 목욕정성한다. 제는 예전에 온갖 음식을 마당에 차려 제사를 모셨으나 지금은 간단히 방안에서 지낸다. 제가 끝나고 나면 모두 상복을 입는다. 상복이나 굴관제복은 대개 마포나 당목을 사용하여 마련한다. 녀상주는 마포와 창지를 풀로 붙여서 말려 접은 ‘포건’을 덮어 쓰고 그 위에 짚으로 두껍게 새끼를 꼬아서 만든 ‘테머리관’을 둘렀다. 남상주의 경우는 창지에다 마포를 풀칠하여 말린 ‘굴관’, ‘부관’으로 불리우는 것을 쓰고 여상주와 마찬가지로 테머리관을 머리에 둘렀다. 그리고 허리에는 짚으로 굵게 꼬아서 만든 요질을 둘렀으며 상막대는 부상의 경우 대나무를 모상의 경우 소나무, 쪽나무, 오동나무 등을 만들어 사용한다. 상복의 바느질은 부상의 경우 시침을 바깥쪽으로 접고 모상에는 시침을 안으로 접어 마련한다. 상주는 뗏짚으로 만든 ‘엄신’을 신는데 눈이 와도 양말을 신을 수 없다.

다. 매장

먼저 장지와 장일을 정한 후에 출상을 한다. 장지(되자리)는 지관(풍수쟁이)이 선정해 왔으나 지금은 <사례편람>을 보고 지를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선정하고 있다. 장지로 적당한 곳을 명당자리로 고르는데 산수가 좋고 지하에 물이 흐르지 않는 곳 주위의 산세가 환하게 트이고 나무의 뿌리가 뻗지 않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다.

장일은 가정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3일장을 거행하고 있다. 출상준비가 끝나면 전날 저녁에 ‘밤달애’나 ‘밤달야’라 부르는 행사를 치른다. 밤달애를 하는 의미는 으스스한 상가와 슬픔에 잠겨있는 상주를 위로하고 무섭증을 없애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때는 “상여놀린다”고 하여 빈상여를 가지고 상여를 뿔 상두꾼이 모여 ‘상여놀이’를 하기도 한다. 상여놀이는 3경·4경·5경의 세차례에 걸쳐 북과 장고를 치면서 거행되며 이때 상중들은 흥겹게 놀기도 한다.

장지가 결정나면 출상일 이른 아침, 상두꾼의 몇 명은 산역을 하기 위해 장지로 간다. 산역을 하기 전에 술·과일 등의 음식을 차리고 깨끗한 사람이 ‘개토제’나 ‘산신제’라 부르는 제를 지낸다. 개토제를 지냄은 개토산신에게 아무개를 이곳에 묻노라고 고하는 것이다. 장지는 물이 고이지 않을 네자깊이로 파둔다. 이처럼 장지를 파서 묘자리를 만드는 일은 상가의 친족중 나이가 지긋하고 상을 많이 치른 경험이 있는 분이 직접보고 지시한다.

출상하는 당일날 관이 안방에서 밖으로 나오기 전 주·과·포 등을 차려 놓고 ‘동관제’를 지낸다. 이때 상주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방을 떠나간다는 의미에서 슬프게 곡을 한다. 동관제 후 상두꾼은 관을 들고 먼저 방의 네 못리를 “관세음보살”을 외면서 돌며 가내의 액운을 없애기 위한 주술행위를 행한다.

동관제 후에 안방에서 내온 관은 상여에 얹어 놓는다. 상여에 올려놓고 집안의 마당에서 정든집을 마지막으로 나가기 위한 발인제를 거행한다. 발인제가 끝나면 상여는 집을 떠난다. 상여행렬이 길을 가는 도중에 ‘노제’, ‘거리제’라 부르는 제를 거행한다. 거리제는 행렬 도중에 “관음보살”을 외며, 상여를 내려놓고 병풍을 친 다음 제상을 차려 자손들이 잔을 올리고 재배하는 것이다. 이때 상가에서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구경나온 마을민과 어린애들을 대접하기도 한다. 거리제를 지낸 후에는 복과 장구를 치고 선소리꾼이 소리를 주면 상두군은 후렴을 받으면서 놀거나 ‘호상’을 하다가 장지로 향한다. 호상은 상두꾼이 상여를 댈 때 고인의 사위나 조카, 집안의 젊은사람 등을 상여 위에 올려 태우고 망자가 저승을 가는데 필요한 ‘노자’ 즉 돈을 상여에 걸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호상으로 걷힌돈은 예전에는 상두꾼이 술, 담배, 돼지고기 등을 사다가 먹어 없었다고 하나 지금은 상주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있다 한다. 상여행렬은 공포·운아·영정(명정)·만장·영위틀·상여·상주 순이 된다. 혼백상자에는 고인이 생전에 입었던 저고리의 동정과 사진, 삼색실(청색·홍색·노랑색), 신발, 모자 등이 놓여있다. 만장은 고인의 절친한 친구나 친족들이 마포에 잘가시라, 폭쉬어라는 의미의 글귀를 써서 준 것이다.

거리제를 지낸 후 장지로 향할 때 상여가 마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면 마을을 떠난다는 마지막 하직인사를 하는데 상여를 세 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이를 의미한다. 상여가 마을을 벗어나면 여자들은 하직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장지까지 가서 봉분작업을 보기도 한다. 상여행렬이 장지로 향하는 도중 고인이 소유했던 전답이 있으면 이를 경유하게 되어있다. 상여행렬은 상여소리의 박자에 맞추어 전진하며 상여소리는 선소리꾼과 상두꾼이 서로 주고 받는 형식으로 한다. 상여가 평지를 갈 때 상여소리는 “어닐 어닐 어노리 넘자 어닐”을 느린 속도로 반복하며 상여가산중턱을 오를 때는 “어하념자 어하념자”를 빠른 속도로 반복한다. 장지를 도착하여 상여를 내려 놓을 때는 “관음보살”이나 “태고”를 반복하면서 조심스럽게 내려 놓는다.

상여가 마을을 벗어나면 고인이 생전에 사용했던 물건이나 옷가지 등을 상여가 나간 방향으로 놓고 태운다. 이때 깨끗한 물건이나 옷은 태우지 않고 불위를 몇 번 돌린 다음 자손들이 다시 사용하기도 한다.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준비된 묘자리에 하관을 시작한다. 먼저 파놓은 광밑에 곱게 걸러진 황토 흙을 깔거나 참종이를 깔 다음 하관하고 명정을 덮는다. 그리고 상주는 마포형집을 가지고 관의 네모서리를 돌면서 술을 조금씩 붓고 흙을 한 삽씩 넣는다. 다음으로는 ‘도엿개’라 하여 소나무로 만든 통나무를 홀수 숫자에 맞춰 명정위에 놓아 관에 흙이 직접 닿는 것을 막는다. 하관하고 광이 평평하게

메꾸어지면 평토제를 지내고 봉분이 다 만들어지면 산신축을 부름으로써 치장은 끝난다. 혼백상자는 봉분의 때를 떼어 내고 묻거나 불태워 버리며 고인의 기성과 사진은 상주가 모시고 다시 상가로 돌아온다.

라. 흥제

흥제는 고인의 영혼을 산에서 다시 상가에 모시고 제를 지내면서부터 탈상까지의 제사를 말한다. 치장 후에 기성과 사진이 상가로 돌아오면 상주는 곡을 하면서 이를 ‘영실’에 모신다. 영실은 공방에 해당하는 빈방에 마련하거나 마루한켠 마당 한쪽에 별도의 묘를 지어 만들기도 한다.

시신을 보내고 저승에서 떠도는 영혼을 맞아다가 위안하는 뜻에서 지내는 제사로는 초우제·재우제·삼오(우)제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삿제’가 있다. 초우제는 치장한 날 바로 영실에서 지내고 재우제는 치장후 이튿날에 거행한다. 그리고 치장후 삼일째에는 삼오(삼우)제를 지내고 자손들이 모두 모여 묘의 이상여부와 봉분상태를 살피기 위해 묘를 찾아간다. 특히 이날은 장례과정에서 고생한 상두꾼 등의 계원들을 불러 술과 음식 등을 대접함으로써 감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삿제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간단히 밥을 영실에 차리고 지내는 제사이며 이때 상주는 곡을 한다. 이러한 제 이외에도 상가는 탈상하기 전까지 조석으로 밥이나 곡을 영실에 차려야만이 자식으로서 효성을 다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사망 후 3년만에 치루는 탈상이 지금은 대부분 3개월이나, 1년만에 하고 있다. 이때는 다시 상복이나 국관제복을 착용하고 온갖 음식을 장만하여 새롭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혹 장례시에 조문을 못했던 조문객이 방문하는 경우도 이때이다. 탈상이 끝날 무렵에는 입었던 상복이나 굴건제복등을 모두 벗어 깨끗한 곳에 놓고 태워 없앤다.

탈상이 끝나고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 혹 이장을 하기도 한다. 이장은 살이 썩어지고 뼈만 남게 되는 상태, 즉 낙근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보통 낙근이 되기까지는 4년 이상이 걸린다. 이장은 자손들과 마을민중에 경험있는 사람이 조용히 치룬다. 이때는 낙근된 시신을 바로 다른 장지에 매장하지 않고 일단 집안의 마당에 안치한다. 안치한 후에는 매 식사때마다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지내며 다음날 매장을 행한다.

마. 초분·독장

초분은 시신을 바로 매장하지 않고 일차장인 가장에서 시신을 완전히 썩혀 육탈시킨 후 본장인 이

차장에서 유골을 깨끗이 처리하여 매장하는 이른바 이중장제이다. 이 지역은 이를 ‘초분’ 외에도 ‘출빈’, ‘빈수(殯所)’라고도 부른다. 초분을 하는 이유는 ① 음력설달이나 정월초에는 땅을 파헤쳐서는 안된다는 속신 ② 홍역 등의 전염병이 나돌 때 땅을 파면 안된다는 사실 ③ 부모의 시신을 바로 매장하기가 죄스럽고 시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세가지로 나타난다.

초분의 형태는 산 으슥한 곳에 양쪽 3군데씩 6군데에 마장(말뚝)을 박고 관을 놓거나 소나무를 쌓고 관을 올려 놓기도 하며, 돌을 쌓고 관을 올려 놓는 형태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모두 관이 땅에 바로 닿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관 밑에 3개 정도의 상석을 놓아두기도 하는데 이는 물이나 습기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관은 바람으로 둘러싸고 바람에는 솔가지 등을 꽂아 둔다. 초분은 바람을 1년에 한번씩 다시 씌워 줌으로써 단장해준다.

본장은 3년이 넘어 완전히 육탈이 되어야 가능하다. 먼저 칠성판에 참종이를 깔고 뼈를 추려내어 맞추는데 이를 ‘씻골’이라 한다. 씻골 후에는 운아삽신과 명전을 넣어준다. 시신을 집안으로 모시고 와서 제사를 모신 후 다음날 매장하게 된다. 집안으로 모실 때는 방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손이 없는 공방인 방향에 안치한다. 공방의 방향을 지켜야 함은 남은 자손들에게 오는 탈(피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무척 조심하는 것이다.

애장은 영아사망률이 높았던 때에 실행했던 장법이다. 예전에 병들어 죽은 아이의 시체를 보이지 않게 돌을 쌓아 올리는 ‘독담’, ‘독장’을 했다 한다. 이는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의 움푹한 곳이나 한적한 곳에 하는데 돌을 엮는 것은 산짐승 즉 여우나 이리때들이 시신을 파헤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아이의 시신을 독에 넣어 매장하기도 한다. 매장시에 아이의 시신은 평소 입었던 옷이나 새옷을 입히고 얇은 요(이불)에 싸는데 부모들은 “암테라고(아무데라도) 생겨서 다시 세상봐라”고 애기하며 다시 다른 가정에 태어나기를 기원한다. 혹 매장시에 시신을 엮어서 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다시 우리집으로 오지 말라고 죽은 아이에게 독하게 해서 보는다는 뜻이다.

다음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행한 한국의 초분 중에서 증도관련 기록이다.

증도에는 방축리를 정점으로 총 4기의 초분이 있다. 증도 방축리 만들리 해저유물 기념비 뒤쪽에 김남돌 초분이 있다. 초분은 서향하여 만들었는데, 앞으로 신안 앞바다 해저유물 발굴지가 보인다. 이 곳은 물살이 센 곳으로, 한때 어업이 성행했던 곳이라고 한다. 이 초분은 7년정도 되었는데, 크기는 240cm×100cm×100cm 이고, 줄수는 7×5(10)이다. 올해에도 산운이 맞아 아직 이장을 못했다. 생가는 초분에서 150m 떨어진 해저유물기념비 초입에 있다.

중도 방축리 입구에 있는 서복심 초분이 있다. 생기는 초분 건너편 오산마을에 있다. 햇수로 6년 정도 되었으며, 방향은 서향(북)이다. 올해 이장하려고 날을 잡아 초분 이영을 씌우지 않았으나, 며느리에게 태기가 있어 이장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씌은 이영만 덮어져 있다. 초분을 둘러싼 줄수는 $3 \times 3(6)$ 이다. 초분하는 곳은 대체로 물이 잘 빠지도록 바람과 물이 땅이 드는 곳에 정한다.

제보자: 김요섭(66, 남, 중도면 방축리)

중도 방축리 장성동에 안승범 초분이 있다. 앞으로 간척지가 보이며, 산등성 너머로 방조제가 있다. 생기는 산등성 너머 100m 지점에 있다. 이 초분은 1년정도 되었는데, 크기는 $230\text{cm} \times 100\text{cm} \times 95\text{cm}$ 이며 방향은 동향(남)이다. 줄 수는 $3 \times 5(10)$ 이며 산 언덕에 흙을 다지고 단층으로 돌을 깔아 추분을 만들었다. 나일론 끈에 7개의 돌을 달아놓아 초분의 이영이 바람에 날리지 않게 고정하였다. 이영에 생솔가지가 꽂혀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 후손들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된다.

중도 방축리 장성동 작은 갯고랑에 이경성 초분(이도운 부친)이 있다. 초분의 방향은 남서향으로 방축리 마을과 갯가가 보인다. 초분은 4년 정도 되었으며, 내년 봄에 장례를 치루기 위해 이영을 교체하지 않았다. 세차례 정도 이영과 용마루를 덮었기 때문에 초분의 규모가 크다.

초분관행

중도(지관 김영훈)에서는 초분을 ‘출분이’ 또는 ‘출빈’이라고 한다. 상장례는 주로 상주나 집안 어른이 호상을 맡으며, 상장례 절차는 가문적 관행에 따른다.

초분을 하는 이유는 장례 치루지 못할 때, 가리는 일이 있을 때, 원장지로 가기 위해 임시로 가장할 때 하는데, 대체로 생갑, 병갑, 사갑 등이 맞지 않을 때, 마마병(전염병)이 퍼질 때, 채백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진송장으로 선산에 갈 수없기 때문에 초분을 한다.

초분은 상주의 의지에 의해 행해지며, 장지까지는 상여로 간다. 초분의 새끼줄은 3×5 , 3×7 로 하며 초분은 먼저 돌을 단층으로 깔 후에 관을 놓는다. 명정은 초분 조성시에 사용하는데, 이는 관의 임자를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초분은 돌로 만든 덩대 위에 이영과 용마루로 만드는데, 대체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만든다. 마름 5장, 용마루 1장 등 총 30묵 정도의 벚단이 소요되며 계원 및 조객들이 주로 마름을 만든다. 이곳에서는 줄 사이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솔가지를 꽂는다.

초분을 만든 후에 방 밖에 영실을 만들어 조상의 혼령을 모시는데, 대체로 방의 방향을 보고서 영실을 만든다. 영실에는 만장, 명정, 사진 등을 걸어놓고 상식으로 숭능을 올린다. 또는 방안의 제일 안쪽

한 곳(영실, 영방)에 사진이나 혼백을 모신다. 초분은 산사람으로 예우하기 때문에 상중이라 원칙은 메갱이만을 차려놓으나, 요즘에는 설과 추석, 기일에 집에서 제사를 지내며, 교회신자는 추도식을 지낸다.

제보자: 김요섭(66, 남, 증도면 방축리)

2차장을 ‘장례모신다’고 한다. 공달에 택장을 많이 한다. 2차 장지는 선영지로 하는데, 산사람 예우를 하기 때문에 선영에 고유제만 지낸다. 씻골은 소주로 깨끗이 씻어 매장한다. 유골 수습은 상체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체부터 하기도 한다. 2차 장지로의 운반은 상여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은 칠성판으로 많이 하고, 요즘에는 종이박스로 하기도 한다. 본장 이후에 초분의 이영은 태운다.

평토제 이후에 신주나 지방은 집안의 깨끗한 곳의 독이나 단지에 모신다. 본장 후에 신주 또는 지방으로 대신하며, 기년상이나 삼년상을 지냈으나, 지금은 초분하고 난 후 바로 탈상을 한다.

④제례

가. 기제

증도지역의 기제는 4대까지 모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즉, 고조까지 기제사로 모시고, 4대나 5대에 시제로 나간다. 그러나 제보자들의 경우에는 3대까지만 기제사로 지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4대부터 묘제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기제란 묘제를 모시기 이전 몇 년동안 방안에서모시는 제사로 지도지역에서는 ‘방안제사’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대개는 장남의 가정에서 모셔지나, 혹 장남이 먼곳에 출타하거나, 초상난 곳 등의 곳에 갔을 경우에는 차남이 대신 지내기도 한다. 제일에는 자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고인의 업적이나 유언·교훈 등의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제사지낼 시간을 기다린다. 특히 여자들은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한다.

제는 보통 사람의 왕래가 적은 조용한 밤12시에서 1시 사이에 지낸다. 자손들은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제사에 임한다. 장남은 제물을 진설한 후 ‘독’ 또는 ‘함’이라 불리우는 곳에서 기성을 내려다 모시거나 독문을 열어 놓고 진신·분향·강신·초헌·아헌·종헌·유식·설신·음복의 순으로 제사를 지내게 된다.

기제사가 끝나면 자손들은 한자리에 모여 남은 음식을 먹으면서 형제간의 계조직에 대해서나 가사일을 의논하기도 한다.

나. 묘제

묘제는 4대조 혹은 5대조 이상의 묘를 찾아 한꺼번에 제사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지도지역에서는 ‘시사모신다’, ‘시제지낸다’고 부르고 있다. 제는 묘에 가서 지내기도 하나 산중제각이 있을 경우에는 그곳에서 지내기도 한다.

제를 진행하는 제주는 초헌관·아헌관·종헌관·축관·집례 등 5명이 된다. 이들은 집안어른중 유식한 분이나 연로하신 분 중에서 선정된다. 제의는 제주들이 도복이나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후 유사가 마련한 송어·농어·닭·돼지·떡·과실 등이 전설됨으로써 시작된다. 제기는 대개 목기를 사용하는데 유사가 이를 보관한다. 진설후에는 진신·분향·강신·초헌·아헌·종헌·유식·설신의 순으로 제는 계속된다. 제주가 헌주하고 나면 일가친척이나 집안어른 등의 참석자는 모두 재배한다. 제후의 음복은 제주가 먼저 하고 나면 참석자 모두가 나눠 먹는다. 음복은 돌아가신 선조나 부모가 드신 음식을 자식들이 조금씩 맛본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시제를 지내는 동안은 제주나 유사가 지켜야만 하는 많은 금기가 있다. 먼저 초상이 났거나 산고가 든 가정 등 추한 곳에 가서는 안되며 다른 문중의 시제 모시는 곳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고기나 뱀등을 먹는 것도 금기로 되어있다. 이러한 금기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자손들에게 해가 미친다고 믿고 있다.

시제를 모신 후에는 마을민과 문중어르신을 불러 대접한다. 이때는 문중 어른들과 한자리에 모여 고인에 대한 생전의 얘기나, 앞으로 문중사를 주고 받는다.

(6) 가신신앙

가신신앙은 공간적으로 대개 가내에 위치하는 신적존재들에 대한 신앙이다. 따라서 그것은 가정단위의 신앙이며, 그 담당자는 주부가 대부분이다. 가신의 종류로는 대체로 성주신·조상신·삼신·조왕신·터주신·제왕신·업신·샘신·축신·문신 등으로 분류된다. 이 가신들의 명칭은 물론 존재하는 양식 역시 지역에 따라 다르며 그 역할 또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① 성주

성주는 가택신으로 가정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신이다. 성주는 대청 상량에 위치하는데 신체는 대부분 참종이나, 집을 신축하면서 실이 없는 참종이에 ‘성주’라고 쓴 다음 상량에 끼워 놓거나, 잘붙게 하기 위해 물이나 술에 담가놓았다가 상량에 던져 붙이는 것이다. 이때 경문을 읽는 독경쟁이나 점쟁

이를 불러 성주경을 읽도록 한다.

성주의 신체는 주로 성주오가리나 성주단지의 형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상오가리를 조상단지로 인식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의례는 간단히 명절때나 생일 때, 제사때 대청문 부근에 짚을 깔고 성주상을 차리고 난 다음 “할매 하나씩 동서남북으로 데녀도(다녀도) 몸건강히 해주고 돌봐 주시고 자손이나 명길게 복주시소” 하고 기원하는 정도이다.

성주는 집주인으로서 함부로 손대면 큰일나는 것으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한편, 외부에서 떡 등의 이바지가 들어올 경우도 성주신이 먹고 나서야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② 조상단지 · 불그릇 · 조상독 · 성주독 · 성주동우 · 성주단지

단지의 쌀은 새농사 지어 부정이 없고 손없는 좋은 날인 음력 초사흘이나 선달 초하룻날 옷을 깨끗이 갈아 입고 담는다. 이때 혹시 마을에 산고나 초상이 있으면 ‘부정탄다’고 하여 담지 않는다. 이전에 담겨 있었던 쌀은 꺼내 함부로 버리거나 짐승을 주지 않고 깨끗하게 식구끼리 밥을 해먹고 있다. 단지에 한번 담은 쌀은 한 해가 지나고 다음해 7월 새쌀을 넣을 때까지 건드리지 않는다.

조상단지에 대한 의례는 간단하다. 의례는 정월 초하루나 추석의 명절때나 생일때 그리고 제사때에 장만한 음식을 진석하고 기원하는 정도이다. 불안한 오가리는 깨끗한 그릇을 사다가 놓은 것이다. 제보자 김씨는 가신의 신명을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대청상량에 봉안되는 성주와 약간의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③ 조왕 · 조왕단지 · 조왕보세기 · 조왕보상 · 조왕할머니

조왕은 식량공급처인 부엌의 부뚜막에 모셔지는 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조왕단지’, ‘조왕보세기’, ‘조왕보상’ 등으로 불리우는 신체에 ‘조왕’, ‘조왕님’, ‘조왕할머니’를 모신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7) 무속신앙

① 성주(天)

성주는 새성주해서 이사들어 갈 때(집을 새로 지었을때) 가옥 상량(들보)에 주인영감 · 할멈의 이름, 나이, 생일과 생시를 한지에 쓰고 대나무에 꽃아서 올려두고 떡시루와 귀신 숫자대로 밥그릇 놓고

집터 주소인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 00번지 누구누구집에서 아무날 아무시(날자, 일진, 해시)에 성주를 올린다고 성주님께 고한다.

집주인이 만사형통하도록 복돋아주시고 좋은 주인으로 입정하여달라고 소지를 올린다. 떡시루와 과일, 구신(귀신) 숫자대로(보통 할미 · 하나씨 · 성주님등 서너그릇) 밥을리고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성주경을 읽는다. 또한 죽은귀신 잘되고, 가정이 화목하라고 화목경을 읽고 귀신옷을 불사른다(태운다).

② 냇건지기굿

냇을 건지는 이유는 물속에 빠져 죽은 시신의 냇이 물속에 있으므로 건져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사하면 요왕에서 죽은 것이니 냇을 건져주어야 하고 수살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냇을 건질 때에는 바닷가에서 요왕밥 3그릇, 맹인밥 1그릇, 밤, 대우, 사과, 배등 과일,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등 너무새(나물)를 차려놓고 빈다. 이때 비린것(생선)은 차리지 않는다. 제물을 진설한 후 산신경 · 요왕경 · 해원경을 읽고 신장이 나오면 질(길)땀고, 귀신나오라고 추원(기도)을 한다. 귀신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는 간짓대에 곱패를 매달아 물속에서 냇을 잘 건진다. 곱패는 식기에 쌀과 죽은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시를 써넣은 것을 말한다. 냇은 식기안에 죽은사람 머리카락이 쌀과 함께 곱패에 담겨 나오면 건져진 것으로 판단한다. 냇건지기굿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2만원에서 3만원이다.

③ 씻김굿

씻김굿에는 ‘진씻김’과 ‘모른씻김’이 있다. 진씻김은 ‘관머리씻김’이라고도 하는데, 막 죽은 사람을 관에 넣고 씻겨 주거나 죽은지 49일째 해원경을 읽어 씻겨 주는 것이며, 모른씻김은 죽은지 1년이 지난 소상이나 2년지난 대상 또는 방제사때 굿을 해주어 씻겨주는 것이다.

④ 동정잡이

사람은 병이 들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성과 노력들도 때로는 허사가 되고, 오히려 병세가 악화되는 수가 종종있다. 동정잡이는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선 치유되지 않았을 때 어떤 영적인 힘을 빌어 병을 고쳐주는 일종의 축술행위자라고 볼 수 있다.

동토경을 읽어야 하는 병명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경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만큼 병의 원인도 다양했으리라 여겨진다. 발병의 원인은 점쟁이나 무당의 점괘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는데 대개 집을 신

축하거나, 집안팎을 수리하고자 흙을 다루는 날짜가 좋지 않을 때, 나무를 베거나 또 좋지 않은 나무를 집안에 끌어들었을 때, 부정한 일을 했거나 안할 일을 했을 때 등으로 나타난다.

병의 증상은 일을 했던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나타난다. 특히 집안의 어린아이가 열병과 같은 고열에 시달리거나 입이 시퍼렇게 죽어가거나 이상하게 아프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증상은 동정잰이에 의해서 “동정났다”, “동티났다”고 점쳐지고, ‘흙동티’인지 ‘나무동티’인지가 결정난다. 동티났는가를 점치는 방법으로 점시에 콩을 담고 홍두깨를 거꾸로 세워 보아 곧바로 서게 되면 확실히 동티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동티난 것이 확실해지면 사람들은 동정잰이를 불러다가 돗토경을 읽는다. 먼저 환자를 그 대의 방에 눕힌다. 그리고 동정집이는 부석의 술에 밥이 있으면 술뚜껑을 약간 열고 주걱을 걸쳐 놓고 경을 읽게 되며, 밥이 없는 빈술일 경우에는 술을 깨끗이 닦고 부석(부뚜막)에 짚을 깔고 물을 한그릇 떠놓은 다음 베틀의 두투마리를 걸쳐 놓는다. 그 앞에 평복차림에 머리에는 고깔을 쓴 동정집이가 앉아 한 손에 식칼을 들고서 도투마리를 두드리며 불교경전 가운데 돗토경을 읽어간다. 한귀절 한귀절을 암송하면서 도투마리를 뒤집는데 7회 또는 21회를 반복하여 뒤집는다. 어느 정도 돗토경을 암송한 동정집이는 식칼을 밖으로 던져본다. 이때 칼끝이 집안을 향하고 있으면 귀신이 집안을 나가지 않았다고 여겨 계속하여 돗토경을 암송하게 되나, 칼끝이 집밖을 향하면 귀신이 물러났다고 판단하여 암송을 그친다.

(8) 민간의료

예부터 선조들은 가족 가운데 병이 나면 생활주변에서 손쉽게 구해쓰는 약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려는 민간의료란 발달된 과학기계문명에 의해 개발된 현대의학에 의한 치료법이 아닌 전채처방과 전통적 비방, 그리고 주술종교적 처방을 말한다.

지금도 나이 많은 노인들은 가족중에 병이 들면 약국이나 병원을 먼저 찾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한다. 이는 그만큼 오랫동안 구전되어 왔거나 실제 경험하여 얻은 생활의 지혜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재래적인 치료약 중에는 특효약이 있고, 또 널리 소문이 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요즈음에 들어 현대의학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리의 재래적인 민속약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해져가고 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의학발달사를 살피는데 민간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인식한 까닭일 것이다.

• 낮이나 쟁기에 손발을 베면 ① 아궁이의 솔 밑바닥에 있는 껌장(그을음)을 바른다. ② 담배가루를 바른다. ③ 뱀쟁이(?) 뿌리를 찢어 바른다.

• 추위에 손발이 갈라지고 거칠어지면 ① 돼지비계기름을 바르거나 따뜻하게 해서 지진다. ② 참기름, 머릿기름을 바른다.

• 박(머리)이 터지면 된장을 바른다.

• 개에 물리면 물었던 개의 털을 잘라 불에 태운 다음 참기름에 적어 바른다

• 독사에 물렸을 때 아편(앵쑉갓)을 먹는다

• 무좀에는 탕자를 찢어 바른다

• 옷이 오르면 ① 초가로 된 화장실 입구의 마람을 태워 그 연기를 쏘인다. ② 자신의 똥을 바른다

• 땀띠에는 ① 찬물에 소금을 타서 목욕을 한다. ② 썩은 마람을 불에 태워 연기를 쐬다.

• 눈에 다랍(다래끼)이 나면 ① 산모의 젖을 바른다. ② 꼬마들 자지(성기)에 문지른다. ③ 얼기뿔을 돗자리에 문질러 다랍에 댄다

• 벌레에 물리거나 쏘이면 ① 산모의 젖을 바른다. ② 식초를 바른다

• 발가락 사이가 물면(혈면) 대추를 찢어 바른다.

• 부스럼이 나면 ① 전덕살(?) 나무를 찢어 바른다. ② 개미똥나무(?)를 뿌리까지 삶아서 목욕한다.

• 더위먹으면 냉수에 소금을 타서 마신다.

• 설사를 하면 ① 담장이냉쿨을 찢어 생즙으로 먹는다. ② 콩껍질이나 익모초 그리고 익지 않은 탕자를 다려먹는다.

• 체하면 ① 참기름이나 소금, 식초 등을 먹는다. ② 취냉쿨을 입으로 자근자근 깨문 다음 깨물었던 취냉쿨로 목구멍을 살며시 찌른다.

• 목이 쉬면 계란을 먹거나 식혜밥을 먹는다.

• 배가 아프면 청개구리를 산채로 잡아 먹는다

• 이질배피에는 ① 아편대(앵쑉갓)를 다려 먹는다. ② 익모초를 다려 먹는다. ③ 쪽나무(?) 껍질을 찢어 물에 타 마신다.

• 상완병(요즈음의 맹장염과 같은 병)에는 초가지붕에 물을 뿌려 흘러내린 물을 받아 마신다.

• 허리가 아프면 쌀을 형짚에 싸서 가볍게 두드린다. 이르 '잔밥 메긴다' 고 한다.

• 사람이 먼곳에 출타했거나 상가를 방문하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측간(화장실)에 들러 측신에게 고하고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는 잡신을 막기 위함이다. 외지출타하고 병이 든 것을 '물렸다' 고 말

한다.

· 정신병이 들어 점쟁이에게 점치니 신이 있다고 얘기한다. 또 “마귀가 들었다”고 하여 복숭아나무를 잘라 놓고 빈병을 앞에 놓은 다음 경을 읽는다. 그러면 마귀가 병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병을 빨리 땅에 묻게 되면 정신병이 낳게 된다.

조사일시: 2006년 8월 26일

장소: 증도면 대초 1구 마을회관 앞 정자

제보자

1. 이중배(76, 남, 증도면 대초리 1구)
2. 조성재(68, 남, 증도면 대초리 1구)
3. 이상천(45, 남, 증도면 대초리 1구)
4. 이문섭(58, 서울시 개봉구)
5. 박인순(78, 남, 증도면 대초리 1구)

(9) 증도의 유형문화

① 의생활

가. 개관

우리민족 고유복식의 기본형은 대체로 裳袍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에 冠, 帽, 帶, 靴 또는 履가 첨부된 것이었으며, 이것은 북방 호족계통의 의복에 속하는 것이었다. (유희향[한국복식사], 1983). 즉 우리민족은 원래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쓰며 신을 신었던 것이다.

이러한 고유복식은 김춘추가 진덕여왕 2년에 당에 청병하러 가서 당의 복제를 들여와 공복으로 사용함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복식과 이중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조선말까지 서민들은 고유복식을 관료들은 공복으로서 중국복식을 입음으로 해서 이중구조는 지속된다. 시대의 흐름에따라 고유복식의 형태는 다소간 변하지만 그 기본복제에는 변함이 없고 외래복식이 관료들의 복제는 대륙의 지배세력이 바뀔에 따라 변화한다.

고유복식과 중국복식으로 대표되던 우리의 복제는 갑오경장 이후 서구의 바람이 불어옴에 따라 남자는 머리를 자르고 양복으로 입으며, 여자는 양장을 함으로써 고유복식과 서구복식의 이중구조로 바

편다. 또한 이 시기에 요즈음의 한복차림에서 볼 수 있는 두루마기, 마고자, 조끼 등이 나타난다. 두루마기는 원래 사대부계급에서는 평일 집에 있을때, 서민계층에서는 외출할 때 입던 윗옷인데 갑오경장 이후 조신의 대례복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서민들에게 까지 확산되었다. 마고자는 대원군이 청의 유한서 돌아올 때 가지고 들어와 보급이 되었으며, 조끼는 양복의 조끼를 본 따 만들었다고 한다.

조사일시: 2006년 8월 26일

장소: 증도면 대초 1구 마을회관 앞 정자

제보자

1. 이중배(76, 남, 증도면 대초리 1구)
2. 조성재(68, 남, 증도면 대초리 1구)
3. 이상천(45, 남, 증도면 대초리 1구)
4. 이문섭(58, 서울시 개봉구)
5. 박인순(78, 남, 증도면 대초리 1구)

나. 옷차림

가) 평상복, 작업복과 외출복

* 남자

남자 옷차림의 기본형은 바지, 저고리이며, 여름에는 홑겹, 겨울에는 두겹 또는 솜을 넣어 누벼서 입는다.

① 상의 : 적삼, 홀저고리<여름>, 겹저고리, 돛방애(솜을 넣음), 핫옷(솜을 넣어 누빈옷)<겨울>, 겹옷(두겹으로 만듦)<봄,가을>

② 하의 : 진중우<여름>, 바지<겨울>

③ 신발: 짚세기, 초분신(일명 두지기신)

* 여자

여자의 옷차림은 치마, 저고리로 남자의 옷차림 보다는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린 편이다.

①상의 : 적삼, 홀저고리<여름>, 겹저고리, 핫저고리(솜을 넣어 누빈옷), 겹저고리(두겹으로 만듦)

세탁할 때마다 뜯어서 바느질을 한다), 박음저고리(두겹으로 박아서 만듦. 세탁할 때 뜯을 필요가 없음)<겨울>

② 하의 : 홀치마<여름>, 겹치마<겨울> 여자의 하의는 겹옷 보다는 속옷이 발달하여 그 종류가 다양하며 특히 겨울에는 겹겹이 끼어 입었다. 가슴은 앞으로 볼록하게 나오지 않도록 동여매는 허리띠가 있었다.

③ 버선 : 홀버선<여름>, 겹버선(수룩부터 자리개 중간까지 솜을 넣음)<겨울>

나) 의례복

• 출산복

속옷은 부드러운 미영베로 짠옷을 입고 다니다가 애기를 낳을때가 되면 속치마는 벗어버리고 부드러운 겹치마만 입는다. 미영베 전에는 마포로 짠 치마를 입었는데 애를 낳다가 살이 다 헤여서(긁혀서) 상처가 나 혼이 나기도 했다.

• 유아복

갓난 아기에게 입히는 옷을 ‘배안에 저고리’라 하여 아기의 엄마 될 사람이 손수 준비하거나, 형편상 준비를 못하는 집은 부자집에서 입혔던 아기옷을 가져다 입히기도 한다. 옷감은 미영베(요즘 가제베)를 사용하며 거의 바느질을 하지 않은 상태로 누벼 짓(짓)은 달지 않고 소매는 아기의 손이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길게 만든다. 옷고름은 한 줄 정도로 가늘게 하며, 저고리의 여밈은 이 옷고름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다. 아기에게는 저고리만 입히며, 저고리의 길이는 아기의 엉덩이 부분이 가릴 정도이다. 옷 이외에도 기저귀나 베개를 장만하는데, 아기베개는 메밀껍데기나 찌지않은 서숙으로 베개속을 넣는다. 이 모든 것은 산전에 엄마가 미리 준비하나 30~40년 전에도 부자집에서는 아기옷이나 기타 필요한 준비물은 사다가 입히고 그 옷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였다.

• 혼례복

혼례복은 그 시대나 유행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온 복식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구식혼례의 경우 신랑, 신부의 의복은 동네에서 공동으로 지어 한집에 맡겨놨다가 ‘례 맞을 때’ 빌려 입는다. 이곳은 사모관대를 ‘예복’ ‘관대복’ ‘관대’라 부르고, 원삼죽도리를 ‘죽도리 옷’이라 부른다.

먼저 신랑복을 보면, 민속수(삶아 익혀 명주실로 짠 무늬가 없는 옷감)로 만든다. 안감은 다홍색에

겉감은 남색인 관대복에 쌍학의 흉배를 앞뒤로 달고 속옷은 미영으로 짠 속적삼, 바지, 저고리를 입는다. 머리에는 관을 쓰고 붉은 요대를 하며, 신은 게오자를 신는다.

신부는 검정과 빨간색의 천과 구슬을 이용해 만든 족도리에 붉은 땀가죽을 드리우고 모시적삼, 분홍 저고리, 속바지, 홍색치마를 입고 이 옷 위에 안감은 다홍색 속고사에 겉감은 진녹색 속고사로 지은 원삼을 입는다. 신은 신코에 예쁜 꽃무늬를 놓은 꽃신을 신는다.

지금은례를 거의 예식장에서 올리며 신랑은 검정이나 곤색의 양복바지, 저고리에 구두를 신고, 신부는 흰 면사포에 드레스를 입고 흰구두를 신는다. 사모관대와 원삼족도리는 폐백시에 잠깐 예식장에서 빌려 입는다.

· 상복

상복은 전통적 재래복식이 거의 지켜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옷감은 마포가 주류를 이루나 요즈음은 미영베에 노랑물을 들인 천으로 준비하기도 한다. 미리 준비해두는 집도 있으나 사후 준비하는게 대부분으로 여름에는 마당이나 대청에서, 겨울에는 방에서 옷을 짓는다. 옷을 지을때 사자가 여자일 경우에는 옷감을 안쪽으로 접어서 바느질(안어른 이라해서)하고 남자일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접어서 바느질(바깥어른 이라해서)한다. 바느질할 때 뒷바느질하면 ‘죽은자가 뒷말을 한다’ 하여 듣성 듣성 바느질한다. 상복만들때 상제들이 신는 신을 ‘엄신’이라 하며, 원생원(상주)은 굴관제복이라 하여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는 이음새(바느질 자리)가 뒤로 가게 한 포건(건)을 쓰며 짚으로 원새내끼를 꼬아 손가락 길이만큼 만든 수질을 포건 양쪽의 귀부분에 단다. 허리에는 짚으로 만든 요질을 두르고 상장목(상장막대기)을 짚는다. 다리에는 행건(행전)을 두르고 엄신을 신는다.

원생원 이외의 상제들은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에 이음새가 뒤로 가게 한 포건을 쓰고 상장목을 짚는다. 행건을 두르고 엄신을 신으며 수질은 달지 않는다. 자식이 아닌 조카들은 포건의 이음새가 옆으로 가게 하며 수질과 지팡이는 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상중에 머리를 풀고 마포수건을 쓴다. 수건과 치마, 저고리에 버선과 엄신은 공통으로 착용하며 큰며느리나 할머니는 수질을 달고 요질을 두르며 상장목을 짚는다. 며느리와 친딸은 머리에 마포로 된 때를 왼쪽으로 꼬아 한겹은 두겹고 다른 한 겹은 가늘게 하여 2겹을 합해 다시 왼쪽으로 꼬아 그 사이에 숯을 달아맨 것을 쓴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의 상복도 마찬가지로 준비한다.

지금은 상복을 전문적으로 짓는 집에서 사다 입는 일이 많고 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참석한다.

갖 음식을 장만해 대접하고 신랑, 신부에게도 상객상과 똑같은 상을 차려준다. 첫날밤 신방에는 “첫날 밤 상”이라하여 서로 낮을 익히게 하기 위하여 술상을 차리는데 전류와 술, 밤, 대추 등으로 상차림을 한다. 폐백음식은 신부 집에서 준비하며 떡, 술, 고기, 대추, 밤 등이 차려지고, 이 음식은 시부모와 친척이 먹는다

동네상 : 신랑과 신부가 교배를 하고 서로 술잔을 나누는 상을 말하며 이 상의 음식은 레맛은 후 동네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 동네상은 레맛은 곳에 명석을 깔고 놓으며 상 위에는 생선, 육고기, 과일, 채소, 편, 떡, 장닭(숫닭) 등을 놓고, 신부옆에 교배술과 木雁을 놓은 작은상을 놓는다

라) 家釀酒

① 청주 : 보리와 밀을 맷독에 갈아내 물을 조금 붓고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섞는다 → 반죽한 것을 골망태에 담아 발로 밟아 둥그런 형태가 되도록 하며 일주일 정도 두어 뜨게하면 누룩이 된다. → 마른누룩을 절구통에 넣고 찼어 냄새가 나가도록 한다. → 하루정도 누룩을 말리는 동안 쌀과 보리를 시루에 담아 찌낸다 → 식힌 후 마른누룩과 섞는다. → 물을 부어 발효시킨다 → 용수(동방주)를 넣어 청주를 떠낸다 → 생강이나 기타 향료를 넣어도 좋다

② 막걸리

가. 누룩만들기 : 보리나 밀을 물을 조금씩 섞으면서 간다 → 다 갈아낸 가루는 물을 부어 잘 반죽한다 → 반죽된 것은 작은 망태기에 담아 발로 밟아 둥그런 형태가 되도록 한다 → 망태기에서 꺼내 일주일 정도 두면 누룩이 뜬다 → 뜬 누룩을 말린다

나. 술담그기 : 마른 누룩을 절구통에 넣고 찼어 하루동안 바래게 한다 → 쌀, 보리, 좁쌀을 물에 불리다가 시루에 넣고 찌서 술밥을 만든다 → 술밥을 식혀 적당량의 누룩과 섞어 물로 흘랑흘랑하게 해서 동이에 담는다

다. 술거르기 : 5~7일 후에 걸러 먹는다.

③ 초 : 보리쌀을 뜨끈뜨끈하게 데워서 찻병에 담고 누룩가리를 넣은 다음 덮어둔다. 며칠이 지나면 초가 된다. 초가 거의 없어지면 막걸리를 붓는다.

다. 향토음식

가) 가오리회

여름철 들일을 한 후 잘먹는다. 생가오리를 토막내서 미나리, 양파, 초, 고추장을 넣어 알맞게 간을

맞춰 먹는다.

나) 밀개떡

밀가루를 빼고 남은 거친 찌꺼기로 개떡을 만들어 밥지을때 밥 위에 얹어 찌 먹는다.

다) 밀문지

밀을 맷돌에 갈아서 체에 걸러 고운가루로 참기름에 전 부치듯이 부쳐먹는다

라) 송편떡

밀가루, 보리가루, 쌀가루, 좁쌀가루, 찰시가루 등으로 빻어 팔고물을 넣는다.

마) 민어젓

민어젓은 중도의 특별한 음식 중의 하나로, 재력이 있는 집에서 담귀먹었다고 한다.

③ 주생활

가. 개관

안채는 주거생활의 중심공간으로 큰방, 작은방, 정지, 정지방, 마루, 광이 있고 아래채나 부속채에는 사랑방, 외양간, 광, 헛간, 방앗간, 칩간, 축사 등이 있다. 또한 집안의 외부공간으로 마당, 뒤안, 텃밭, 장독대 등이 있다. 이들의 구성이나 배치의 방법은 건물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다르다.

나. 안채

가) 큰방

큰 방은 집안의 어른 부부가 거처하는 곳으로 식당, 가족들의 대화의 장, 손님맞는 접객실, 물레, 베틀을 놓고 길쌈하는 작업의 장, 가정교육의 진원지로서의 기능 등 그 역할이 다양하다. 큰 방은 대개 정지와 붙어있어 항상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겨울에도 따로 군불을 땔 필요가 없다.

30년전까지는 천장은 종이반자이며 벽은 무늬없는 흰 종이를 발랐다. 방바닥은 왕골자리를 까는데 보리타작 후 이 자리를 걷어다 부뚜질한다.

방내의 시설물들은 남자용품과 여자용품이 공존하는데 가구류, 침구류, 조명구, 담배용품, 문방구, 화장구, 바느질용품 등이다. 방의 옆면이나 윗목에는 대개 가구를 놓는다

벽에는 못을 박아 인두, 인두판, 다리미 등 세탁 용기와 빗자루, 쓰레받이 등 청소용품, 그리고 아랫목 벽에는 헛대를 쳐 외출복이나 옷을 걸어둔다.

주거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중의 하나가 조명이다. 옛날에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관솔불

을 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코밑이 새김하다는 사실을 고노들은 잘 기억한다. 인지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기름을 이용하여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지도에서 식물성으로 참기름, 면실유와 쌀이무깨(쌀겨)기름을, 동물성으로 가오리기름과 소, 돼지기름을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이무깨기름을 만드는 방법은 주발위에 형겅을 깔고 이무깨를 소복히 올려놓은 다음 이무깨에 불을 붙이면 지글지글 타면서 기름이 주발에 받아진다. 이 기름을 등잔에 붓고 심지를 창호지로 만들어 불을 붙인다. 등잔은 등잔대에 올려놓는다.

석유가 보급되어 호롱에 불을 켜기 시작하면서 사방등에 호롱을 담아 외등을 켜기도 했다. 요즘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없다.

부녀자들의 화장구는 극히 간단하다. 상지에 면경, 빗치개, 대로 만든 참빗, 나무로 만든 열개빗(열레빗), 빠진 머리카락을 담아 사랑이나 농위에 놓아둔다. 머릿기름으로 동백기름이 있는데 병에 담아 벽에 걸어둔다. 부자집에서는 鏡台를 사용하기도 한다.

나) 정재

정재는 조리의 장이며 부인들의 공간이다.

술은 3개(꺼명술, 밥술, 국술) 또는 2개(밥술,국술)를 설치하는데, 꺼명술(큰술)은 거울에 물을 데우거나 농사철 품앗이꾼이나 낚(씩꾼)을 부릴 때, 큰일 치를 때에 쓴다.

술의 앞벽에는 조왕보사구(조왕그릇)가 있어 수시로 정화수를 떠 놓고, 집안의 무사와 가족들의 안녕을 빈다.

정지의 한쪽에는 사랑(시렁)이 있다. 말뚝을 박고 대나무를 쪼개 엮어서 만드는데 일종의 찬장 구실을 한다. 물항, 상, 구정물통, 기영통(설겅이통)은 사랑옆에 위치하며 구정물은 소, 돼지의 먹이가 된다.

다) 광

광은 식량, 알곡, 각종 씨앗, 자주 쓰지 않는 조리기구 등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광의 관리는 집안의 여주인이 하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허락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개개 광에는 “부루그릇”이라는 대소 2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광의 신으로 불어나라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다 한다.

라) 대청

대청은 마루바닥으로 여름의 공간이며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는 의례의 공간이기도 하다. 대개 사당이 없음으로 벽면 상부에 선반을 만들어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며, 제상, 제기 등의 제사용기와 다듬이돌, 맷돌, 큰상 등 생활용구를 보관한다.

마) 모방(작은방)

모방은 대개 자식들이 기거하면서 멀리서 오신 손님을 모시기도 한다. 자식이 결혼한 후에는 며느리 방이 된다.

바) 정재방

정재방은 여식이나 어린이들이 거처한다.

다. 부속채

가) 사랑방

머슴들의 숙소이며 농한기에는 새끼, 멍석, 가마니 등을 짜는 작업공간으로 활용된다.

나) 외양간

소는 농사짓는데 필수적인 존재로 옛날에는 소의 관리를 잘했다. 겨울에 머슴들은 해질 무렵 큰 여물술(가마술)에 여물, 고구마대 말린것, 물, 보리겨 등을 넣고 소죽을 쑤다. 소죽을 쑤으로써 사랑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며 따끈한 소죽을 먹은 소는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외양간에는 여물술, 작두, 여물주걱, 가마바가지 등이 있다.

다) 칩간

칩간은 대개 변소와 잣간으로 구분이 되며 잣간은 퇴비와 농기구의 보관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칩간에는 쟁기, 끌쟁기, 소매쪽박, 장군, 귀댕이 등의 농기구가 바닥이나 벽면에 보관되어 있다.

라) 방앗간

방앗간에는 도구통, 디딜방아 등의 도정기구와 함께 매통, 풍구와 같이 목제 농기구가 있다. 대개 방앗간이 따로 있는 집은 드물고 농기구나 디딜방아가 처마밑에 있는 경우가 많다.

라. 기타

가) 모구(모기)부채

여름에 모기를 쫓는 부채인데 왕대를 얇게 절어서 만든다. 종이는 붙이지 않으며 모기가 물면 때려서 잡기도 한다. 방안의 모기를 쫓아내는 방법으로 화로에 불을 붙이고 생풀로 덮어 연기가 많이 나면 방안에 옮겨둔다. 방안에 연기가 자욱하면 모기가 스스로 도망가는데 옷이나 땃잎으로 쫓아내기도 한다.

나) 두테(거적)

토방에 곡식가마니 등을 쌓아놓고 비가 오면 가마니에 비가 들치지 않게 하기 위해 가리는 물건으로 짚이나 밀대로 만든다. 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자기집에서 적당하게 만든다.

마. 가옥의 사례

가) 증도면 증도리 1366(증서마을) 전성남 가옥

• 소재지 : 증도면 증도리 1366(증서마을)

증도면의 면소재지인 증도면 증서마을에는 비교적 옛모습 그대로의 초가가 많이 있다. 본 가옥 역시 그 중의 하나로 건축년대는 약 150년 전쯤 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로는 남동향으로 자리한 안채가 있고 이외에 입구 오른쪽에 죽담구조의 측간이 1채 있다.

안채는 정면 5칸집으로 중앙의 정지를 중심으로 우측으로는 전퇴를 두어 안쪽으로 안방과 마래를 꾸미고 좌측으로는 곁집 형식으로 외양간과 광을 드렸다. 이렇듯 정지와 모방 옆으로 1칸을 더 꾸미는 형식은 비교적 큰 규모의 가옥에 속한다.

구조는 전퇴만을 둔 4량형식으로 초석은 막돌을 사용하였고 기둥은 전퇴의 중앙에서만 두리기둥을 쓰고 나머지는 모두 12×12cm 크기의 방주를 사용하였다. 전면의 처마도리만은 약간 흰 굴도리를 걸었으며 처마는 35cm 길이의 부연을 달아 처마의 깊이를 깊게 했다. 마래바닥은 흙바닥으로 되어있으며 안방 상부는 반자없이 그대로 서까래가 노출되어 있다. 벽체는 심벽구조의 흙벽으로 처리하였다.

나) 증도면 증동리 1349(증서마을) 정구반 가옥

• 소재지 : 증도면 증동리 1349(증서마을)

한때 부농가로 알려져 왔던 가옥이다. 건물은 현재 대지의 중앙 안쪽에 남향으로 앉힌 안채와 전면

임구 좌측에 죽담구조의 측간 1채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부농가답게 비교적 그 규모가 크며 또한 훼손된 곳이 없이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건축연대는 약 100여년 전으로 추정된다.

평면구성은 좌측으로부터 외양간, 정지, 안방, 마래 순으로 배치하고 전면의 뒷간에는 뒷마루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외양간과 정지 전면으로는 나란히 방2개(모방과 갓방)를 꾸몄다. 또한 마래에 뒷퇴 일부분과 그 뒤쪽의 처마밑으로는 따로 뒷광을 꾸며 알곡식 저장고로 이용케 하였다.

구조는 전후로 퇴를 둔 2고주5량 형식으로 기단은 1벌대 막돌놓기로 되어 있고 초석은 막돌초석이며 기둥은 방주를 사용하였다. 벽체는 흙벽이며 천장은 안방까지 모두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된 연등 전장으로 꾸몄다. 지붕은 본래 초가지붕이었으나 약 10여년 전에 시멘트기와로 교체시켰다.

다) 중도면 중동리 130-7(중서마을) 정찬용 가옥

· 소재지 : 중도면 중동리 130-7(중서마을)

정확한 건축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정찬용씨(80세)에 의하면 약 150여년 된 가옥이라고한다. 건물로는 壬坐丙向으로 앉힌 안채와 그 전면 좌측에 사랑채 그리고 대문간이 있다. 담장은 모두 돌로 쌓은 강담이다.

안채는 전후로 퇴를 둔 초가집으로 평면은 좌측으로부터 차례로 우물마루를 간 마래, 안방, 정지, 외양간 순으로 배치하였고 정지와 외양간 앞으로는 모방과 갓방을 나란히 드렸다. 뒷마루는 마래와 안방 전면에 1.1m 폭으로 설치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모방과 갓방이 前面退柱線에서 돌출되어 있어 (ㄱ)자형 평면같은 인상이다.

구조는 2고주5량형식으로 막돌허튼충쌓기의 기단위에 막돌초석을놓고 방주를 세웠다. 벽체는 흙벽이나 마래와 외양간 측면은 죽담구조로 되어있다. 본 거물에서는 특히 부엌의 대들보 위에 놓인 Y 자형의 마룻대공이 특히 눈에 띈다.

사랑채는 죽담구조의 초가로 입면은 남쪽의 短邊이 정면이 된 특이한 형식이다. 사랑방 뒤쪽의 창고 또한 반지하 구조로 되어 있어 주목된다. 본 가옥에서는 다른 가옥에서 찾아보기 힘든 측간을 덧붙인 대문간을 건립하였다.

라) 중도면 중동리 1703(중서마을) 이용성 가옥

· 소재지 : 중도면 중동리1703(중서마을)

본 가옥은 세대주인 이용성씨(81세)에 의하면 약 150년 가까이 된 가옥(안채)이라고 한다. 현재

건물로는 대지의 안쪽에 남향으로 배치된 안채, 그리고 헛간채와 측간채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초가집으로 평면은 좌로부터 정지, 안방, 마래 순으로 배치되고 정지 끝 전면으로는 모방을 들인 이 지역의 전형적인 평면형으로 되어 있다. 전후로는 90cm 폭으로 퇴를 두어 후퇴는 모두 각 실로 이용하고 전면에는 안방과 마래 앞쪽으로만 뒗마루를 설치하였다.

구조는 중앙에 고주를 세우고 전후로 뒗간을 둔 2고주5랑가로서, 초석은 막돌을 사용하였고 기둥은 14×14cm 크기의 방주를 세웠다. 벽체는 흙벽이며 처마는 전성남씨 가옥과 마찬가지로 부연을 둔 겹처마 형식이다. 이러한 구조는 다른 면의 가옥에서도 간혹 나타난다.

이상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박물관, 전라남도, 신안군, 1987>

3) 민속신앙과 민속생활의 활용방안

본 보고서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증도의 민속신앙과 생활민속은 우전리 당제를 제외하고는 잔존하고 있거나 그 관념 자체가 매우 희박해진 상황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와 함께 다루어지는 지도와 임자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활용방안을 거론함에 있어 유형무형의 토대가 건재한 사례는 우전리의 당제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구한 세월동안 지녀온 민속 관념이 현대의 생활 문화 이면에 들어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정도로 활용방안에 대한 조언을 갈음하도록 하겠다. 특히 생활문화의 경우에는 이미 그 기능이 정지 된지 오래이며, 흔적 또한 명료하지 않은 까닭에, 망실된 문화자원을 복원하거나 복원에 준하는 특별 운영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활용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본다. 따라서 만약 생활문화의 활용방안을 거론코자 한다면 생활문화를 복원하고 그 복원된 자원을 토대로 활용을 거론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망실된 세시풍속을 복원할 땀줄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생활문화는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기능되어야 하는 까닭에, 이미 망실된 생활문화를 복원 시행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증도의 민속문화 중 민속신앙과 생활민속은 그것을 대상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객관화시키고 이벤트화시키는 콘텐츠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우전리 당제는 그 전승력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후술할 키워드를 통해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키워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본 보고서가 목적하는 하는 바의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또 그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떤 범주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표조사 중의 목록을 간단하게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고 본다. 곧, 지표조사의 활용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증도에서 실현 가능한 신앙민속과 생활민속 중의

키워드를 제시하는 셈이라고 하겠다.

(1) 민속신앙과 민속생활의 지표자료 분석과 전망

민속신앙의 경우 대표적 당제로 우전리의 당제가 조사되었다. 우전리의 당제는 1987년 7월 4일과 2005년 2월 22일, 2005년 7월 20일 등, 3차례에 걸쳐 자세한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우전리 당제의 면모를 비교적 자세하게 보고할 수 있었다.

우전리 주민들은 매년 음력 정월 열 나흘날 당제를 지내는데 마을에 부정한 일이 있으면 다시 날을 받아 제를 지냈다. 옛날에는 상당과 하당 두 곳에서 당제를 지냈는데 근래에는 상당에서만 제를 지낸다. 상당은 할아버지당이라고 하며, 하당은 할머니당이라고 하여 모시는 신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되고 있는 당제에서도 유독 할머니당이 강조되는 맥락과 다른 점을 보여준다. 특히 당할아버지의 신체를 모시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라고 할만하다. 당할아버지의 신체인 상당은 돌을 쌓아 올린 돌무더기로서 ‘독’이라고 부르는데, 독 중간부분에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며, 당제를 지낸 후 이곳에 소머리뼈를 넣어둔다. 소머리뼈 위에는 백지를 덮고 그 위에 납작한 돌을 이용하여 뚜껑을 닫아둔다.

우전리에서는 400여년간 당제를 지내오고 있으며 일제시대에도 당제를 빠뜨리지 않고 매년 지냈던 역사가 깊은 마을이다. 제주대학 고광민교수가 같은 대학 박물관에서 입수하여 노인회장에게 전달한 『日本常民生活資料叢書』⁵⁾에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적혀져있다. 이 책은 1936년에 일본인 조사자가 우전리에 와서 인터뷰한 것인데, 당제 지내는 모습과 제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당제를 지낸 후에 주민들이 모여서 여흥을 즐기는 모습까지 묘사되어 있다.

세시풍속의 경우에는 이미 고래의 풍속은 사라진지 오래이므로 생활문화체험 등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례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겠다. 정월에서부터 12월까지 보다 자세한 정보를 기왕의 조사에서 수집된 바 있으므로 후술하는 활용편을 참고하여 테마마을 등의 활용성을 기술하는 것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2) 민속신앙과 민속생활의 활용

① 중도 우전마을 당제를 활용한 우전마을축제

5) 日本常民文化研究所, 『日本常民生活資料叢書』, 三一書房(東京), 1973.

가. 키워드: 증도 우전리 당제

축제화 방안: 현행되는 우전리 당제를 주민 참여의 대형축제로 개발한다.

『日本常民生活資料叢書』에 쓰인 일제 강점기 때 당제는 주민들이 정자목 아래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팽과리를 치면서 가무를 즐겼고 여자들도 이때는 밖에 나와 구경을 하였다고 한다. 당제를 지낼 때는 오곡풍동, 동네태평을 빌고 충해·한해·풍해·鼠害·牛疾이 없기를 빌었다. 제관은 당제를 지내는 서재에서 열흘간 지내면서 근신을 한 것은 물론이고, 당제를 지낸 후에도 삼년 동안 상가에 가지를 앉았으며, 일년 간 애 낳는 집에 가지 않고, 개고기를 먹지 않으며 정성스럽게 생활을 했다. 서재와 제관의 집, 당샘에는 금줄을 쳤다. 남신과 여신을 모시며 소의 머리를 쓰고, 당제를 지낸 음식은 모든 것을 분별해서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지도에서 온 무녀가 당제를 모시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기록은 우전리 당제의 내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본문에서 다룬 이같은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전리의 당제는 어촌이면서도 남도지역 당제의 보편적 형태를 비교적 소상하게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신안 지역 당제들이 거의 망실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전리 당제를 대표적 마을축제로 개발시켜 마을민의 총화는 물론 증도의 마을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전리 해수욕장 및 현대적 부대시설은 여름축제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월 대보름의 우전리 당제를 메인축제로 하고, 여름철의 적당한 날짜를 정하여 여름축제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증도가 섬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축제는 순수한 당제의 내용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각색되고 연출된 축제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로 날을 정해서 벌이는 마을 축제가 될 것이므로 전통적 맥락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월 대보름에는 본래 의미의 당제를 지낼 것이기 때문이다. 섬지역의 분위기를 창조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풍어제의 이미지를 삽입시킬 필요가 있다. 임자도의 경우도 7월 7석 무렵에 큰 풍어제가 있어서 그무렵에 각 주막에 있는 화류계 여자들, 기생들까지 포함하는 풍어와 상가의 번영을 비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 줄타기, 활쏘기, 씨름 등 풍어와 상가의 번영을 비는 것으로 주점의 주인들이 주관하는 큰 연희판이 벌어졌었다는 것이다. 앞서 예시한 우전리 당제의 본래의 모습과 임자도의 자료 속에서 보여지는 풍어제를 습합시킨다면 좋은 마을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증도 우전마을제의 의의 및 목적

첫째, 증도의 대표적인 당제인 우전 당제를 이원화하여 축제화한다. 이것은 민속문화를 가능한 범

주에서 복원 및 계승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정월 대보름의 우전리 당제와 여름철 해수욕장 관광객들을 위한 여름축제로 관광자원화 한다. 이것은 복원된 민속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화 하는 것으로 지역문화 창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셋째, 현행되는 우전리 당제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들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승화시킨다. 이는 본래 당제가 가지고 있던 주민 주체의 민속을 복원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 증도 우전마을제의 예상 개요

축제에 소요될 향토생산물: 젓갈, 민어, 상어, 새우 등

기간: 정월 대보름과 여름철 2회

범위: 증도 전역으로 하되, 반드시 우전리와 해수욕장을 포함시킴

주최: 우전리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한 증도민 전체

행정적 지원: 증도면사무소

기술적 지원: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프로그램 개발: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우전마을제와 병행될 마케팅 장소: 증도 독살, 우전리 해수욕장 등

라. 축제화의 과정에서 고려될 항목들

음력 정월 초닷새날 회의를 해서 생기를 짚어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표를 많이 받은 두 사람이 당제를 모신다. 음력 초열흘날 둘이 당제 모시는데 들어가서 사흘간 정성을 들인다. 뱀살을 좋은 것으로만 추려서 당제를 지낸다. 정성을 드리면서 소변을 보면 세수를 해야 되고, 대변을 보면 목욕을 해야 하니까 일을 보지 않기 위해 장에다가 밥을 먹는다. 만약 이렇게 씻지 않으면 벼락 맞는다 혹은 당살맞아 죽는다고 한다. 제사 모시는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하는 셈이다.

그런데 300년 동안 이어오던 전통이 거의 소멸되어가고 있다. 현재 제당은 1200평이었다가 8백여 평으로 줄었는데 마을 이장이 경작하고 있다. 12,3년 전부터는 음력 14일에 이장이 소고기와 음식을 장만해서 갖다놓으면 노인정에서 밤 10시 넘어서 할아버지당인 웃당으로 올라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축을 다 부르고 제사를 모신다. 제사가 끝날 무렵인 11시 경 가지고 간 쟁을 두들긴다. 그 이튿날은 전

에는 새벽에 굿을 쳤는데, 지금은 점심때, 저녁때 모여서 굿을 친다. 노인당에 농악 악기가 준비되어 있고, 주로 이장댁으로 가서 노는 것으로 되어 있다.

농악을 건구라 했는데 14일날 저녁에 모여서 제 모시기 전까지 연습을 한다. 제관은 제를 모시고 닭이 울어야 내려올 수가 있다. 그 가족 중에서 새벽 1시 반쯤 닭이 울면 쟁을 쳐서 알려준다. 제관은 이 소리를 듣고 철거해서 아랫당산으로 간다. 제관이 아랫당산 까지 의례를 마치고 들어와야 술을 먹고 다섯시, 여섯시 까지 자기 집에서 놀다가 아침 7시에서 8시쯤에 마을을 순회하는 지신밟기를 한다. 현재는 폐쇄된 동편샘을 시작으로, 웃당에 올라가 당에서 굿을 친다. 당 마당에서 신명한 한 판을 벌린다. 이 놀이가 끝나면 별굿놀이를 한다. 내려오다 서편 샘굿을 치고 아랫당으로 간다.

15일 아침에 아랫당산까지 치고는 집집마다 지신밟기를 했다. 이곳에서는 독경을 백경이라고 하는데 지신밟기는 백경 열 번한 거 보다 낫다라고 한다. 대부분은 19일까지 지신밟기를 하는데 남았으면 20일 까지 한다. 그러나 영실이 있는 집에는 구신이 도망간다 해서 지신밟기를 하지 않았다. 영실은 할아버지가 죽으면 영혼집을 지어서 아침에 밥 해 놓고 곡을 하는 것을 말한다.

건구를 칠 때 창구쟁이라 하는 것을 쓰고 광대가 옷을 따로 입고 길잡이 노릇을 했다. 광대가 가는 대로 가는데, 광대는 옷을 먹으로 꺼멥게 그려서 흉하게 만들어 모두가 무서워서 꼼짝을 못했다. 광대는 명령할 영자가 써진 영기를 따라다니며 휘젓고 다녔다. 광대는 옷이 까만색과 회색 두 벌 있는데 얼굴을 눈, 코, 입을 비뚤게 만들고, 수염을 붙여 무섭게 만들어 초장에 진을 친다는 뜻으로 집 주인들이 꼼짝 못하게 한다.

지신밟기할 때는 제관네 집에 먼저 가서 제사 지낸 떡이나 고기를 동네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 그 떡이나 고기를 얻어먹으면 절대 병에 안 걸린다고 한다. 당에서 한 떡은 아무 고물이 없는 찰떡인데 그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만약 그 해 농사가 잘 못되고 새가 많거나 쥐가 많다면-이것을 주작서침이라고 한다-당제 지낸 사람들이 음식을 자기네들끼리만 먹어서 그렇다고 탓을 하게 되니까 반드시 떡을 몽땅 마을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그 떡을 먹으면 부스럼 안 나고 더위더 안 먹는다고 한다.

근래에 들어와 당제행용이 단절된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우전리는 당제가 지속하고 있는 흔하지 않은 마을에 속한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들은 당제를 지속하고 있는 마을의 현상에 대하여 교회의 목사님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이야기했다. 당제를 주관하는 조성갑 노인회장도 부인이 교회의 권사이며 자신도 5년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며, 제관인 이장도 장로취임을 앞두고 있었다.

금년에도 당제를 지낸다는 소식을 들은 우전교회의 황인석 목사⁶⁾는 교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는 일을 자제하도록 당부하였다고 한다. 우전교회는 노인당과 길 건너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노인당에서 준비하는 당제의 모든 기척을 살필 수 있었다. 그래서 밤새 치는 건구소리를 들으며 기도를 많이 드렸다고 한다.

황인석牧사는 전통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당제의 신앙인식이 약화되고 당제가 마을 공동체의 단결을 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기에 당제의 건구패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마당밧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사자들이 대한 주민들 대부분이 당제를 지내야하는 일 때문에 교회의 목사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전리 교회와 주민들 사이의 이런 모습 속에서 전통문화와 기독교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고민하면서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새로운 문화로 진행하는 중간적 과정에서 기독교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가교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전통문화와 기독교문화가 상호 인정되고 있는 우전리 당제는 당분간은 소멸되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문화의 상호 공조 인식이 존재하는 한 비록 당제의 양상은 변할지라도 행용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② 증도의 세시풍속과 생활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우전 테마마을의 지정

- * 지정예상마을: 증도면 우전리
- * 지정마을 로고 및 이칭: 전통적 어촌의례와 드넓은 모래사장이 살아있는 우전리
- * 관광 카피: 전통적 어촌의례가 살아있는 우전리 모래사장으로 오세요.

세시풍속의 현대적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도의 대표적 마을이 이른바 테마마을 등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체험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현재의 생활문화를 체험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등의 실제 주민들의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생활문화와 더불어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소포리의 경우는 강강술래, 소포농악, 닛배노래, 진도북놀이 등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개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생활문화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도 체험관광이

6) 신안군 도초면이 고향인 황인석 목사님은 당제를 활발하게 행용했던 도서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제의 기능과 당제를 행용하는 주민들의 신앙인식을 직접 보아왔다고 한다.

가능하다. 이런 사례 외에는 거의 모두 테마마을 등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증도의 세시풍속과 기타 생활문화를 가지고 문화자원화 혹은 활용한다는 맥락에서는 테마마을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요건을 갖추기 위한 테마마을의 기본적 구성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테마마을의 목표

마을의 도서해양 인프라를 활용한 변별성, 증도 마을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립성과 역동성, 친화성,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가져오는 생활문화, 갯벌체험 등의 도서해양관련 특화 테마 등을 통해서 어촌 전통테마 마을의 입지와 계승·발전을 통한 소득증대 및 관광산업 역량강화와 자립경영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나. 개발 원칙 및 방향

- 증도 고유의 인프라, 예를 들어 우전리 당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증도 고유의 어촌문화를 상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고유한 증도의 어촌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 증도의 문화적,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 타지역 혹은 타 도서와 변별적, 차별적 요소가 강한 프로그램
- 사계절에 고루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어로 혹은 농업 외 소득 창출과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 농번기, 농한기 특히 여름철의 해수욕장 개방 시기 등 증도의 시기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증도의 고유한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프로그램
- 증도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최대한 존중하는 프로그램
- 과도한 기반 시설이나 필요시설이 요구되지 않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 신안군과 연관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관광협력의 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어촌 전통테마마을사업은 인적자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형적인 소프트웨어사업에 속한다고 보

면 된다. 따라서 이런 형식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일정과 무관하게 바뀌는 일반 조직(예컨대 이장, 어촌계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보다는 별도의 독립조직으로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중도의 경우에는 우전리 당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릴 필요가 있다.

우선은 어촌 전통테마마을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기획부터 운영에 이르는 제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여기에 선출된 마을 주민들을 각자의 특기에 맞춰 직능별 소위원회에 배속하고, 각 직능별 소위원회에 소속된 주민들은 교육훈련과 현장경험을 통해 담당 분야에 대한 자신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어촌 향토 음식팀을 신설한다고 하면 기존의 새마을 부녀회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 민박의 경우에는 이 음식팀을 활용하여 식사 등을 지도 관리하고 마을회관의 합숙 등은 공동으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민박집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민박 자체가 각각의 가정생활을 체험하는 것이므로, 가정에서 먹는 그대로 제공하는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중도에서 나는 어촌 특산의 음식들을 꼭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 가급적이면 마을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계절적 미각을 살릴 수 있는 음식들이 좋을 것으로 본다. 중도의 특산으로 내놓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쟁뚝어탕, 쟁뚝어 요리 등을 비롯해 인근 섬의 특산인 갯갈, 민어, 새우 등이 특별요리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으로 본다.

IV. 사회문화자원-갯벌과 염전-

1. 사회문화자원 목록

- 짭뽕어 뛰고 농게 춤추는 우리나라 최고의 '증도' 갯벌
- 백 바가지 바닷물로 만든 소금 한 바가지, 최대의 소금 생산지 '태평염전'
- 애들은 가라, 여름철 보양식 짭뽕어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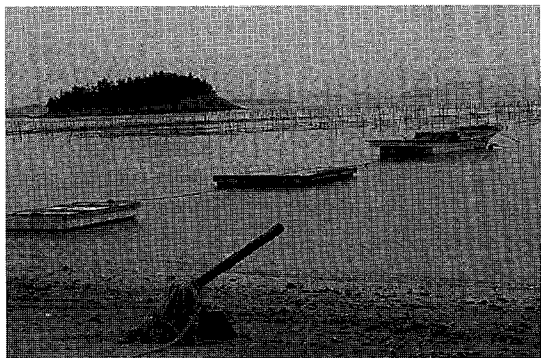
2. 사회문화자원 현황

1) 짭뽕어 뛰고 농게 춤추는 우리나라 최고의 갯벌

우리나라 최대의 새우젓 위판장이 지도면 송도에서 배를 타고 사육도, 병풍도를 지나 30여 분을 가면 증도 버지선착장에 도착한다. 차를 타고 우전해수욕장을 찾아 5분여 들어오면 60여개의 소금창고와 거대한 천일염전이 앞을 막는다. 자유당 정권시절 정치자금을 델 정도로 벌이가 좋았던 이곳 염전은 1953년 피난민을 정착시킬 목적으로 전증도와 후증도를 연결해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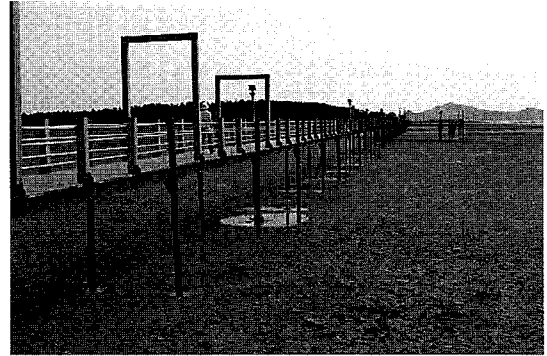
증도 갯벌은 2004년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갯벌 중 저서동물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우수하 갯벌로 평가되었다. 당시 조사한 지역은 여자만, 압해도, 증도, 함평만, 가로림만, 함평만, 강화도, 강진만, 새만금 등 우리나라 8대 갯벌로 증도갯벌은 여자만과 압해도 갯벌과 함께 가장 좋은 갯벌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간척이 이루어지거나 진행된 강진만과 새만금 갯벌이 가장 열악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증도를 사람들은 '보물섬'이라 한다. 임자도와 증도 사이 도덕도 앞바다에서 1975년 5월 한 어부의 그물에 의해 증도 방축리 도덕도 4km 앞에서 발견된 청자매명 등 6점의 유물에 계기가 되어 발견된 14세기 송원대 2만3천여 점 때문이다. 이곳에서 그물질을 하던 주민들은 자주 그물에 올라오는 그릇 등을 처음에는 죽은 사람들의 물건이라며 버렸고, 어쩌다 대접이라도 건져오면 어김없이 개밥그릇으로 사용했었다.



송원대 유물이 발굴된 방축리 검산마을의 포구

그 가치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들은 고물상 엿장수와 도굴꾼들이었다. 한눈에 돈이 되겠다는 것을 알아차린 이들의 눈매는 전문가를 능가하는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알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보물섬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송원대 유물이 발굴된 방축리 검산마을의 포구

어민들은 고기잡이 대신 그물을 보물을 건지기 시작했고, 도굴꾼들도 끊이질 않았다. 급기야 도굴꾼들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해저유물발굴이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저유물발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모 방송국에서는 ‘보물섬’로 알려지면서 한 어촌 사람들의 이야기 <검생이의 달>이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다. 이 드라마의 촬영은 해저유물발굴 장소인 방축리 검산마을로 마을 주민들은 ‘검생이’라고 부른다.

보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침몰 선박(목선)이 인양되었다는 점이다. 조사결과 이 선박은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중국제 도자기 및 동전을 비롯한 동남아의 생약재 등을 싣고 중국을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 선박은 인양되어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 복원전시 되어있다.

보물을 건져 올린 바다가 보이는 방축리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이 만들어진 것도 모두 증도에서 발견된 해저유물 때문이며, 당시 인양된 보물과 복원된 보물선도 그곳에 전시되어 있다.

2) 백 바가지 바닷물로 만든 소금 한 바가지, 최대의 소금 생산지 ‘태평염전’

과거 ‘척방사’라 불렸던 염전은 이후 ‘대평염전’과 ‘태평염전’으로 주인과 이름이 바뀌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염전은 140만평으로 단일염전으로 규모가 가장 크며, 4ha씩 66개로 구분되어 소금을 만들도 있으며, 지주인 태평염전과 염주(주민)가 생산량을 반반씩 나누고 있다. 최근 중국산 소금이 수입되면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일부 폐전의 고통이 있었지만 섬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대표적인 볼거리이자 주민들의 소득원이다.

증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태평염전이 있다. 이곳 염전은 회사소유(지주)이지만 증도 주민들과 염전 일을 해보기 위해 외지에서 들어온 50여 명의 소금생산자(‘반장’이라고 부른다)와 100여 명의 인부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소금을 만들고 있다. 일 년에 이곳에서만 생산되는 소금이 1

만5천 톤으로 우리나라 천일염의 6%를 생산하고 있다.

소금생산량은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염전을 동서로 가르는 소금창고를 기준으로 좌우에 직사각형으로 염전이 바둑판처럼 나누어져 있다. 대초리(염전 남쪽에 있는 마을) 쪽에서 바람이 불면 소금창고를 좌측에 있는 소금밭 염전에 소금이 많이 난다. 반대로 증동리 쪽에서 바람이 불면 반대로 우측에 있는 염부들이 즐거워한다. 바람에 방향에 따라 염부들의 얼굴빛이 다르다.

○ 바닷물 백 바가지로 소금 한 바가지 만든다
소금밭은 크기를 1판, 2판 등 ‘판’으로 규모를 나눈다. 1판은 4정으로 1만2000평이다. 지역에 따라 1판이 3정인 경우도 있지만 중도의 회사염전은 모두 4정씩 규격화되어 있다. 그리고 가운데 소금창고를 반으로 나뉘어 생산한 소금을 보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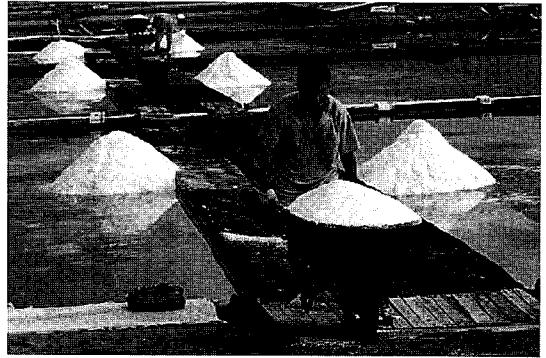
소금을 모으기 위해 ‘대패질’을 하는 주민

소금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염전은 저수지, 누테, 난치, 결정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염전 가운데 ‘해주’라고 불리는 소금물(함수) 저장고가 있으며, ‘뚝’이라고 부르는 고랑이 있다. 그리고 결정지와 결정지 사이에 소금을 만들고 나서 남은 함수(‘구간수’)가 모이는 ‘자구’(뚝보다 크고 깊은 고랑)가 있다.

누테와 난치는 ‘증발지’로 저수지에서 바닷물을 받아 증발시키는 곳이다. 이곳은 각각 6단으로 만들어져 있다. 1단씩 저수지 쪽에서 결정지로 이동할 때마다 염도는 0.5-1도씩 올라간다. 해주의 역할은 일정한 염도에 이른 함수를 보관하는 곳이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소금작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때 며칠에 걸쳐 염도를 높인 함수를 ‘해주’에 보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3도 정도의 바닷물이 각 단을 이동하면서 25도의 함수가 되어 결정지로 공급되어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염전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모두 잠에 빠져 있을 이른 새벽에 염전주인은 소금밭에 물을 얹는다. 두어 시간정도 물을 얹히고 아침을 마친 후 결정지에 사용할 ‘물’(함수)을 만들기 위해 한 단씩씩 이동시킨다. 매일 염도를 높이면서 한 단씩 결정지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금창고도 정리하고, 오후 5시 무렵부터 소금을 거둔다. 이때가 여름철에 지열이 최고로 올랐다 주춤해지는 시간이다. 소금을 거두는데 걸리는 시간은 생산된 소금량에 따라 다르지만 3-5시간가량 걸린다. 바람과 햇볕이 좋아 소금이 많이 나오는 날이면 저녁 11시 무렵까지도 작업을 해야 한다.

소금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이다. 흔히 소금은 바닷물을 햇볕에 노출시켜 증발시키기 때문에 햇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햇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람이다. 아마 빨래를 말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수궁할 것이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주고 햇볕이 내리 쏘이는 날이면 염부들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날일이다. 그런 날이



태평염전에서 소금을 거두는 염부들

소금질도 좋고 소금도 많이 난다. 그래서 사계절 중 오뉴월 봄소금을 최고로 쳐주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밭일을 할 때 ‘봄볕에 며느리 내놓고 가을볕에 딸 내놓는다’고 했겠는가.

한 바가지 소금을 만드는데 바닷물이 얼마나 필요할까? 물을 얹히는 황씨가 따라다니는 필자에게 갑자기 던진 질문이다. 정답은 ‘백 바가지’였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나락 한 톨을 만들기 위해 손이 백번 간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소금 한 바가지에 바닷물 백 바가지는 처음 듣는 말이다.

○ ‘백금밭’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한 판의 소금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인 4명 정도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가족노동을 고려하더라도 2명 정도는 고용을 해야 한다. 이들 인부들은 대부분 직업소개소에서 공급되고 있다. 전국 천일염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신안의 염전노동자들은 대부분 목포에 있는 직업소개소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직업소개소에서 사람을 소개받을 때 소개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지불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직업소개소에 염전 일을 하겠다고 일부러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다. 소개받은 인부들은 대부분 가족이 없거나, 정신이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간혹 이를 악용해 임금을 주지 않거나, 정신이나 신체장애를 빌미로 임금체불은 물론 폭행까지 일삼는 악덕업주가 있었다.

이들에게는 숙식과 담배가 제공되며, 소금생산이 이루어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60-70여만 원의 월급이 주어진다. 물론 소금생산자들이 인부들을 직업소개소에서 데려다 쓰기 위해서는 그들이 직업소개소에 머물면서 쓴 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악덕 직업소개소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전에 소개소에서 머물면서 3-4명에게 닭을 한 마리 넣어주고 각각 닭 한 마리를 올려놓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류하

면서 든 비용을 부풀려놓는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술, 여자 등을 제공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소개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염전에 일꾼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반장’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직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은 고사하고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염전이 많은 신안일대의 섬에서는 소금철이 되면 지역파출소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곤 한다. 최근에는 어느 염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어 중도의 염전도 관할 경찰에서 모두 신상조사를 해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염전은 희망이기도 하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먹고, 자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염주들에게는 염전은 매우 수지맞는 사업이다. 우선 바닷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료대가 들지 않고, 햇볕과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들지 않는다. 대신 인건비, 식비, 염전시설 및 유지비용이 목돈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다. 염전 한판을 운영하는데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지만 작업반장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3000만 원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적어도 5천만 원 벌이는 되어야 가족노동의 품삯정도를 건지는 셈이다.

그래도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염전일이 훨씬 낫다고 한다. 농사지어 일 년에 2-3천만 원 건지기는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소금은 봄에 시작해서 가을까지 짧으면 6개월여 기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더욱 수지맞는 일이다. 중국산 소금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말이다.

중국산 소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소금은 ‘백금밭’으로 통했다. 하얀 소금이 갯벌에서 건져내는 백금이라는 말이다. 그만큼 돈벌이가 좋았다는 의미이리라. 신안에 소금을 내는 섬들은 ‘개들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녔다’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돈이 흔했다는 이야기이다. 제주도에서는 굴 팔고, 완도에서는 김 팔아 대학생을 가르쳤다면, 신안에서는 소금 팔아 대학생을 가르쳤다고 한다.

하지만 1990년대 중국산 소금이 들어오면서 국내소금업계는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바닷물을 퍼다 소금만 만들 줄 알았지, 연구개발에 등한시 한 탓에 중국의 값싼 인건비를 이용한 소금물량에 버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염전규모를 축소하는 ‘감단정책’이었다. 중국산 소금을 수입하는데 부과한 관세(‘수입부담금’이라고 함)를 이용해 폐전하는 생산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었다. 급한 대로 생산량을 줄이려는 공여지책이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다.

○ 소금은 식품이다.

소금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천일염전 생산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섬 주민

들이라는 점도 한 몫 했다. 물론 대규모로 염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천일염 생산자들은 1-2판이 염전을 가족노동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이다. 이들의 이해요구를 수렴해 정책결정에 반영을 해야 하는 ‘대한염업조합’이 있기는 하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소비자와 관광객들에게 판매되는 프랑스 염전의 소금 포장

반면에 기계염이나 소금수입업자들은 거대한 기업들이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가는 봉지소금, 식염소금 등을 공급하는 것은 모두 이들 기업들이다. 식품관련 전문학자들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이 자금과 로비력을 갖춘 기업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천일염 생산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줄 턱이 없다.

천일염은 김치를 비롯한 다양한 절임식품 등에 첨가되어 이용되지만 ‘식품’이 아니라 ‘광물’의 적용을 받는다. 규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원에 이르기 까지 식품과 광물의 차이는 매우 크다. 여기에는 식품 인정을 받는 소금을 생산하는 재제염 등 대규모 가공업자들의 기득권 유지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소금의 식품기준이 우리 소금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의 기준에 적용을 받고 있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 소금은 갯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이러한 소금을 순수한 염화나트륨만 가지고 성분 측정을 할 경우 식염이 될 수 없다. 이미 프랑스 등지에서는 갯벌 즉 토판위에서 만들어낸 소금을 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증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염전을 소금생산만이 아니라 습지, 생태공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있다.

염전이 염전으로 이용될 때 갯벌은 자연 상태로 지속될 수 있다. 그곳이 양어장으로 사용되어도 인근 갯벌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하물며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생각해보라. 염전에서 소금생산이 지속되는 한, 바닷물을 이용해 소금을 만들어낸 한 그곳 갯벌의 생태계는 지속될 것이다. 굵은 소금은 김치 등 절임식품과 젓갈 등 발효식품의 기본이다. 우리문화의 뿌리인 셈이다. 문화에 대한 관심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IT나 CT에만 국한일이 아니라 우리 생활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소금에도 있는 것이다.

3) 애들은 가라, 여름철 보양식 쟁뚱어 요리

쟁뚱어다리를 지나 갯벌에서 낚시질을 하는 사람을 만났다. 갯벌에서 웬 낚시질일까? 궁금하다. 썰물이 물이 빠진 갯벌 위엔 농게와 칠게가 숨박꼭질 하고, 쟁뚱어는 갯벌 위를 날고 있다. 누가 더 높이 뛰나 내기를 하는지, 아무래도 좋아하는 녀석이 있는 모양이다. 한껏 모양새를 내고 지느러미를 세우는가 하면 제 키보다 높게 갯벌을 박차고 뛰어오른다.

우전해수욕장 인근 쟁뚱어다리 원둑 밑에 농게를 잡는 사람이 서너 명과 낚싯대를 들고 갯벌이 뚫어지도록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갯벌에 묻혀 있다. 낚싯대를 들고 있던 사람은 순간 낚싯줄을 10여 미터 앞에 던지더니 쪼뻑하게 낚아챈다. 그리고 노란 플라스틱 박스에 낚시에 걸린 쟁뚱어를 빼낸다. 조심스럽게 갯벌스키(빨배)에 걸터앉아 밀면서 다시 갯벌이 구멍나도록 쳐다본다. 그러더니 아닌가 싶은지 다시 두 발로 밀배를 밀고 움직인다. 칠게며 쟁뚱어 녀석들 낚시꾼이 나타나면 재빨리 구멍 속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낚싯대와 낚싯줄을 이용해 2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던진다.

이런 낚시법을 ‘홀치기’ 낚시라고 한다. 미기도 없이 잡고자하는 쟁뚱어 앞에 눈치 채지 못하게 던져놓았다가 재빨리 낚아채는 방법이다. 낚싯바늘 4개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함께 묶여 있어 쟁뚱어가 쉽게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렇다고 아무나 낚시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당한 숙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30여 년 전 증도에 할머니들은 손으로 쟁뚱어를 잡았었다. 쟁뚱어는 2, 3개의 연결된 구멍을 갯벌에 만들어 놓고 살고 있다. 손으로 쟁뚱어를 잡을 때는 발과 손으로 구멍을 막고 다른 손으로 남은 구멍에 집어넣어 잡았다. 그리고 물이 들었을 때는 서렁게(칠게)를 대나무 가지 사이에 끼워 뜰망에 고정시켜 놓고 물 속에 놓았다가 시간이 지난 후 들어 올리면 쟁뚱어, 낙지 등이 올라와 잡기도 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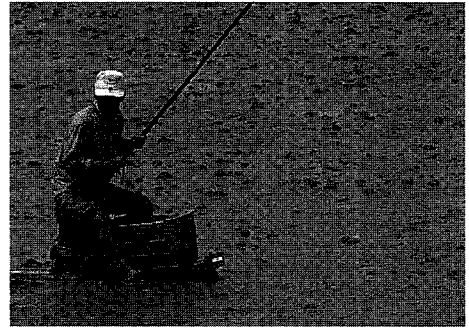
○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녀석들이다

증도의 갯벌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갯벌이다. 갯벌 축제가 열리기도 했던 증도는 그냥갯벌이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한 갯벌이다. 뿐만 아니라 모래갯벌과 펄갯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증도 사람들은 쟁뚱어를 그냥 반찬거리 정도 생각한다.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다. 2300여명의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간척지)와 염전에서 일하고 있다. 10여



쟁뚱어가 뛴다.

년 전 외지사람들이 쟁뚱어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기계를 가지고 들어와서 잡기도 했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해남사람들이 쟁뚱어다리 인근 원둑 아래 갯
벌에서 쟁뚱어를 잡기도 했다. 어촌계에서 관할 구역
인 바탕(갯벌)을 해남사람에게 허락하고 얼마간 이
용료를 받았다고 한다. 외지인들은 전문 쟁뚱어 낚시
꾼들로, 해남일대가 간척과 매립으로 쟁뚱어 서식지
가 파괴되면서 새로운 낚싯터를 찾아 중도에 들어왔



쟁뚱어다리 인근에서의 쟁뚱어 흘치기 낚시

던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닌 네 사람씩 짝을 지어 들어와 아이스박스를 수십 개씩 놓고 쟁뚱어
를 잡아갔다. 그 전부터 외지인들이 들어와 쟁뚱어 낚시를 하는 것을 보고 기술을 익혔던 장고리에 거
주하는 이남창(66)씨는 몇 년 전까지 한 자리에서 이동하지도 않고 200~300마리는 손쉽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쟁뚱어 천지였다. 필자가 중도를 찾았던 12일 아침 8시에 나와 12시까지 쟁뚱어 낚시를
해 80마리를 잡았다. 필자를 안내해준 중도면사무소에 김용환씨도 한 물에 600마리를 잡기도 했었다
고 한다. 이곳 갯벌은 쟁뚱어가 천지였고, 여기저기에서 뛰는 모습이 장관이었다고 한다. 이씨는 중도
의 유일한 쟁뚱어 낚시 전문가이다. 쟁뚱어는 한 마리에 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많이 잡을 때는 500
~600마리는 금방 잡기 때문에 그 소득이 솔찬하다. 그렇다고 매일 쟁뚱어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갯벌에 물기가 없으면 쟁뚱어들은 구멍 속에 들어가 생활한다. 바닷물이 쟁뚱어다리 갯벌까지 들
어오는 세물에서 아홉물 사이에 쟁뚱어 낚시를 할 수 있다.

○ 아이들은 먹지 마라

생업으로 쟁뚱어 낚시를 하지는 않지만 반찬거리로 잡았었다. 그때 쟁뚱어는 어른들 특히 남자들만
먹었다고 한다. 보양식이었던 탓에 여름철에 섬마을 최고 음식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으면 ‘고래
를 잡아야 한다’는 말도 안 된다는 금기 아닌 ‘금기’를 만들어내기도 했던 음식이다. 중도의 ‘고향식
당’에서 만들어준 쟁뚱어탕은 지금까지 먹어본 국물 중에 가장 맛이 있었다. 시원한 국물은 술 먹고
난 뒤에 속풀이로는 최고일 듯싶다. 된장을 풀어서 만든 쟁뚱어 탕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쟁뚱어 속
(애)이다. ‘애’는 엄지손톱만 한다. 손질을 할 때 내장을 꺼내 ‘애’를 떼어서 모아두어야 한다. 홍어국
에 홍어 ‘애’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쟁뚱어탕에 ‘애’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쟁뚱어가 겨
울을 날 때 영양분을 축적해두는 곳도 바로 맛을 결정하는 ‘애’라고 한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쟁

뽕어회이다. 짭뽕어를 회로 먹을 수 있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사각사각 씹히면서 맛이 다른 회에서 느낄 수 없는 맛이다. 사실 필자도 짭뽕어회는 처음 먹어보았다. 짭뽕어가 ‘농어목’에 속한다. ‘망둑어과’에 속하지만 핏감으로 최고라는 ‘돔’과 같은 부류인 것이다. 그렇지만 씹히는 맛이나 색깔이 돔보다 한 수 위인 것 같다. 흠이라면 한 마리에 두 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짭뽕어는 봄에 시작해서 서리가 오는 가을철까지 잡으며, 겨울철에는 겨울잠을 잔다. 섬사람들보다 육지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좋은 짭뽕어탕 덕에 순천만과 여차만 등 남도의 갯벌에는 짭뽕어 낚시 전문가들이 등장했다. 바다 낚시의 손맛이 ‘뱅어돔’ 낚시라면 갯벌낚시의 손맛은 짭뽕어 낚시라 할까. 그것도 갯벌이 살아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짭뽕어탕



짭뽕어탕

3. 사회문화자원 활용방안

1) 전통염전(자염)과 천일염전의 문화관광 자원화 - 증도

근대적인 염전이 조성되기 전의 소금 생산방법은 해수를 직접 가마에 넣고 끓이는 원시적인 방법부터, 염전을 이용해 염도가 높은 함수를 모아서 생산하는 방법까지 다양하였다. 제염방법은 어장환경, 조수간만의 차이, 갯벌의 특성, 연료, 염분을 만드는 패류의 유무 등 생태환경적 특성과 시장, 인구규모, 운송로(벧길) 등 인문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대체적으로 동해 북부지역은 갯벌이 발달하지 않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해수를 인위적으로 염전에 뿌리거나, 도랑을 파서 양수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서해지역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갯벌이 발달해서 제방을 쌓지 않는 무제염전식 제염법이 발달하였다. 전근대사회의 가장 발달한 염전법은 제방을 쌓아 조수간만의 차이와 관계없이 항상적으로 제염할 수 있는 유제염전법이였다. 이 방법은 남해안지역에서 발달하여 서해안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신안의 도서지역은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소금을 생산한 대표적인 곳들이다. 태안지역에서는 일 년에 한 차례씩 전통적인 소금 생산방법인 ‘자염’ 생산과정을 축제화하고 있다. 신안지역에도 하의도에 전통염전체험장을 조성하였지만 한 차례도 시연행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접근성도 떨어져 체험행사로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증도, 임자도, 지도 등 지역에서도 자염의 생산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전국 최대의 단일염전을 갖추고 있으며, 최고의 갯벌로 평가되는 증도갯벌은 이러한 체험 행사에 적지로 평가된다. 이미 천일염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염전과 현대염전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학습이 공간이 될 수 있다.

《소금마을 테마형 갯벌체험프로그램》

－ 염전에 기대어 사는 생물들

염전(갯벌)에 사는 염생식물과 동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육지생물과 어떻게 다른가

－ 자연현상을 활용한 전통 소금만들기

가마터 만들기

웅덩이(염정)만들기

갯흙말리고, 바닷물 뿌리기

간수 받기

함수끓이기

－ 천일염전체험

소금물 앟히기

염도 측정하기

소금거두기(대패질, 운반)

V. 증도 문화관광 진흥방안

1. 증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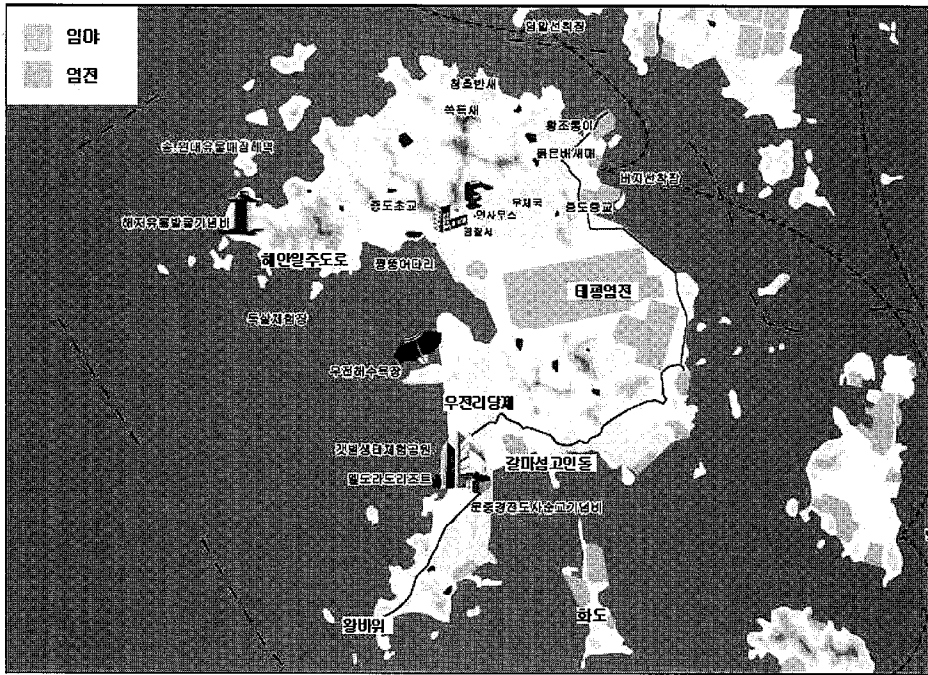
(갯벌 생태와 아름다운 해변의 휴양지 증도, 보물과도 같은 섬)

1) 증도의 지리적 특성

- 증도는 목포에서 서북쪽으로 약 49.4km 지점에 있다.
- 증도는 예부터 물이 적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전증도와 후증도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이곳이 합해지면서 전국최대 크기의 태평염전이 생기고 증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 주위에 총 9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유인도가 6개 무인도가 63개이다. 빼어난 경관으로 도덕도, 호감섬, 대섬 등의 무인도가 위치하고 있다.
- 증도 북쪽으로는 바다 건너 지도읍 사옥도와 남쪽으로는 바다 건너 암태면, 서쪽으로 자은면과 이웃하고 있다.
- 도덕도 앞 해상은 신안해저유물 매장지역으로 600여 년간 바닷물 속에 매장되었던 송 · 원대의 도자기 등 유물들이 수없이 발굴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 해안선은 비교적 굴곡이 심하고, 해안선의 길이는 48.34km이며 국내 최대의 태평염전이 위치하여 천연 소금을 생산해 내고 있다.

2) 증도의 사회 · 문화적 특성

- 주민의 주 소득원은 벼, 마늘, 김, 소금 등으로서 소금은 우리나라 단일 염전 중 최대 규모인 태평염전에서 생산해 내고 있다. 주변 바다에서 숭어, 민어, 병어 등이 잡히고 있고, 김 양식이 성행하며 백합의 특산지이기도 하다.
- 문화유적으로는 우전리 패총과 지석묘가 있으며 방축리 도덕도 앞바다에는 신안해저유물매장지역으로 이곳은 송 · 원대 유물 사적지로서 국가지정 문화재 제 274호로 지정되어 있다.
- 정월 대보름이면 농사의 풍년과 가정 평안, 주민 화합을 위해 농악놀이를 하고 있다. 농사의 풍년과 마을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당산제를 모셨으나 지금은 모시지 않고 농악놀이(증서, 대초, 장고), 마당 굿놀이 및 뱃굿놀이(우전)가 전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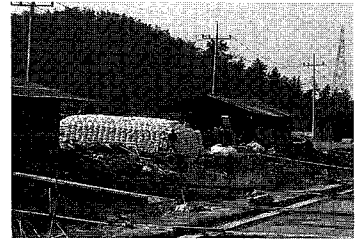


중도 지도

2. 관광자원 현황

1) 태평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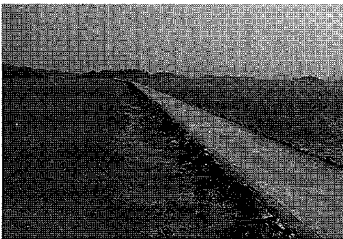
- 국내 최고의 천일염 생산지인 태평염전은 국내 단일 염전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염전으로서 60만평이나 되는 거대한 소금밭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 한해 1만 6000톤의 소금을 생산하는 이곳은 소금 결정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대파질을 하며 땀 흘리는 염부들의 모습이 장관이다. 체험관광의 형태로 소금채취현장 체험을 통하여 관광객을 유인한다면 많은 수요가 예상이 된다.



태평염전 전경

2) 화도

- 해당화가 많이 핀다고 화도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예전에 마을 입구에 해당화 군락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군락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 화도는 본섬과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현재는 잘 포장된 노두의 연결로 갯벌과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 화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마을에 해당화 군락지 복원을 하고 주위에 펼쳐진 갯벌을 활용한 체험 관광형태가 가능하다.



화도 노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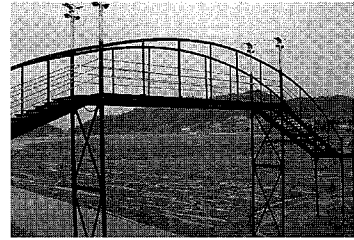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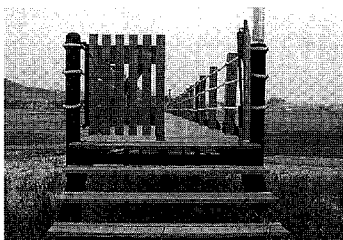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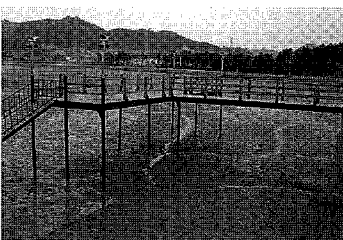
화도 갯벌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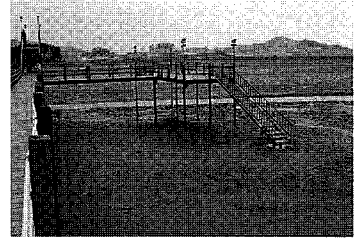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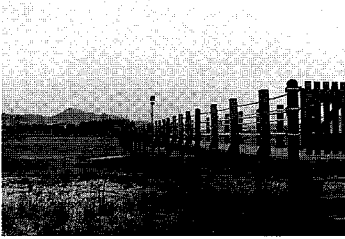
화도 갯벌

3) 짱뚱어 다리

- 짱뚱어 다리는 우전해수욕장 좌측 편 갯벌위에 약 500M 정도 되는 목교이다. 주변경관과 잘 부합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방부 목을 사용하여 시공함으로써 내구성을 고려하였다. 썰물때 다리를 건너면 짱뚱어, 게 등 갯벌의 자연생태를 눈으로 보며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 신안군에서 개최하는 제1회 갯벌 올림픽의 주 무대로 사용되어질 짱뚱어다리는 각종 이벤트와 함께 관광명소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썰물때는 목교 전체가 갯벌위에 모습을 드러내지만, 밀물 때는 교각의 일부가 물에 잠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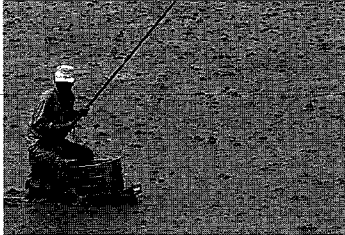


짱뚱어 다리



짱뚱어 다리

- 다리 중간에는 갯벌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연결로가 만들어져 있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야간에는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어 나이트 투어가 가능한 시설로 여겨진다.
- 짱뚱어는 9월까지 산란을 하는데 갯벌에 가면 밀짚모자에 망태를 메고 긴 장대낚시를 드리우고 있는 어민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흘치기 낚시를 이용해 짱뚱어를 잡아내는데, 시력이 좋은 짱뚱어와의 신경전이 기술을 요하는 만큼 짱뚱어 낚시는 비숙련자인 관광객들에게는 쉽지 않은 경험이 된다.



짱뚱어 낚시



짱뚱어 낚시



짱뚱어 다리

4) 우전리 당제

- 우전리 당제는 도서특유의 제사문화를 볼 수 있는 곳으로 현재도 마을에서 제물을 바치며 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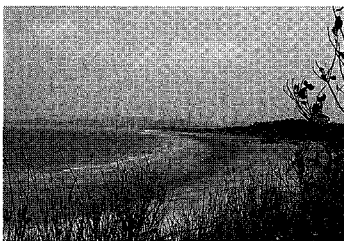


우전리 당제터

지내고 있다. 도서특유의 민속 문화와 무속신앙을 체험할 수 있다. 가끔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뼈 등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현재까지도 마을의 무속신앙 터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5) 우전리 해수욕장

- 중도에서 가장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하계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하는 곳이다. 중도의 대표적 관광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인근 임자 대광해수욕장에 비해 미흡한 편이다. 인근에 위치한 엘도라도 리조트의 각종 부대시설 개발로 인해 해양레저와 휴양 관광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본다.
- 백사장의 규모는 길이 4km, 폭 100m, 모래의 질이 양호하며 백사장이 넓고 물이 맑다. 또한 주변에는 솔숲이 울창하고 앞바다의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 우전리 해수욕장의 우측에는 엘도라도 리조트가 건립중이며 갯벌생태체험관도 완공되었다. 이곳에는 해수를 활용한 스파 리조트와 마리나 시설과 요트휴양지가 들어 설 예정이다.
- 백사장 좌측에는 반경 4km정도 되는 갯벌이 있으며, 백합을 키우는 곳이기도 하다. 갯벌위에 세워진 짚뽕어 다리는 길이가 475m로 갯벌의 생태를 걸으면서 볼 수 있는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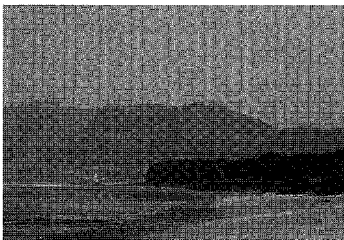
해수욕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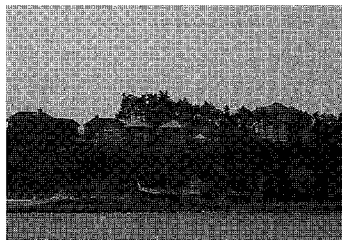
잔디 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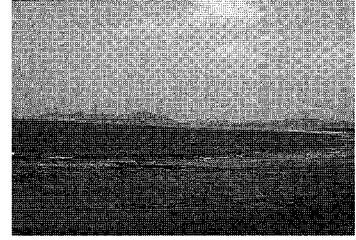
오징어 바위



해수욕장 전경



엘도라도 리조트



해수욕장 전경

6) 갈마도 패총과 지석묘

- 우전마을 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갈마도가 있다. 간척사업으로 인해 우전리와 이어져 있고 인근 주민들은 이곳을 갈미도 또는 갈미섬 이라고 부른다. 갈마도 해상 끝에는 지석묘 1기가

있는데 상석의 크기는 장축 510cm, 두께 130cm이고 장축 방향은 남북이며 형태는 장방형이다. 하부에 패각류들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패총 위에 지석묘를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 지석묘까지 이동하는 오솔길에는 신안 특유의 야생화가 자생하고 있어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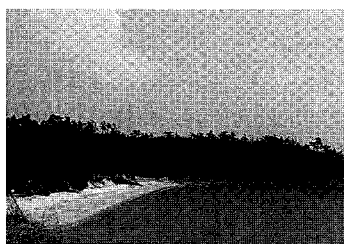
지석묘

7) 검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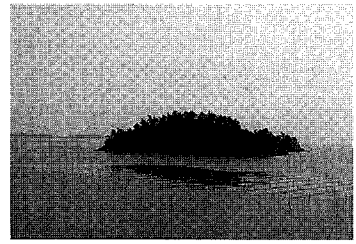
- 중동리에서 약 1.5km정도 떨어진 곳으로 검산항으로 가는 길에는 뛰어난 다도해의 절경을 볼 수 있는 해안도로가 정비되어 있다. 주변 해상의 작은 도서들과 백사장이 어울려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 중동리 해상에서 잡히는 어류는 대부분 검산항에 집결된다. 이곳에 식음료 시설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신선한 횡감을 시식할 수 있는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해변일주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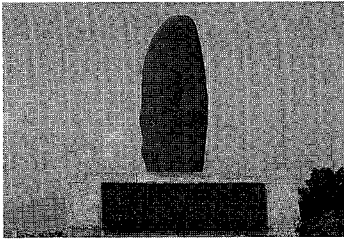
해변일주도로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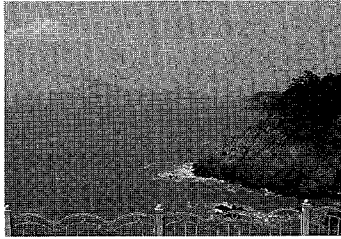
검산항 앞 전경

8) 송 · 원대 해저유물 발굴 해역

- 방축리 도덕도 앞바다에는 14세기의 중국 원나라 시대 도자기 2만여 점과 동전 28톤, 그리고 침몰한 선체 등 모두 2만 3000여점의 유물이 발굴되면서 전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은바 있다. 해저유물 발굴을 기념하기 위해 방축리 해안가에는 신안 해저 유물 발굴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유물발굴 표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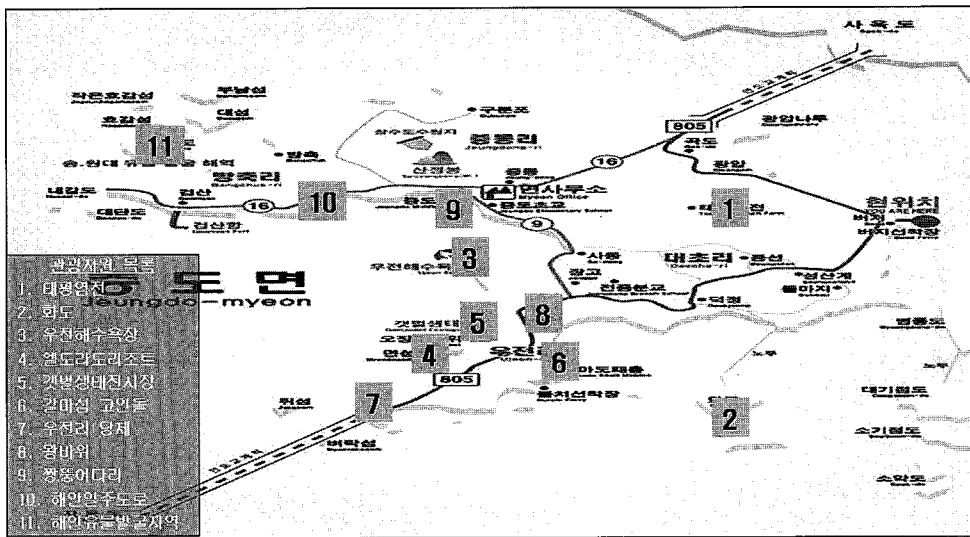


유물발굴 해상



유물발굴 해상

9) 관광자원 목록지도



관광자원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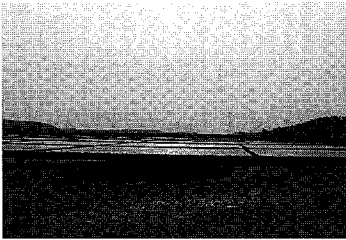
3. 관광자원화 방안

1) 태평염전

- 버지 선착장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태평염전은 국내 단일 염전으로 최대 규모이다. 한해 1만 6천 톤이나 되는 천일 소금을 생산해 내는 곳이기도 한다. 대규모 천일염 생산지

라는 점을 강조하여 가족단위 소금 체험관광의 상품화를 기획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본다.

- 최근 소금의 생산지인 염전은 관광적 경관자원이자 체험형 관광자원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금 생산 활동을 몸소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욕구와 동기를 유발하는 아이템이 되고 있다.



태평염전



소금 채취



태평염전

- 외국의 소금 생산지는 해안가 근처의 간석지인 경우도 있으나, 소금 광산 또는 호수가 주변인 경우도 있어 독특한 경관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도 많다.
- 폴란드의 비에리치카 소금 광산은 UNESCO가 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는 관광지로 유명하다.



태평염전



소금 출하



전통 염전

- 최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어 신안 천일염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 단순히 음식에 짠맛을 내기 위해 필요하던 소금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형태로 소금의 상품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피부미용을 위한 마사지 소금부터 다양한 허브식물 (카모마일, 라벤더, 페퍼민트, 등..)을 혼합한 방향성 소금, 공기정화를 위한 아로마 소금 등 다양한 형태의 소금관련 상품이 출시되어지고 있다.
- 웰빙 문화와 염전을 활용한 상품의 개발은 다양한 관광자원의 접목을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채염과정

- 특히 염전 주변에 자생하는 염생식물인 함초, 순비기, 나문재 등을 재배하여 염전 주변의 경관을 가꾸고, 염생식물의 의학적 효능과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려 채염과정은 체험관광자원으로, 염생식물은 음식관광의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염전은 기대 이상의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우전해수욕장

- 우전해수욕장은 신안 4대 해수욕장에 속할 만큼 경치가 뛰어나고 4km라는 웅장한 백사장을 지닌 자원이다. 주변에 최근 건설 중인 엘도라도 리조트를 비롯하여 갯벌체험 전시관과 이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쥬앙어다리, 백합 양식장, 천연 잔디 축구구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향후 마리나, 요트의 휴양지가 될 이곳은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이다.
- 신안 4대 해수욕장이라는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게 주변 부대시설은 열악하기만 하다. 화장실도 아직 제대로 없고 샤워장은 물론 취사장등 여름 휴양을 할 때 필요한 부대시설이 준비되어야 한다.
- 우전 해수욕장 일대는 대규모 시설 정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정비된 갯벌생태전시관과 엘도라도 리조트의 부대시설과 함께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시설이 정비된다면 신안군 제1의 관광명소로서 위상이 정립될 것이다.
- 오징어 바위일대는 갯바위 낚시 포인트로 손색이 없으며, 넓은 백사장은 해양레저 스포츠 장비와 시설이 도입된다면 서남 해안의 일몰 장관과 어우러진 최상의 해양관광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 엘도라도 리조트의 부대시설은 신안의 섬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시설로 고품격 해양관광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 우전 해수욕장 일대는 중도 관광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대단위 시설 밀집 지역으로 생태 전시관의 교육체험형 관광자원과 엘도라도 리조트의 휴양시설, 마리나 도크 시설 정비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우전리 솔숲의 그린투어 등 다양한 관광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더욱이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거행한 우전해수욕장 일대에서 펼쳐진 “제1회 중도 갯벌 올림픽”이라는 축제 행사는 갯벌과 해상을 하나의 스포츠 관광지로 변모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이벤트이다.

3) 화도

- 부속도서인 화도는 노두로 본섬과 연결되어 있는데, 길이는 1.5km 정도이고 폭은 3m 정도이다. 자동차가 왕복할 수 있고 노두 주변에 갯벌이 잘 형성되어 있어 노두와 갯벌체험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화도 초입에 방치된 폐교의 활용도 구상해 볼 수 있겠다. 화도 주변에는 관광객들의 숙박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을 위한 민박 또는 수련원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노두 주변에 펼쳐진 드넓은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해양생물을 체험하고, 간조 시와 만조시에 일어나는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화도 주민들의 갯벌 어로활동과 양식장을 활용한 갯벌농장의 관광자원화도 구상할 수 있다.
- 갯벌의 탁한 색상과 몸에 묻었을 때 불결하다고 느끼는 도시의 아이들에게 갯벌의 소중함과 다양한 해양생태자원, 그리고 어촌이 친근한 생활공간이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 목적의 관광 프로그램의 도입도 절실하다.
- 외국의 경우, 갯벌에 대한 보존과 관리에 대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안 갯벌지역은 대부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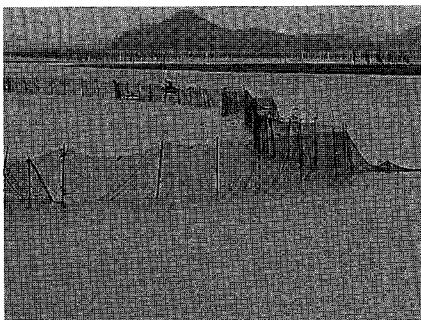


갯벌 체험관광

- 우리의 갯벌 관광은 매우 적극적인 성향으로 직접 갯벌에 들어가 몸소 체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갯벌 생태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위주의 갯벌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갯벌은 철새도래지인 경우가 많아 탐조를 위한 관광의 성격이 강하다.



- 중도의 경우, 갯벌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타 도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시설이 정비되고 있으나, 안좌, 팔금, 임자, 압해, 지도 등 기타 도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신안의 가장 대표적인 자원이 갯벌이다.
- 따라서 체험관광이 가능한 갯벌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제도를 도입하여 교육 목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경우 체험관광 지도자 양성과정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갯벌 생태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 전통어로문화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면 하나의 어촌 체험관광 패키지 상품의 구성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의 골자는 전통漁具 (개막이 그물, 독살, 덩장 등..)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상한다.
-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통 어로문화 해설가를 양성하고 지역 어촌문화를 직접 관광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노년층은 도시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갯벌 체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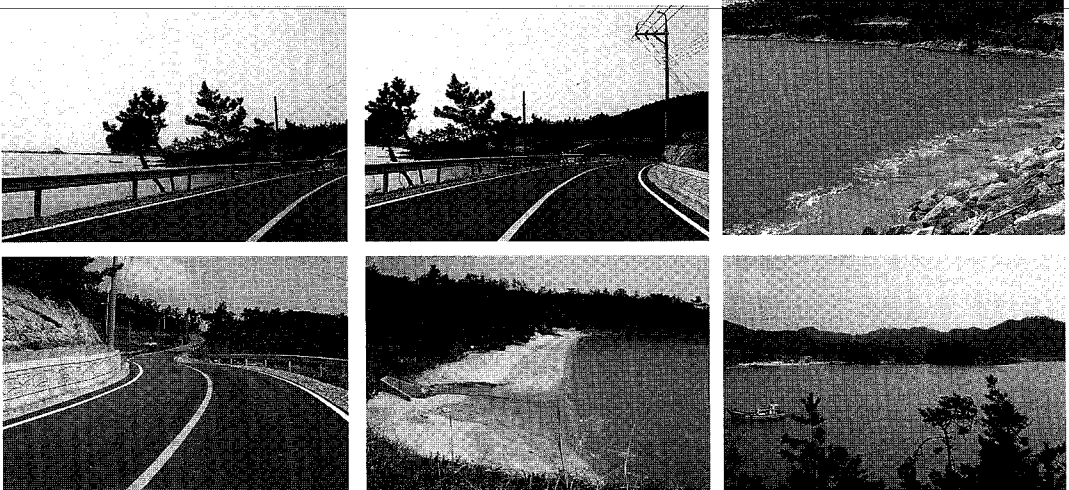


갯벌 체험2

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해안도로와 검산항 일대

- 중동리를 지나 검산항을 거쳐 해저유물 발굴 기념비까지 이어진 해안도로는 중도 서쪽의 해안절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해안도로는 중도 해저유물 발굴 기념비가 세워진 곳까지 정비되어 있으나, 향후 북부 해안을 거쳐 일주도로가 완공되고 사육도와 연도되면 해안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일부 구간만 개통이 된 상태이지만, 해안도로 주변에 펼쳐진 중도 부속도서와 다도해와의 화려한 절경이 빼어난 곳이다.
- 해안도로 중간 지점에 있는 검산항은 중도에 별다른 음식점이 없다는 점과 중도의 특산품인 민어, 병어 등이 많이 잡히는 곳으로 Seafood Town을 만들어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전통어획 방법인 작살을 이용하여 포획하는 체험관광형태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 해안도로 곳곳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곳에는 간이 위락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접객시설을 정비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흥미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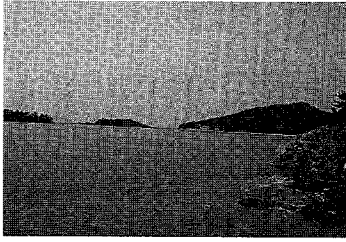
해안일주도로 주변

5)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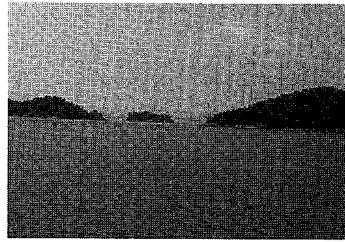
- 송·원대 유물 발굴 해역은 역사공원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현재로서는 해저유물 발굴 기념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발굴 당시 인양된 유물 등을 일부라도 전시하고 역사적인 관광자원으로서 근방에 해저유물 야외 전시관, 전통 어선모형 전시회 등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야외 공원화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전남의 인근지역을 표적시장으로 하여 수학여행 또는 야외탐방 학습을 유치한다면 적지 않은 관광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전면적인 개발과 관광상품을 발굴하여 기획한다면 전국적으로 수학여행단의 유치도 예상할 수 있다.
- 중도의 해양관광루트는 역사문화체험 크루즈 항로로 개발이 가능하다 하겠다. 특히 중국과의 고대 소통로라는 점을 부각한다면 한·중간 국제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도 있다.
- 갈마도의 패총과 지석묘, 그리고 임자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고인돌을 보존 내지 복원하여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높은 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된다.
- 해저유물이 발굴된 해상에서는 “신안의 보물찾기”라는 테마를 접목하여 스킨스쿠버 또는 스노클링 등을 할 수 있는 부표를 정비하여 청소년들에게 해양레저 체험의 기회와 함께 역사문화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6) 자연생태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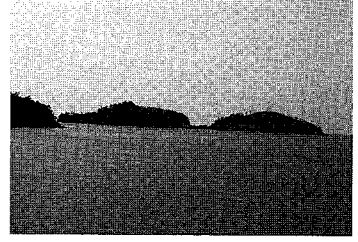
- 중도는 갯벌이 많고 소금이 유명하다. 이에 우전리 해수욕장 일대 갯벌 생태 체험, 태평염전 소금 모으기 체험과 염전전망대 오르기 체험, 벼락섬, 대섬에서 가족단위 낚시 체험 등 해양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과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대거 방문하도록 유인한다.
- 주말농장과 비슷한 의미의 “주말갯벌농장”을 운영하고 태평염전 소금축제 등을 개발하고 잘 가꾸진 해안선을 활용 마라톤 대회 등을 개최하여 외지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중도의 북서쪽으로는 수많은 부속 도서 등이 분포하여 해양에서 육지를 바라보는 이색적인 경관이 펼쳐질 뿐만 아니라 해상에 떠있는 작은 무인도와 바다와의 조합이 경관을 이루고 있다.



도덕섬



벼락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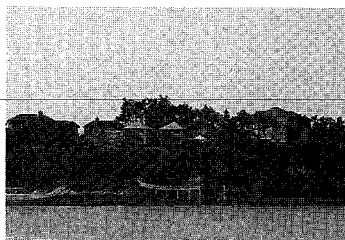


대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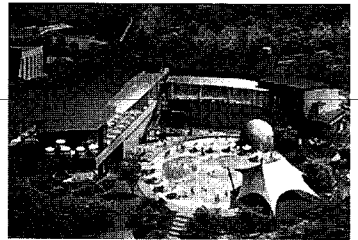
- 지금 건설 중인 엘도라도 리조트는 멤버쉽과 오너쉽이 필요한 콘도미니엄 형태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숙박시설이다. 고품격의 해양별장을 건설한다는 당초의 취지와 사업계획은 매우 바람직하나, 아직 연도가 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수요가 충분히 발생할지 의문이다.
- 일반 여행객들에게 부대시설은 공개가 되겠지만, 대중적인 시설과 안락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일부 수요를 완전히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우전해수욕장 주변에 숲을 이용하여 서민들이 사용하기 쉬운 숙박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엘도라도 리조트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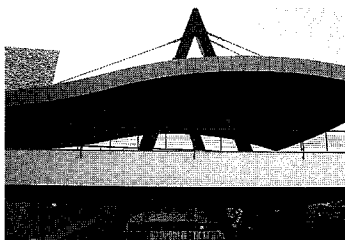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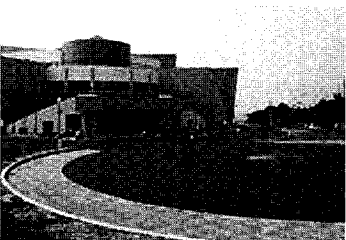


엘도라도 리조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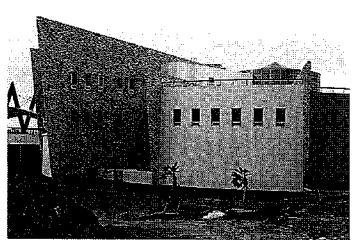


엘도라도 조감도

- 중도 관광의 또 다른 특징은 게르마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갯벌이 많다는 점이다. 갯벌을 이용하여 체험할 수 있는 갯벌 생태 탐사 등의 체험관광을 활용하여야 한다.



갯벌 생태전시관



는 곳이므로 절경을 보기 위해 드라이브 코스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안도로 연결이 시급하다.

- 방축리 앞 도덕섬, 호감섬, 대섬, 부남섬 일대는 화려한 경관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곳은 요트 정박지, 크루즈 등 해양레저 스포츠의 요충지가 될 수 있다.
- 부속도서인 화도는 본섬과 노두로 연결이 되어있고 해당화가 절경을 이루는 아름다운 섬이다. 노두를 걸으면서 자연생태의 갯벌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또한 화도 주변의 도서들은 경관이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은 도서이다. 아름다운 화도를 가꾸고 보존하면 많은 관광객의 유입이 예상된다.

9) 섬, 갯벌 올림픽

- 제1회 증도 섬, 갯벌올림픽이 개최 되면서 신안군 최고의 관광지로서 위상이 정립되고 원활한 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입으로 군정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민은 갯벌올림픽을 통한 관광객 집객효과를 통한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창출되고 신안군 위상이 높아짐에 따른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이 고취될 것으로 보인다. 갯벌 올림픽을 계기로 신안군 관광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신안에 대한 새로운 지역 이미지 창출이 기대 된다.
- 축제를 통해 신안의 섬 알리기 캠페인과 동시에 신안의 농수산물 판촉 전략을 마련하고 각종 특산물과 수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관광객들에게는 농수산물을 이용한 음식 무료 시식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10) 제 1회 섬, 갯벌 올림픽 개요 및 행사 프로그램

행사명	제 1회 섬, 갯벌올림픽 축제
기 간	2006년 8월 4일(금) ~ 8월 7일(월) : 총 4일간
장 소	신안군 증도면 우전해수욕장 일원
컨 셉	보물을 찾아 신안으로!! 섬, 갯벌 올림픽으로
테 마	보물섬 신안!! 섬, 갯벌 올림픽

행사 프로그램 (안)

8월4일(금)	8월 5일(토)	8월6일(일)	8월7일(월)
	갯벌미니 올림픽 (배구대회, 낚시대회, 풋살대 회, 비치발리볼, 줄다리기 등)	갯벌 미니마라톤 갯벌	미니 올림픽 갯벌 미니 올림픽
성화 봉송 퍼레이드	보물섬 갯벌 마당놀이	보물섬 갯벌마당놀이	각종목별 시상식
	보물섬 댄스 페스티벌	보물섬 클래식음악회	보물섬 해양민속공연
보물섬 갯벌 퍼레이드	보물섬 해양민속공연	보물섬 신안 갯벌 가요제	보물섬 락 페스타
길놀이 및 식전공연	보물섬 가족 뮤지컬		전라남도 도립국악단 공연
개회식 및 개회선언	섬, 갯벌 올림픽 방송 축하쇼	7080“한여름 밤의 꿈”	폐막 공연행사 ‘바다의 미래, 섬드리’ 폐회식(폐회선언) 갯벌화합 한마당 놀이
개막주제행사공연 “푸른 바다, 푸른 신안”			
보물섬 신안!! 멀티미디어쇼	보물섬 시네마 천국 이벤트		폐막 불꽃놀이

중도



자연자원

1. 중도의 간척지 모습
2. 우전해수욕장
3. 중도의 풍수
4. 기암괴석 '뽕풍바위'
5. 다리경관 '깽둥이다리'
6. 태평염전과 소금집
7. 갯벌생태전시관
8. 중도 낚시터
9. 엘도라도 리조트

생태문화자원

1. 락대봉
2. 화도
3. 기점
4. 도덕도
5. 뽕풍도
6. 천일염
7. 중도 우전리 노거수
8. 중도 우전리 솔밭(금술)
9. 뽕풍도 담숲
10. 호랑이바위

선사문화자원

1. 증동리지석묘
2. 갈마도패총
3. 우전리지석묘

해양문화자원

1. 송원대 유물매장 해역
2. 신안해저유물발굴기념비
3. 문준경 진도사 순교지
4. 태평염전
5. 壬申防厄石
6. 항일포

유교문화자원

1. 坡平尹氏烈行碑閣
2. 鄭奇裕頌德碑
3. 文俊卿紀念碑
4. 徐珍基遺蹟碑
5. 鄭泰熙遺蹟碑
6. 利川徐氏齋閣
7. 金重仁功績碑
8. 追慕齋
9. 務安朴氏齋閣
10. 南相峻功蹟碑
11. 德鼎齋
12. 鄭奇裕功蹟碑